

2002년 국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보고서

조사연구에 대한 요약

한국정신대연구소에서는 여성부의 지원으로 일본 오키나와와 중국 해남도를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현지에 남겨진 피해자(생존자등) 조사와 당시 피해의 실상, 가해구조(군.기업 등)를 밝히는데 두었다. 또한 이미 확인된 생존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존자를 찾는 후속조사도 수행하였다.

우선 오키나와 조사는 강정숙, 서은경, 안이정선, 이선이가 참가하였다. 1차 조사는 2002년 7월 6일-13일, 2차 조사는 9월 29일-10월 8일에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된 추가조사가 후쿠오카에서 11월9일-12일에 있었다.

오키나와의 1차 조사에서는 생존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현지 활동가 등의 도움을 받아 [류큐신보][오키나와타임즈] 신문과 [라디오 오키나와] 방송을 통해 우리의 조사 목적, 특히 생존자를 찾는다는 것을 알렸다. 한편으로 대한민국 민단 오키나와 지부, 일본 법무성 후쿠오카 입국관리국 나하시국 등을 통해 재류 한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뿐만아니라 오키나와 본섬. 도카시키. 미나미다이토. 이시가키. 이리오모테 등 현지 조사와 더불어 오키나와 전쟁사와 오키나와 군‘위안부’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와 활동가들과 만나 조사의도를 설명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의 교류도 도모하였다.

일본국 법무성 관련기관을 방문조사한 것은 생존자가 존재할 경우 치할 상황과 관련하여 재류외국인, 귀화,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하였다. 법무성 福岡입국관리국 나하시국에서는 현재 재류외국인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고 각 시정촌에서 가지고 있고 법무성에선 나이별 재류외국인 통계를 내고 있었다. 오키나와 재류 외국인통계 중에서 생존자 나이가 1945년 당시 15-30세 범위 내에 들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조사해 보았다. 류큐가 일본 오키나와현으로 복귀된 이후 처음 간행된 1973년 자료로는 43-58세 범위의 여성을 추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2000년(출간은 2001년) 현재는 70세에서 85세 범위가 된다. 5세 사이 연령대를 합산한 자료이므로 다소 오차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피해자 나이 범위 속에 들어가는 여성의 수를 정리해 보면, 1973년 이후 대상 나이 범주 내 들어가는 여성이 1973년 31명, 1984년 11명, 1988년 16명, 1990년 12명, 1994년 12명, 1995년 8명, 1996-98년 사이는 9명, 1999년 8명, 2000년 8명이었다. 조선인 피해자로서 일본 패전 이후 국적을 바꾸지 않고 이곳에 살고 있다면 분명히 이 수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확실히 하기 위해선 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밝혀내어야 한다. 이를 파악해 내는 데는 일본국 관련 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에 대한 조사이다. 귀화자에 대해선 일본 법무성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극도로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인다. 전체 생존자가 다 일본국의 도움을 신청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나 일본국에는 생활보호법이 있어 국적을 불문하고 열악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그런데 생활보호법 혜택을 받는 이들에 대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는다. 위 재류자, 귀화자, 생활보호대상자

세가지 차원으로 접근을 해 보았으나 이것은 일개 단체의 접촉으로 불가능하였고 양국간의 교섭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이러한 작업과 현지조사를 통해 생존자에 대해선 몇 가지 단서가 잡혔으나 생존자가 자신을 드러내거나 피해 생존자임을 확실히 파악하는 데는 좀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문제는 피해자 인권, 사생활 보호란 측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점이였다. 늘 생존자를 조사할 때 부딪치는 어려움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더욱 어려웠다.

이번 조사의 두 번째 목적은 실태조사이다. 이를 위해 현지답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성과는 라사섬 진중일지를 입수하고 여기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고 새로운 정보가 담긴 미간행 수기를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또 오키다이토지마에 대한 핵심적 정보를 가진 전일본군 생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것이었다. 오키다이토지마(라사섬)에 주둔한 군인 3명이 그것이다. 이리오모테에서도 위안소 및 '위안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려준 전일본 군인과 군속 2명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민들을 통해서 오키나와 여성과 처지가 어떻게 다른지, 당시 '위안부', '위안부'제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다.

오키나와지역에는 군위안소가 130개소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오키나와지역은 1944년 이전에는 대만에 가까운 이리오모테섬 요새사령부 등 소규모 부대를 제외하곤 대단위 부대가 주둔하지 않았다. 이것이 1944년에 일본이 패색이 짙은 시기에 오키나와를 결전지로 삼을 양으로 10만이 넘는 군대가 진주하였다. 그래서 이리오모테 등 몇지역을 제외하곤 조선인 여성이 이곳으로 연행된 것은 대부분 1944년 이후이다. 이곳으로 연행된 조선인 여성의 수는 현지 조사자에 의하면 584명 이상(賀數カズコ), 700명 이상(福地曠昭), 나아가 1500명 등 오차 범위가 크다. 이러한 수의 여성들이 130여개의 위안소 중 49개의 위안소(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34소까지 합하면 그 이상)에 오키나와 여성들과 함께 또는 따로 수십개의 섬에 흩어져 성노예가 되었다.

일본군'위안부'의 동원과정을 간단히 보면 일반적으로 일본군의 요구가 제시되어지면 이것은 조선총독부, 각 단위행정기관이나, 권력을 가진 개인, 취업 메카니즘 등 다양한 구조, 체계를 통해 성년 미성년의 여성들이 일본군 주둔지로 수송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수송에는 조선과 일본의 행정당국과 주둔 일본군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실제로 전쟁 막바지였던 1944년 오키나와로 이동한다는 것은 아주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 여성들은 이번에 확보한 전일본군 수기와 진중일지, 오키나와인 증언 등에서 드러나듯이 이들의 이동은 일본군함의 호위 하에 이루어졌고 조선인 여성이 수송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만 해도 1944년 11월 오키나와 본섬에 도착한 징용선 말레이마루, 11월 23일 라사섬 도착의 일본군함, 1945년 1월 가고시마 발 나하 도착의 일본군인과 징용자들이 탄 배 등이다.

조선인 여성들은 오키나와 본섬으로 이송됨과 동시에 본섬 각 지역과 각 섬에 배치되었다. 자료로나 증언에서 조선인 '위안부'가 확인되는 지역은 오키나와 본섬, 게라마제도(도카시키, 자마미, 아카), 미야코, 야에야마제도(이시가키, 이리오모테, 요나구니), 다이토지마(미나미, 오키) 등에 달한다. 이러한 지역에서 부대 책임자는 육군은 제32군 사령관 우시지마(牛島 滿)사령관, 참모 長勇소장, 이하 각 사단. 여단. 단위부대장이다. 즉 제24사단장 雨宮巽 중장, 제28사단장 納見敏郎中將, 제62사단장 藤岡武雄중장, 독립 혼성제44여단장 鈴木繁二 소장, 독립혼성 제45여단장 宮崎武之少將, 독립혼성 제59여단장 多賀哲四郎 少將, 독립혼성

제60여단 安藤忠一郎 少將, 제28사단의 대동수비대(제36연대)장 田村權一大佐, 대동도 지대장 深谷正 중좌 등이 직접 군위안소 관련 부대 책임자들이다. 해군으로 확인된 것은 케라마 제도에 주둔하였던 해상정진기지 제1대대장 小澤義廣 소좌, 제2대대장 古賀宗市 소좌, 제3대대장 鈴木常良소좌 등이다.

각 지역에 배치될 때 이와 함께 이미 정해진 위안소 규정이 송부되었다. 그리고 일본군은 군인이 직접 나서 군부대 재원으로 위안소를 건축하게 하거나 장소를 지정하며 여성들이 쓰는 생필품까지 세세하게 규정하였다. 실제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주민 기억은 구체적이지 않다. 그것은 조선인 여성들이 있었던 위안소가 대부분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군인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한 위에서도 본 조사를 통해 오키나와여성에 비해 조선인 여성들이 나이가 어렸고 공창에 있지 않은 여성들이 많이 동원되었으며 위안소도 더 고립되고 통제받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1944년 10월 10일 미군에 의한 나하대공습, 1945년 4월 1일 미군 상륙, 그 이후 제32군이 붕괴되던 6월23일까지 ‘철의 폭풍’이라고 말하는 戰禍가 있었다. 당시 오키나와 인구 약 60만명 중 18만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일본 정규군 전사자는 65,908명이었다. 당시 오키나와 인구 1/3, 일본 정규군의 1/2 이상이 사망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대에 의존하고 있었던 ‘위안부’들은 군인들의 의도에 따라 어느 곳에서는 동굴에까지 위안소가 설치되어 끌려다니기도 하였고 한편으론 군인들만 들어가고 유일한 대피소였던 동굴에서 추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일본 패전 후 오키나와에 있던 조선인 여성들은 馬堀수용소, 이시가와(石川) 민간인수용소에 수용되었다. 1945년 11월까지 류큐제도에 살아남아 미군에게 파악된 조선인 ‘위안부’는 150명이었다. 이 150명은 귀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가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이 150명 이외 정보가 없어 귀환하지 못하거나 배봉기할머니처럼 자의반 타의반 이 지역에 정착한 이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에서 파악한 바로는 종전시기에 생존한 피해자 수는 168-9명 이상에 달하였다고 본다. 그중 확인된 18-19명 이상의 여성은 고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오키나와 등지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몇몇 증언과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이고 얼마만큼의 여성들이 이곳에 남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오키나와는 위안소 건축과 운영에서 일본군의 관여가 문헌자료와 증언 자료 등에서 명명백백하게 확인되는 곳이다. 그리고 이 지역 위안소는 일본이 패전이 임박한 전쟁 말기인 1944년 이후에 대부분 설치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군이 군위안소 설치와 운영에 얼마나 큰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미 일본군,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제도라는 범죄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운영하는데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기업의 관여이다. 오키나와 조사에선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것 즉 수송에 관여한 선박(마레이마루호 등), 전시물품 생산유통하는 기업(위안소에 필수용품으로 제공되었던 샷쿠생산 오카모토주식회사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오키나와에서는 어떠한 기업들이 전쟁과 군위안소 경영에 협조하였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추출해야 하나 이번 정리에선 이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이외에도 오키나와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성과는 일본군의 범죄행위가 자료를 통해 그리고 각 섬 주민들과 전군인군속의 증언과 위안소터를 답사를 통해 확연히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 현지 조사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오키나와 생존자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할 수 있었으며 현지의 문헌자료를 입

수하였다. 그 중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적 연결망을 튼튼이 했다는 점이다. 제한된 시간으로 얻고자 한 것을 이번에 다 얻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이 연결망을 기초로 이후에도 지속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조사에서 매우 큰 성과라고 본다.

해남도 조사는 신영숙, 김미정, 서은경, 유해정과 「일본 기주(紀州)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회」의 사토 쇼진, 김정미씨가 함께 하였다. 2002년 10월 13-24일, 중국 해남성의 해구, 삼아시 등 거의 전역에 걸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실태 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현지의 해남성 정치협상회의는 물론, 해구, 삼아시 등 주요 십 여 개 현을 비롯한 시, 진, 촌의 정협 문서자료연구위원들이 함께 하여 당시의 일본군 주둔지와 위안소 등지를 답사하고, 성노예 피해자와 관련자들을 만나는 등 심층 조사로 이루어졌다. 즉 현지의 소수민족인 여족, 묘족 피해여성 4명과 당시 목격자를 포함하여 연구자 등 수십 명을 만나 증언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이미 별세한 한국인 피해자 박래순씨의 묘소와 그가 살던 집, 친구들을 만나 자료를 수집하였다.

97년 중국 조사에 따르면 하이난성의 1939-1945, 피해 상황은 당시 총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40만명이 사망하였고, 위안소 67개에 성노예 약 1만명이 있었다. 그 중에는 한족과 현지의 소수 민족(여족, 묘족), 특히 조선인을 비롯한 외국인 여성이 다수였다. 즉 해구에 6개소, 삼아의 11개소 등 성노예 수 백명은 모두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여성을 강제 동원하거나 외국 여성 즉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서 끌려온 사람들이었다. 한국에 귀국한 피해 여성은 현재 3명이 밝혀져 있으나 그 중 1명은 이미 별세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증언자들은 한결같이 한국인 여성이 많았다고 하였으나 현지에 남아 있는 생존자는 찾기 어려웠다.

우리 조사의 두 번째 목적이었던 일본군과 기업의 가해구조의 실상을 밝히는 작업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즉 해남도에서 일본군과 기업이 긴밀한 연계 아래 철강석 등 자원과 노동력을 수탈하고, 여성을 성노예로 유린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대표적인 예로 ‘위안부’의 징집도 대만의 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시작되었다. 척식주식회사는 대만총독부의 의뢰를 받아 위안소의 건설뿐만 아니라 ‘위안부’의 징집과 송출에도 깊게 관여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군부대와 비행장, 광산 등 기업과 그 시설물, 그리고 위안소는 한 곳에 모여 있었고, 그 이용조차 군인 군속을 위한 군대‘위안부’와 기업‘위안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만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전 후 해남도에서 계속 살았던 유일한 피해자 고 박래순씨는 호적상 1916년생으로 18세에 한국을 떠나 1942년 26세에 이곳으로 왔다고 한다. 이후 내내 해남도를 떠돌다, 보정현 공로국에서 일하다 퇴직 후 2년 정도의 투병 생활 끝에 1995년 7월 별세하였다. 지금까지 묘소를 돌봐주는 할머니의 친구 등을 만나 감사를 드렸다. 박씨의 국적은 「남조선」으로 외국인 거류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 해남도에서 50년 이상 살았어도 조국은 언제나 한국이었고, 한국인으로 살았던 것이다. 현재 마산에 살고 있는 유족으로 큰 조카 며느리와 박씨 집안의 장손을 확인하여 할머니의 소식을 전하였다.

한편 중국의 한족 여성들은 아직도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고, 현지 묘족, 여족(소수 민족) 피해자 4명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의 피해는 그 어느 곳 여성보다 더 참담했다. 즉 그들은 주로 ‘전지후근복무대(후방 여성의 근로정신대와 흡사한 의미를 갖는다)’로 ‘쾌락원’, 쾌락방, 낙원 등의 이름으로 불린 위안소(주로 민가 접수, 또는 겨우 야자수 정도로 설치)에서 아주 손쉽게 성노예로 쓰였던 것이다. 일본은 전쟁 말기에 현지 여성을 성노예로 이용하

는 일을 노골적으로 행하였고, 이들은 부모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행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 중 몇 명은 현재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일본 국가(대표, 법무대신)를 상대로 전시 여성인권 범죄, 즉 자신들이 당한 인권 유린과 트라우마에 대한 일본 국가의 사과와 배상을 청구하는 세계 최초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름하여 「해남도 사죄문 교부 등 청구사건, 돌려달라 나의 명예와 존엄을!!」 소송이 2000년 7월부터 진행 중에 있다.

끝으로 조선보국대 등 강제 징용자의 대표적 학살지, 「조선촌」과 여러 곳의 만인갱을 답사하였다. 문제는 이들의 유골도, 유족도 확인되지 않은 채 구천을 떠도는 조선촌이 해남성 조선촌, 팔소, 구소, 황류 등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나 한국인의 관심은 화려한 관광지 해남도, 골프장이나 신혼 여행지로서의 해남도의 그늘에 영원히 가려 살아날 수 없는 것인지, 역사의 진실과 그 의미를 새삼스레 새겨보게 된다.

그래도 이번에 한중일 3개국이 연대하여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사,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심층 연구를 기대해 본다. 왜냐하면 이는 분명 보편적인 세계의 전쟁과 여성인권 문제이고, 우리 한국은 늦었지만 그 첫발을 내디딘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순전히 한국 여성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국외 일본군‘위안부’ 실태 조사를 통해 생존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따르는 후속작업의 필요성이다. 생존자가 출현한다면 친척 찾기, 고국 방문과 국적 회복의 요구가 일반적으로 따를 것이다. 생존자가 이러한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국적을 회복하여 한국의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후속조치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거나 다른 이유로 국적회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인도적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그리고 일정의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에 현 주거지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경우 현재 상당한 노인이므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또 일본군 성노예문제와 한국정부 조치가 가지는 의미, 운동에 대한 의의와 취지 등을 설명해 내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 국내에서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국외 거주자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도 튼튼한 인적 연결망과 꾸준한 연대작업이 필요한 대목이다.

2002년 국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보고서

목 차

1부. 개괄

- I. 조사 목적과 사업범위
- II. 조사 성과 및 과제

2부. 오키나와 조사보고

- I. 생존자 확인을 위한 기초조사
- II. 오키나와 조사기(9월 30일-10월 6일)
- III. 오키나와 전쟁과 일본군 위안소 분포
 - 1. 오키나와 일본군 ‘위안부’
 - 2. 게라마 열도
 - 3. 다이토 섬(大東島)
 - 4. 이리오모테와 이시가키 섬

부록 1 일본군 자료

부록 2 증언

부록 3 오키나와 위안소 지도와 관련하여

부록 4 배봉기 할머니 연포 및 관련자료

부록 5 오키나와 ‘위안부’ 관련 자료 목록

3부. 해남도 조사 보고

I. 일정 보고(10월13일~24일)

II. 본 보고

- 1. 일제의 해남도 침략사
- 2. 군위안소와 군성노예 여성
 - 1) 위안소의 설치와 특징
 - 2) 군성노예 피해자의 동원과 생활
 - 3) 피해자의 전후 생활과 트라우마 문제
- 3. 해남도와 조선인 강제동원.연행
 - 1) 강제동원의 배경
 - 2) 조선총과 조선보국대
 - 3) 석륙광산과 전독광산

- 4) 만인갱
 - 5) 황류비행장
- 소결

III. 일본팀 공동 조사 보고

- 부록 1. 증언
- 부록 2. 번역 자료
- 부록 3. 기타

4부. 후속 작업 보고 및 과제

- I. 후속 작업 내용
- II. 이후 과제

2002년 국외 일본군 ‘위안부’ 실태조사

1부. 개관

I. 조사 목적과 사업 범위

일제에게 강제 연행된 사람들 중에는 귀국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일본군 성노예 처지에 있었던 여성들은 종전 전후하여 일본군에 의해 유기나 학살을 당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국제법에 의거해 당연히 이들을 귀국시켜야 했지만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군 성노예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 지원조사를 53년이 지난 2001년에 비로소 시작했으나 아직 귀국조치를 취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 생존자가 있다고 해도 노령이어서 언제 한을 품은 채 이국 땅에서 사망할 지 모른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생존자 조사와 귀국조치는 민족 국가가 성립해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며 이에 대한 파급효과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피해실상에 대한 조사는 생존자 조사와 함께 당시 일본군 ‘위안부’제의 운영과 ‘위안부’의 삶을 매우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작업이다. 한국 내 문헌자료가 매우 적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해외로 연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안소 분포, 연행방식, 일본군의 위안소 파악방식, ‘위안부’의 처지, 귀국과정, 현지에 남겨진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는 일제의 성노예제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해당 지역을 담당하였던 일본군 체계와 일본기업의 관련성에 대해 주목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는 피해자 증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셈이고, 문헌 자료는 일본학자나 일본단체의 조사에 거의 의존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지 조사는 이러한 제한된 측면에서 벗어나 피해자와 일본정부와 기업이라는 가해자, 전쟁터가 된 제3의 점령지민이란 삼자 구도 속에서 일본군의 책임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소송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게 제기된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련된 기업의 구체적 관여방식도 밝혀 보았다.

또한 오키나와현은 일본 패전 후 30년 가까이 미국 점령 하에 있었고 그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독자적 사업을 많이 하였고 문서자료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오키나와 현립 공문서관 자료를 입수하는 것도 이번 사업의 목적이었다.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해남도에는 일제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1938년 9월 대만, 남양군도를 통합해 제국남방정책의 전진 거점으로 한 후 1939년 2월에는 일본의 육해군이 해남도를 점령, 곧바로 군정을 실시한 곳이다.

종전 때까지 이곳에서 조선인 성노예와 조선보국대(남방과견보국대) 등 강제 징용자는 그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엄청난 피해를 본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그 중 대부분이 아사, 병사, 아니면 집단 학살되고 소수의 귀국자 중에 현재까지 밝혀진 수 명의 생존자 이외 그 유족이 현재 한국에 살고 있다. 즉 해남도에는 군인, 군속을 위한 위안소가 전 섬에 60여개 이상 있었고, 성노예 여성이 1만명이나 되었다. 그 중에는 귀국한 피해자 김옥주, 이영이, 이옥금씨와 귀국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운명한 박래순씨 등이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소는 분명히 아직도 해남도에 한국인 피해자가 생존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찾는 것을 이번 조사의 첫 번째 목적으로 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성노예를 비롯한 강제 징용을 한 일본군부와 기업의 가해구조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는 군인으로 또는 강제 징용으로 해남도에 갔다는 장달웅씨 외 몇 남성 피해자들이 위안소를 이용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군대위안소와 기업위안소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지. 군인과 군속과 노무자, 그리고 성노예 여성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을 보고자 하였다.

셋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 연구가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 수집과 정리, 심화된 조사 연구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서는 진실의 구명과 역사의 교훈을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본 조사의 방법은 첫째, 관련 문헌은 물론 비디오 테이프 등 자료를 수집, 정리, 검토하고, 지속적인 학습과 토론을 하였다. 둘째, 해외 관련자는 편지와 전화 등으로,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대해서도 증언을 들었고, 채록하였다. 셋째, 조사에 필요한 현지 연구자, 관련자들을 사전에 섭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해남도 조사에선 일본의 김정미, 사토 쇼닌씨가 공동연구원으로 참가하여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일정을 비롯한 조사 방법을 논의하였다. 이같은 일련의 작업은 본 조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는 데 중요한 필요조건이었다.

II. 조사 성과 및 과제

1. 조사 성과

1)오키나와

오키나와 조사는 1, 2, 3차로 이루어졌다. 1차 조사는 주로 오키나와 본섬을 중심으로 한 생존자 조사를 위한 기초적 작업과 배봉기 할머니가 있었던 도카시키섬 조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2차는 오키나와 본섬 자료 조사와 함께 다이토, 이리오모테, 이시가키지마 현지 조사를 하였다. 3차는 후쿠오카에서 오키나와에 주둔하였던 전일본군 증언 채록을 위한 조사였다.

생존자 조사는 오키나와 신문, 라디오 등을 활용하고 오키나와 민단과 관공서, 관련자들을 통해 확인하도록 노력하였다. 오키나와란 지역적 특성 상 이와 같은 생존 피해자들이 지금도 각 섬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있다. 특히 오키나와 본섬과 이리오모테 등지의 생존자에 대한 정보는 꽤 구체적으로 접근하였다. 생존자를 확증할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인권문제나 기타 문제에 의해 아직 확증하거나 일반에게 알릴 상태는 아니다. 현지 연구자 및 활동가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였기 때문에 확인작업은 앞으로 좀더 진전될 것으로 본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또하나 주목할 성과는 전일본군 생존자들을 확인하고 이들을 통해 귀중한 증언을 받은 것이다. 이리오모테에 근무한 전일본 군인과 군속 2명과 큐슈에서 귀가하는 징용자 증언을 통해 위안부 수송과 위안부 실상에 대해 구체적인 증언을 얻었고 라사섬(오키다이토)에 주둔한 군인 3명과 연락이 이루어졌다. 두사람은 증언을 할 상태가 아니었지만 한사람을 통해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위안소 실태 규명을 위해선 위안소 유적에 대한 답사와 전 군인,주민 등의 증언과 자료 수입 및 확인을 통해 수송과 배치에서, 그리고 군위안소 건축과 관리 통제에서 일본군의 책임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오키나와에 연행되었던 조선인 군‘위안부’와 군부 군인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에서 오키나와에 연행된 조선인 군‘위안부’ 수와 위안소 수 등이 대강이지만 추정치를 확보할 후 있었다. 즉 오키나와에 130개소 이

상의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이 중에 49개소가 조선인 군‘위안부’가 있었으며 국적 불명인 30여곳도 다수 조선인 위안부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곳에 584명 이상, 700명, 1500명 등으로 현지 연구자들은 조선인 여성의 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소가 현지 조사결과 최소 700명 이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생존자 조사와 관련하여 배봉기 할머니와 같이 일본 패전 이후 얼마나 되는 생존자가 있었을까. 그리고 귀국하지 않은 여성의 수는 얼마나 될까 한 점이었다. 오키나와는 생존자로서 처음 우리에게 알려졌던 배봉기 할머니가 있었던 곳이다. 이번 조사에선 배봉기 할머니가 있었던 도카시키섬과 오키나와 본섬에서 1972년 생존이 확인된 이후 할머니를 돌봐주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와 도카시키섬 주민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오키나와에 연행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해방 직후 생존한 수는 168-9명 정도가 되었다. 이 중 귀국하거나 종전 직후 일본으로 이동한 157명을 제외한 11-12명 정도가 오키나와에 남아 있었다고 확인하였다. 이것은 제한된 범위내의 주민 증언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수이고 이외 얼마나 더 있는지는 현재로는 확인할 수 없다.

오키나와에서 자료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조사 방법을 파악하였다는 것은 수확이다. 그리고 주민들을 통해서 오키나와 여성과 처지가 어떻게 다른지, 당시 ‘위안부’, ‘위안부’제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오키나와 위안소 운영 등과 관련된 기업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선 꽤 집중적인 연구와 조사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선 그 실마리를 잡아내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선박에 대해선 1944년 11월 오키나와 본섬에 도착한 정용선 말레이마루(배봉기 등 수십명의 여성 승선), 11월 23일 라사섬 도착의 일본군함, 1945년 1월 가고시마 발 나하 도착의 일본 군인과 징용자 등이 탄 배가 조선인 여성들을 수송하였다. 이것은 현재 모두 배이름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선박항로나 일시를 근거로 선박회사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고자 노력하는 활동가들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헌신성에 많은 자극을 받았다. 일본 활동가들이 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교훈을 얻었다. 한일 연구자, 활동가들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내었다는 점도 이번 조사에 꼭 언급할 성과이다.

2) 해남도

이번 조사는 첫 번째 목적인 생존자를 찾는다는 실패한 셈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 박래순씨의 묘소만을 찾아보고 명복을 빌었고 현지 소수민족 피해여성 4명을 비롯하여, 당시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한 노인과 군 관계자들을 만나 성노예 여성들의 실상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목적이었던 군과 기업의 가해구조는 더욱 분명해졌다.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는 위안소를 비롯하여 일본군의 기지와 광산, 비행장 터 등이 바로 여러 위안소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일제의 군과 기업이 성노예 여성과 강제 징용자 등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한 역사의 진실이 해남도 도처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성과도 있었다. 그것은 이같은 전시하의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여성피해의 재발을 예방하는데 한중일 연대의 조사 연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관계망을 잘 만들어낼 수 있었

다는 점이다. 동시에 그곳 일반인들에게도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켜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보다 확산시키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어낼 수 있었다.

2.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이 조사연구는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해외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해외로 연행당한 한국인 피해자가 일본군 성노예로 겪은 사실을 밝혀내고 한국인 생존자가 아직 이 지역에 남아 있는가를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은 활용과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

- 1) 생존자에 대한 조치 및 생존자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다.
-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범죄성 입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 3) 이 문제와 관련한 국제법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일본군 위안소 운영 자체의 범죄성을 규명하는 증거자료이며 일본 패전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한 귀국 조치하지 않은 점도 국제법적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근거이다.
- 4)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 성교육, 역사교육자료로 삼을 수 있다.
- 5) 강제동원의 역사 및 사회학 관련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 6) 전쟁 중 여성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경고와 문제 해결을 위한 모범을 만들 수 있다.
- 7) 국제적인 인적 연결망을 통해 이 문제의 심화된 연구와 대처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다.

이미 오키나와에선 평화운동 등과 관련한 비정부기구 활동과 학술 심포지움 등에서 이 문제를 논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인의 시각으로 연대활동을 벌이는 것은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국에선 아직 비정부기구 활동이 미약하지만 그 싹이 트고 있어 이러한 활동은 동아시아의 평화과 인권운동의 강력한 끈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다.

3. 남은 과제

오키나와 조사와 연구는 짧은 사업기간으로 자료 수집에 많은 제한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수집된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점도 있어 기존 연구에 많이 의존하였다. 앞으로 충분한 자료 수집과 분석 연구를 거쳐 일반 출판물로 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핵심적 증인들의 면담 거부 등을 통해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 역시 앞으로 진척시킬 부분이다. 그리고 오키나와 게라마제도 아카섬에 군부로 간 한국인 피해자들 중에 아카섬에 조선인 '위안부'와 군부 10명이 살해되었고 이들의 시신을 현지에 묻어둔 곳이 있다고 제보해 주었다. 그러나 시간 부족으로 여기까지 조사하지 못하였다. 이후 그 내용을 확인하고 현지 조사하여 유골을 수습하여 고국으로 모셔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오키나와 본섬의 청구의 탐에 대해서도 좀 더 조사하여 후속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소는 일찍부터 해남도에 대해 관심은 지대했으나 직접 조사하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던 중 마침 여성부의 지원에 힘입어 가능했다. 동시에 일제의 해남도 침략사 연구자인 사토 쇼진씨와 김정미씨가 함께 해남도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큰 자극과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무엇보다 이번 조사는 일제의 만행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그 의미를 더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한중일 세 나라가 협력하여 일제 전쟁 시기 피해 여성에 대한 조사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 더욱이 생존한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증언을 채록하는 일과 트라우마 치료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역사 교육을 하는 일 등이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외도 작년까지 확인된 생존자에 대한 지원 사업도 다각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오키나와제도 전도>

조사지: 본섬, 渡嘉敷島, 南大東島, 石垣島, 西表島



오키나와 중요연표

- 1609년 사쓰마번의 침공
- 1868년 일본 명치유신
- 1872년 琉球번 설치, 외교권 상실
- 1879년 [琉球처분] 오키나와현 설치
- 1898년 오키나와현에 [징병령]시행, 야에야마(八重山)에도 [징병령]적용
- 1904년 러일전쟁
- 1914년 제6사단 연습대 오키나와에서 처음 군사훈련
- 1924년 首里城에 沖繩神社 건립
- 1931년 만주사변
- 1937년 중일전쟁
- 1939년 改姓改名, 국민징용령 공포
- 1941년 태평양전쟁
- 1942년 육군(下永부대)처음으로 西表島 內離에 주둔
- 1943년 伊江島 비행장건설(田村비행장대대 이주)
- 1944년 대본영 직할 제32군(오키나와 수비대)창설

- 1945년 3월 연합군 게라마열도 상륙
- 1945년 4월 연합군 오키나와 본섬 상륙
- 1945년 6월 22일 제32군 사령관 우시지마 등 자살. 오키나와에서의 조직적 전쟁 종료
- 1945년 8월 일본 항복
- 1946년 GHQ, 일본과 남서제도의 행정분리 선언
- 1951년 일본 복귀운동 시작
- 1972년 일본 복귀, 沖繩縣 발족

2부 오키나와 조사보고서

I. 생존자 확인을 위한 기초조사

일단 한국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 의해 일본 오기 전 우선 오키나와 민단과 접촉하였다. 민단을 통하여 오키나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키나와나 피해생존자에 대한 정보를 좀더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 장기 체류자를 알아보았다. 이에 의해 일차적인 정보를 확인하였지만 아직은 의미있는 정보는 입수하지 못하였다. 대신 출입국관련자료나 귀화자, 지역별 한국인자료, 외국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통해 생존자 확인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였다. 아래는 그 목적에 의해 수행한 내용이다.

법무성 福岡입국관리국 나하지국 총무과에서 각종 통계자료 열람하는 도움을 받았다. 아래는 나하지국 총무과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에 의한 것이다. 전후는 미국 점령이 되었다가 1972년 다시 일본 복귀한 까닭에 관련자료 찾기 어렵다. 주민등록은 시정촌에서 하고 이를 시정촌이 입국관리사무소로 보낸다. 살고 있는 행정구역을 통해서 민생위원이 신청하여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그 경우 입국관리사무소까지 내용전달 안될 수 있다. 현청 국제교류과에서 분포 나이 등을 통계내는 데 시정촌에서 재류외국인 거류자 신고해서 한다. 재류외국인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입국관리소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비자가 필요할 경우만 온다. 이전에는 시정촌 자료로 입국관리소에서 합산하였으나 3, 4년 전 법이 바뀌어서 시정촌에서 재류외국인 자료를 법무성으로 바로 보낸다.

일본 법무성 출입국관리 통계에 의하면 1971년 말 현재 외국인 등록인원 수에서 오키나와에 있는 한국 조선 국적 사람 수가 183명,¹⁾ 1976년 239명²⁾이었다. 여기서 나이나 성별 구분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그 구분이 좀더 상세한 법무성의 재류외국인 통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였다.

[재류외국인통계]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실태를 밝히기 위해 법무성 보관의 외국인 등록 기록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고, 1959년을 제 1회로 하여 1974년까지 5년마다 발간하고, 1984년 제5회 발간, 이후는 2년마다 발간하고 1995년 이후는 매년 해 왔다.

[재류외국인통계] 일러두기로 보면 외국인 등록 및 수 정리방식은 아래와 같다.³⁾-----

본서는 1994년 12월 말 현재 외국인 등록기록에 기초하여 조사한 결과를 편집한 것이다. 외국인은 일본 입국 후 90일 이내 혹은 일본 출생 등 후 60일 이내에 시구정촌에 등록하고, 출국, 귀화, 사망 등에 의해 등록 폐쇄되어졌지만, 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국한 경우 등은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본에 재류해도 이들 미등록 외국인은 본 통계에 계상되어지지 않는다.

또 특례상륙허가자(일시 비호를 위해 상륙 허가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 외교관, 미일지위협정 등에 해당하는 군인, 군족(軍族) 및 그 가족 등은 등록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오키나와 재류 외국인통계 중에서 생존자 나이가 1945년 당시 15-30세 범위 내에 들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조사해 보았다. 류큐가 일본 오키나와현으로 복귀된 이후 처음 간

1) 법무성, 출입국관리통계연보, 1972년, 178-179쪽

2) 법무성, 출입국관리통계연보, 1977년, 182-183쪽

3) 법무성, 재류외국인통계, 1995년

행된 1973년 자료에 의하면 43-58세 범위의 여성을 추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2000년(출간은 2001년) 현재는 70세에서 85세 범위가 된다. 이를 기초로 표를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남성은 혹시 다른 근거자료화 할 수 있을 수 있으므로 함께 기록하였다. 위 표에서 범위 속에 들어가는 여성의 수를 정리해 보면, 1986년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1973년 이후 대상 나이 범주 내 들어가는 여성이 1973년 31명, 1984년 11명, 1988년 16명, 1990년 12명, 1994년 12명, 1995년 8명, 1996-98년 9명, 1999년 8명, 2000년 8명이었다. 이들 중에 과연 피해자가 있을 것인가. 국적을 바꾸지 않았다면 분명 이 수 속에 있다. 그러나 이들을 찾는다는 일개 엔지오에 의해서는 불가능할 것이고 한국정부가 요청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표) (1973-2000년) 오키나와 재류한국, 조선인 성별 나이별 추이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불상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1973년	12	25	8	17	6	9	5	6	1	5	1	2	1	-	-	-	-	-	1
1984년					5	5	2	9	3	7	1	3	1	3	-	1	-	-	-
1986년					123	134	91	145	56	164	34	100	17	50	8	23	10	19	-
1988년							5	10	5	4	4	8	2	2	-	1	-	2	-
1990년							4	7	6	5	4	8	1	3	1	2	-	2	-
1994년									5	8	2	6	4	5	1	1	-	3	-
1995년									5	6	3	4	4	7	1	2	-	3	-
1996년									5	8	3	3	4	6	1	2	1	3	-
1997년									3	7	3	5	3	4	2	3	1	4	-
1998년											3	7	2	2	3	5	1	4	-
1999년											2	5	1	3	4	5	1	3	-
2000년											3	5	2	1	3	6	1	3	-

< 자료: 법무성, 재류외국인통계, 1974년도-2001년도 관까지 참고 >

국적을 바꾸었다면 이것은 귀화자 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관련 부서를 찾아들었다. 귀화자는 같은 건물 내 법무성 법무국에서 관리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방문해 보니 실제로는 법무성 호적과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하는 담당자 오쿠마(奥間)씨 설명을 정리하였다.

귀화 관계 통계는 개인 사적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밀로 한다. 현별/국적별 자세한 통계 없다. 귀화자에 대한 직업 통계는 없다. 오키나와 거주 귀화자에 대한 거주지, 귀화 시기, 성별 등에 대해 일개년(법무성, 1999년 [법무연감], 2000년 9월 간행)마다 정리한 일본 법무성 자료 한 장짜리 간단한 것만 있을 뿐 누계도 없다. 귀화인이 속한 현 귀화자 수만 통계로 정리되고 출신국가에 대해선 기록이 없다. 귀화신청자료는 귀화 후 5년 보관 후 폐기한다. 이러한 까닭에 현재 귀화자를 통해 생존자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무망하다.

세 번째 시도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생활보호자는 일본정부가 국내외인을 불문하고 본인이 신청하여 요건에 맞으면 지원한다. 따라서 생존자가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으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좀더 알기 위해 바쁜 일정 속에 있는 다카자토의원원과 만났다. 아래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 2002년 10월 8일 오키나와현의원(나하) 다

카자토 의원과의 면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통역 후지오카*연구원 질문,-다카자토의원답)

2002.10.8 다카자토 의원과 면담.

*오키나와 중에 지원금을 주는 수준이 같은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아르바이트나 예금이든지 할 수 없다. 혹 그러한 수입이 있을 경우 즉각 지원이 끊긴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배달을 한다든지 돈을 버는 일을 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리오모테 피해자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보호법 적용대상자는 일본정부 금액은 생활 수준에 따라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주택비 광열비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기준이 있는데 우선 생활보호대상자가 신청을 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조사하여 친척이나 본인의 예금이나 남에게 빌려준 돈이나 부동산이 있는지, 아동이 있으면 아동.부연금을 받는 것은 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친척은 본인과 자식, 손자까지가 범위인데 친척에게도 땅이나 주택이 있는지 이를 확인하여 지원한다.

* 생활보호대상자가 배달을 한다든지 돈을 버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아르바이트나 예금이든지 할 수 없다. 혹 그러한 수입이 있을 경우 즉각 지원이 끊긴다. 월 10만엔 정도 정부에 받았을 경우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만큼 빼서 준다. 이리오모테 할머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일본 정부로부터 300평정도의 땅을 불하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지원받지 않는 것 같다.

오키나와 사람이라면 몸이 건강하다면 야채를 심거나 옷을 만드는 등으로 일해서 수입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정부 지원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배봉기할머니는 생활보호를 받고 살고 있었다. 몸이 아주 나빠서 매일 병원에 가다시피 하였으니까 생활보호를 받았다. 나(다카자토의원)는 배봉기할머니를 단 한번 봤지만 이야기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 (7월 조사에서 질문) 생활보호대상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가

- 생활보호대상자가 누구인지 절대 비밀이다. 고인이라도 비밀이고 사후 10년이면 폐기한다. 법률적으로 공식 기록 보존 기한 이후 폐기한다. 그러므로 당시 담당자의 간접 증언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자신을 위해 보관한다고 요청하여 받으면 모르지만 생활보호관련자료도 5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귀화인 공식통계는, 나하시 시민과 과장의 말에 의하면, 일본인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적별 연령별 통계 없다. 70세 이상 따로 통계처리 안되어 있다. 즉 연령별 통계 없다. 남녀별 자료는 있으므로 일일이 조사하여 찾을 수 있다.

(다카자토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재류자는 2002년 나하시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 한국인 여성은 2명이다.)

배봉기할머니가 과거 적용받았고 현재 적용되거나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생존자들도 있다고 본다. 이때 적용되는 일본 생활보호법을 아래에 부분적으로 소개한다.

강정숙

일본국 생활보호법

제1장 총칙

(이 법률의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일본국 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이념을 근거로 나라에서 생활에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해서 그 곤궁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하고 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그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무차별평등)

제2조

모든 국민은 이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한 이 법률에 따른 보호(이하 '보호'라고 한다)를 무차별 평등하게 받을 수가 있다 (최저생활)

제3조

이 법률에 따르면 보장되는 최저한도의 생활은 건강하게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보호의 補足성)

제4조

보호는 생활이 곤궁한 자가 이용할 시 얻는 자산, 능력 기타 모든 것을 그 최저한도의 생활 유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요건으로서 행해진다.

2 민법(메이지29년 법률 제 89호)에 정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부조는 모두 이 법률에 따르는 보호에 우선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3 앞 2항의 규정은 급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보호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률의 해석 및 운용)

제 5조

앞 4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이 법률의 기본원리로 이 법률의 해석의 기본원리로서 이 법률의 해석 및 운용은 모두 이 원리를 근거로 해서 해야된다

(용어의 정의)

제 6조

이 법률에서 '피보호자'라는 것은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요보호자'라는 것은 현재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보호금품'라는 것은 보호로서 급여하고 또는 대여하는 금전 및 물품을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금전급여'라는 것은 물품의 급여 및 대여에 의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법에서 '현물급여'라는 것은 물품의 급여 및 급여, 의료의 급여, 노동력 제공 기타 금전 부여 이외의 방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보호의 원칙

(신청보호의 원칙)

제 7조 보호는 '요보호자' 그 부양의무자 및은 기타 동거의 친족의 신청에 근거해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단, '요보호자'가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는 보호 신청 없이도 필요한 보호가 가능하다.

(기준 및 정도의 원칙)

제 8조

보호는 후생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한 요보호자의 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운데

그 사람의 금전 및 물품으로 충족할 수 없는 부족분을 채우는 정도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
2 앞 항의 기준은 요보호자의 연령별, 성별, 세대구성별, 소재지별 기타 보호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사정을 고려한 최저한도의 생활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또 그것을 넘으면 안 된다.

(필요 즉응의 원칙)

제 9조

보호는 요보호자의 연령별, 성별, 건강상태 등 그 개인 또는 세대의 실제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을 고려해서 유효 또는 적절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세대단위의 원리)

제 10조

보호는 세대를 단위로 해서 그 필요 및 정도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것에 따르기 어려운 때는 개인을 단위로서 정할 수 있다.

제 3장 보호의 종류 및 범위

(종류)

제 11조 보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생활보조
- 2 교육보조
- 3 주택부조
- 4 의료부조
- 5 출산부조
- 6 생업부조
- 7 장례부조 (이하 약)

II. 오키나와 조사기

1. 오키나와 조사일정

현지 조사 기간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 조사

기간: 2002년 7월 6일-13일

목적: 생존자 조사와 일본군위안소에 대한 자료수집 및 현지 답사

조사자: 강정숙, 안이정선, 서은경, 현지 우라사키 시게코 등

경과: 1) 생존자 조사를 위해 한국민단, 법무성 관련기관 방문

2) 생존자 조사와 당시 실태 조사를 위해 활동가 및 연구자 면담

3) 오키나와 슈리성 제32군 사령부 위안소터와 게라마 도카시키섬 조사

*2차 조사

기간: 9월 29일-10월 8일

목적: 생존자 조사와 일본군위안소에 대한 자료수집 및 현지 답사

조사자: 강정숙, 안이정선, 이선이, 현지 후쿠오카 요오코, 우라사키 시게코 등

- 경과: 1) 생존자와 당시 실태 조사를 위해 이리오모테와 이시가키섬 조사
 2) 당시 실태조사를 위해 미나미다이토섬 조사
 3) 오키나와 본섬에서 자료 수집 및 신문자료 조사

***3차 조사**

기간: 2002년 11월 9일-12일

목적: 자료 조사와 築城 면담, 하마미씨(早見) 면담

조사자: 강정숙, 안이정선, 현지 협조자 森川. (小林)

경과: 1)자료조사는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전쟁기록물들을 입수하였다.

- 2) 미리 모리카와선생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방문하였을 때 천식증세가 재발하였다고 면담거절
- 3) 하마미씨(早見) 방문 증언 채록
- 4) 현재 츠키씨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는 상황(해군이었던 노다씨에게는 답장이 음)
- 5) 전화 통화 요청 예정

전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면담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2. 오키나와 조사기(9월 29-10월 6일)-제2차 조사를 중심으로

3차에 걸친 조사 중 위안소 현지 답사가 집중되어 있었던 것은 2차 조사였다. 오키나와 조사기는 1차와 2차 조사의 내용을 주로 하여 조사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9월29일 (日) 나하행 비행기 시간은 5시 40분이었지만 나와 강정숙 소장은 2시30분에 안이정선 연구원은 3시 30분에 인천공항 로비에서 만나 일정을 의논할 약간의 여유를 갖고자 하였다.

그러나 비행기는 예정시간을 2시간 가량 지연해서 밤 9시가 넘어 나하에 도착하였다. 아사히 류큐방송국의 카메라 맨들과 고토씨 그리고 후지오카씨가 마중을 나와주셨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을 것을 생각하니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 아사히 방송국에서는 조사에 동행을 원하셨지만 생존자를 둘러싼 미묘한 입장 차이로 이번에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였다. 곧바로 고토씨의 승용차를 타고 숙박지 호텔 마루키로 출발했다. 나하에 머무는 동안은 이곳이 우리의 잠자리와 아침식사를 책임져 줄 것이다. 한국의 장급 정도에 해당하는 호텔로 낯았지만 깔끔한 느낌이 든다. 나하시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도 아주 편리했다. 간단하게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미 10시를 넘기고 있었다. 5인실 다다미방이었으나 세 사람이 쓰기에 알맞은 크기의 방이었다.

그런데 고토씨와 후지오카씨가 태풍이 오고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내일 미나미 다이토로 갈 수 있을지를 걱정했다. 오키나와로 오는 태풍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다이토섬을 지나간다고 했다. 만약 내일 날이 좋아서 미나미 다이토섬으로 갈 수 있어도 태풍이 그곳을 관통한다면 일주일정도 그 섬에서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이셨다. 하지만 달리 손쓸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천운에 맡

긴다는 것이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고토씨와 후지오카씨는 각 섬에 관한 안내 소식지를 가득 안겨주시면서 미나미다이토 섬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두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다이토섬은 산호가 돌출해서 생긴 섬이기 때문에 해안선이 질벽으로 상당히 위험하며 오키나와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섬이라는 것이다. 이런 지형적 특성에 대한 설명은 이 섬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 반드시 가보고 싶다는 욕구가 쏟아진다. 일정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12시가 넘어간다. 내일 하늘이 미나미 다이토로 가는 것을 허락하기를 기원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9월30일 (月) 새벽에 눈뜨기가 무섭게 바로 일기예보를 켜보니 하늘은 멀리서 애써 이곳까지 찾아온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미나미 다이토로 보내주려 한다. 태풍은 오키나와를 피해 도쿄가 있는 관동지역으로 빠져나갔다고 한다.

택시를 타고 국내선 공항으로 가서 후지오카씨가 동행하여 9시에 RAC861편(이름은 거창하지만 조그만 프로펠러에 불과함)을 타고 미나미다이토로 향했다. 프로펠러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은 대부분 미나미다이토섬으로 일하러 가는 이들로 작업복 차림이었다. 비행기 아래로 보이는 바다는 아 이것이 코발트색이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는 빛을 내고 있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줄곧 이용하는 색채의 강렬함은 바로 이 바다 빛깔에서 나왔을 것이다. 미나미 다이토섬이 가까워지면서 비행기 밖으로 내다보이는 섬의 모습은 신기하기만 하다. 태평양한북편에 떠있는 이 산호섬에는 산이 없다. 섬에 산이 없다는 것이 신기하다. 오키나와를 지나가는 모든 태풍이 이곳을 거친다면 마을 사람들을 태풍에서 막아주는 보호막이 없다는 것인데 섬사람들은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고개를 내민다. 섬사람들에게 여쭙어보니 태풍이 왔을 때 밖으로 나가면 날아가 버릴 수 있어 위험하지만 실내에만 있으면 별문제가 없다고 한다. 얼마 전 태풍으로 몸살을 앓았던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어떤 기초공사를 하길래 그럴까 하는 부러운 생각을 어찌지 못하겠다. 우리가 묵었던 민박집도 상당히 낡고 오래된 목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풍속 50에도 아무렇지도 앓았다고 한다.

미나미 다이토 섬은 나하에서 동쪽으로 360km 떨어져 있는데 프로펠러로 약70분 정도 걸려 도착하였다. 공항에는 민박집 할머니 킨조씨가 마중을 나와 계셨다. 민박집까지 가는 길은 그다지 멀지 않았지만 잘 닦여진 길옆의 열대나무와 사탕수수들이 이국적 정서를 느끼게 해준다. 민박집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뽀기로 했던 니시하마씨를 기다리기로 했다. 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취했어야 했는데 어제 너무 늦게 도착하여 확인전화를 드리지 못한 것이 조금은 걱정스러웠다. 민박집 할머니께서 니시하마씨 댁에 전화를 하셨으나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무턱대고 기다릴 수도 없고 마냥 시간이 흐르는 것을 강정숙 소장이 무척이나 안타까워한다. 니시하마씨 댁으로 다시 전화를 해보니 오늘 우리말고도 문화재 관계자들과도 미팅이 있어 조금 늦어진다는 것과 점심식사 후에 민박집으로 오시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니시하마씨에게 질문할 내용을 정리한 후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식당으로 갔다. 한국의 밥집을 연상시키는 식당으로 뷔페식으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손님은 이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이 대부분이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과 결혼한 적이 있다는 타마시로코민(玉城光民) 씨가 이야기를 걸어왔다. 어눌하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들으니 친근감이 느껴진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민숙으로 돌아왔을 때 니시하마씨가 오셨다. 니시하마 요시노부(西浜良修) 씨는 미나미다이토 촌지(村誌)의 편집장을 역임하셨다. 그는 전쟁 당시 22살로 소학교(초등학교에 해당) 교사였으며 줄곧 이 섬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미나미다이토역사의 산증

인이시다. 우리는 그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촌지에 씌어진 내용보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는 이 섬에 있던 조선인 위안소와 오키나와 위안소 그리고 고추를 구하러 마을로 온 조선인 ‘위안부’들이 군견을 무서워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쟁 후 어떤 재판을 통해서 미군이 상륙하여 조선인 ‘위안부’ 6명을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증언을 들으며 왜 유독 조선인 ‘위안부’여성들만을 비행기에 태워 데려갔을까 하는 의구심과 이 사실에서 인도적인 미군을 연상해야할지 아니면 전리품으로 취급되어 미군에게 재차 ‘이용’되어진 잔인한 역사를 연상해야할지 고민이 교차한다. 니시하마씨는 이 섬에서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줄 수 있는 몇 분을 소개해주셨는데 모두 인터뷰를 거절하였다. 그 중에서 이사키누라는 분은 전쟁당시 ‘성숙한 아가씨’였으며 이 섬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다. 이사씨의 아들이 민박집 가까이에서 소바가게를 경영하고 있었다. 이 곳에서 소바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어머니의 증언을 부탁드려 보았다. 아들은 몇 번에 걸쳐 전화를 드려 우리의 뜻을 전달하였으나 키누할머니는 전쟁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면 끝내 인터뷰를 허락하지 않았다. 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의 어머니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찾아오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인터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도 기대를 담아 완곡하게 ‘같은 여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덧붙이자 ‘같은 여자이니까 오히려 더 괴로운 것이 아니겠느냐’는 아들의 답변이 돌아왔다. 이 말을 들으며 전쟁 당시에 무언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겪으셨던 것은 아닐까하는 짐작을 해볼 뿐이다. 인터뷰를 포기하고 소바가게를 나오니 칠후 같은 어둠이다.

의욕과는 달리 조사 첫날 별다른 성과가 없음에 망연자실하여 서있다 타마시로 코우민씨를 만났다. 그는 이 섬에 시집오신 한국인이 계시다며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이 멀고 인구도 1400명 정도의 작은 섬에서 한국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는데...전화를 드렸더니 흔쾌히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로 와주셨다. 이분은 이 섬으로 시집 온지 15년 정도 되었는데 섬사람들은 전쟁 당시에 대해서 자신에게도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하물며 돌연 한국에서 왔다면 인터뷰를 부탁하는 젊은 여자들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섬이 지니는 폐쇄성이기도 할 것이다.

10월1일 (火) 우여곡절 끝에 다마시로씨가 섬 안내를 해주시기로 했다. 먼저 섬 사무소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 위원장인 테루야씨를 만나 간단하게 섬의 역사를 들었다. 이 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03년 전으로 23명의 개척자가 이 땅에 첫발을 내딛었다고 한다. 교육위원회에서 섬 관계 자료를 얻어 나온 후 ‘위안소’유적지와 연대본부 그리고 사령실 등으로 사용된 자연동굴, 전쟁 당시 조선인 징용자들이 만든 비행장 활주로 등을 돌아보았다. 자연동굴은 사탕수수밭 한 가운데 있어 적에게 위치를 숨기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사탕수수밭을 한참을 헤치며 들어가니 동굴이 나왔다. 사탕수수는 우리의 키를 넘을 만큼 자라있어 그것을 헤치며 들어가는 사이에 폐소공포증이 엄습하기도 한다. 동굴까지 영원히 당도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동굴은 상당히 깊게 안쪽으로 펼쳐져 있어 박쥐 등의 생물이 살고 있는 듯하였다.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서 군사설로 그 이상이 없을 것 같았다. 이 곳 저곳을 돌아보면서 전쟁 당시 소년이었던 치넨유우토쿠, 야마시타, 키쿠치 씨 등에게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분들은 모두 조선뻘야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병사들의 행렬이 생겼다는 것과 기다리며 재촉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기억한다고들 했다.

이번 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섬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소개를 드리면

70년대 사탕수수밭과 제당공장으로 일하러 온 한국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 미나미 다이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돌아보게 될 이리오모테 섬에도 상당수의 한국인이 왔었다고 한다. 그 중에는 대학생들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었다고 한다. 중동지역에 간 노동자들과 서독으로 간 광부, 간호사들이 벌여 들인 외화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오키나와의 이 외진 섬까지 찾아와 피땀 흘리며 노력한 이름 모를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대나무 만한 굵기의 사탕수수를 베어 한 다발을 만들면 100엔을 받았다고 한다. 어찌다 손에 상처라도 나서 일하지 못하는 날에는 애간장을 태워야만 했다는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코끝이 시리게 한다. 한국인들은 누구보다도 빨리 일어나 밭으로 가고 누구보다도 늦게 밭에서 돌아왔다고 한다. 밤이 되면 칠혹같이 어두워지는 이국 섬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위해서 일을 마치고 올려다본 별을 통해서 고향을 생각했을까? 그분들은 열심히 노력한 결실을 이제는 맛보고 있을까?

비행기 시간에 쫓기면서 섬을 돌아야만 했지만 다마시로씨 덕분에 약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에 공항으로 갈 수 있었다. 다마시로씨는 첫 번째 부인(한국인)과 이혼하고 재혼을 원하시는데 신부감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고 믿으신다. 헤어지면서 누차에 걸쳐 나에게 '부탁한다. 꼭 부탁한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는 알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공항으로 갔더니 민박집의 킨조할머니가 배웅을 나와 계셨다. 이 섬 특산물 양갱과 과자 한 다발을 안기시면서 헤어짐을 아쉬워하신다. 잠깐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주시는 할머니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며 추억의 흔적을 남겼다. 공항에서 우연히 키쿠치씨를 만나 얼마간의 증언을 더 들을 수 있었는데 장교들이 '위안부'중에서 미인들을 골라 별도로 작은 집을 짓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쫓기듯 비행기를 타고 기타다이토를 거쳐 나하로 돌아왔다.

나하에 도착해서 곧바로 오키나와 타임스사를 방문했다. 9월 29일 우리의 조사, 방문에 앞서 정보를 요청하는 기사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기사의 밑단에는 오키나와에 생존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할머니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함께 실어주셨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다할 정보를 얻고 있지는 못하다. 이번 조사결과가 정리되면 기사화하고 싶으니 번역해서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기사마감시간이 가까워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떴다.

10월2일 (水)에는 고토 목사님이 책임을 맡고 계시는 복지시설 애린원을 방문하였다. 일본의 텔레비전에서 보도했던 '위안부'관계 비디오를 본 후 고토씨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확인하여 필요한 부분 복사를 부탁드렸다. 무보수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연구소의 작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목사님께 여러모로 감사하다. 애린원을 나와 현립 공문서관을 방문했다. 다카라 벤(高良勉)씨와 쓰하코 아오이(津波古葵)씨 등이 안내를 해주셨다. 방위청자료실에서 공개한 진중일지 등의 자료들을 영인해 놓은 것이 산더미다. 관계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자료실은 최신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오키나와의 뜨거운 날씨와 습기로부터 서적을 보호하기 위해 냉장고처럼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것은 이분들의 작업에 폐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치를 보아가며 무리하게 자료들을 훑어보았다.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보면서 의욕이 일기보다는 보지 않았던 것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에 고개가 저어졌다. 누군가 치밀하게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기는 할텐데 아뜩해지는 작업을 할 엄두는 좀처럼 나지 않는다. 있는 대로 폐를 끼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키나와의 무덤들이 보였다. 오키나와의 묘지는 일본의 묘지와 달리 크기가 훨씬 크다. 조

상신을 소중하게 숭배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은 청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묘지 앞에서 샤미센(오키나와 전통악기, 세 줄의 선으로 되어 있어 샤미센이다)을 뜯으며 노래를 부르고 논다고 한다.

오늘은 생각보다 작업이 일찍 끝나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가까운 서점으로 가서 필요한 책들을 구입했다. 나하 시내의 대형 서점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관련 서적 외에는 다른 분야의 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날 밤 식사를 함께 하면서 고토씨에게 서점의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자 역시 일본에서도 오키나와는 한참 뒤떨어지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일본본토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보통 일주일정도 후에나 들어온다고 한다. 오키나와의 지식인들은 현재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오키나와에서 간행되는 책은 거의 오키나와 관련 서적이다. 자신들의 문화적, 역사적 고유성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보편성에 대한 연구로 시야를 넓히기 어려운 처지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만든 데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10월3일 (木)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남서쪽으로 한 시간 가량 날아서 이기가키 공항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우라사키 시게코씨가 합류했다. 우라사키씨는 오키나와의 ‘위안소’ 지도와 ‘위안부’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낸 활동가이다. 먼저 부둣가에 있는 타케도미정사(竹富町史) 편집실에 들러 최근 간행된 데즈다일기에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였다. 데즈다씨는 이리오모테 중포병연대의 소대장이었는데 당시 근무일지를 남겼다. 본인은 이미 죽고 없어 일기 간행은 다케도미정사 편집실에서 주관했으나 데즈다씨의 부인이 위안부와 위안소 관계 부분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밖에 정사에 실려있는 이리오모테의 지도를 얻었다. 이 지도는 증언을 바탕으로 전쟁당시의 위안소 위치를 자세하게 기재하고있었다.

편집실을 나와 곧바로 이시가키 이리오모테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배를 타고 이리오모테 섬으로 갔다. 약 40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강행군으로 무척이나 피곤한 상태라 배멀미를 걱정했으나 다행히 무사히 넘겼다. 다시 버스를 타고 숙박지인 호시즈나(星砂) 민숙으로 갔다. 이리오모테에서는 오오시로 세이조(大城誠三), 이시가키킨세이(石垣金星)부부, 이시가키 쿠투쿠(石垣高德), 다카다에미(高田惠美), 나라이마사노부(奈良井正伸)부부, 니시오오마스코우이치(西大舛高倉) 씨 등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이리오모테에서는 줄곧 킨세이씨의 안내를 받았는데 우선 ‘위안부’를 업어서 각 부대로 데려다 주었다는 증언을 해주신 쿠투쿠씨 택으로 갔다. 가는 도중 길가에서 세이조씨를 만났는데 전쟁이 끝난 후 2-3명의 ‘위안부’들이 텐트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한다.

다카다에미씨는 남편이 조선인이었다고 하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황설수술한 이야기를 들으며 증언을 듣는 것의 어려움을 실감했다. 특히 ‘위안부’와 ‘위안소’관계 질문을 드렸을 때 심하게 당혹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이셔서 무엇인가 감추고 싶은 과거 때문에 증언에 두서가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증언을 듣는 자는 말하는 자의 몸짓과 두서없음과 표정에서 많은 것을 이해해야하며 그 이야기의 행간을 읽어내는 노련함을 지녀야한다.

다카다에미씨와 쿠투쿠씨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은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차창 밖은 너무나 아름다워 우리일행은 잠시 내려 바다를 감상하기로 했다. 이 아름다운 해변이 지금 개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바다를 바라보며 우다키가 있었다. 우다키는 오키나와에서 신을 모시는 곳으로 여성들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이곳에서

열리는 축제의 주최자도 여성이라고 한다. 이 곳 우다키에서 9월 중순경에 개최되는 오키제
는 아주 유명하다. 이번 조사가 조금 이른 시기였다면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조
금 아쉽다. 다음 증언자를 방문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해변을 빠져나오며 이 아름다
운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위안부’들은 알았을까 혹은 감상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
이 저리다.

저녁을 먹고 나라이씨택을 방문하였을 때는 마실 나오신 마사할머니의 이야기도 함께 들
을 수 있었다. 마사할머니의 먼 친척이 이 곳의 ‘위안소’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고 싶어하지 않아 증언 청취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섬이라는 폐쇄적
인 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낯선 이방인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깊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주민들의 증언을 들으며 이번 조사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느낀다. 나라이씨택을 나
왔을 때는 완전히 어두워져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올려다본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이 많다.

10월4일 (金) 어제 킨세이씨에게서 우리가 묵은 민박집 할머니께서도 전쟁 당시의 상황
에 대한 증언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민박집 주인에게 부탁을 드려놓아 오늘 아
침 할머니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오오하마 하츠코(大浜初子) 씨 75세가 넘으셨지만 건
강한 모습으로 딸에게 물려준 민박집 경영을 돕고 계셨다. 옛날 일을 이야기해주시면서 당
신의 기억력에 당신도 놀라워하시는 모습이 귀여우신(?)분이었다. 시라하마에서 간호사보조
일을 하실 때 의사가 출타 중이어서 어쩔 수 없이 ‘위안소’에서 위경련을 일으킨 사람(카나
이소위) 에게 물편을 놓아 주기 위해 ‘위안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신다. 병원으로 물편
주사를 놓아달라고 찾아오는 조선인 ‘위안부’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통에 몸부림
치는 ‘위안부’여성들을 생각한다. 민숙을 나와 섬 공무원의 도움으로 니시오오마스씨가 일하
고 계신 사탕수수밭으로 찾아갔다. 밭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던 그는 80이 넘으신 나이에
도 뜨거운 태양아래서 건강하게 일을 하고 계셔 오키나와의 장수과위를 보여주셨다.뿐만 아
니라 전쟁 당시의 일 들을 이 번 조사에서 만난 어떤 증언자보다도 조리있고 논리적으로 말
씀해주신 분이다. 오키나와는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긴 지역인데, 그 비결은 삶은 돼지고기
에 있다고 한다. 니시오오마스씨는 70년대 이 곳을 찾아온 한국의 노무자들에 대한 이야기
로 말문을 여신다. 그 때 왔던 한국여성과 부인이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치마저고리를 만들
었는데 입을 일이 없어서 장롱 안에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고 하며 허허 웃으신다.

니시오오마스씨를 끝으로 이리오모테에서의 인터뷰는 끝이 났다. 이리오모테에서 만난 증
언자들의 증언은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다
음과 같다. 전쟁 당시 이리오모테 섬의 시라하마(白浜)와 우치바나리(内離)에 ‘위안소’가 있
었다. 조선인 ‘위안부’와 오키나와 ‘위안부’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조
센빠라는 말을 알고 있었다. 이리오모테에 있었던 ‘위안소’를 병사들은 관리자의 이름을 따
서 부대이름처럼 소노다(園田)대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섬에 있었던 조선인 ‘위안
부’들이 전쟁이 끝난 뒤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섬 주민들은 ‘위안부’같은 것은
없었다는 강변이나 업자들이 한 일이며 군과는 무관하다고 하는 일본내 우익세력들의 주장
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하실까? 자신들이 기억이 어느 세력에게는 송두리째 부인당하고 있
지만 그 기억들은 면면히 자손들에게 이어져 이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도 믿을 것이다.

꽤 많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일본인과 오키나와인들의
의 인식의 갭에 대해 생각한다. 도쿄에서 10년 가까이 유학생살을 하며 일본인들을 접할 때

마다 ‘자신’들이 일으켰던 전쟁에 대한 ‘무지함’에 놀라곤 했다.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전쟁터로 화한 지역이다. ‘황토(皇土)’방위라는 미명 아래 오키나와는 철저히 유린된 땅이다. 작은 섬들의 구석구석에서 이유 없이 주민들은 죽어갔다. 미군의 포로가 되어 군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며 피난하고 있던 동굴 안에서 일본군의 지시 하에 수류탄을 폭발시켜 집단적으로 죽었다. 수류탄이 모자라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다. 살아남은 자들은 깊은 트라우마를 간직한다. 그 트라우마는 집단적 트라우마로 전화되어 오키나와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다시 이시가키섬으로 돌아와 오오하라 호텔에 짐을 풀었다. 이 날은 지금까지 조사작업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다음날 만날 오오타씨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번역하는 일로 밤이 늦어졌다.

10월5일(土) 오전에는 야에야마평화기념관과 도서관, 그리고 우라사키씨의 오빠이신 아와모리씨의 안내를 받으며 이시가키위 ‘위안소’유적지들을 돌아보았다. 간단하게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으나 모두 피곤으로 입맛을 잃었는지 먹는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점심시간을 지나 오오타씨가 호텔로 왔다. 손자의 운동회가 있었다고 한다. 일본의 운동회는 온 가족이 아이의 성장을 지켜봐 주는 일종의 축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운동회만이 아니라 보육원(일하는 엄마들의 아이를 맡아 주는 곳으로 한국의 놀이방에 해당하나 대체로 지역구청이 관할한다)이나 유치원의 운동회도 마찬가지이다. 새벽부터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아이들을 응원한다. 가족은 손에 손에 캬코더를 들고 아이의 모습을 한 컷이라도 더 담으려고 애를 쓴다. 오오타씨의 손자는 이제 1살인데 가족은 외가, 친가를 망라해서 20여명정도가 휴가를 내어가면서 보러왔다고 한다. 도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족주의’가 강하게 살아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한 살 아이가 자신을 위해 물려든 어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운동은 아마도 아장아장 걸음마 정도였을 것이다.

오오타씨는 손자의 재롱을 보고 오신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젊은 분이셨다. 우리가 조사한 이시가키와 이리오모테 섬을 포함한 야에야마제도의 전쟁 기록인 『야에야마의 전쟁』의 저자이다. 처음 딱딱한 태도를 취해 차갑게 느껴졌지만 저서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면서 얼굴 표정이 밝아지시기 시작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에서 찾아오는 연구자들의 무례함으로 우리들에게도 선입견을 가지셨던 것 같다. 질문을 거듭하면서 우리들의 열의가 전달되었는지 자신이 이 섬의 ‘위안소’유적지들을 안내하시겠다며 일어 나셨다. 현재 이시가키섬 교육위원회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면서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발로 뛰며 지역의 숨은 역사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 현재는 야에야마로 끌려와 강제 노동으로 혹사당하다가 혹은 강제징병으로 죽어간 조선인들의 명부를 가지고 한국의 가족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명부에는 대구출신자들이 많아 언젠가 대구를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대구에 살고 계시는 안이정선 선생님이 꼭 와달라고 화답했다.

산나 ‘위안소’는 오오타씨가 낫을 들고 우거진 풀숲을 헤치며 한참을 걸어 들어간 숲 속에서 위안소 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독뱀이 우글거리고 말라리아 모기 서식지였던 이 곳까지 끌려와서 ‘위안’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한이 내 몸 속으로 전달되는 듯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워졌다. ‘위안소’유적지임을 알려주듯 빨간 기와가 널려 있었고 기둥을 세웠던 주춧돌이 풀숲에서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었다.

오모토(於茂登)산에 있는 시라미즈(白水)위안소 터는 지금은 잘 닦여진 길을 따라 차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 곳을 걸어서 올라가야만 했을 것이다. 누군가의 ‘노리게’로 이용되기 위해 그 길을 걸었을 ‘위안부’여성들의 마음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곳은 산니 보다 더 울창한 정글을 이루고 있었고 정글 속은 어둡하여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위안소’가 있었던 곳 가까이에선 맑은 냇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더운 날씨 탓일까 누군가 물놀이하면 좋겠다는 말을 던졌다. 그러자 오오타씨는 이곳은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군의 명령으로 주민들이 피난을 한 곳이며 피난민 중에는 ‘위안부’를 목격한 사람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피난민 어린이 중 다수가 이 시냇물에서 물놀이를 한지 10일 만에 말라리아로 모두 사망했다고 한다. 이곳은 지금은 거의 박멸되었다고 하지만 말라리아 모기의 서식지이었다. 전황이 급박해지자 일본군이 무리하게 주민들을 이곳으로 피난시켜 4000명 가까운 주민들이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비극을 낳았다고 한다. 이때 발병한 말라리아는 ‘전쟁 말라리아’로 불린다.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복귀한 후 ‘전쟁말라리아’발병에 대한 국가와 일본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끝까지 일본국가는 일본군의 강제 피난 명령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은 채 이 소송은 일단락 되었다. 이곳으로 끌려온 ‘위안부’중에는 말라리아로 사망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환영일까 당시 ‘위안소’와 ‘위안부’의 모습이 필름처럼 펼쳐진다.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무섭게 달려드는 모기들과 독뱀을 피해 그 자리를 서둘러 피해 나왔다. 이시가키시내로 돌아오는 길의 카비라(川平) 해변은 석양으로 물들어 무척이나 오묘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 날 밤이 되어서야 오오타씨가 전쟁 당시 무참하게 죽어간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유혼의 탑(留魂之塔)’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인간 사후의 영혼을 믿는다. 전쟁 당시 무고하게 죽어간 그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을 기억하며 기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섬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오오타씨가 ‘유혼의 탑’을 건립한 것도 무고한 죽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없는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다.

난 오오타씨의 ‘유혼의 탑’을 생각하다가 인간의 스펙트럼에 대한 생각을 했다. 이 외진 곳까지 사람을 끌고 와 ‘성욕처리기’로 이용하는 잔인한 인간이 존재하는 한편 자신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무고한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틈나는 대로 역사적 사실들을 발로 뛰어 파헤치고 나아가 자신의 사유지에 위령탑을 세운 오오타씨도 인간이다.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을 한다지만 그것은 영원히 풀 수 없는 과제처럼 느껴지는 밤이다.

10월6일(日) 9시20분 비행기로 다시 나하로 돌아가야하는 날이라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우리는 오오타씨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여 이른 새벽 ‘유혼의 탑’으로 가서 참배를 드리기로 했다. 오오타씨의 사유지 한 귀퉁이에 유혼의 탑은 세워져 있었다. 유혼은 혼이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탑 앞에는 꽃과 술이 놓여져 있었으며 ‘안동호(安東丸)사건’ 유물들도 한 곳을 차지하고 있었다. 안동호 사건은 콩을 싣고 항해하던 배가 표류해 왔지만 선적하고 있던 콩 등은 모두 몰수하여 섬 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도록 강요하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강제노동으로 내몰면서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아 피로와 기아로 상당수가 죽게 한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일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을 폐촌지역에 내버림으로서 기아와 말라리아로 죽어가 생존자는 없다고 한다. 안동호에 타고있던 사람들은 조선인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굶주린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달라며 ‘쥬, 쥬’라는 소리를 내었다고 한다. 이리오모테와 이시가키의 증언자들은 이 사건을 모두 기억하

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온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오오타씨는 유혼이라는 탐명을 문제삼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무참하게 죽어간 영혼들이 이곳에 머물며 그 한을 달래기를 기원한다 하였다. 가벼운 목념을 하며 한국에서 술을 가져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렇게 이시가키섬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서 오오타씨와 헤어졌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지니는 의미에서 그 길이와 깊이가 다를 것이다. 오오타씨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깊게 각인되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헤어짐의 안타까움에 숙연해진다. 이리오모테와 이시가키를 동행해주셨던 우라사키씨도 오늘 12시에 미야코로 떠난다.

10시경에 나하 공항에 도착하니 후지오카씨가 마중을 나와 계셨다. 언제나 우리를 보던 음료수와 사탕 등을 안기며 안위를 걱정해주는 친절한 분이다. 곧바로 오키나와 평화기념자료관으로 향했다. 택시로 한 시간 가량을 달려 도착한 곳에 오키나와 전적국정공원광장(沖繩戦跡国定公園広場)이 있었다. 오키나와의 뜨거운 태양아래 광장을 걸으니 피곤해진 몸이 축축 늘어난다. 먼저 한국인 위령탑이 있는 곳을 둘러 평화의 초석(平和の礎)으로 갔다. 오키나와전에서 죽어간 23만 명의 이름을 이 곳에 모두 새기고 있었다. 아직 채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을 현재도 찾아가며 새겨 넣는 현재 진행형의 초석이다. 창씨개명된 이름으로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인들의 이름을 역추적하여 한국이름으로 고쳐 새겨 넣는 치밀한 작업을 하고 계신 분은 홍종필 교수이다. 그런데 이곳에 한국인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일본의 전쟁에 끌려간 징용이나 징병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지만 일본을 이롭게 하는 일에 종사했다고 하는 불명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렵게 그 이름을 찾아내어도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많다고 한다. 전쟁 중에 식민지 국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선택 폭은 넓지 않았다. 아니 강제와 강요가 그들의 삶을 점철했을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 그들에게 ‘일본을 이롭게 했다’는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 문제는 ‘친일파’문제와 연동한다.

평화의 초석에는 오키나와인, 일본인, 미국인, 대만인, 한국인 순으로 이름이 새겨져 있다. 미국과의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석을 새기는 순서에서 미국인이 우선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유도 없이 끌려온 한국인들은 초석의 한 귀퉁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평화의 초석은 일출방향으로 태평양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세워져있다. 광장에서 내려다 본 태평양은 푸른빛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전쟁 당시 바다는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한다. 분명 뜨거운 태양아래를 걷고 있음에도 한기가 느껴진다. 23만 명의 원혼들이 이곳을 떠돌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 바다가 기억하고 있는 전쟁의 참혹함을 나에게 한기로서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

7월에 있었던 1차 조사시 전시실을 관람하셨던 분들은 자료실로 직행하고 나는 후지오카씨와 함께 전시실로 갔다. 5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대 이후의 오키나와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메이지정부에 의해 단행된 ‘류큐처분’에서 오키나와전의 참상, 미군정시기의 오키나와 등을 전시하고 있었다. 오키나와전의 참상을 나타내는 밀랍인형은 일본군이 참호로 피난한 주민들에게 총칼을 겨누고 있다. 이 전시실에서 일본과 오키나와의 착잡한 관계를 한 눈에 읽을 수 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미국과 치른 전쟁임에도 일본군의 폭력을 강하게 기억하고 있다. 미군이 상륙하면서 벌어진 비극은 일본군이 자신들에게 저지른 수많은 만행 속에 묻혀있는 느낌을 증언자들에게서 강하게 받았다. 제4전시실의 많은 전쟁 증언들도 일본군의 만행들로 가득 차있다. 참호로 피난한 주민들을 속여 그 딸들을 중군간호사로 쓰겠다고 데려가 군인들은 잔혹한 강간을 반복하기도 했으며 아이가 울면 들킬 것을 염려해 질식시켜 죽게 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기억이 각인된 오키나와인

들의 아이덴티티는 분열상태일 것이다. 때문에 오오타씨처럼 ‘돌아갈 조국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며 ‘비국민’을 외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뒤를 이어 생겨난다. 우라사키씨는 오키나와가 독립하기를 원하지만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싶지는 않다고 한다. 문화란 500년 정도는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키나와 문화가 500년 이후까지 버텨 준다면 언젠가 독립된 ‘어떤 그 무엇’의 형태를 이루게 되지는 않겠느냐고 한다. 난 이 오키나와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감각에 매력을 느낀다. 서로간에 무리하게 경계를 나누어 너와 나를 가르는 ‘국민국가’, 배타적인 서열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는 ‘국민국가’와는 다른 형태의 ‘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오키나와 인들에게서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민국가’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세계화의 주장 속에서 ‘국민국가’는 해체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그것은 아무도 해답을 내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난 오키나와 인들의 정체성이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형성을 위한 모델이 될 수도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 전시실 문을 나서는 곳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적혀있다.

전시를 끝내면서
오키나와전의 실상에 접할 때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처럼 잔인하고 이만큼 오욕으로 점철된 것은 없다고 하는 생각이다
이 생생한 체험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들도
전쟁을 긍정해 미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들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전후 이분들 우리들은
모든 전쟁을 증오했으며
평화로운 섬을 건설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신조입니다.

바로 이 시에서 이야기하듯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얻어낸 경험...그 경험을 살려내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전쟁이 만들어 낸 비극을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평화기념 공원을 뒤로하며 오키나와 제2차 조사를 마쳤다.

이선이

3. 후쿠오카 조사

1) 라사섬 군의원 방문

기간: 2002년 11월 9일-12일

목적: 자료 조사와 築城 면담, 하마미씨(早見) 면담

조사자: 강정숙, 안이정선

현지 협조자 森川万智子(문옥주할머니 관련 저서[口文玉珠 - ビルマ戦線楯師團「慰安婦」
だった私口, 梨の木舎, 1996]의 저자)

경과: 1)자료조사는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전쟁기록물들을 입수하였다.

2) 미리 모리카와선생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천식증세가 재발하였다고 면담거절

3) 하마미씨(早見) 방문 증언 채록

4) 현재 츠키키씨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는 상황

5) 전화 통화 요청 예정

전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면담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11월 9일

인천공항에서 1시간 남짓되어 도착한 후쿠오카 국제공항은 국제선 얼마 많지 않다. 그래서 국제선이 국내선이 더 분주한 조그마한 공항이다. 공항과 도서관, 숙소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 덕분에 현립도서관 방문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福岡교육대학 교수인 고바야시(小林)교수의 도움으로 공항에서 곧장 현립도서관에 가서 관련 도서를 조사하였다. 의외로 관련도서는 적었다. 핵심되는 자료는 복사로는 성이 차지 않아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여성학이나 역사학관련자료를 부분 복사하였다. 小林교수는 직접 와서 이런 저런 배려를 해 주었다.

도서관 폐관시간이 되어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숙소로 갔다.

11월 10일

츠키키씨 주소를 확인하고 통화도 미리 해 준 모리카와선생은 동경으로 가서 10일에야 온다고 하였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구하기 위해 이번에는 후쿠오카 시립도서관을 향하였다. 시립도서관은 박물관과 마주하였는데 현립 도서관에 비해 훨씬 관련자료는 많았지만 역시 단시간에 자료를 독파하고 입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련 도서목록이 컴퓨터로 잘 정리되어 있어 소장도서 목록 출력과 관련도서를 부분적으로 복사하였다. 일요일이라 많은 이들이 도서관을 찾았기 때문에 복사에도 눈치를 보며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도 小林교수가 후쿠오카 중심가를 안내하고 가장 큰 서점을 안내하였다. 마감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소상히 살펴볼 순 없었는데 의외로 오래된 도서들이 남아 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과연 만남은 가능할까? 불안하였다.

같이 오키다이토지마(라사섬)에 함께 있었던 노다씨는 이미 10월부터 방문을 허락 받았고 11월 초에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딸이 중간에 나서 거절하였다. 후쿠오카의 텔레비전도 역시 북한으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특집으로 다루며 오로지 납치문제 부각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아마 노다씨 딸이 나서고, 노다씨도 거절하게 된 것은 이것이 문제였을 것이다. 일본인은 남북한을 구별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 문제는 일본이 저지른 가해 문제이므로

더욱 회피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자신의 더 큰 잘못은 숨기고 다른 이의 문제만 부각시키려는 일본 언론, 일본 정부의 의도가 너무나 선명히 들어 난다. 이러한 사회상황에서 어쩌면 가장 일본군 위안소, ‘위안부’와 가까이 있었던 군의관 츠키씨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11월 11일

편찮으신 노모를 보시고 늘 바쁘게 직장생활과 연구, 자원활동 등을 하는 모리카와씨에게 우리가 부탁한 것 자체가 무리였지만 그래도 이분만큼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헌신한 분은 드물다고 생각한다. 돌아가신 문옥주할머니와의 인연으로 책을 내고 할머니의 연행 행적을 찾아서 1년 2개월 간의 버어마 생활을 한 분이다. 이분은 버어마가 현재 국명은 미얀마이지만 미얀마족 만을 지칭하는 국명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필자도 여기서 버어마라고 칭하기로 한다) 현재도 버어마 연구를 다른 연구자들과 더불어 진행하고 있다. 츠키씨의 주소와 전화를 확인하고 연락을 취한 것은 바로 모리카와씨였다. 야스쿠니신사에 직접 군인명부를 확인하여 찾아낸 것이다.

아침부터 바쁘게 츠키씨 집을 향했다. 일본인들의 일반적 방문방식은 사전에 연락하여 확실한 허락을 받고 이뤄지지만, 거절성 여운을 남긴 통화를 근거로 우선 방문하는 것이라고 모리카와씨가 말하였다. 우리는 허락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어쨌든 오키나와 조사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였다. 라사섬 중대장인 모리타씨 방문도 계획하였지만 몸상태가 다른 이의 방문을 받을 수 없다는 부인 말에 이미 8월에 꿈을 접었다.

이제 군의관인 츠키씨다. 더욱이 노다씨 글이 맞다면, 그리고 그곳 군의관이 한명 뿐인 것이 확실하다면 그는 조선인 ‘위안부’와 동거하였으며 그 여성은 임신하였다고 하였다. 혹시 그는 임신한 여성과 이후에도 연락을 취한 적은 없었을까? 이것은 처음 만남에 바로 물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 이외도 여성들의 연행방식이나 업자, 위안소 운영, ‘위안부’ 생활, 귀국, 생존자 소식 등에 대한 내용도 소상히 알고 있을 것이다.

후쿠오카시에서 야하타(八幡)의 츠키씨 집으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꽤 아담하고 정리된 곳이다. 일본의 어느 곳이나 평균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곳도 역시 단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츠키씨 병원을 지형지물로 삼고 갔는데 그 병원 바로 옆에 츠키 본인의 문패가 있었다. 현관으로 부인이 나왔다. 정중한 우리 소개가 끝난 후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부인은 츠키씨에게 천식증세가 재발하였다고 면담을 거절하였다. 부인은 ‘모리타씨도 천식증세가 있는데 츠키씨도 그런 것을 보면 라사섬의 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말도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모리타씨와 츠키씨는 서로 연락을 자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8월 모리타씨에게 한 전화로는 모리타씨 상태가 거의 생존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을 주었는데 이곳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느껴졌다.

이런저런 사정에도 거절당하고 나서 겨우 우리는 ‘편지를 보내겠다’ 그리고 츠키씨가 ‘평소에 군대생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가’(없었다고 답변) ‘결혼은 언제 하였는가’(미혼의 몸으로 군의관이 되었고 일본 패전 이후 지금 부인과 결혼하였다고 하였다)라는 변죽만 울리는 말을 현관에 서서 하는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만나러 왔는데, 정말 꼭 만나고 싶은 데란 우리의 절실한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 거절이다란 참담한 심정에 바로 붙어있는 병원을 경영하는 아들을 만나면 어떨까 생각하였지만, 조그마한 주택가

에 있는 병원인데도 꽤 많은 환자들이 찾아들고 있어 이것 역시 포기하였다. 한국에서, 후쿠오카시에서 거의 두시간 가까이 걸려 지하철 전철 택시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온 우리들이 느끼는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자료 츠이키씨가 적혀 있는 진중일지 자료

The image shows a page from a handwritten Japanese document, possibly a diary or a ledger. It features several columns of text written in kanji. At the top, there are some larger characters and what appears to be a title or header. The main body of the document is organized into rows and columns, with some cells containing numbers and others containing names or specific entries. The handwriting is dense and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Japanese calligraphy. There are some red markings or lines on the page, possibly indicating specific sections or entries.

오후 4시경엔 이번 오키나와 조사와는 직결되진 않지만 작년에 방문한 원난 파야키 위안소 부근 주둔부대에 있었던 하야미씨를 방문하였다. 이 역시 모리카와씨가 미리 연락해 두었다.

하야미씨는 후쿠오카 근교의 따님 집에 있었다. 나이가 많아져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여서 후쿠오카 자택에서 잠정적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역까지 따님이 마중을 나와주었다. 간호원이어서 오후 출근한다고 나가고 우리들만 하야미씨 둘레에 모여 그의 증언에 집중하였다.

나이, 출신지, 부대배치상황 등은 기존 자료에 나와 있으므로 소상한 것은 그것을 이용하기로 하고 주로 질문한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일본군이 라모라고 부른 지역의 파야키 ‘위안부’ 실상

- *따야커 부근의 중국인 ‘위안부’가 있었다는 창칭위안소에 대한 기억?
- *후공강의 전투에 실린 연합군 및 미군 심문을 받는 4명의 여성에 대한 정보
- *참호 속에 군인과 함께 죽은 조선인 ‘위안부’로 추정되는 3명의 여성의 사망원인
- *팅충의 구덩이 속의 여성들의 사망원인
- *포로수용소로의 이동과 조선인 ‘위안부’들

하야미씨는 일본군인들 중에 증언을 기꺼이 응해주는 많지 않은 사람 중의 한 분이다. 하지만 귀도 어둡고 나이도 많아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듯 질문과 엇갈리는 답변이 많았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단시간 내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한국의 다른 이들도 증언을 채록하고 있기 때문에 피로를 느끼지 않을 만한 시각에 일어섰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모리카와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후기: 12월 20일 현재 츠키키씨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답장은 아직 없고 전화확인을 할 예정이다)

강정숙

2) 오키나와로 연행업자 우라베(占部公) 조사⁴⁾

오키나와 오키다이트지마(沖大東島 일명 라사섬)에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주둔한 것은 1944년 4월부터이다. 이곳의 제85병참경비대 소속의 라사도 수비대는 1944년 3월 편성되어 4월에 배치되었다. 라사도 수비대장은 보병 제4중대장 森田芳雄중위였다.

여기에 군 ‘위안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은 1944년 11월 21일이다. 제4중대 진중일지에 이곳의 군인들에게 오락거리가 없다는 기록이 있는 후이다. 1944년 11월 22일 기범선으로 ‘위안부’와 경영자 합하여 8명이 도착하고 위안소 규정을 함께 보낸다는 21일 대동수비대 전보가 있는 후 11월 23일 아침에 선단 6척과 함께 8명이 도착하였다. 이때 100명에 가까운 지방민들은 퇴도(12월 말에는 거의 모든 이 지방민이 퇴도)하였다.

제4중대에 위안소를 설치한 이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안부’의 인적사항은 상부로 보고되었다. 보병 제36연대장(이때 대동도 수비대장 平野대좌)의 전보(1944년 12월 3일자) 요청에 의해 ‘위안부’ 인적사항을 작성하였다. 그것이 진중일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영책임자의 주소씨명과 7명의 ‘위안부’의 본적, 씨명, 예명, 연령, 舊樓名이 기재되어 있다. 이 라사섬 위안소 업자가 바로 이번에 조사하게 된 占部公이었다.

진중일지에 우라베(占部 公)의 주소지로 기록된 것은 福岡縣 宗像郡 伊尾崎 西十山路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명은 후쿠오카현엔 없고 한자가 가장 유사한 것이 츠야자키촌(津屋崎村)이고 여기에 西古小路町(古名)이 있다. 후쿠오카 활동가인 하나부사씨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西古小路町에는 우라베가 없고 쓰야자키촌에는 전화부상에 30명 정도의 우라베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데 일일이 전화해 본 결과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市役所(우리의 구청이나 읍사무소 같은 곳)에서는 프라이머시 문제라고 협조해 주지 않았다. 가까운 波折神社에 죽은 자 중 우라베 히로시의 이름이 남아 있을까 하여 알아 보았으나 없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조사를 해 준 하나부사씨의 작업에서 어떤 실마리

4) 이번 후쿠오카조사와 관련이 있어 2001년 9월 한국정신대연구소 소식지에 올린 글을 축약한 것이다. 조사는 현지조사는 8월 17일에 이루어졌다.

도 잡히지 않았지만 현장을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츠야자키는 후쿠오카의 지하철역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다. 츠야자키역은 지방 전철의 아담한 종착역이었다.

[津屋崎町史民俗調査報告書: 津屋崎の民俗 제4집](1999, 83-86쪽)에 의하면 메이지시기에 는 여기에 村役場, 波折神社가 있고 의원, 상점, 요정(人氣亭: 藤代市太郎), 유곽도 있었다. 이 지역은 주로 어업을 하고 항구가 있는 어촌이고 메이지 초기에 츠야자키촌의 총호수가 86호, 1955년에도 118호 536인으로서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었다.

그 조그마한 츠야자키촌의 西古小路町(古名)이 우리가 주목한 곳이었다.

하나부사씨가 이미 조사해 놓은 몇 곳의 마을 노인 집을 방문하였다. 그중 西住光一(74)와 上田씨(87) 등 4-5명의 노인의 증언을 들었으나 모두 우라베는 알지 못하였다. 이 지역이 단지 주소지였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유곽이나 해로 등에 대해 물었다. 西住光一씨에 의하면 이 지역에 일본인 여성이 3명 있던 유곽이 있었다. 그것이 전쟁이 터진 1940년 이후 유곽들이 전선으로 옮겨가서 그 후론 유곽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 지역은 육군이 십수명 정도 주둔한 정도였고 큰 부대는 없었다. 그리고 가고시마쪽으로 배로 가기란 힘들다. 한국사람이라곤 결핵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다른 노인에게서도 유곽의 존재는 확인되어 上田씨(87)는 유곽이름은 사카에야(榮屋)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라베나 조선인 여성은 이곳에서 찾을 수 없었다.

조그마한 마을이기에 우라베 히로시가 이곳에 주소나 본적을 두었다면 이곳에 오랫동안 산 이들이 우라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진중일지의 우라베의 주소가 조금 틀리게 적혀 있었다는 점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였다. 진중일지를 우라베가 쓰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도 발음도 한자도 틀린 유사지명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는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조선여성을 오키나와까지 데리고 갔을까? 배봉기할머니가 끌려간 그 시점에 오키나와 라사섬에 배치된 이들 일행의 연행과 배치과정을 밝힐 수 있는 우라베의 존재는 결국 확인하지 못하였다. 우라베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으로써 그에 대한 상상은 좀더 좁혀져 가는 느낌이다.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강정숙

4. 2002년 현지 신문 기사

현지 활동가와 기자들의 도움으로 본 조사팀 방문에 대해 3차례 기사를 써 주었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기사화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 외에도 [라디오 오키나와]에서도 다뤄주었다. 아쉬운점은 오키나와 남서부인 야에야마제도에는 [야에야마 신문]을 주로 본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시도가 없었다. 앞으로 이 신문에 기사 요청할 예정이다.

오키나와 타임스 2002년 7월11일자

「慰安婦」の情報提供を

韓国研究者が来沖

生活支援金制度の周知も

沖繩戦時に「日本軍」婦人女性の消息をたずねるため、韓国挺身隊研究「慰安婦」として朝鮮半島から沖繩に運ばれた朝鮮「慰安婦」ソウルの三人が来沖している。一九七七年、戦後沖繩に住んでいた慰安婦が「一九七一年に七十七歳で死去」が「慰安婦」だったことを名乗り出した。三人は「慰安婦」も乗り出るとは現れていない。三人は「韓国では政府からの生活支援金制度もできており、生存者も呼びかけ、情報提供を求めている」と話している。

来沖しているのは研究所の委員長、三人は「沖繩に生存者がいる」と話す。これまでの研究員で、県内で「慰安婦」調査をする浦崎敏子さんが同行している。

これまでの滞在は三人は県内に住む日韓混血者(ハーフ)と面談し、朝鮮半島出身の韓裔女性が行った「慰安婦」調査をめぐって、女性たちの存在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が、個人情報保護の制約もあり、有力な情報源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ていない。

沖繩戦時、軍夫として沖繩に運ばれた朝鮮半島出身女性の記録は「船中日記」(約二十八頁)の氏名、本籍などが残されているが、「慰安婦」として連れて来られた女性の記録はほとんど見当たらない。戦後残された「ミササギ」(沖大東島)「沖中日誌」の中に同島の慰安所に住む女性の氏名と本籍が書かれた一覧表が存在するが、その裏に調査したものの、本人を捜し当て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

浦崎委員長は、三人は「沖繩に生存者がいる」と話す。これまでの研究員で、県内で「慰安婦」調査をする浦崎敏子さんが同行している。

これまでの滞在は三人は県内に住む日韓混血者(ハーフ)と面談し、朝鮮半島出身の韓裔女性が行った「慰安婦」調査をめぐって、女性たちの存在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が、個人情報保護の制約もあり、有力な情報源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ていない。

沖繩戦時、軍夫として沖繩に運ばれた朝鮮半島出身女性の記録は「船中日記」(約二十八頁)の氏名、本籍などが残されているが、「慰安婦」として連れて来られた女性の記録はほとんど見当たらない。戦後残された「ミササギ」(沖大東島)「沖中日誌」の中に同島の慰安所に住む女性の氏名と本籍が書かれた一覧表が存在するが、その裏に調査したものの、本人を捜し当て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



「慰安婦」として運ばれた女性の消息をたずねるため、韓国挺身隊研究「慰安婦」として朝鮮半島から沖繩に運ばれた朝鮮「慰安婦」ソウルの三人が来沖している。一九七七年、戦後沖繩に住んでいた慰安婦が「一九七一年に七十七歳で死去」が「慰安婦」だったことを名乗り出した。三人は「慰安婦」も乗り出るとは現れていない。三人は「韓国では政府からの生活支援金制度もできており、生存者も呼びかけ、情報提供を求めている」と話している。

来沖しているのは研究所の委員長、三人は「沖繩に生存者がいる」と話す。これまでの研究員で、県内で「慰安婦」調査をする浦崎敏子さんが同行している。

これまでの滞在は三人は県内に住む日韓混血者(ハーフ)と面談し、朝鮮半島出身の韓裔女性が行った「慰安婦」調査をめぐって、女性たちの存在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が、個人情報保護の制約もあり、有力な情報源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ていない。

沖繩戦時、軍夫として沖繩に運ばれた朝鮮半島出身女性の記録は「船中日記」(約二十八頁)の氏名、本籍などが残されているが、「慰安婦」として連れて来られた女性の記録はほとんど見当たらない。戦後残された「ミササギ」(沖大東島)「沖中日誌」の中に同島の慰安所に住む女性の氏名と本籍が書かれた一覧表が存在するが、その裏に調査したものの、本人を捜し当て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

浦崎委員長は、三人は「沖繩に生存者がいる」と話す。これまでの研究員で、県内で「慰安婦」調査をする浦崎敏子さんが同行している。

これまでの滞在は三人は県内に住む日韓混血者(ハーフ)と面談し、朝鮮半島出身の韓裔女性が行った「慰安婦」調査をめぐって、女性たちの存在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が、個人情報保護の制約もあり、有力な情報源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ていない。

沖繩戦時、軍夫として沖繩に運ばれた朝鮮半島出身女性の記録は「船中日記」(約二十八頁)の氏名、本籍などが残されているが、「慰安婦」として連れて来られた女性の記録はほとんど見当たらない。戦後残された「ミササギ」(沖大東島)「沖中日誌」の中に同島の慰安所に住む女性の氏名と本籍が書かれた一覧表が存在するが、その裏に調査したものの、本人を捜し当て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

韓国の研究所

元従軍慰安婦を調査

県内で情報提供呼び掛け

韓国で元従軍慰安婦の研究・サポートを続けている韓国挺身隊研究所の姜貞淑所長、安李貞善研究員、徐鄭銀慶研究員の三人が六日から沖縄を訪れ、元従軍慰安婦に関する聞き取り調査などを行っている。

姜所長は「強制的に連れてこられた慰安婦は、多くが七十から八十歳代で高齢。韓国では支援金の法的整備も進んでおり、コンタクトできれば、ドバイなど状況によっては再度調査に訪れる予定だ。」と話し、研究員のメンバーは「小さな情報も参考になるので提供してください」と呼び掛けている。

研究員のメンバーは「小さな情報も参考になるので提供してください」と呼び掛けている。

情報提供は十三日まではスペース結、電話098(864)1539。以後は浦崎、電話09807(4)2717。

海洋博覧会
花
出発日
A
洋上火



韓国挺身隊研究所が29日から県内調査

韓国挺身隊研究所(以下、挺身隊研)が、29日から県内調査に乗り出す。挺身隊研は、戦時中の朝鮮半島に挺身隊として派遣された女性たちの生活や健康状態を調査し、その実態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調査は、県内の各自治体で行われ、挺身隊研の調査員が、挺身隊出身の女性たちと面談し、調査を行う。調査員は、挺身隊研の調査員であり、調査員は、挺身隊研の調査員である。

沖縄残留の朝鮮半島出身ハルモニへ
挺身隊研は、戦時中の朝鮮半島に挺身隊として派遣された女性たちの生活や健康状態を調査し、その実態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調査は、県内の各自治体で行われ、挺身隊研の調査員が、挺身隊出身の女性たちと面談し、調査を行う。調査員は、挺身隊研の調査員であり、調査員は、挺身隊研の調査員である。

III. 오키나와 전쟁과 일본군 ‘위안소’ 분포

1. 오키나와전쟁과 일본군 ‘위안부’

1) 오키나와의 특수성과 오키나와 전쟁

오키나와현은 오키나와 본섬을 중심으로 남서에 있는 50여 개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키나와는 일본이되 일본이 아닌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원래 독립국이었던 류큐왕국은 1609년 사쓰마번의 공격을 받아 종속되긴 하였으나 완전한 예속은 아니었고 메이지 시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독자적 외교노선을 견고 있었다. 류큐왕국은 해상왕국으로서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여러 나라와 교류하였다. 그러나 1872년 다시 일본에 재정복당하여 류큐번이 되었다가 1879년 오키나와(沖繩)현으로 확실하게 편입되면서 류큐는 독립을 잃었다. 이 때는 일본이 미국에 의해 문호개방이 된 후 약간의 틈새를 이용하여 정체변혁을 도모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영토확장의 시도에 대단한 관심을 보일 때이다. 그리하여 류큐만이 아니라 영토와 영해를 넓히는데 중요한 小笠原제도를 1876년에 정복하고 세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이토지마도 수중에 넣게 되었다.

류큐는 1879년 이후 일본령 오키나와로 일본의 강력한 동화정책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자신의 말과 이름을 잃어버리고 일본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일본 본토인과 다른 차별을 겪고 있었다.

오키나와에선 1898년부터 징병제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정책에 의해 滿蒙이나 남양제도, 미크로네시아 등지로 이민가게 되었다. 특히 1922년 남양청이 설치된 이후 남양홍발(주)가 중심이 되어 남양이민이 한층 추진되었다. 집단적 이주책의 결과 오키나와는 남양군도에 이민간 사람들이 많아 이후 돌아온 귀환자 모임까지 조직되어 있다. 그 증언은 [佐敷町史]에서 볼 수 있다.

1944년 다수의 오키나와인들이 이민 갔던 사이판에서는 일본군이 중국인에게 한 것처럼 미군이 잔인한 짓을 한다는 말을 유포하여 비췌아지듯 쏟아지는 폭탄과 굶주림 속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아사, 집단자살로 내몰았다. 사이판 집단자살은 오키나와전 前兆였다.

오키나와인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황국신민화를 강제하였다. 1939년 표준어 사용운동으로 [충승현 교육강령]을 만들어 오키나와 고유 언어를 방언화하고 방언을 멸시하는 정책을 폈다. 전쟁기에 들어가선 스파이를 단속한다는 이름 하에 오키나와 말을 하는 사람을 방언 사용자라고 하고 스파이시 하였다. 오키나와 창씨개명이라 할 개성개명은 1942년부터 실시되었다. 1940년 한국보다 늦는데 아마도 자발적으로 일본식 이름을 갖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의 이러한 제 조치는 곧 향토 문화를 부정한 것이었다. 그래서 일제는 오키나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조상숭배와 민간신앙의 장소인 우다키(御嶽), 우간조에 일본 신사를 건립하고 국가 신도화 운동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곳에 위안소를 설치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주민들이 신성한 장소라고 여기는 곳을 위안소로 한 것과는 연결되는 정책이다. 오키나와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고 군사 시설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에게 강제로 싼 값에 땅을 수용하였다. 이것은 전후에 원 소유자 주민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국유로 대장성에서 관리하게 되어 지금도 분쟁이 그치지 않는다.

오키나와는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치루게 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전쟁 초기만 해도 오키나와지역에서는 沖繩연대구 사령부만이 있고 1941년엔 沖繩本島, 中城灣의 津堅島, 西表島의 요새건축부대가 있는 정도이고 비행장도 해군 불시착용으로만 들어져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1943년 여름부터 伊江島, 沖繩 북비행장전설이 육군항공본부

에 의해 착수되었다. 그것이 1944년 3월 22일 대본영 직하의 32군의 창설을 동반하여 본격적으로 전도에 15 내지 16개의 비행장이 급히 만들어지고 제32군(제24사단, 제62사단, 독립혼성 제44여단)과 해군 沖繩방면 根據地隊 등 10만이 넘는 군대가 주둔하는데 이르렀다.

그리고 오키나와는 일본 국내에서 일본군이 벌인 것 중 가장 격렬한 지상전이 있었던 곳이다. 1945년 2월 硫黃島에서의 격렬한 지상전이 있던 후에 있었던 것이 오키나와전쟁이었다. 본격적 전쟁 전에 있었던 1944년 10월 10일 공습은 오키나와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오키나와전쟁에서 연합군측의 피해도 적지 않았지만 주민 94,754명, 현지에서 소집된 방위대원 28,228명, 학도대 등 전투협력자 55,246명으로 오키나와 인구 약 59만명 중 18만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이 때 일본 정규군 전사자는 65,908명이었다. 일본군의 3배, 주민의 1/3이 사망한 것이다.

硫黃島나 오키나와는 섬주민의 희생 비율이 엄청났다는 점에서 비슷한 전쟁경험을 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군작전에 의한 것이었다. 이 지역은 적이 상륙할 경우 적과 격렬한 교전을 통해 적의 항공기지 조성을 방해하여 일본 본토 결전 준비, 중전교섭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오키나와 그 자체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천황제를 수호하는 것, 이것이 최대의 과제였다. 이처럼 오키나와 전쟁은 [버리는 돌작전:捨て石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키나와 전쟁은 일본 본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온갖 희생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한 것으로서 미군의 무차별 폭격의 한편에선 일본군의 주민살해, 주민들에 의한 조선인 군부와 '위안부' 핍박 등이 중층적으로 존재하였다. 도카시키테선 1945년 3월 26일 329명의 주민이 집단자살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군인들이 식량 숨기고 주민 식량 뺏기 위해 거의 살해나 다름없이 집단자살로 밀어붙였다고 한다. 사이판 등지와 같이 주민에게 심은 미군에 대한 이미지도 집단자살의 길로 가게 했다. 뿐만아니라 일본 군인은 울음소리를 염려하여 유아를 직접 살해하거나 건설 진지 탄약운반 등에 종사한 조선인들을 식량부족이라는 이유로 학살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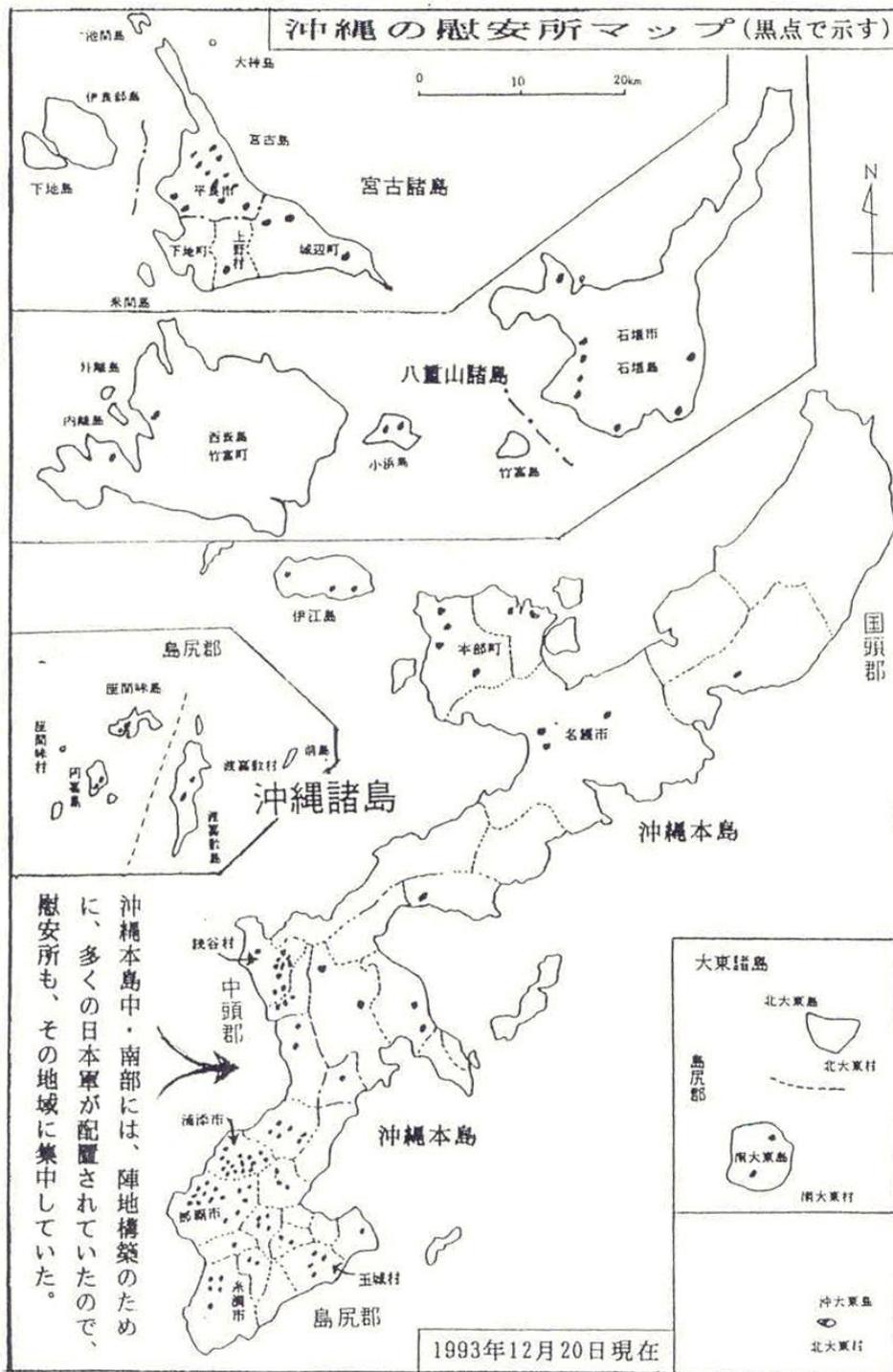
이처럼 전쟁과정에서 오키나와는 미군과 일본군에게 이중의 피해를 받았다. 미군에게서는 무수한 폭탄세례를, 일본군에게는 집단적인 자살강요와 학살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개된 오키나와 전쟁이므로 전쟁에 대한 오키나와인의 감정은 복잡하다. 한 국가 안에 두었으면서도 차별적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점이 바로 오키나와와 일본의 관계를 낳았다.

한편 아직 수도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은 많은 조선인 군'위안부', 군부 등은 미군, 일본군, 오키나와 주민이라는 중층적 구조의 제일 밑바닥에서 가장 큰 희생을 당하였다.

2) 오키나와 각섬의 일본군 '위안소' 분포

<오키나와 일본군위안소 분포도>5)

5) 아래 지도는 오키나와 활동가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전국여성사연구교류집 회 실행위원회, [제5회 전국여성사연구교류 집회 보고집], 1994, 16쪽



3) 오키나와 각섬의 일본군 배치상황⁶⁾

6) 강정숙, 가해자를 중심에 두고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오키나와 사례연구, [2001년 역사학 대회 발표문]을 참고하였다.

오키나와지역을 관할하던 32군의 주력 부대(제24, 62, 28사단과 독립혼성 제44, 45, 59, 60 여단들)들은 대부분 중국 동북부와 중국 북부 지역에서 오키나와로 이동하여 재편성되었고 부분적으로 일본에서 편성, 파견되었다. 이들은 도착하여 얼마 되지 않아 군위안소를 만들었다. 제32군 참모장 초오 이사오(長勇)는 1941년 10월 하노이 진주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참모부장으로 군위안소를 만든 경험이 있었고 이외 다른 부대들도 이미 군위안소를 설치 운영한 경험들을 가진 부대였다. 뿐만아니라 일본에서 바로 오키나와로 배치된 독립 혼성 제44여단의 경우에도 도착한지 얼마 안되어 군위안소를 설치하였다. 오키나와란 특수성이란 것이 있지만, 일본 내 일본군이 주둔하자마자 군위안소가 이렇게 광범하게 설치되고 운영되어졌다는 것은 제32군 사령부 참모인 초오 이사오 소장 등이 관여하였기 때문이다.⁷⁾ 이러한 점을 통해 군‘위안부’제라는 것이 일제에 의해 얼마나 중요한 국가차원의 사업, 제도로 되었는가는 알 수 있다. 더불어 아래 부대들의 오키나와 배치 이전의 주둔지를 밝힌 것은 군위안소 설치나 위안소 이용규칙이 만들어진 연고를 확인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1) 오키나와 본섬과 이에도(伊江島) 케라마열도

- 제32군: 우시지마(牛島 滿)사령관, 참모 長勇소장,
- 제9사단 1944년 11월 오키나와본섬에서 대만으로 진출
- 제24사단(雨宮巽 중장) 만주 東安, 揚崗 등지에서 1944.8 경 상륙
- 제62사단(藤岡武雄중장)중국 북부에서 편성 1944년 8월 상륙
- 독립 혼성제44여단(鈴木繁二 소장) 일본에서 1944년 편성
- 제5포병단(和田孝助 중장) 1944년 10월 상륙

伊江島: 제 50飛行場 大隊 要塞建築勤務 第六中隊(原口八郎중위) 1944.4월상륙

케라마열도:慶良間列島-도카시키, 자마미, 아카 등)

- 해상정진기지 제1대대(小澤義廣 소좌)1944년 9.10 자마미섬(좌간미도) 상륙
- 45.2 임시독립 제1대대로 개편하여 본도로 이동
- 제2대대(古賀宗市 소좌) 아카섬阿嘉 1944.9.10 상륙
- 45.2 임시독립 제2대대로 개편하여 본도로 이동
- 제3대대(鈴木常良소좌)도카시키섬(渡嘉敷島) 1944년 9.10 상륙
- 45.2 임시독립 제3대대로 개편하여 본도로 이동

(2) 미야코(宮古)群島

- 제28사단(사단장 納見敏郎中將) 중국동북부(滿洲) 치치할, 納金, 하얼빈
- 후라루키, 東安 등지에서 대부분 1944년 8월 경 상륙
- 독립혼성 제59여단(多賀哲四郎 少將) 만주 공주령 1944년 9월 상륙
- 독립혼성 제60여단(安藤忠一郎 少將) 만주 목단강 //
- 기타 소규모 부대 등

(3) 야에야마(八重山)群島(石垣島, 西表島, 与那國島 등)

7) 아래 부록으로 첨부한 자료에도 大迫瓦의 □薩摩의 붓케몬□과 濱川昌也 □나의 沖繩戰記□등의 책에서 長勇의 지시에 의해 오키나와에서 비밀리에 위안소 설치를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전국여성사연구교류집회 실행위원회, [제5회 전국여성사연구교류집회 보고집], 1994, 14쪽

독립혼성 제45여단(宮崎武之少將) 일본본토에서 편성 1944년 8-9월 상륙
기타 소규모 부대

- 4) 大東島(남대동도 북대동도 중대동도: 오키나와 본섬에서 480킬로)
제28사단 보병 제36연대(田村權一大佐) 만주 치치할에서 1944.7 상륙
제2야전병원(三好祝二 少佐) 반수가 1944.11.21 대동도 상륙
대동도 지대(제85병참경비대로 개칭)(深谷正 중좌) 1944년 4-5월 상륙
중대동도(라사섬) 大東島 지대 森 중위

4) 일본군위안소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

(1) 군‘위안부’ 동원과 배치

일반적으로 군‘위안부’ 동원 방식은 사령부 참모부나 단위부가 ‘위안부’ 관련 설비를 주관한다. 그리고 이동하는 부대가 ‘위안부’를 동원하고 수송하는 과정일체를 현지군과 상호 교신하며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시행하였다. 이점은 이미 小笠原제도 父島⁸⁾ 경우에서 선명히 드러나 있다. 이를 꼭 예로 들지 않더라도 오키나와 상황을 구성해 낼 수 있다. 즉 1970년대 최초로 ‘위안부’ 생존자로 주목을 끌었던 배봉기 할머니 일행 51명이 가고시마에서 탄 배는 5500톤급 징용수송선 마라이마루호였다. 11월 3일 오전 8시 출항하여 11월 7일 나하에 내려 게라마 세 섬에 각 7명씩, 그리고 나하에 약 20명 나머지 약 10명은 다이토오제도에 배치되었다고 한다.⁹⁾ 똑같은 배로 오키나와에 왔던 것은 확인되지 않지만 비슷한 시기에 도착한 이들이 배치된 라사섬 상황은 大東島支隊 제4중대 진중일지에 잘 기록되어 있다.

1944년 11월 21일자 대동도지대 제4중대 진중일지에 의하면 4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던 라사섬(현 오키다이트지마)의 대동도 지대 제4중대에게도 대동수비대에서 전보로 이미 ‘위안부’ 도착에 대한 정보가 가고 위안소 규정도 함께 보내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이미 조직적인 위안소 운영체계는 이미 마련되어 운영 중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군위안소 건축과 운영에 관여한 부대와 관여내용¹⁰⁾

오키나와 본섬과 이에섬, 라사섬 등은 군위안소 건축에 군인들을 동원했다는 것이 군 문서에 분명하게 기술된 곳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에도(伊江島)의 제 50飛行場 大隊 要塞建築勤務 第六中隊등에서 보다시피 부관과 중대장 등 장교가 사병을 동원하여 직접 독려하며 부대 자재를 사용하여 군위안소를 건축하였다.

8) 電報照會 父島要塞司令部參謀部 陳中日誌 1942 4.11,14,16

9) 儀同 保, 慶良間戰記, 東京:叢文社, 1980년, 가와다 후미코, 빨간 기와집, 한우정역, 매일경제신문사.1992 65-68쪽

10) 관련자료는 부록 3을 참고하라

<표1 군위안소 건축에 관여한 부대>

관련부대/관련자료/시기	관련군인 및 책임자	상급부대/책임자	장소
石兵團會報 62師團,54-101호, 1944 7-12	제62사단 사단장,藤岡武雄중장	제32군 牛島滿중장	오키나와 본섬
山 제3475부대 제24사단 보병 제32연대, 내무규정 1944.12월 獨立混成第 15聯隊各隊, 陳 中日誌, 1944.10	연대장 北郷格郎大佐 美田千賀藏대좌	제24사단 雨宮巽중장 독립혼성제44여단	
軍竝旅團に於ける副官會同 會報事項 南地區駐屯地司 令官 1945 1.13 군회보 사항	南地區駐屯地司令官	제32군 牛島滿중장	오키나와 본섬
歩兵第22聯隊, 沖繩本島の 狀況 元歩兵第22聯隊附軍醫 大尉 1946 1.9	제24사단 歩兵第22聯隊長, 吉田勝중좌	제24사단장 雨宮중장	오키나와 본섬
座間味村史 (1944년 11월 경)(1989년 발행)			자 마 미 섬과 아 카섬

군위안소 건축만이 아니라 위안소 운영과 ‘위안부’에 대한 감독 등에도 일본군은 깊숙이 관여하였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제62사단 이시(石)병단 부대는 다수의 군위안소를 두고 있었는데 예하 여단에서는 1944년 9월 여단마다 방위구역을 외출구역으로 하고 외출일을 여단에서 통제하였다. 그리고 경영자와 ‘위안부’(자료엔 기녀로 기술)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배당도 정하였다. 군‘위안부’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도 하였다. ‘각대는 공중폭격으로 피난하러 온 ‘위안부’로서 새로 채용된 자가 球軍과 ‘위안부’로서 계약한 것이 있다면 조사상 11월 14일까지 좌기 양식(원주소, 원屋호, 씨명, 연령, 적요)으로 보고할 것’라는 데서, 자료의 제한으로 구체적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군과 ‘위안부’와 직접적인 계약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위안소에서의 ‘위안부’들의 생활도 거의 군대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식량은 물론 연초 입수까지 군이 간여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이미 군위안소제도가 정착된 시기여서인지 성병예방을 위해 필수품으로 생각되었던 위생「샷쿠」는 후방시설 담임부대에 일괄 교부하여 직접 위안소에 비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이시(石)병단에서는 위안소의 가격과 인원 등을 정하고, 나중에 취소되긴 하지만 위안소 가격에 12할의 세까지 부과하기도 하였다.¹¹⁾ 위안소는 후방시설담임위원 중 서무계가 직접 담당하였다. 각 군에서 위안소를 개설할 때는 이 서무계 담당자의 이름과 영업개시일과 경영장소와 경영자씨명, 기녀수, 경영내규 등을 써 사령부에 보고하여야 했다.

제 24사단 예하부대 산 제3475부대의 내무규정(1944년 12월부터 시행) 부칙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영업부의 공유관념을 철저히 하고 점유 관념을 엄금할 것’이라 하여 ‘위안부’에 대한 감정을 엄금하고 성욕 배출 대상자로만 국한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와 같이 군인 범죄와 관련한 대응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한편 ‘위안부’에 대해서는 ‘업부는 사용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누구라도 공평을 제1로 하여 사용자로서 최

11)石兵團會報 62師團 第 54 號 1944 9.14

대 奉公하는 것에 염두에 두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라도 몸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여 봉공에 빠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만사 세심하게 주의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浦添市史)라고 하였다. 奉公이라는 표현을 통해 성으로서 국가에 봉사한다는 전근대적 관념을 '위안부'들에게 주입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 표2 군위안소 운영에 간여한 부대와 책임자 >

관련부대/관련자료/시기	관련군인 및 책임자	상급부대/ 책임자	장소
伊江島 要塞建築勤務 第 6 中隊/ 陳中日誌 第 2-3 號 1944. 5-6	第六中隊命令에 의해 장교 3(통渡소위, 병?전중위 및 平野소위), 준하사관 9, 병 327 중대장:原口八郎중위	제 50飛行場 大隊(만주 靑山堡에서 44.4.22 상륙) 田村眞三郎대위 *구군	伊江島
眞志喜警備中隊(독립보병제13대대 제 3중대), 陳中日誌, 1944 11-12	(제13대대 44.8.19)대대장:原宗辰大佐	제62사단 사단장 藤岡武雄중장 북지 44.8.19	眞志喜
陳中日誌 第 19 號 第 62 師團副官部 1945 1	부대 관리반山口軍曹등	//	首里
北飛行場第56飛行場大隊派遣重信班, 陳中日誌, 1944 12.	荒武 상등병 宮田 상등병 자기 부대와 제427부대 군인구락부 개축 제56대대장 黒澤巖少佐 만주 海林에서 44.7.22상륙	구군	북비행장
獨立混成第44旅團 第2步兵隊 第2大隊各隊, 眞部山軍慰安所建築關係, 45.1-2	眞部山 제2대대본부 國頭지대 고급主計의 지시로 예하 다수의 부대의 병사 동원./진부산 제2대대장 佐藤소좌/제2보병대까지 보고간 것 확인.제2보병대 中島主計 대위가 구체지시	여단장:鈴木繁二소장 본토에서 편성 44.7-9 통보선5-(4) 平作命 第17號 平山隊 1 945.2.10참고	진부산 진지 내
沖大東島(라사섬) 大東島 지대 진중일지, 1944-45	대동도(라사섬) 大東島 지대 森田 중위	대동도 지대(제85병관 경비대로 개칭)(深谷正중좌)	

5) 군위안소와 군'위안부' 상태

원래 沖繩에는 본섬에 쓰지, 石垣島 등지에 공창지대가 있었고 본격적으로 일본군이 다수 들어온 1944년 이전에는 西表島의 탄광, 우키나바리内離, 등지에 군위안소가 있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군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오키나와에 민가에 함부로 들어가고 강간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비록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와는 차별을 받고 있고 본토보다 25년 늦긴 하지만 이미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실제 일본의 영역내 편입된 시기가 길어 다른 식민지나 점령지에서의 일본군의 태도와는 다를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민간여성을 보호한다고 회유하면서, 유곽지역을 군위안소화하거나 촌민이 자주 다니지 않는 곳에 군위안소를 건축

하고 조선인이나 다른 섬 등의 여성들을 연행하여 군‘위안부’를 강요하였다.

1944년 10.10 오키나와 대공습 후에는 유곽 여성들을 군이 나서서 군‘위안부’화 하였다. 이전에도 유곽 여성들이 군‘위안부’가 된 경우가 있었지만 전쟁 말기까지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던 것이고 이것은 오키나와지역에서는 식민지, 점령지와 다른 모습 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키나와 지방사 연구자들이 오키나와제도의 군위안소 전체 규모를 밝히는 작업을 하여 130개 정도의 위안소가 밝혀졌다¹²⁾ 그 자료에 기초하여 보면 그 중 49개의 위안소(34개소는 국적 불명)에 조선인 군‘위안부’가 있었으며 그 수는 584명 이상,¹³⁾로 추정하였고 다른 자료에선 조선인 군‘위안부’ 수가 700명, 1500명 등 추정치가 크게 차이 난다. 그런데 이후 작업과 몇가지 측면을 생각하면 당시 연행된 조선인 여성들의 실제 수는 적어도 700명 이상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121개소에 584명 정도로 계산하였는데 국적불명 위안소도 평균치로 계산 하였던 점은 하향 정리한 것이라는 점과 1992년 이후 1994년 2월까지 조사에서 9개소가 더 늘었고, 34개소에 달하는 국적불명의 위안소의 여성 중 조선인 비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조사자의 지적에서도 드러난다. 즉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기억을 하는 이가 적다고 한다. 그것은 게라마제도, 남북 大東島, 宮古, 石垣 등과 같이 조선인 군‘위안부’가 있었던 위안소가 대부분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고, 도시 근교 위치하여도 군의 관할지역이어서 일반인들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인 군‘위안부’들의 상태를 반영하는 측면이기도 하다. 연합군의 대공습과 대대적인 공격, 그리하여 제32군이 붕괴되던 6월23일까지 당시 오키나와 인구 약 60만명 중 18만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일본 정규군 전사자는 65,908명이었다. 일본군의 3배가 사망한 것이다.¹⁴⁾ 이러한 막대한 인명피해 속에 조선인 ‘위안부’는 어떠하였을까. 군에 의존하고 있었고 부대 이동과 함께 이동하였던 까닭에 다수의 희생자가 나왔은 명백한 일이고 살아 있던 조선인 군‘위안부’들도 공동체와 유리되어 전적으로 군에 의존하여 살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사정이 어떠하였겠는가는 가이 상상을 할 수 있다.

진중일지 발견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라사섬의 경우 군‘위안부’의 거처와 식료품까지도 군에서 제공하고 공습이 심해진 시기에는 군인과 같이 동굴 속에 들어가 생활한 것은 오키나와의 다마구스쿠(玉城村) 이토가즈(糸數)동굴 등과도 비슷하다. 이것은 일본군이 위안소를 단순히 위생 감독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군‘위안부’를 확보하고 배치하고 패전이 될 때까지 군‘위안부’들을 노예와 같이 끌고 다니면서 일체의 관리 감독 통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6) 일본 패전 이후 조선인 군‘위안부’

일본 패전 후 조선인 군‘위안부’들은 일본인 부인, 지방인과 함께 하마호리(馬堀)수용소¹⁵⁾, 이시가와(石川) 민간인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그중 1945년 11월까지 류큐제도에 살아남아 미군에게 파악된 조선인 ‘위안부’는 적어도 150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⁶⁾ 그러나 이 수는 아주

12) 第5회 「全国女性史研究交流のつどい」第1분과회 멤버, □戦争と女性-「軍慰安所」が語るもの□, 日本: 那覇市, 1992.9.5

13) 賀數カズコ, 10쪽

14) 가와다 후미코(川田文子), □빨간 기와집□, 한우정 역, 매일경제신문사, 1992, 245쪽

15) 沖繩本島の状況 元歩兵第22聯隊附軍醫大尉 1946 1.9

제한된 수이다. 정보가 없어 귀환하지 못하거나 배봉기할머니처럼 자의반 타의반 이 지역에 정착한 이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키나와 조사 결과를 통해 보면 오키나와 ‘위안부’였으면서 1945, 6년 미군이 파악하지 못한 수를 보면 아래와 같다.

배봉기할머니와 그가 알고도 끝내 노출하지 않았던 동료2명 합 3명, 라사섬 7명, 모섬의 생존자 1명 내지 2명으로 11-12명이 있었다. 이외에도 1957,8년에 자살을 기도하였다는 토미씨 이웃의 여자, 얼마 전까지 하루바르초에 살았다는 여성이 있다. 이들이 앞에 말한 배봉기할머니가 알리지 않았던 여성과 다르다면 13-14명으로 늘게 된다. 150명의 생존자 명단이 부정확하지만 1948년도 귀국했다는 이춘봉할머니(충승NHK 제작, 沖繩 23만인의 비, 1995년)와 츠치하라(辻原) 위안소에 있었으며 전후에 고자시에 거주했던 조선인 부인에 대한 기록도 있다.¹⁷⁾ 이시가키섬의 오타씨가 확인한 조선인 ‘위안부’였던 여성 1명¹⁸⁾ 후쿠지씨가 확인한 최소 2명(한명은 미야코에서 미쳐서 돌아다녔다는 여성 1명, 또 한명은 류큐신보사 사장이 본섬에서 만났다는 여성 1명 등)¹⁹⁾으로 이 여성들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총 18-9명이 된다.

이렇듯 당시 이곳으로 연행당한 여성들의 수나 전쟁 후 생존자수, 귀환자 수 등에 있어서도 파편적 자료와 정보만 있을 뿐 전체적 규모나 상황을 파악하는데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일본정부는 다른 나라로 끌고 간 이들에 대해서는 물론 자국내의 현실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외면하고 회피하였기 때문이다.

7) 오키나와 ‘위안부’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특징

군문서는 비록 오키나와 본섬과 이에도, 라사섬에 국한되어 있지만, 오키나와의 주민과 전 일본군인들의 증언에 의해 작성한 지도에 의하면 군인이 있는 곳이면 거의 대부분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각 섬에 조선인 여성들이 ‘위안부’로 배치되었다는 것은 연합군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즉 1945년 말 연합군은 오키나와 본섬에서 40명, 오키나와 다른 섬에서 110명의 여성들을 수용하고 이들을 귀국조치하였다는 문건에서도 드러나듯이 (일본 본토로 옮겨진 라사섬을 제외하고) 최소한 110명의 여성들이 오키나와의 여러 섬에서 모아졌다는 점이다.

오키나와 위안소 조사에서 드러난 특징은 첫째 일본군이 군위안소를 건축하고 관리 통제 한 모습을 문서로 뚜렷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공개된 자료와 이번 오키나와 자료 조사를 통해 군위안소 운영과 관련된 일본군 지휘계통을 통해 비교적 확실히 밝힐 수 있다. 이 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을 드러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현재도 일본정부는 진상규명이나 사죄의 진정한 결과로서 배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교과서에 군 ‘위안부’ 내용을 축소하거나 빼버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분명한 책임추궁은 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오키나와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는 상당히 다른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곳에 중층적은 권력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이지만 일본군, 오키나와인, 조선

16) 1945년 11월 경 오키나와 본섬 이외의 지역에서 온 ‘위안부’가 110명, 오키나와 본섬에서 40명이 미군 주선으로 조선으로 귀국하였다. 在沖繩アメリカ軍政府活動報告 1945년 10월, 1945년 11월

17) 浜川昌也, 私の沖繩戰記, 那覇出版社, 64-65쪽 이 글에 의하면 그는 조선의 서부에 있는 향촌에서 태어나서 면장의 방문에 의해 여자정신대에 대한 할당이 있어 그도 지원하였는데 그는 봉천에 가서야 ‘위안부’라는 것을 알았고 그 후 중국대륙에서 오키나와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

18) 부록 오타시즈오 면담내용 참고

19) 이책 부록의 증언 15를 보라

인이라는 중층적 구조속에 조선인 ‘위안부’가 처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 예로 도카시 키섬에 위안소를 설치할 때 오키나와 주민들 특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위안소를 설치한다는 회유책에 의해 위안소가 설치되었고 여기에 조선인 ‘위안부’들이 배치되었다. 물론 오키나와인 사이에도 ‘일반’ 여성과 공장, ‘위안부’도 위계화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한편으론 오키나와 유곽의 여성들도 일본군 성노예화 되었다는 점은 동일하나 이리오모테의 오키나와 여성처럼 부모의 항의나 여성자신의 대응에 따라 운신의 폭은 상대적으로 조선인 보다 넓었다.

세 번째 현실로 돌아와 보면 오키나와인들의 노력에 의해 평화운동으로서 여성운동으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어 일본군위안소나 ‘위안부’에 대한 조사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당시 위안소 장소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지금도 확인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이다. 다만 아직 전문 연구기관이 없으므로 전체적인 심화연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이는 한국연구자들이 분기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것을 현지 활동가와 조사자들이 기대하고 있다.

강정숙



도카시키�섬: 배봉기할머니가 있었던 위안소 부근 정경

2. 게라마 열도(慶良間 列島)

오키나와의 방위를 위해 편성된 제10 방면군(대만) 산하의 제32군은 67,000명의 정규부대 이외에 오오타(大田實) 해군 소장이 이끄는 9,000명의 오키나와 방면 근거 지대와 오키나와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 방위대원 24,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우시지마 사령관 휘하의 10만 병력에는 이처럼 오키나와 주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오오타 소장의 근거지대 9,000명도 기지대, 제4해상 호위대 등의 정규군은 2,800명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경북 지역에서 징용 당해 끌려온 군속 노무자들과 현지에서 징용된 비전투요원들이었다²⁰⁾.

이에 대해 연합군은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하여 오키나와 상륙 작전을 준비하였다. “빙산 작전”이라고 붙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때까지 남태평양의 섬(마셜군도나, 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등)에서 치루었던 그 어떤 전투보다도 군인과 무기를 많이 투입하였다. 오키나와가 태평양전쟁에서 그만큼 중요한 요새였다는 뜻인데 연합군의 당시 병력은 태평양 전사(戰史)에 의하면 군인 182,821명에 함정수 434, 군수품이 746,850톤에 이른다²¹⁾. 연합군과 같은 대규모의 병력을 지니지 못한 일본군은 오랜 세월 씻기고 깎여 험난한 벼랑과 계곡, 자연동굴 등의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하기로 하고 천연요새인 게라마 열도를 근거지로 하여 상륙하는 연합군을 배후에서 해군특공정으로 기습하겠다는 작전을 세웠다.

사실 그 때 일본 해군은 거의 모든 함정을 상실하여 해양 수송력조차 거의 마비된 상태여서 이른바 특공작전 이외에는 연합군 기동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없었다.

20) <게라마 열도>. 권병탁, 영남대출판부. p132-134

21) 위의 책. p.135

태평양 전쟁의 말기에 연합군에게 큰 피해를 입히며 하늘에서 활약한 것이 이른바 가미가세(神風) 특공대였는데 바다에서도 그러한 전과를 얻을만한 특공 주정(舟艇)으로 고안한 것이 신요정(震洋艇)이었다.

신요정은 길이 약 6미터의 목선으로 무게는 1.25-2톤 정도였다. 배의 앞 부분에 250킬로그램 정도의 고성능 폭탄이나 기뢰를 싣고 시속 46-56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려가 목표물인 함선에 부딪쳐 자폭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스무 살 미만의 젊은 특공대 소년들이 신요 한 척 당 한 명씩 배치가 되었다. 일본은 종전 시기에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방어에 쓰기 위해 이 특공주정을 6천 척이나 생산하였는데 그 중 3백여 척이 게라마 열도에 배치되었던 것이다.

1944년에 일본 군대를 위한 조선인 군속으로 징발되어 게라마 열도에 배치되었던 540여명은 이 특공정을 숨겨서 보관해 둘 엄폐 참호를 파기 위한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가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되었다²²⁾.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국에서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던 1990년대 초에 일본의 전국 여성사 연구 교류 모임에서 만든 오키나와 현의 위안소 지도에 의하면 게라마 열도의 도카시키 섬에 두 곳, 그리고 자마미 섬과 아카 섬에도 민가 두 집을 접수하여 만든 위안소가 있었다²³⁾.

<배봉기할머니 사진>



이번의 게라마 열도 현지조사는 배봉기 할머니가 머물렀던 도카시키 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배봉기 할머니를 10년 동안이나 만나면서 인터뷰를 계속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배봉기 할머니의 개인전기를 겸한 위안소 연구서로 펴낸 가와다 후미코의 책 <빨간 기와집>(1987)은 게라마 열도에서 진행되었던 전쟁과 위안소의 실태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배봉기 할머니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남의 집 살이를 하며 떠돌다가 열일곱 살에 첫 결혼을 하나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도 스스로 정리하고 나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된다. 그러다가 흥남에서 여자들을 소개하는 남자를 만나 1944년 서울을 거쳐 부산에서 배를 타고 모지와 시모노세키, 가고시마를 거쳐 11월 6일 도착한 곳이 오키나와 나하였다. 51명의 여자들이 같이 출발하여 나하에 20명이 내리고 게라마의 세 섬에 각 7명씩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다이토섬에 배치되었다²⁴⁾ 또

한 이 배에는 당시 전략 특별 간부후보생이었던 기도 다모츠(儀同保, <게라마 戰記>의 저자)도 탔는데, 그의 증언에 의하면 그 배는 5,500톤급의 징용 수송선 마라이 호였다²⁵⁾.

22) 1946년 1월 포로송환선을 타고 살아 돌아온 경북 경산군 출신의 275명이 '태평양동지회'를 조직하고 회원들의 회고담을 정리하여 낸 책이 <게라마 열도>(1982, 영남대학교 출판부)이다.

23) 제5회 전국여성사연구교류의 모임 보고집 (1994)

24) <赤瓦の家>, 川田文子. 筑摩書房(1987). p.53

배봉기 할머니 일행은 나하에서 다시 물자를 운반하는 데 쓰는 어선을 타고 자마미 섬에 우선 내렸다. 도카시키 섬으로 가는 7명은 자마미 섬에서 1박을 하고 다음 날 도카시키 섬으로 향했다. 이들을 오키나와까지 데려온 남자들은 각 섬으로 하나씩 흩어져 위안소가 개설된 부 관리인 노릇을 하였다. 여자들로부터 아저씨라고 불리던 남자가 나하에 남고 도카시키 섬에는 가네코가 아카 섬에는 스즈키가 남았으며 자마미 섬의 관리는 7명 여자 중의 하나²⁶⁾가 맡았는데 그는 아저씨의 정부라고 알려져 있는 여자였다.

배봉기 할머니는 처음에 가대로 지붕을 덮은 작은 민가에 수용되었다가 위안소로 개조된 “빨간 기와집”으로 옮기게 된다. ‘나카마쵸’라고 불리던 나카무라 씨의 집이 군에 접수 당해 위안소로 쓰이게 된 것인데 당시 그 집은 안채가 22평, 가축 겸 농기구 창고가 15평이었다. 부엌과 식당 그리고 4개의 방이 있던 안채를 베니어판으로 6개로 나누고 가축 겸 농기구 창고에도 방을 하나

들여서 7명의 여자들이 살도록 하였다. 또 식당의 끝에 있던 절임이나 된장, 간장을 저장하는 거실을 접수대로 개조하였다²⁷⁾.

그런데 이 집이 위안소로 지정되게 된 것은 크고 깨끗한 기와집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그 섬에서 세 집밖에 없던 개량변소였기 때문이었다. 그 때 마을에서는 염소를 키우고 있었고 집집마다 돼지우리 옆에 변소가 같이 있었는데 그 집은 당시로서는 신석인 푸세식이었던 것이다.

지난 7월 도카시키 섬을 찾아가 우리가 만난 나카무라 하츠코 할머니는 지금도 증언을 하 시며 이 점을 강조하였으며, 당시 ‘위안부’들의 식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식사는 일반 병사들보다 더 고급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둥근 깡통에 든 햄이 얇게 썰어진 채 잔반에 들어있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우리는 햄을 본 적이 없었고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나카무라 할머니는 1923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치면 80세이다.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의 새집으로 바뀌었지만, “빨간 기와집”의 흔적과 기억을 찾아서 외지의 사람들이 그 동안 너무 많이 찾아왔던 듯, 이제는 자기 집에 남을 들이기 싫다고 하였다. 다행히 우리와 동행하였던 미나모토 하루미 씨가 도카시키 섬의 출신에다 나카무라 할머니와 아는 사이여서 옆집인 신자토(新里) 할머니네(88세) 집에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다.

신자토 할머니네 집은 당시에 위안소에 놀러오는 군인들의 대합실로 쓰였으며 신자토 할머니 자신은 위안소에 밥을 해서 나르는 일을 하여서 조선인 ‘위안부’들을 비교적 자주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다고 한다²⁸⁾

25) 위의 책, p.51. 그리고 <慶良間 戰記>, 儀同保(1980), 叢文社. p.35.

26) 위의 책, p.53. 또한 <오키나와 패전 기록 - 비극의 자마미 섬>의 저자인 미야기 하츠에 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이케가미 토미요로 몸집이 크고 용모가 아름다웠으며, 아마(阿眞) 부락 사람들에게 장교 전용으로 소문나 있었다.

27) 위의 책, p.61

28) 야마다니 테츠오 씨는 1970년에 도카시키 섬을 찾아 <살다 - 오키나와 도카시키 섬 집단 자결로부터 25년> 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1979년에는 <오키나와 할머니 - 증언중군 ‘위안부’> 라는 기록영화를 완성하였고 10시간분의 증언을 수록하여 같은 제목의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이 책에서 박 할머니라는 가명으로 다섯 차례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배봉기 할머니이다. 또한 배봉기 할머니가 있었던 위안소의 바로 옆집에 살았던 헤이미자토(신자토) 가족의 인터뷰도 실고 있는데, 신자토 요시에 씨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딸까지 마침 자리를 같이 하여 중요한 증언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山谷哲夫, <沖繩のハルモニ>, 晩聲社(1979). p.137-144.

나카무라 할머니는 소화 19년(1944년) 9월 8일쯤 타마(球) 부대가 도카시키 섬에 상륙하면서 집을 빼앗겼으며 가네코 반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배봉기 할머니에 대한 기억 등을 증언해 주셨지만 당시 위안소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에 있어서는 혼란을 보였다. 이미 50년도 전의 일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한다는 게 80세의 할머니에게는 무리일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빨간 기와집>에 실려있는 나카무라 할머니의 증언과 지난 여름에 우리를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더러 있었는데, 가와다 후미코 씨가 나카무라 할머니를 인터뷰하였던 것이 20년전쯤인 걸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젊었던 그때의 기억이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싶다²⁹⁾.

도카시키 섬의 위안소 개설은 1944년 9월 9일 스즈키 소좌가 이끄는 제3기지대 약 100여 명이 상륙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섬 인구는 1,377명이었는데 조용하던 섬마을이 전쟁 분위기로 술렁이기 시작하였고 11월초에 조선여성 7명이 도착하자 마을 여자 청년단의 강한 항의가 있었다. 오키나와 중에서도 도카시키는 전통적으로 풍기가 엄하여 남녀관계가 깨끗하고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유곽으로 딸을 판다든가 하는 일이 없었는데, 어째서 일본 군대는 최전선까지 여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 여자를 마을에 들여놓으면 풍기가 문란해져서 큰일이고 도카시키의 여성들이 모두 그런 여성으로 잘못 인식될까봐 염려하였던 것이다.

해상 艇進 제3戰隊의 아카마츠 대장은 마을의 여자 청년단장을 찾아가 “전장에서 위안소를 두는 것은 오히려 당신들의 몸을 지켜주기 위해서니까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총장을 입회시킨 가운데 간절히 설득하여 저지 운동을 잠재웠다.

당시엔 성매매 자체가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는 인식은 아직 생기기 전이어서 위안소가 자신의 몸이 범해질지도 모르는 풍기문란을 오히려 막아준다는 논리가 통했던 것이다³⁰⁾.

1944년 8월 산(山) 제3475부대가 오키나와에 배치된 뒤 12월 20일부터 시행된 ‘군인클럽에 관한 규정’³¹⁾을 보면 군이 철저히 위안소를 관리하면서 성병에 의한 병력 감소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맨 먼저 민간인은 군인클럽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과 군인 군속은 민간의 유곽이나 그 비슷한 시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위안부’에 대해서는 군의관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였고 접촉자에게는 콘돔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일회 이용시간은 40분으로 요금은 계급에 따라 장교는 3엔, 하사관과 군속은 2.5엔, 사병은 2엔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클럽이용시간도 사병은 12시에서 17시, 하사관은 17시에서 20시, 그리고 장교는 20시에서 24시로 규정되어 있었다. 사용자에게 ‘위안부’의 공유관념을 철저히 하고 점유관념을 엄금함과 동시에 영업자는 사용자에게 대해 최대의 봉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여 ‘위안부’를 오로지 전쟁을 잘 하도록 군인들을 격려하는 도구로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안이정선

29) 우선 이번의 증언에서 나카무라 할머니는 배봉기 할머니의 위안소에서의 이름을 ‘카츠코’라고 하셨고, 서른 세 살이라고 하셨다 (책에서는 아키코, 서른 살이었다). 다른 ‘위안부’의 이름을 묻자 기쿠마루, 스즈란, 아키코, 하루에, 가츠코, 밧짱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다. 아이코를 빼뜨리신 셈인데 또 할머니는 하루코를 하루에로 부르고 계셨다. 기쿠마루는 키가 컸으며 스즈란이 스무살이었고 일본말을 잘 했던 하루에는 딸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왔다면서 이웃의 신자토 요시에 할머니를 붙들고 엄마라고 부르며 고향 이야기를 하면서 울기도 했다는 말씀도 하셨다.

30) <赤瓦の家>, 川田文子, 筑摩書房(1987). p.60

31) <赤瓦の家>, 川田文子, 筑摩書房(1987). p.175-177

남고 매강화교 건설예정 구역하기
南大東村全圖





3. 다이토섬(大東島)

1) 미나미다이토 위안소

오키나와 본섬에서 동쪽으로 약 360킬로미터의 태평양상의 다이토(大東)제도라고 불리는 3개섬이 있다. 그중 가장 큰 섬이 미나미다이토(南大東島)이고, 이 섬의 북쪽으로 8킬로미터에 키타(北大東島), 남쪽 160킬로미터에 오키다이토섬(沖大東島: 일명 라사섬)이 있다. 행정구분으로서는 沖大東島는 北大東島와 합하여 島尻郡 北大東村으로 沖大東島는 北大東村 字라사이고 南大東島는 沖繩현 島尻郡 南大東村이다.³²⁾ 미나미다이토지마는 1885년 처음으로 일본영토로 편입되었다. 1892년에 세섬이 일본영토임을 외국에 선포하였다.³³⁾

미나미와 키타다이토 섬에는 제당사업이 있었는데 키타와 라사섬은 인광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다이토지마에 병력이 주둔하게 된 것은 1931년 南大東島에 소규모의 비행장을 건설, 특설항공대를 배치하여 南大東島를 거점으로 하여 해군특별연습을 실시하면서부터이다. 다음으로 1934년에는 비행장을 이전 신설하여 전회와 같은 규모의 해군특별연습을 실시하였다. 군함도 1931년에는 구축함 24호 [가시]가 1932년에는 전함 陸奧가 내항하였다. 1941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의 약 15일간에 걸쳐 南大東島를 거점으로 佐世保 해군에 의한 특별연습이 실시되어져 미나미다이토에 특설항공대가 설치되어짐과 함께 면적 약7000평(활주로만)의 소규모 비행장이 丸山 북동부에 건설되어졌다. 1934년 1월 인구가 총 532명에 지나지 않았던 작은 라사섬은 그 지리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1940년 8월에는 중앙기상대 라사섬 기상관측소가 설치되어 9명의 직원이 배치되어지고 1942년 8월에는 해군경계대가 파견되어 망루를 건설하여 해상을 감시하였다.³⁴⁾

이때쯤 미나미다이토에선 소화16년경이고³⁵⁾ 해군의 비행장을 닦을 때 조선인 노무자들이 동원되었다. 이에 대해선 춘사편집장이었던 니시하마씨는 1941년이 아니라 1943년으로 기억한다. 그의 증언은 아래와 같다.

예전부터 있었던 동서코스(비행장 활주로)에다 남북 코스를 추가 건설하기 위해 노동력으로 동원하기 위해 조선인들을 징용하였다. 인원은 불투명하다. 내가 그 사람들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식당에서 해군들 6,7명이 돌아오는 것이 늦어서인가 몇몇을 심하게 꾸짖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매를 맞으면서 ‘아이고’라는 소리를 내었다. 따라서 아 조선인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공사는 해군의 경비대 외에 토목관계 사람들도 와 있고 경비대가 조선인 노무자(수는 불명)를 지휘하고 일하게 하고 있었는데 당시 공사장은 미이케쿠미(큐슈)였다고 하였다.³⁶⁾

32) 南大東村誌편집위원회, 南大東村誌(改訂),南大東村역장, 沖繩나하, 1990, 3쪽

33) 앞책, 867-868쪽

34) 앞책, 398쪽

35) 앞책, 445쪽 沖山甚一郎(당시 南大東島 방위대의 설영대원) 증언

이러한 다이토제도에 본격적으로 부대가 주둔하게 된 것은 1944년 4월 이후였다. 球부대가 상륙, 학교를 숙박소로서 주둔하였다. 이 부대는 4월 11일 門司를 출항하여 남하 중 南大東島 근해에서 연합군 잠수함의 뇌격을 받아서 대장이 탄 배가 침몰하여 대신에 부관 福澤 대위가 지휘를 맡고 그 후 1개월을 지난 5월 17일이 되어서 후임대장으로 深谷正중좌가 부임했다. 또 이 부대 중 한 개 중대는 키타다이토에 상륙하였고 다른 한 중대(森田隊)는 라사섬(오키다이토지마)에 배치되었다.

사진 <南大東島 新東 조선인 위안소 자리>

사진 <위안소 부근 연대본부로 삼은 동굴>

1944년 7월 19일 平野儀一대좌가 지휘하는 豊부대의 일개 연대가 상륙하여, 原壽滿夫소좌 지휘한 제1대대는 남지구로, 吉田健三소좌 지휘 제3대대는 新東地區로, 須永力之助 소좌가 지휘하는 제2대위는 北大東島에 각각 주둔 배치되어졌다. 다음으로 1944년 9월에는 岡積清治소좌가 지휘하는 해군부대(약 1500명)가 상륙, 부대본부를 大神宮山에, 今澤소좌가 지휘하는 제322 설영대는 비행장 부근에 주둔하였다, 이 때문에 도내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식량 사정은 우려할 사태에 이르렀다.³⁷⁾

사진<南大東島의 산 증인 西浜良修씨>

이때 미나미다이토섬에는 1944년 4월에 다마(球)부대가 오고, 그 해 7월 토요일, 9월에 해군부대가 상륙했다. 이때 당시 상황은 니시하마 요시노부(西浜良修, 1923년 생)씨의 증언(증언 6 참고)이 자세하다.

다마부대가 상륙 후에 곧바로 오키나와 출신 ‘위안부’ (6-7명 내외)가 와서 모치마루(持丸)저택에 살았다. 책임자는 해야시였으며 상당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군속인 것 같았다. 군대 이상이 아닌가 싶었다. 왜냐하면 군인들을 야단치기도 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군인들은 鑑札같은 것을 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이 많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8-9월경이 아니었다 생각되는데 모치마루 저택의 연못에서 목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물을 끼얹으며 씻고 있었다. 연속적으로 병사를 상대해야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몸이 지저분해져 청결하게 하고자 했을 것이다. 밤에도 검사람들(청년)은 (‘위안소’ 이용이)금지 되어 있었다. 장교들이 지키고 있어서 군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다른 이름으로 빼야 오키나와빼야라고 했다.

곧바로 19년 7월에 도요 (農)부대가 상륙했고 곧 조선빼야, 조선인 ‘위안부’가 나타났다. 5-6명 정도이지 않을까? 조선인 ‘위안부’들은 오키야마 미네마스의 집을 사용했다. 연대본부가 바로 조선인 위안소 옆이었고 전시 중에는 행동범위가 넓지 못하니까 자신의 집이나 동굴근처에서 지냈고 그래서 미네마스씨 집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내지 않았나 생각된다. 고추 구하러 조선 빼들이 마을에 왔었는데 군견들이 지나가면 무서워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연대 본부는 현재 아자신토(字新東)지역에 있었다. 위험하니까 전시 동굴 가까이에서 살고 있었다. 위험해지면 오키나와 ‘위안부’도 학교 뒷산으로 이동했다. 조선에서 온 ‘위안부’들도 연대 본부 바로 옆 동굴로 가지 않았을까...조선인 ‘위안부’ 철수에 대해서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 종전 후 재판소에서 문의를 있어서 조선빼 철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45년 9월에 20 몇 일쯤³⁸⁾ 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군이 비행장에 착륙해서 교섭한 후 무기와 탄약 등은 몰수하였으며 포대는 폭파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미군이 돌아갈 때 조선

36) 앞책과 니시하마씨 증언

37) 앞책, 387쪽

38) 南大東島村史에 의하면 10월 20일이라고 한다.

에서 온 ‘위안부’들을 비행기에 태워갔다. 기타다이토에는 ‘위안부’가 없었다.

조선인 ‘위안부’는 36연대의 토요부대와 함께왔고 타마부대와 함께 온 것은 오키나와 ‘위안부’이다. 토요부대의 군인수는 3,700명(약 4000명 정도)였다. 조선인 ‘위안부’는 토요부대 장교급 이상만 사용했을 것이다. 토요부대는 잘 모르겠다. 신도(新東)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중이었고 그곳에 가는 일이 없었다. 지나다니는 사람을 5-6인정도 보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다. 해군부대는 다이토 신사에 체재(700명 정도)했다. 그러나 위안소는 없었다.

당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정보는 적절한 주민들의 면담 거부로 더 자세한 것은 얻을 수 없었다. 오히려 배봉기할머니가 댔던 배에 함께 탄 儀同保에 의하면 요시무라³⁹⁾라는 업자가 다이토지마에 갔다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미나마다이토에는 보병 제36연대 본부와 보병 2개 대대와 다이토섬 지대가 있었으며 여기에 조선인 위안소는 한곳이 있고 북다이토섬에는 보병 1개 대대가 있었으나 위안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점에서 보면 미나마다이토의 조선인 위안소 업자가 바로 요시무라였다고 생각된다.

2) 오키다이토지마(라사섬)의 군위안소

라사섬은 인광개발을 하던 라사공업주식회사(1944년 5월 사명을 東亞鑛工주식회사로 바꿈)의 선박이 1944년 2월, 4월 3회에 걸쳐 잠수함 공격을 받았는데 4월 26일에는 福成丸이 하역 중 연합군 잠수함의 뇌격으로 침몰 선원 39명 사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4년 4월 제85병참경비대의 일개 중대인 라사도 수비대 220명이 상륙하였다. 이곳의 라사도 수비대장은 보병 제4중대장 森田芳雄중위였다.

여기에 군‘위안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은 1944년 11월 21일이다. 제4중대 진중일지에 이곳의 군인들에게 오락거리가 없다는 기록이 있는 후이다. 1944년 11월 22일 기범선으로 ‘위안부’와 경영자 합하여 8명이 도착하고 위안소 규정을 함께 보낸다는 21일 대동수비대 전보가 있는 후 11월 23일 아침에 선단 6척과 함께 8명이 도착하였다. 이때 100명에 가까운 지방민들은 퇴도(12월 말에는 거의 모든 이 지방민이 퇴도)하였다.

전쟁초기엔 라사섬에는 일반민간인들이 거주하였다. 그러나 전황 긴박과 함께 1944년 4월 森田隊를 수송했던 배로 부녀자, 아이들, 노인 등 257명이, 7월18일엔 2차로 83명이 퇴도하였다. 11월 23일에는 군의 보급 연락 선단6척이 래항하여 제3차 98명, 11월 28일 제4차로 34명이 퇴도하였다. 잔류종업원 93명은 군의 지시에 의해 진지 구축작업에 협력한 후, 1945년 1월 22일 제5차를 최후로 전원 퇴도하였다.⁴⁰⁾

민간인들이 라사섬에서 철수할 무렵에 남은 건 육군 라사수비대와 해군밖에 없을 시점에 민간인인 조선인 여성이 우라베라는 업자와 함께 라사섬으로 배치되었다.

제4중대에 위안소를 설치한 이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안부’의 인적사항은 상부로 보고되었다. 보병 제36연대장(이때 대동도 수비대장 平野대좌)의 전보(1944년 12월 3일자) 요청에 의해 ‘위안부’ 인적사항을 작성하였다. 그것이 진중일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영책임자의 주소씨명과 7명의 ‘위안부’의 본적, 씨명, 예명, 연령, 舊樓名이 기재되어 있다. 이 라사섬 위안소 업자가 바로 이번엔 조사하게 된 占部公이었다.

라사섬 군위안소는 1944년 11월 26일부터 서해안 부락 북단 빈집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위안소규정은 대동도 수비대가 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39) 儀同保, 慶良間戰記, 東京:叢文社, 1980년, 가와다 후미코, 빨간 기와집, 한우정역, 매일경제신문사.1992 65-68쪽

40) 南大東村誌편집위원회, 南大東村誌(改訂),南大東村역장, 沖繩 나하, 1990, 398쪽

지방민이 모두 퇴도하고 민간인이라곤 군‘위안부’와 측후소직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군인이었던 상황에서 군‘위안부’들의 양식과 의복 등 생활물자와 주거지 등에서 거의 군에 의존하게 되었다. 실제로 군위안소도 부락 북단 광원숙사, 제1호 병사 하사관실, 본부 横舊 피복창고, 제5동굴 등으로 전전하였는데 이것은 라사섬수비대가 지정해 주었다.

(1) 라사섬 ‘위안부’ 동원과 수송

일본군성노예의 동원에 군의 관여문제:

우선 군요구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엔 전선에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간다하더라도 조선에서 오키나와로 가기 위해선 조선총독부 행정, 경찰계통의 여행증명서등 각종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이것은 배 승하선을 감독하는 기관들의 승인이 있어야 일본 오키나와로의 이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 사례를 볼 때 군의 요구가 있을 경우엔 여러 절차가 대폭 완화되거나 불법적인 경우도 목인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사섬으로 조선인 ‘위안부’를 동원하게 되는 구체적 과정을 설명해 주는 자료는 없지만 일반적 경우로 생각해보자. 현지의 일본군의 요구가 있자 군수물품조달자 혹은 군속[후쿠오카(福岡)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우라베(占部公)] 등이 조선으로 파견되어 경찰행정기관의 목인 내지 지원 하에 조선의 업자(인력동원 혹은 매춘업자)와 연계하여 수를 채우고 이를 다시 승하선 관련기관의 협조 하에 일본으로 가서 그곳에서 오키나와행 배를 탔다. 이것에 대해선 1970년대 최초로 ‘위안부’ 생존자로 주목을 끌었던 배봉기 할머니 일행 51명 대한 연구를 참조하자. 이들이 탄 배는 5500톤급 정용수송선 마라이마루호였다. 1944년 11월 3일 가고시마에서 출항해서 11월 7일 나하에 내렸다.⁴¹⁾

똑같은 배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라사섬에 배치된 여성들도 비슷한 시기인 1944년 11월 23일에 라사섬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1944년 11월 21일자 대동도지대 제4중대 진중일지에 의하면 4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던 라사섬 대동도 지대 제4중대에게 대동 수비대에서 전보로 이미 ‘위안부’ 도착에 대한 정보가 가고 위안소 규정도 함께 보내고 있다⁴²⁾는 사실이다.

11월 23일 당시 섬 주민들은 소개되어지고 있던 시점에 민간인이었던 조선여성 7명(라사섬에 동원된 여성들 나이에서도 드러나는데 7명 중 19세가 2명, 21세 3명)은 역으로 수척의 군함 호위에 군함에 태워져 거의 군인밖에 없던 라사섬으로 들어가게 되었다.⁴³⁾

당시 라사섬 위안소 운영의 지휘 책임계통은 대동도 지대 제4중대장 육군중위 森田芳雄-대동도지대 지대장 深谷正중좌-보병 제36연대장 겸 대동도수비대장 平野儀一대좌 이후 田村權一대좌-제32군 사령관 (邊部 이후) 牛島 滿이었다.

(2) 군위안소 설치와 위안소 통제

라사섬의 군위안소의 사용규정은 대동도 수비대의 규정을 이용하였다. [대동도수비대의 위안소 이용규정은 아직 발굴하지 못하였다.]

위안소 통제

41) 가와다 후미코, [빨간 기와집], 한우정역, 매일경제신문사, 1992, 65-66쪽

42) 제4중대 진중일지 1944.11.21

43) 진중일지 1944.11.23

수비대전 제507호로 ‘위안부’에 관하여 1.경영책임자의 주소씨명 2.‘위안부’의 본적, 씨명, 예명, 연령, 舊樓名, 개업연월일에 대해 조사 보고하도록 44)하였다.

그 날 진중일지에 보면

1)경영책임자 주소 福岡縣 宗像郡 伊尾崎西十?山?路

씨명 占部 公(우라베 히로시)

2)‘위안부’

본적 씨명 예명 연령 구루명

11월 26일부터 서해안 부락 북단 빈집에 영업을 개시한다. 규정은 귀대의 것에 따른다.

(3) 군‘위안부’들의 처지/라사섬의 조선인 군‘위안부’와 위안소 업자 분석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당시 문건자료는 진중일지에 적혀 있는 주소씨명 등의 내용뿐이다.

여성들이 오기 이전에 이미 남대동도이나 라사섬을 향하던 물자를 실은 배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즉 1944년 8월 10일 소형선박 수송선단이 미나미다이토에서 적 잠수함에 의해 뇌격을 받아 침몰하여, 식량 등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까닭에 1945년 4월 이후 식량사정은 악화되어 배급 정지가 되어 거주민들은 각호 자급자족으로 들어갔다.⁴⁵⁾

라사섬 군‘위안부’에 대한 식료품 등 일용품은 시기에 따라 어려움이 있지만⁴⁶⁾ 원칙적으로 자체 해결한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⁷⁾ 하지만 1945년에 가면 연합군 폭격으로 식료품만이 아니라 의복류 조차 손실 정도가 심해 군용피복급여불하에 대한 질문을 라사섬 부대에서 제기할 정도가 되었다.⁴⁸⁾

거처는 처음에는 마을 북단의 광원숙사에 거주하고 있었으나⁴⁹⁾ 이후에는 ‘군위안소는 제1호 병사 하사관실’⁵⁰⁾ 본부 橫舊 피복창고⁵¹⁾였고 공습이 심해진 시기에는 군인과 같이 동굴

44) 진중일지 1944.12.3

45) 남대동도, 387쪽

46) 라사섬 제4중대 진중일지 1944.12.20

47) 진중일지 1944.12.29

군위안소는 국민적 자각 하 현 전국을 진실로 이해하고 장병일등을 위해 진지하게 행동하고 있어 경하할 만하고 타도에 비해 수익이 크지 않음은 일면 동정의 여지가 있고 이를 위해 본 단체 책임자로 하여금 본도 해 단체원에게 전폭적인 이해를 얻게 함과 동시에 될 수 있는 한 유리한 수지 처치 등을 주려는 것을 고려.---

위안소 糧秣은 일월 상순까지 회사측으로부터 수령되어질 수 있다. 본도 회사의 실정에 기초하여 총전 제139호처럼 군양말의 불하를 신청하여 허가를 얻었지만 도민 인양진척으로 대동지대경전1호에 따라 1년 분의 양말을 구입하게 하여 군양말에 하등관계가 없다(소화20년 1월12일 기록한다)

이상

충대동도 주민 퇴도 지도방침에 관해 상사의 의도를 체득하여 좌와 같이 통달한다.

방침

군수성 농상성 연락결과 충대동도 磷礫의 채굴은 중지한다.

위안소 및 측후소 근무자를 제외하고 지방인 전원 인양하기로 정한다.

48) 진중일지 1945.8.20

49) 진중일지 1944.12.22

속에 들어가 생활하였다.⁵²⁾

최근 정보에 의하면 전쟁 마지막 시기에는 군인은 돈이 없어 장교급 군인들이 ‘위안부’와 함께 사는 식으로 되었다고 한다. 그 중 군의와 함께 있었던 다마에라는 여성은 종전시기에 임신중이었다고 한다.⁵³⁾

군위안소 이용에 대해 군인의 지불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위안부’의 수입에 대해 언급이 있다고 꼭 ‘위안부’에게 댓가가 주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업자와 여성이 어떠한 계약 하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불되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진중일지에 ‘봉급전도자금으로서 본도 위안소 경영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상당액을 본인 유수택 앞으로 귀대 본부로부터 전보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한가?’⁵⁴⁾라는 질문이 제기된 것으로 보면 당시 현지에는 이미 화폐의 의미가 없어졌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위안부’였던 여성의 금전문제에 대해서까지 라사섬 부대만이 아니라 그 상급부대가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종전 후의 다이토지마 조선인‘위안부’들

다이토지마로 연합군, 미군비행기가 들어오게 된 것은 9월 8일이었다. 제28사단장 納見敏郎중장(우도중장에 대신하여 제32군을 지휘)으로부터 항복과 무장해제에 관한 지령이 있고 따라서 병기처리에 관한 지도사항이 상세히 제시되어졌다.

수비대에서는 原壽滿夫소좌(제1대대장)을 처리위원장으로 하고 육해군을 통일하여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9월 9일 미군의 지시에 기초하여 병기탄약류를 분류하고 서해안에 집적하였다. 기밀서류 기타 암호서, 병적, 전시명부, 진중일지 등은 미군상륙 이전에 소각처리되었다.

9월 14일엔 미군조사단 일행이 래도하여 비행장, 해안, 병원 등을 시찰한 후 南北大東島의 육해군 및 도민의 생활상황, 식량보유상황, 위생상황 등을 조사하였다.

10월 11일 라-손대좌 이하 미군 및 제28사단 杉本참모 등이 래도, 12일부터 인도작업개시. 13일 스미스중좌 일행 병기 접수선이 입항 일부 이재접수 혹은 폭파 해중 투기.

라-손대좌일행 北大東島행 점검 후 래도.

14일 카논대장 일행이 래도, 접수상황, 도내상황 조사 후 접수단 일행과 함께 沖繩本道행.

10월 25일 오후 미군기 비래. 여성(조선‘위안부’외) 전원을 沖繩으로 귀환시켰다.⁵⁵⁾

라사섬은 1945년 8월 16일 전쟁 종결이 부대원에게 통지되었고, 8월 25일 정식의 항복명령이 수비대 본부에서 도착하였다.⁵⁶⁾그와 더불어 진중일지에 의하면 중대장으로부터 작전임무의 해제에 대한 훈시가 있었고 대동도수비대 대장 田村대좌의 명령(전보 제504호)에 의해 서류 소각 명령이 떨어졌다.⁵⁷⁾그리고 10월 12일 미군 스미스隊長 상륙하여 병기, 탄약을 폭

50) 진중일지 1945.1.4.

51) 진중일지 1945.3.2

52) 진중일지 1945.3.28, 4.9

53) 野田實, 미간행 수기 『さいわての島』, 345쪽

54) 진중일지 1945.6.2 충지구대 전 제112호

55) 南大東村誌편집위원회, 앞책, 454쪽

56) 南大東村誌편집위원회, 402쪽

57) 진중일지, 1945년 8월 24일, 8월 25일

라사섬 부대 관련자료를 소각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다행히 진중일지는 중대장이 개인

파하였다. 10월 14일 해방함 제 198호에 의해 320명(森田隊 217명 외 해군부대, 측후소원, '위안부' 등) 전원이 귀환하여 무인도 상태가 되었다.⁵⁸⁾ 당시 대동제도에 있던 군인들은 모두 남대동도를 통해 귀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의 여성들이 어떻게 귀환하였는지는 두가지 설이 있다. 간접 증언이긴 하지만 모리타씨에 군'위안부' 귀환에 대해 들은 테루야씨에 의하면 라사섬의 군'위안부'는 사세보로 따로 귀환하였다고 하였다.⁵⁹⁾ 다른 하나는 남대동도에 10월 25일 오후 미군기가 와서 여성(조선'위안부'외) 전원을 沖繩으로 귀환시켰다⁶⁰⁾는 것이다. 남대동도의 여성들이 이러한 경로로 오키나와 본섬으로 갔을 수 있다. 하지만 라사섬 여성들도 같이 갔는지는 알 수 없다. 여기서는 전자를 택하였다.

오키나와 본섬과 그 이외 섬에 있던 조선인 여성들은 일본 패전 후 하마호리(馬堀)수용소, 이시가와(石川) 민간인수용소 등에 수용되었다. 이로 미루어 미나미에 있었던 여성들은 오키나와 본섬에 임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맺는말

군'위안부'제가 시행되는 되는 데는 일본군만이 아니라 천황, 수상 및 각부 장관과 총독, 각 지역 행정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오키나와 다이토지마에 연행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연행과정을 전체적으로 규명해 내지 못하였다. 일제 기관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진행되는지 그리고 군과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위안부' 연행과정을 귀환자 명부 등을 통해 추적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증언채록에 아직 진척이 없는 셈이지만 라사섬 수비대장이었던 森田芳雄, 큐슈 후쿠오카 군의관 등에 대해 증언채록작업이 다시 시도될 필요가 있다.

강정숙

적으로 소장하여 소각을 면하였다.

58) 南大東村誌편집위원회, 402쪽. 이책 455쪽엔 10월 15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森田芳雄의 [ラサ島 守備隊](河出書房新社, 1995, 244쪽)에선 10월 14일이다. 14일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10월 14일 라사섬에서 철수하여 미나미다이토에 들었다가 17일 사세보로 향하였다.

59) 테루야씨는 모리타씨가 소장한 진중일지를 기증하도록 독려한 방송인인데 그에 의하면 모리타씨가 사세보에서 '위안부'가 되었던 여성들에게 “이전의 나쁜 일은 잊고 앞으로는 각기 잘 살자”라고 하며 헤어졌다고 한다.

60) 南大東村誌편집위원회, 454쪽

4. 이리오모테와 이시가키섬

1) 이리오모테

이번 오키나와 조사는 생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섬을 중심으로 조사가 행해졌다. 특히 1944년 제32연대⁶¹⁾가 오기 전부터 후나우키요새 중포병연대가 주둔하고 있던 이리오모테섬을 중심으로한 다케도미조는 흥미를 끄는 곳이었다. 우선 이리오모테 섬의 역사를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다케도미조의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이리오모테는 전섬의 70%를 산악지대가 차지하고 해안선을 따라 평지가 펼쳐진다. 예부터 「所乃島」, 「姑弥島」라고 불렸다. 「西表島」이라고 표기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西表、上原、古見、崎山、高那、南風見、南風見仲의 7자를 구성한다. 섬에 기대듯이 동부에는 由布島, 북부에는 赤離島、鳩離島、서부에는 内離島、外離島이 있다. 전시 중에는 육해군이 주둔하였으며 그밖에 護郷隊도 설치되어 주민의 소개지였다.

1637년 인두세가 시행되면서 류큐王府의 寄人제도에 의해 강제이주정책이 행해졌다. 그리고 말라리아가 맹위를 떨치고 있던 섬에서 많은 비극을 낳았으며 각 마을들은 폐촌되기도 하였다. 또한 섬 서부에서는 1885년부터 국가적 사업으로 석탄이 채굴되어 민간회사가 앞다투어 경영에 참가했지만 통폐합을 반복해 전시 중에는 탄광부가 징병되기도 해 쇠퇴해갔다.

전시중 집락은 大原、古見、船浦、上原、浦内、祖納、干立、白浜、船浮、綱取、崎山가 있었다. 그리고 우라우치천 지류중 하나인 宇多良川の 강변에 세워진 丸三탄광 우타라광업소의 탄광촌도 있었다.

육군성은 진지를 구축하고자 섬 북부에서 서부에 걸쳐 船浦、宇那利、祖納、成屋、外離、船浮、쿠이라(クイラ)、下田原、稲道、鹿川 사유지、宇有地, 촌유지를 접수하여 소유자는 16명, 1字, 2촌, 징용된 토지는 약510,571평에 이른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기 전해인 1941년 10월에는 東灣을 중심으로 후나우키요새가 건설되었다. 후나우키에는 해군이 주둔하였으며 민가를 부대 막사로 강제사용하고 특공정 기지 등을 설치했다. 주민은 오오하라 등으로 강제 퇴거당했다. 후나우키만내에 있는 우치바나리섬, 소토바나리섬도 요새로 편입되어 사령본부와 막사, 육군병원, 중포병연대가 설치되었다.

61) 오키나와 지역은 오키나와연대구사령부(沖繩連隊區司令部) 만 존재하는 군사적 무방비 지역이었으나 1944년 3월 22일 奄美、琉球열도에 제32군이 창설되면서 상황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제32군 사령부는 3월27일 후쿠오카에서 편성되어 공로 나하를 향해 4월1일 통수권을 발동했다. 당초는 비행장건설이 중심으로 4월 하순부터 병사들 수송이 시작되었으며 비행장 설영대, 독립혼성여단, 보병연대, 기지대, 해상정신대 등 계속적으로 일본군이 상륙하였다. 제32군은 남서제도 방면의 수비강화를 위해 오키나와수비군으로 창설되었는데 이후 오키나와 본섬, 大東島, 宮古島, 石垣島 등 15-6곳에 비행장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제32군은 1944년 1월 平得해군비행장 건설에 착수했다. 연일 약 2000명 정도의 주민이 동원되었는데 약 100명 정도의 조선인 군부도 작업에 종사 당했다.

제32군은 설립당시 방위군이라기 보다 대본영 직할로 작전군 성격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전황이 악화됨에 따라 ‘황토(皇土)’방위를 위해 조직재편이 이루어져 44년 5월5일 서부군(큐슈관할)으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5월 19일 서부군 사령관이 오키나와 순시를 행했는데 이를 전후해서 남서제도로 조선인 군부, ‘위안부’들을 데려왔다고 생각된다. 제32군이 상륙하기 전까지는 이리오모테섬의 탄광지역인 우치바나리에서 위안소가 확인되고 있으며 津堅島에서도 식당을 위안소로 이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

소나이에는 요새의 일 부대 외에 제4유격대제4중대(통칭 호향대) 경비대가 주둔, 산중에는 진지를 구축해서 미군과의 게릴라전을 대비해서 전투훈련에 힘썼다. 그러나 요새는 태평양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면서 남방으로 가는 해상교통의 요로로서 전략적 지위를 잃게 되자 1944년 9월에는 후나우키요새중포병연대는 중포병제8연대로 개칭되어 오노대와 기타무라대를 남기고 주력은 이시가키섬으로 이주했다. 주민은 군대의 주류에 따라 군시설작업에 동원되었으며 식량을 공출당했다.

후나우키요새의 일부를 이루는 시라하마에는 탄광관계자가 많이 살고 있었으며 헌병대도 있었다. 주민은 공습을 피해 일변천, 이번천 가까이로 피난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지만 집락은 기총소사와 폭탄투하에 의해 피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일본군‘위안소’는 소나이와 시라하마에 있었으며 한국인 여성들이 병사의 상대를 하고 있었다. 綱取、崎山에는 군대는 주둔하지 않았지만 미군기 공습이 있어 소실하는 가옥도 있었다. 주민은 공습을 피해 산 속 깊이 설치된 피난소로 도망가 몰래 생활하고 있었다.

섬의 북부 船浦、上原、浦内에는 소수의 주민이 살고 있었지만 공습이 있으면 자연동굴을 피난호로 삼아 숨었다. 북부일대는 예부터 鳩間島주민이 쌀농사를 짓고 있었다. 섬 주민은 공습을 피하기 위해 쿠리舟를 타고 식량을 지참하고 산중이나 동굴 등으로 피난했다. 주민은 동쪽으로 사킨타에서 서로는 우보우다까지 넓은 지역에 피난 집을 짓고 소개생활을 계속했다.

섬 동부 古見에서는 주민이 공습이 되면 집락의 후방에 설치된 피난소로 도망갔다. 집락에는 하테루마섬의 일부사람들이 피난하였다. 카사崎에는 黒島 주민이 소개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리오모테는 말라리아가 창궐하여 주민이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말라리아가 없는 대안의 由布島에는 다케도미섬, 흑도, 하테루마섬 일부 주민이 피난생활을 하고 있었다. 산속으로 소개한 사람들은 대부분 말라리아에 걸려 다수 사망했다. 전시 중 이리오모테에서 발생한 말라리아는 인재적 성격을 강조하여 특별히 「전쟁말라리아」로 기록한다.

전시 중부터 종전직후까지 섬은 12집락 합쳐서 인구 2642명, 호수는 636세대였다. 그 중에서 200명이 사망, 말라리아에 의한 사망자는 113명이었다. 예부터 「말라리아 유병지대」로 두려워했던 섬이었지만 1962년 야에야마의 말라리아환자발생 제로사업으로 박멸되었다⁶²⁾.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리오모테는 탄광산업이 발달하여 일찍부터 조선인 노동자들이 탄광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는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당시 이리오모테의 시라하마에는 대만, 오키나와, 일본인, 조선인 등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어서 합중국 같았다”고 하는 증언을 세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나라이씨, 마사씨 증언 참조). 또한 이리오모테에는 후나우키요새로 중포병연대가 주둔하고 있어 오키나와에서는 어느 곳보다도 일찍 우치바나리에 위안소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⁶³⁾.

이리오모테는 오키나와 본섬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날아가서 이시가키공항으로 가서 다시 부두로 나가 50여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이리오모테의 후나우키완은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후나우키항구를 병풍이 둘러싸듯이 소나이(祖納)반도, 소토바나리섬, 우치바나리섬, 사바자키가 자리하고 있어서 쉽게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천혜의 요새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런 외진 곳까지 끌려왔을 ‘위안부’들과 강제징용자들을 생각하면 절구하

62) 竹富町史編集委員会『竹富町史第12巻』竹富町史編纂室、2002年、501-502쪽.

63) 후나우키만 후나우키요새에 후나우키요새사령부, 중포병연대, 육군병원이 들어올 때 기존의 유곽을 이용하여 ‘위안소’화했을 가능성과 요새가 건설되면서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대동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다.

지 않을 수가 없다.

기록과 증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곳의 우치바나리섬, 시라하마, 소나이 등지에 위안소가 있었다고 한다. 와카야마 출신의 데즈다 중위의 수기를 보면 우치바나리의 소노다위안소와 시라하마의 난카이 위안소에 관한 기록이 있다. 데즈다 중위의 수기는 출판되었으나 이미 죽은 남편을 대신한 부인의 지시에 따라 위안소에 관한 기록은 전부 삭제되었다. 다케도미조사편찬실에 들러 삭제된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 소노다 위안소에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있었으며 일반병사들을 상대하고 있었다고 하며 난카이 위안소에서는 조선인과 달리 늙은 일본인 ‘위안부’들이 장교들을 상대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인 ‘위안부’의 숫자는 8명으로 기록되어있다⁶⁴).

데즈다 중위의 수기는 당시에 씌어진 기록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신빙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이렇게 자세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는 사실에는 머리가 숙여진다. 이리오모테 섬에서는 당시 군인이었거나 군속이었던 분들에게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사진 전일본군이었던 니시오오마스씨>



이리오모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니시오오마스씨⁶⁵의 증언은 데즈다의 기록을 보충해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니시오오마스씨는 이리오모테섬에서 사탕수수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섬 사탕수수수확량의 10분의 1인 1000톤 가량을 생산하고 있

다고 한다. 현재 86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태양아래서 건강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장수의 나라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오키나와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파워를 느낄 수 있었다. 증언을 해주셨던 10월4일은 사탕수수를 심는 날이었다. 이미 일손을 사 놓아 시간을 내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일행은 사탕수수밭으로 찾아갔다. 작열하는 오키나와의 태양 빛을 막아주시려고 발 귀통이에 파라솔을 펴주시는 손길에서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다.

니시오오마스씨는 우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신 후 논리정연하게 당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셨다.

64) 주3번의 鉄田義司 手記의 미간행 부분.

65) 니시오오마스쿠우이치(西大舛高壺)씨를 비롯한 증언자들에 대해서는 증언 녹취록을 참고하기 바람.

후나우키만은 일본군이 ‘대동아전쟁’시 남쪽(필리핀, 보루네오, 말레이시아)으로 진출하기 위해 사용한 요새였다. 5,60척 정도의 선단이 군수물자를 수송하는데 남방까지 거리가 멀어 도중의 휴게소로 이곳을 이용하였으며 후나우키항은 적의 눈을 숨길 수 있는 지형적 특징과 상당히 넓어 5-60척 정도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다. 정세가 어려워지면서 적 잠수함들이 나타나면서 당하지 않도록 후나우키요새를 건설했는데 소토바나리와 우치바나리에 요새사령부가 있었다. 43년 6월에 나는 38세의 나이로 국민병으로 징집을 당했다. 그리고 요새사령부로 가게되었다. 부대명은 다마114부대라고 불렀다. 보안 관계상 요새사령부라고 부르지는 못했다. 나는 통신병이었기 때문에 전화교환을 하거나 평상시에는 첩포도 다뤘다. 그때는 유선통신이었다. 사령부 막사 일부에 위안소가 있었다. 어느 날 전화전주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곳을 돌아보고 온 적이 있었다. 그 곳에는 ‘위안부’ 수명이 있다고 했다. 일본어로 수명이라는 것은 5-6명을 의미한다. 그 ‘위안부’들은 병사들은 만질 수 없었으며 장교들만 사용했다. 시라하마항에는 야에야마⁶⁶⁾ 출신 ‘위안부’들이 있었다. 이들은 민간인들이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안부’를 직접 본 것은 우치바나리에서 3명의 조선인 ‘위안부’와 비껴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었다. 여성들의 복장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여자들과 위안소를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은 소노다라고 했다. 우리들은 그곳을 소노다 부대라고 불렀다. 그 후 전황이 악화되면서 44년 6월 후나우키요새가 해산되고 미야코항구로 전근했다. 그때 45여단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 9월에 이시가키섬으로 이동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다. 따라서 이 여성들 어디로 갔는지 전후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른다. 아마도 이시가키로⁶⁷⁾ 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조선인 남자 군속 100명 정도는 이시가키섬에 있었다. 전쟁 중에 진지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 데즈다중위의 일기에 소노다라는 사람이 위안소를 관리했다고 되어있는데...부대가 아닌데 병사들이 제멋대로 소노다대라는 이름을 붙여 불렀다. 시라하마 위안소는 목조건물로 되어있었다. 일시건물이니까 기둥도 마루도 지붕도 삼나무로 되어있었다. 지붕은 삼나무에 루핑을 하였다. 삼나무는 군이 군사물자로 가지고 왔다. 41년 경에 만들어졌다. 시라하마 위안소 안을 본 적은 없다. 여자들을 본 적은 있었다. 확실하게 우치바나리에만 위안소가 있었다. 이 들(시라하마의 ‘위안부’)의 말투는 야에야마 사람들의 말투였던 것으로 보아 야에야마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라하마 위안소의 ‘위안부’가 몇 사람정도인지는 잘 모른다. 내용도 잘 모른다.

니시오오마스씨의 증언과 데즈다수기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우치바나리 위안소에 조선인 ‘위안부’들 시라하마 위안소에는 오키나와인 ‘위안부’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일치하며 우치바나리 위안소를 소노다라는 사람이 관리하였으며 그곳을 소노다부대라고 불렀다는 점에서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치바나리 ‘위안부’들을 장교들이 사용했다고 하는 니시오오마스씨의 증언과 데즈다 수기에서는 일반 병사들이 사용했다고 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데즈다씨는 우치바나리에 있었던 ‘위안부’의 숫자가 8명 정도라고 하는데 니시오오마스씨는 수명이라고 들었다고 했으며 수명이라면 5-6명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말씀하셨다. 이는 수명은 8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데즈다의 수기가 신빙성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된다.

니시오오마스씨의 증언을 들으며 안타까웠던 것은 이 분이 1944년 9월 14일 독립훈성 제 45여단 독립보병제298대대(毛木부대)가 이시가키섬에 상륙하면서 중포병 8연대 (후나우키요

66) 야에야마는 西表、石垣、小浜、竹富、鳩間、黒、波照間、与那国 섬등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67) 1944년 9월 45여단의 명령으로 후나우키 요새에 있었던 부대는 일부를 남기고 이시가키로 철수한다. 니시오오마스씨의 이야기도 바로 이 시점에 부대와 함께 ‘위안부’들도 철수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새 중포병연대)가 이시가키섬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이리오모테 섬에 계시지 않았다는 점이 다. 당시 니시오오마스씨가 이리오모테 섬에 계셨더라면 통신병이었기 때문에 전화연락을 통해서 이주과정에서 ‘위안부’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 만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곱씹지 않을 수 없다.

이리오모테에서 만나 본 증인들은 그밖에 여러분이 계시다. 이시가키코우토쿠씨는 “위안부”들을 후나우키만 부대 막사로 업어서 날라주었다는 증언을 해주셨다. “위안부”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수준이었다면 이 분은 ‘위안부’들을 업어서 각 부대로 수송해주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시가키씨는 현재 73세이시다. 전쟁당시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있었고 우치바나리에서 소나이 학교까지 어린이를 운반하는 일을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군속이 되었다고 한다. ‘위안부’ 관련 증언만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1942년경에 육군 시모나가 부대가 왔고 그 때 조선인과 오키나와인이 와서 이곳에서(시라하마) 장사를 했다. 처음에는 요정⁶⁸)이었는데 부대가 있는 곳(우치바나리, 소토바나리, 사바자키, 소나이)으로(‘위안부’들을) 데리고 갔다. 오키나와인과 조선인을 15명 정도씩 군용선으로 운반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4곳을 돌아가면서 오키나와인과 조선인 따로따로 데리고 갔다. 조선인도 10명 정도씩 데리고 갔다. 우치바나리와 소토바나리에는 위안소가 없었으며 병사숙소로 가서 장사를 했다가 저녁에는 돌아왔다. 자고 오는 일은 없었다. 양산을 썼고 조선인 옷을 입고 있었다. ‘위안부’들은 부대이동과 함께 없어졌다. 44년 4월3일 미군 공습으로 불타 없어졌다. 부대가 없어질 때 여자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부대가 위안소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쓰던 건물이나 요정을 사용하지 않고 지붕은 카야부키(새로 이은 지붕)였다...

우치바나리의 위안소를 소노다위안소라고 불렀다. 그 곳의 중대장이 소노다, 소토바나리는 오노, 소나이는 기타무라대장이었다. 위안소는 시라하마 위안소 정도를 기억하고 있다. 18세에서 30대 여성들로 옷차림과 말투로 조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일본어를 잘 했다. 위안소 감독은 병사가 했다. 대부분 20세 이상의 여성들이 많았다. 전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전쟁이 끝나고 2사람 정도 남아있었다.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한 때 시라하마에 있었는데 이시가키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올때는 군의 배를 타고 온 것 같다...위안소 식사는 각자가 해결했다. 식량은 군이 제공했다. 군의는 소토바나리에 병원⁶⁹)이 있었다. 군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그 곳에 데리고 가기도 했

68)처음에 요정을 위안소로 사용하는 수법이 이곳에서도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은 오오타씨의 책에서도 알 수 있다.

八重山の 위안소는 10곳 정도라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다.1941년(소화16년) 후나후키(船浮) 요새사령부가 이리오모테에 주둔했던 시기에 설치되었다고 생각된다. 주력부대 이동에 따라 위안소도 옮겨졌다고 한다.요정 「田本屋」등이 장교용 위안소가 되었다.‘위안부’는 요정에서 작부라고 불린 지역여성들과 일본, 조선여성들도 있었다.군이 위안소건축이나 ‘위안부’를 관리했다고 하는 증언이 있다.‘위안부’의 수는 약 5,60명정도로 추측된다.아사히저널 1992년 1월 31일-군의관 「나는 이시가키섬에 배속되었다. 부대로부터 다른 지구 부대에게 『‘위안부’가 부족하니까 당장 충전할 수 있는 부대는 보고하라』고 타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쪽에 약간의 예비군이 있으니 당장 호송하겠습니다』고 하는 대답이 다른 지구 부대로부터 왔다. 몇 일 후 구축함 2척으로 2,30명의 조선인 ‘위안부’를 데리고 왔다」 太田静夫 『八重山の戦争』 南山舎、1996년, 30-31쪽.

69) 이것은 후나우키육군병원(부대장은 池田勳二) 을 말하는 것 같다. 후나우키 육군 병원은 1941년 10월 오오사카 육군 병원에서 편성되었다. 그 달 13일 이리오모테 우치바나리에 상륙해서 후나우키요새수비대의 환자치료를 담당했다.병원은 요새 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우치바나리를 거점으로 연대의무실을 소나이에 두고 군의는 각부대를 순회진료하였다. 44년 9월 45여단의 명령으로 부대는 일부만 남고 이시가키섬으로 이주했다. 太田静夫, 앞

다. 배는 3척이 있었는데 우치바나리, 소나이 등 갈 때 작은 배에 태워서 얕은 물에서는 50미터 정도는 업어서 갔다. 우치바나리는 만조시에는 선창이 있었고 간조시에는 업어서 데려다 주었다. 명령으로 업고 갔는데 넘어졌던 때도 있었다. 넘어져서 뺨을 맞은 적도 있었다. 갈아 입을 옷도 가지고 갔다. 마중 갔을 때도 업어서 왔다. 우치바나리에 데리고 간 여성들은 오키나와 사람, 조선인들이 정해져 있었다. 시모나가 대장은 시라하마에 있었다. 요나구니 사람을 현지처로 데리고 살았다. 막사를 위안소로 사용했다. 우치바나리의 해안가에 있었다. 우치바나리에는 탄광이 많았는데 해변가에 막사가 있었다. 전쟁 전부터 조선인들 일하러 왔다. 10명 정도 있었다. 막 왔을 때는 모르지만 말로 조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탄광‘위안부’는 들어본 적 없다.

이시가키씨는 우치바나리의 위안소를 소노다 위안소라고 불렀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니시오오마스씨가 소노다대라고 불렀다고 했던 것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시가키씨는 전쟁 후에 ‘위안부’가 2사람 정도 남아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오오시로 세이조씨의 증언과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오오시로씨는 1924년 생이신데 1941년에 시라하마를 떠나서 전쟁이 끝난지 2년 후에 시라하마로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떠날 때에 이미 위안소가 있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다시 시라하마로 돌아왔을 때 ‘위안부’ 2-3명이 한 남자와 남아있었다는 증언을 해주셨다. 산 속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근접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쟁 후 정신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전쟁 후 조선인 ‘위안부’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어떻게 되었을까? 군대는 제대로 ‘위안부’들을 챙겨갔을까? ‘집단지살’⁷⁰⁾이 행해지는 속에서 허무하게 죽어갔던 것일까? 많은 일본군 병사들이 남긴 기록 속에서 자신들의 퇴각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 곳에 ‘위안부’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용가치가 다한 ‘도구’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일까? 의문이 꼬리를 물지만 이리오모테에 왔던 ‘위안부’ 여성들이 전후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단서를 얻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이시가키씨와 오오시로씨 등의 증언을 듣고 시라하마에 있었던 ‘위안소’자리를 둘러보았다. 지금은 이미 민가가 들어서 있다.

그 날 밤에는 나라이 마사노부씨의 맥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⁷¹⁾. 나라이씨는

우치바나리에 살고 있는 ‘위안부’는 없었다. 시라하마에 있는 위안소의 ‘위안부’가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다닌 것 같다. 우치바나리에서도 위안소를 보는 것은 허락받지 못했다. 장교가 위안소에 간

의 책 161쪽. 鉄田의 앞의 수기 11쪽. 이시가키씨의 기억이 이 부분에서 약간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70) 慶良間제도의 집단 ‘자결’ ;미군이 渡嘉敷섬에 상륙 직후인 3월28일 주민 전원이 촌역장의 지시로 산중에 모여 수류탄을 폭발시켜서 집단사했다. 수류탄 부족으로 죽지못한 자는 나무 줄기 등으로 서로 서로를 살해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망자는 329명에 달한다. 사건은 ‘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최근에는 ‘황민화 교육과 전지 훈육의 영향을 받고 주민들이 죽음에 내몰린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이와 같은 집단사는 게라마각 섬의 자마미섬과 게루마섬 등에서도 발생했다. 자마미에서는 358명, 게루마에서는 53명이 죽었다. 자마미섬의 경우는 이 섬에 주둔한 일본군수비대의 명령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 당시의 자료에서 뒷받침되고 있다.森口かつ『沖繩—近い昔の旅』凱風社,1999년,170쪽.

71)당시 나라이씨는 16세의 소년병이었다.

2000년 6월 현 정신대연구소 소장 강정숙씨가 방문하여 얻은 증언 참조.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진상규명위원회 위음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풀빛, 2001년 149쪽.

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16세 정도였기 때문에 그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병사, 하사관, 부관, 소위 이상의 여자로 나뉘어 있었다. 이마을 사람들은 전쟁말기에 대부분 대만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위안부’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잘 모른다.

나라이씨의 증언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전에 2000년 강정숙씨가 방문했을 때 계셨던 할머니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마사할머니가 와주셨다. 마사할머니에게 2000년 증언에서 어린 ‘위안부’가 자신의 집에 놀러와서 아이들과 놀아주었다는 증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기를 부탁드렸다. 이 질문에 마사할머니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셨고 나라이씨의 부인이 옆에서 설명을 대신해주셨다.

사진 <마사할머니>

마사할머니의 먼 친척되는 아이가 시라하마에 있는 위안소에서 ‘위안부’로 일하고 있었다. 마사할머니의 남편은 당시 경찰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걱정되어 자주 위안소에 들러 그 아이의 안부를 묻곤 했다. 당시 마사할머니에게는 어린 컷먹이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친척아이를 불러다 아이를 돌보게 하였다고 한다. 현재 ‘위안부’였던 분이 살아 있는지 어떠한지 알 수 없다.

마사할머니의 당혹감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실 아니면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일을 상기시켰다는 죄책감을 들게 했다. 당시 오키나와에서는 가족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면 ‘남자는 이토만(糸灣)에 팔고 여자는 쓰지(辻)에 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신매매를 통해서 난국을 타개하는 일은 일상적으로 행해졌다. 이것은 비단 오키나와뿐만이 아니라 전근대사회의 공통점일 것이다. 남자는 이토만에 판다는 것은 얼마 전 한국사회에서 새우잡이 배로 팔려간 남자들처럼 오키나와에서도 그런 류의 어업에 종사하게 하는 일을 가난한 남자들이 도맡아 해야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들은 유곽에 팔려가야만 했다. 아마도 추측하건데 마사할머니의 먼 친척도 우선 유곽으로 팔려간 후에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주둔하면서 ‘위안소’에서 일해야만 하는 처지로 몰렸을 것이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증언을 들을 수는 없었다. 당시 일본군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오키나와의 대표적 유곽인 쓰지를 위안소로 사용하고자 했다. 쓰지 측에서는 처음에 이를 거절했지만 전시중 개인이나 단체의 자유가 국가나 군의 이름으로 유린되는 상황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유리(유곽에서 일하던 여성들에 대한 호칭)들은 ‘위안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인신매매되어 빚으로 묶여있어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쓰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밖의 유곽이나 술집 등에서 일하고 있던 여성들도 마찬가지로의 상황에서 ‘위안소’의 ‘위안부’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런데 마사할머니의 먼 친척이 어떻게 ‘위안부’가 되었을까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증언을 오오타씨가 자신의 저서에 게재하고 있다.

우치바나리의 위안소에는 조선과 오키나와의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 후나우키요새사령부가 창설되면서 바로 위안소도 설치되었다고 생각된다. 1943년 당시 야에야마 경찰서 서료였던 桃原用知에 의하면 “‘위안부’는 군이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경영하고 있었다. 어떤 여성의 어머니가 딸이 없어져서 찾고 있었는데 딸한테 연락이 와서 이리오모테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일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돌려보내 달라고 해도 군의 명령이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 없다고 했다. 어떻게 손을 썼달라는 것이었다. 업자에게 주의를 주자 군의 명령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군의 누

가 하고 있다고 했는가. 당신들은 군의 명령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위안부’를 군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법률은 없다. 당장 돌려보내라고 말하자 업자가 시모나가(下永)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그가 화를 내면서 ‘그런 애는 돌려보내’ 라고 했다고 한다”. 우치바나리에는 위안소가 2곳 있었다고 하는 증언도 있다. 44년 부대가 이시가키섬으로 이주하면서 ‘위안부’들도 이동했다고 하는데 분명치 않다⁷²⁾.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오타씨에게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위의 여성은 원래 유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군이 강제로 ‘위안부’로 삼아 가족들조차도 뒤늦게 딸에게 편지를 받고 알았다고 한다. 위의 예는 유곽에서 일하고 있던 여성을 군과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가 강제적으로 ‘위안부’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하지만 부모의 항의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던 야에야마의 ‘위안부’와 달리 이국 멀리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끔찍한 일’을 당해야만 했던 조선인 ‘위안부’들의 막막한 처지는 이 문제가 지니고 있는 ‘민족차별’의 심각성을 생각하게 한다.

2) 이시가키

10월4일에는 니시오오마스씨 인터뷰를 하고 다시 이시가키섬으로 돌아왔다. 야에야마의 전쟁상황에 대해서는 오오타씨가 자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오타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눈 후 함께 ‘위안소’가 있었던 곳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 오오타씨는 『야에야마의 전쟁 (八重山の戦争)』의 저자이며 현재 이시가키시 교육위원회 문화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다. 오키나와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오키나와가 아메리카의 통치 하에 있었을 때 일본에 복귀하는 것을 금과옥조로 삼아 모두 ‘복귀운동’에 열을 올렸다. 이 때 오오타씨는 ‘돌아갈 조국은 어디에도 없다’며 ‘비국민’을 주창했다⁷³⁾. 그러나 오키나와는 1972년 5월15일 시정권

72) 太田静夫, 앞의 책 162쪽.

73) 오키나와는 류큐왕국으로 15세기 이후 일본과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17세기 초엽에 鳥津에게 정복되었다. 메이지유신(1868년)이후 1871년 미야코, 야에야마의 류큐어민이 타이완에 상륙했다가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메이지정부는 류큐왕국에 대해서 무력을 배경으로 왕국의 호칭을 없애고 류큐번(琉球藩) 왕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류큐를 메이지정부직할로 둔과 동시에 타이완 침략의 실마리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1879년 오키나와현 설치를 강행하였다. 이것이 류큐처분이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현은 황민화정책으로 급속도로 일본화를 진행시켰다. 1894년 청일 전쟁 시기에는 야에야마와 미야코를 중국에 분할하고자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근대화를 서두른 일본은 부국강병책에 이해 군비를 확장하고 근린 제국 침략을 기도했다. 만주사변, 중일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확대해 오키나와는 15년 전쟁 최후의 결전장이 되었다. 그러나 오키나와전은 오키나와 현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일본 본토를 사수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현재 오키나와는 일본국토의 6%밖에 차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의 75%를 끌어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키나와에서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군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95년에는 미군에 의한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지금도 반미감정이 팽배해 기지철수, 축소론이 쉽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동북아 안보를 위해서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면서 기지 존재로 생겨나는 모든 피해를 오키나와에 전가하고 있는 교활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키나와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일본에 대해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일체화시킬 수 있는 조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한철호, 이규수역) 『동아시아 근현대사』 옛오늘, 2001년
다카자도 스즈요 「오키나와 기지/군대의 현재상황과 운동」 2002년 서울 국제회의 나의 삶에서 우리의 평화를-군사주의와 여성인권 발표문.

반환, 조국복귀로 인해 일본국헌법과 여러제도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야에야마에서는 말라리아보상문제로 국가와 분쟁이 생겼다⁷⁴⁾. 이는 1945년 야에야마 군도에서 3674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는데 이 비극은 일본군이 무리하게 섬 주민들을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하마다라 모기의 생식지인 산 속으로 피난 시켜서 생겨난 인재적 재앙이었던 것이다. 야에야마섬 주민들은 누구나가 군의 명령에 의해 주민들이 말라리아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알고 있었지만 국가는 군의 명령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오키나와의 당시 현지사도 이에 동조하였다. 이 일에 분노한 오오타씨는 군의 명령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방위청도서관 등을 샅샅이 뒤져서 군의 명령이 없으면 주민의 피난은 불가능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찾아 말라리아보상문제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1995년 말라리아문제는 위령비건립을 포함한 위로사업으로 끝이 났다.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지도 사죄하지도 않았다.

오오타씨는 분노 속에서 야에야마의 참호와 동굴들을 조사하며 돌아다녔다. 전시를 증언할 수 있는 분들도 찾아다니며 증언 채록작업도 병행했다. 『야에야마의 전쟁』은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저서에 나와있는 ‘위안부’와 ‘위안소’ 관계부분에 대해서 오오타씨에게 좀 더 자세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야에야마(八重山)의 위안소는 10곳 정도라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다.1941년 후나후키(船浮) 요새사령부가 이리오모테에 주둔했던 시기에 설치되었다고 생각된다. 주력부대 이동에 따라 위안소도 옮겨졌다고 한다. 요정 「다모토야(田本屋)」 등이 장교용 위안소가 되었다. ‘위안부’는 요정에서 작부라고 불린 지역여성들과 일본, 조선여성들도 있었다. 군이 위안소건축이나 ‘위안부’를 관리했다고 하는 증언이 있다. ‘위안부’의 수는 약 5,60명 정도로 추측된다.

이시가키섬에 배치되었던 어느 군의관은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서 “나는 이시가키섬에 배속되었다. 부대로부터 다른 지구 부대에게 “위안부’가 부족하니까 당장 충전할 수 있는 부대는 보고하라’고 타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쪽에 약간의 예비군이 있으니 당장 호송하겠다’고 하는 대답이 다른 지구 부대로부터 왔다. 몇 일 후 구축함 2척으로 2,30명의 조선인 ‘위안부’를 데리고 왔다(아사히저널 1992년 1월 31일)”

이 부분은 1941년 이리오모테의 후나우키요새가 창설되어 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위안소’도 함께 설치되었다는 것과 1944년 부대가 이시가키로 철수하면서 ‘위안부’도 함께 없어졌다고 하는 다른 이리오모테의 증언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사히저널을 인용한 어느 군의관의 증언은 이시가키섬의 조선인 “위안부”를 관리하고 수송하는 일을 군이 조직적으로 맡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시가키소학교 근처 위안소는 1944년에 고쿠바구미가 건설했다고 한다. 기와지붕의 나가야(길게 옆으로 지은 집)로 4,5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조선, 일본, 오키나와 ‘위안부’여성 5,6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휴일이 되면 주야로 순번을 기다리는 병사들로 넘쳐났다고 한다.

공습이 있을 때 병사는 위안소 안쪽에 있는 묘지 지하에 있는 통신대 암호반 방공호로 피난했지만 ‘위안부’들은 군사기밀을 이유로 들여 보내주지 않아 총탄 속에서 나무 밑에 쪼그리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위안부’들은 위안소에 온 병사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오마모리인형(부적처럼 지니고 있는 사람을 지켜주는 인형)’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고 한다. 언제 폐쇄되었는지 ‘위

74) 太田静夫, 앞의 책172-191쪽 참조.

안부'들의 소식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곳에 있었던 '위안부'가 45년경에 산니(山根)목장에 있던 위안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전투가 격심해지면서 이동했다고 생각된다.

군의 명령으로 이시가키 소학교 근처 '위안소'를 건설한 고쿠바 구미(건축일을 맡아서 하는 그룹인 그룹 대표의 이름 밑에 조라는 의미의 구미를 붙여서 부른다)는 이 지역에 있었던 '위안소'들을 건설하는 일을 맡아하고 있었던 것 같다. 주민이 피난 간 사이에 군이 제멋대로 민가에 건물을 짓게 하고 패전하면서 건축비를 지불하지 않아 종전 후 민가의 주인과의 사이에서 소송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75)한다. 강자가 일으킨 분란은 약자간 싸움을 조장시킨다.

산니(山根)위안소- 빨간 기와가 산란해 있고 초석이 풀에 덮여있는 위안소유적지이다. 조선, 일본, 야에야마 '위안부'가 있었다고 한다. '위안부'의 수와 관리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위안소를 세운 재료는 해군이 조달했다. 야에야마고등학교의 기둥과 기와를 사용했다고 한다. 야에야마군민 비원의 야에야마고등학교 건물은 45년에 완성되었는데 막 신축한 교사를 3월에 군사용 자재로 해군이 로프를 걸어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자재의 일부로 위안소를 건축했던 것이다.

38震洋隊隊長 旅井理喜男의 수기에 의하면 “병사들이 마을로 외출할 수 없게되자 거리의 여자(해군에서는 빼상이라고 불렀다)를 만나산으로 데리고 오게 하여(○부대장의 제안) 산 속에 오두막집을 만들게 되었다. 우리들은 병사들을 위해 이것도 사기양양을 위한 것이라고 납득했습니다만(다수의 빼상을 산으로 데리고 오면 식량이 부족할 때 문제가 있다), 막상 일이 닥치자 병사용 빼상도 데리고 왔지만 사령이나 부장전용의 지금까지 마을에서 데리고 있던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들 전용 피야를 세웠다. 명목상으로는 사관용이었지만 우리들의 결백감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우리들 예비학생출신 사관은 그런 사관용은 불필요하다. 전원을 병사들에게 해방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을 마을로 돌려보내라...”라고 적고 있다.

이시가키섬해군경비대본부근처 위안소는 산니 한 곳 뿐이다...그리고 여기 위안소에 있던 '위안부'와 이시가키소학교 근처 위안소에 있던 '위안부'가 동일인인 것을 보면 전쟁이 극심해지면서 마을에서 이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서는 야전 병원의 간호부가 위안소 부근에서 해군 장병을 만났는데 그 해군 장병이 '너도 조선빠냐'며 가까이 다가온 일이 있으며 근처를 지나던 주민이 '저게 조선 피다'라고 가르쳐주었다고 한다. 조선인 '위안부' 중에는 전후 결혼해서 섬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소식불명이다. 일본, 오키나와, 야에야마출신 '위안부' 중에는 전후 요정에 근무한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매독에 걸려 얼굴은 창백하고 걸기도 어려운 참혹한 모습의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급박한 전황 속에서도 끝까지 “위안부”들을 대동하고 산 속으로 들어간 일본군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잠시 망설여지는 대목이다. 산니위안소는 이시가키 시가지에서 꽤 떨어진 곳으로 우거진 정글 숲을 헤치고 들어가야 한다. 잠시 동안에도 모기의 뱀이 되어 전신을 물어뜯기면서 그 곳을 둘러보았다. '위안소'터가 있었던 곳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데 우리가 찾아갔을 때는 물은 말라 있었다. 그 물로 밥도 짓고 빨래를 지었을 '위안부'들의 잔영이 그곳에 남아있는 듯하다. 일본군들의 '성욕처리기'로 그 곳까지 가야만 했던 그 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만일 것이다.

우리가 이 먼 곳까지 찾아온 주목적은 조선인'위안부'생존자를 찾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75) 강정숙 「일본군 위안소에 대한 지역별 사례연구-일본 오키나와」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풀빛,2001년, 153-4쪽.

오오타씨가 위에서 ‘조선인 ‘위안부’ 중에는 전후 결혼해서 섬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소식불명이다’라고 적고 있는 부분은 희망을 걸어 볼만하다. 이 부분이 어떤 단서가 되기를 바라며 오오타씨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 이야기는 오오타씨가 이전 ‘위안부’ 여성들을 추적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국적은 일본으로 되어있고 현재 이시가키에 살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전후 결혼해서 섬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에 의미부여를 하고 싶었지만 ‘대부분은 소식불명이다’가 현실이었다. 오오타씨는 그밖에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 추측해보면 이전 “위안부”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명 정도가 더 있다고 한다. 그 중 한 사람은 현재 오키나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은 야마토(일본) 병사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 이름은 야마토식 이름이었다. 전후 요정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전시 중에는 산니 ‘위안소’에 있었다고 한다. 현재 요코하마에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동급생 엄마일 가능성이 있어서 더 이상의 추적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성문제에 대해서 남자인 내가 관계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솔회했다. 현재로서는 오오타씨에게 의존해서 그 분들의 그 후를 추적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다고 시간이 흘러 더 이상 증언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해야하는가 하는 고민은 재정적인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의 벽에 부딪힌다.

바바하루매장지는 카비라 위안소에서 사망한 바바하루씨가 매장된 곳이다. 이시가키섬에서 ‘위안부’가 사망해서 매장된 유일한 곳이다. 底地비치 근처 밭에는 사망한 병사도 가매장되어 있었는데 전후 병사의 유골은 유족과 전우들이 가지고 갔다고 한다.

바바하루씨의 유골은 전후에도 밭 안에 작은 돌이 쌓여 방치되고 있었는데 그 후 경작을 위해 파헤쳐져 유골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강제 접수된 민가에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의 ‘위안품’이 되었다가 죽어간 여성, 지금은 아무도 그 혼을 돌보지 않는다.

사진 <카비라 위안소>

오오타씨는 카비라 ‘위안소’로 우리를 안내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카비라 ‘위안소’는 원래 우다키(御岳⁷⁶)였다고 한다. 주민들은 신성한 곳에 ‘위안소’를 건립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으나 일본군은 막무가내로 이 곳에 ‘위안소’를 세웠다. 그런데 이 ‘위안소’에서 바바하루씨가 죽어 나가자 주민들은 신성한 곳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라며 두려워했다고 한다. 결국 병사들 중에서도 죽는 자가 속출하자 일본군도 어쩔 수 없이 ‘위안소’를 옮겼다고 한다.

병사들의 유골은 전우들이 챙겨가고 바바하루씨의 유골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전시 중에 남성은 전쟁이 요구하는 주체였고 여성은 그 남성들의 성욕을 처리하는 도구였다. 그 전쟁에서 남녀의 코드는 전쟁이 끝난 후의 유골 대접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저서 부분에서 궁금했던 것을 몇 가지 질문을 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추가로 들을 수가 있었다.

바바하루씨가 조선인이라면 그 유골을 가능하지 않다면 흙이라고 가져가고 싶다는 우리

76) 오키나와의 섬들에 있는 성지로 대부분은 숲이다. 아주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축제의 대부분은 이곳에서 개최된다.

의 이야기에 그녀는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오타씨의 저서에 있는 ‘위안소’, ‘위안부’관계 내용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렸다. 야에야마의 조선인 ‘위안부’들은 대만에서 수송해 왔다는 증언이 있는데 오오타씨의 조사 결과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만에는 조선인들이 경영하는 유곽이 많았고 그 유곽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데리고 왔다고 한다. 지리적으로 대만이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본토에서 오는 것 보다 훨씬 더 안전했다는 이야기이다. 예부터 야에야마 군도는 대만과 상당한 왕래를 하고 있었다. 전쟁 전에는 대만을 동경해 대만으로 일하러 가는 젊은이들이 아주 많았다고 한다. 이들에게 일본은 멀고 먼 타국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국민국가는 무리한 경계를 긋는다. 이 섬 주민들에게 그 경계는 강제였을 것이다.

사진<이시가키의 유곽건물터>

< 본섬 쓰지 유곽지대의 유곽개조묘비 >

오오타씨와 대강의 인터뷰를 마치고 야에야마평화기념과, 이시가키소학교 근처 ‘위안소’, 산니‘위안소’, 시라미즈 ‘위안소’, 카비라 ‘위안소’, 바바하루 매장지 등을 그의 안내로 돌아보았다. 이시가키소학교 근처 ‘위안소’는 주택가로 그 흔적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 곳을 들르며 당시 ‘위안소’로 사용했던 유곽을 돌아보았는데 담장이 집보다 훨씬 높아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었다. 유곽의 근처는 1960년대까지 술집들이 번성했으며 현재도 몇 개의 술집이 남아있었다.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후쿠나가 카즈이, 다이쇼 14년생)는 전쟁 당시 소년병 이등병이었는데 하사관인 상관을 모시고 이 곳 ‘위안소’를 방문했었다고 한다. ‘위안부’들의 절반 이상이 조선인이었으며 오키나와 야에야마 위안부들이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오오타씨 저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시라미즈위안소는 차로 30분 정도를 달려서 산 속으로 들어간 후에 차를 내려 오오타씨가 낮으로 나뭇가지와 풀들을 잘라내면서 들어갔다. 독벡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말에 저절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안소’가 있었던 곳은 깊고 깊은 산 속이며 그 곳은 군의 명령으로 大川、登野城의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피난했던 곳이기도 하다⁷⁷⁾. 어둡고 습기가 많은 산 속에서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곳으로 피난한 어린이들 10여명이 물놀이를 한지 10일 후에 말라리아가 발병해서 모두 죽었다고 한다. 그 밖에 많은 주민들이 이 곳으로 피난을 했다가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했다고 하는 장소이다. 피난했던 사람 중에 이 곳에서 ‘위안부’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말라리아 모기가 득실거리는 시라미즈 위안소로 끌려온 ‘위안부’들 중에는 말라리아로 사망한 사람도 다수 있었을 것이다.

77) 太田静夫, 앞의 책99쪽.

사진 <오타씨가 만든 유혼의 비>

오타씨는 전쟁터였던 야에야마를 자신의 발로 하나하나 돌아보면 무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혼이 한을 품고 이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는 오키나와인들의 종교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을 믿는 그들의 종교관.. 오타씨는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간 혼들을 달래고자 자신의 사유지에 ‘유혼의 탑’을 세워 매년 한 번씩 그 혼들을 위로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화려하지 않지만 무참하게 죽어간 혼들은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한 사람에 의해 그 누가 세운 위령탑에서 보다 위로 받을 것이다. 유혼의 탑에는 표류한 안동호(安東丸) 승무원들을 강제노동으로 혹사하고 폐촌 된 곳에 내버려 뒹굴어 죽게 한 사건의 유물들도 놓여져 있었다⁷⁸⁾. 무참하게 죽어간 영혼을 위로하고자 애쓰는 ‘인간’과 비인간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인간’, 그 인간의 스펙트럼을 이 유혼의 탑에서 볼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리오모테의 시라하마, 우치바나리의 ‘위안소’ 그리고 이시가키 섬의 시라미즈, 카비라, 산니, 이기가키 시가지의 ‘위안소’ 들을 직접 둘러보며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이리오모테의 소나이 위안소, 이시가키시에는 白保、平得‘위안소’가 더 있었으며 이곳에는 일본인과 조선인 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리오모테가 속해 있는 다케도미조의 小浜島에도 두 곳의 ‘위안소’가 있었으며 모두 조선인 ‘위안부’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 곳을 찾아보는 작업은 다음을 기약해야 할 것이다.

八重山戦争關係 年表(야에야마 전쟁 관계 연표)

1940年

5月 26日 國民精神總動員 沖繩縣 支部 發足(국민정신총동원 오키나와현 지부 발족)

9月 27日 日獨伊三國同盟締結

1941年

3月17日 大政翼贊會 八重山支部 發會式

7月 船浮臨時要塞 建設 命令

10月13日 船浮陸軍病院 (部隊長.池田勳二) 西表 內離島 上陸

船浮要塞 銃砲兵連隊 (西部 4154 部隊) 西表島 上陸

12月 8日 日本軍 하와이眞珠灣 攻擊, 太平洋戰爭 勃發

1943年

78) 44년 말 이리오모테 후나우키항에 작은 목조선이 기관고장으로 표류되어 왔다. 우치바나리섬에 본부를 두고 있던 중포병제8연대제1중대가 이 배를 인양해서 우치바나리와 시라하마 사이의 新坑이라고 불리던 만 안으로 정박시켰다. 이들은 대두를 운반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몰수 당하고 진지구축과 참호 만드는 일에 혹사당하게 된다. 가혹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은 언제나 부족하여 굶어 죽기도 했으며 끝내는 폐촌 동굴에 버리고 가 아사하거나 말라리아로 사망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의 국적에 대해서는 조선인이라고도 하고 만주인 이라고도 증언이 엇갈린다. 먹을 것을 달라고 ‘쥬 쥬’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다. 太田 静夫、앞의 책 245-249쪽.

7月21日 國民徵用令 改正 公布

1944年

2月12日 12日 全國人口調查 (國勢調査와 유사)

3月14日 船浮要塞 重砲 對空試射에 成功

15日 [一般人 疎開 促進要綱] 閣議 決定

8月22日 臨時編成 獨立混成 山下中隊 (富山丸 生存部隊) 石垣島 上陸

9月9日 石垣町 住民(宮城文 等) 台灣 疎開 시작

14日 獨立混成 第45旅團 獨立 步兵 第300大隊 (龍口隊) 石垣島 上陸

15日 獨立混成 第45旅團 獨立 步兵 第298大隊 (毛木部隊) 石垣島 上陸

重砲兵 第8 連隊 (구 船浮要塞 重砲兵 聯隊) 石垣島 開南으로 移駐

18日 三木隊 30人 川平에 駐屯

10月 10日 第32軍 兵團長 會同, 兵棋演習 空襲으로 延期(那霸)

那霸 10.10 空襲

石垣島 空襲警報 發令

10月12日 石垣島 최초 空襲

11月 3日 第28師團 第3 野戰病院 石垣島 上陸

4日 特設 第48 機關砲隊 (櫻井隊) 石垣島 도착

11月29日 第19 震洋隊 大河原部隊 石垣島 도착(川平)

第28 震洋隊 幕田隊 石垣島 到着

沖繩 海軍先任 參謀 安部大佐, 石垣島 警備隊 井上隊長, 川平部落 移轉問題로 [川平灣이 보이지 않게 둘러쌀 수 있다면 移轉해도 좋다]고 部落會長에게 通達

12月5日 海軍, 川平部落 縣道 아래 쪽 住民 되거 및 通行禁止區域 命을 함. 陸軍 渡部部隊도 通行禁止區域 設定

17日 獨立步兵第301大隊 第1中隊 竹富島 駐屯

1945年

1月6日 美軍機 石垣島 來襲

8日 美軍機 石垣島 攻擊

9日 石垣島 空襲 警報

3月10日 鳩間住民 西表島 (赤離에서 우보다로 避難)

4月15日 美軍機 60機로 飛行場 滑走路, 市街地를 機銃 爆擊, 2~4機 擊墜

石垣島 海軍警備隊, 美軍 捕虜 2名 斬首, 1名 刺殺한 石垣島事件 일어남

8月3日 市街地 爆擊, 八重山群島 第一가는 科亭 [田本屋 燒夷彈으로 燒失]

14日 第10方面軍 八重山 여단 終戰을 내부에 알림

15日 旅團司令部 大隊長, 部隊長 모아 宮崎 旅團長 詔書를 奉讀

黑島國民學校에서 山川青年學校 指導員 降伏 詔勅 郎讀

9月1日 八重山 旅團 現地 徵集兵 招集 解除

7日 先島群島 司令官 納見敏郎中將, 奄美群島 司令官 加謄唯男 海軍少將, 高田利貞陸軍少將, 嘉手納의 美軍司令部에서 南西諸島의 日本軍을 代表해 미군사령관 스틸웰 大將

과 無條件 降伏 文書에 調印
南西諸島에서 戰爭 公式 終結
10月6日 美軍이 石垣島 上陸
12月23日 軍政施行을 위해 美軍進駐하고 宮良長詳을 八重山支長으로 任命

이선이

부록 1 일본군 자료

1. 오키나와 군문서 1-대동도지대 제4중대 진중일지--이하 부분 교정시 조 정요

1944.4.5 06:20 장교전원 장교집회소에 집합하여 군명령 및 단명령에 기초하여 부대 명령안을 보다

군명령의 요지

1. 제85병참경비대(특설경비 제211중대 군무선으로 분대배속)은 주력으로써 남대동도를, 각각 일부로 북대동도 및 라사도를 점령하고 소재 해군부대와 협동하여 남대동도 방위에 임하도록 한다.

부대명령의 요지

1. 부대는 군명령에 이해 주력으로 남대동도를, 각각 일부로 북대동도 및 라사도를 방위한다.

2. 병력부서

1) 단대구분

북대동도수비대

장 보병제2중대장 柴田중위

보병 제2중대

기관총 1개 분대

보급위생의 일부

남대동도수비대

장 대장 직접지휘

제85병참경비대(제2 제4중대 기관총1소대결)

특설 제211중대

군 무선1개분대

라사도 수비대

장 보병제4중대장 森田중위

보병제4중대

기관총1개대(1분대결)

군무선1분대

보급위생의 일부

1944.11.21

9. 대동수비대전 제435호를 받음 9:45

明朝 귀지 도착. 기범선에 '위안부'(경영자 모두 8명) 도착함에 있어 이에 위안소 규정을 함께 송부한다.

10. 대동지대전 제60호(09:50수신)

1) 冲向선단 본21일 6:20남대동도에 도착

13)대동수비대전 제273호 22:40

귀지향 선단 6척은 22일 19:10분 남대동도를 출범하게 될 것 같다

1944.11.23

1. 6:30 선단6척 동북1만 미터에 선단 6척 확인. 7:45입항
 충수비작명 제27호에 기초하여 경계配備 및 揚陸작업 실시. 수비대
 본부 十室?조장, 지대본부 川道오장으로부터 각종 서류를 수령: 구작
 명제14호 대동수비대작명 제49호 배속되어지 2호 무선분대 井垣오장
 이하 12명, '위안부' 경영자 이하 8명 상륙
 17:30 선단 출항 지방민 남 61명 여 36명 퇴도하다
 三室?조장, 川道오장에게 좌기 서류를 탁송
 수비대본부 앞 상황보고 (제3)1주(별지부록)
 지대본부앞
 인사에 관한 서류 2부, 급여에 관한 보고 1부, 진중일지(10월) 2부, 상
 황보고(제5) 1부(별지부록) 병기에 관한 서류 2부, 월보 1부, 통신월보
 1부, 공적에 관한 서류 1부. 의무실앞 1부 이상
3. 球作命 갑제14호
 제32군 명령 7.10. 12:00 나하
 3) 보병 제36연대장은 아래 부대를 아울러 지휘하고 대동도 수비대장
 이 되고 소재 해군과 협동하여 보병 제36연대 약 1대대는 북대동도,
 대동도지대의 약 1중대는 沖대동도, 그 나머지 주력을 남대동도를
 확보하게 한다.
 좌기
 보병제36연대
 대동도지대
 특설경비제211중대
 무선4분대
 4)대동도수비대의 수송에 관해서는 별도로 명한다.
 군사령관 渡邊正夫
4. 대동수비작명 제49호
 대동도 수비대명령 11.19 14:00
 池の澤
 대동도수비대장 平野대좌

1944.12.3 수비대전 제507호 수신 09:40

'위안부'에 관하여 좌기 조사보고하도록

1.경영책임자의 주소씨명

2.'위안부'의 본적, 씨명, 예명, 연령, 舊樓名, 개업연월일

1)경영책임자 주소 福岡縣 宗像郡 伊尾崎西十?山?路

씨명 占部 公(우라베 히로시)

2)'위안부'

본적

씨명 예명 연령 구루명

부산부 초량정 1056	鄭涉伊 しのふ 25세	부산진
경정부 동대문구 공덕정 13의15	金慶伊粉 小春 25세	一力
마산부 枝品洞 63	金谷文子 笑子 21세	高砂樓
老神府 大和町 49	崔業批 多摩江 21세	金泉莊
달성군 현풍면 午山洞	門永千金 信子 19세	ナシ
남거창군 南上面 大山里	金山鎮熙 若葉 19세	ナシ

11월 26일부터 서해안 부락 북단 빈집에 영업을 개시한다. 규정은 귀대의 것에 따른다.

1944.12.20 충수비대

10. 충수비대 전 제239호 (20:15송신)

위안소 食飼는 당대에서 급양해도 방해되지 않겠는가(지방 糧秣 없는 것에 따라)

대동도지대 제4중대 중대장 육군중위 森田芳雄

1944.12.22 상황보고

11월 23일 래도한 '위안부'7 경영자1은 부락 북단 광원숙사에 거주

1944.12.29

군위안소는 국민적 자각 하 현전국을 진검으로 이해하고 장병일등을 위해진지하게 행동하고 있어 경하할만하고 타도에 비해 수익이 크지 않음은 일면 동정의 여지가 있고 이를 위해 본 단체 책임자로 하여금 본도 해당 단체원에게 전폭적인 이해를 얻게 함과 동시에 될 수 있는한 유리한 수지처치 등을 주려는 것을 고려...

위안소 양말은 일월 상순까지 회사측으로부터 수령되어질 수 있다. 본도 회사의 실정에 기초하여 충전 제139호처럼 군양말의 불하를 신청하여 허가를 얻었지만 도민 인양진척으로 대동지대 경전1호에 따라 1년분의 양말을 구입하게 하여 군양말에 하등관계가 없다(소화20년 1월12일 기록한다)

이상

충대동도 주민 퇴도 지도방침에 관해 상사의 의도를 체득하여 좌와 같이 통달한다.

방침

군수성 농상성 연락결과 충대동도 磷礦의 채굴은 중지한다.

위안소 및 측후소 근무자를 제외하고 지방인 전원 인양하기로 정한다.

1945.1.4

충수비대작명 제 2호 1.4 20:00충대동도

9.

3)각 소대는 동측 분산소에서 지하 足袋卷 각반을 차고 철모를 신변에 두고 취침한다. 야포 3호 갑 통신기재는 엄호내에 두도록 한다.

4)주변사관은 지방인을 좌와 같이 遍處하도록

군위안소는 22:00 이후 제1호병사 하사관실에 취침(침구는 각자 휴대) 회사측은 각자의 분산소내에 취침

1945.1.6

10.지대경전제1호

귀전제2호 답신

현지조변은 좌기에 의해 처리할 것

..단 이후 '위안부'에게 쌀을 불하하는 것 같은 일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1945.1.15

충수비대작명 제4호 1월 15일 18:00 충대동도

6. 그외는 明拂曉 이후 화재 예방에 유의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소요에 응하고 좌의 구분에 따라 병사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군위안소 1호 병사

회사측 2호 병사

1945.2.17

작명

8. 충지구대작명 제11호 2월17일 13:00 충대동도

4)군위안소는 명조 이후 평상그대로 기거하도록 한다

1945.3.2

6. 충지구대 작명 제 13호 3.2 17:00충수비대

7) 위안소원은 당분간 본부 横舊 피복창고에 기거하도록.

8)우 태세철수의 시기는 피해지 정리 및 급수설비 및 급수설비의 완성 후 명한다.

1945.3.9

5. 충지구대 정전 제78호

오는 11일 05:00해군 선단의 입항통보가 있다. 귀지에 기항하게 되면 좌기의 것 특히 보급
에 고려해 줄 것

7) 위안소 일용품

1945.3.11??

1945.3.28

충지구대 작명제20호 3.28 03:00 충수비대

5. 그외자는 좌와 같이 동굴을 배당한다.

위안소 제5동굴

1945.4.9 충지구대 작명 제 26호

6. 電探 망루 측후소 및 군위안소는 소정의 동굴대기소에 있도록 한다.]

1945.5.10

5. 충지구대 명령

수비대 규정 중 좌와 같이 개정 및 추가

3) 제14항의 말경에 [제 18廉인 경우 대장의 허가 외 음주를 금한다]를 삽입한다.

1945.6.2 충지구대 전 제112호

봉급전도자금으로서 본도 위안소 경영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상당액을 본인 집으로 귀대 본부로부터 전보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1945.8.17 수비대

북충지구대장은

대동도 수비대장 田村大좌

1945.8.20

4.충지구대정전 136호

본도지방방인(측후소원 ‘위안부’)로서 적폭적으로 의복류를 손실하고 일상 기거에 대해 군용 피복 급여 불하의 정식 방도는 없는가

1945.8.24

수비대電 제504호

「豊暗電 제270호로써 암호서의 殘置 및 소각처분을 명함에 있어 좌기에 따라 속히 이를 실시하고 그 일시 감시장교관 씨명 및 잔치 암호서의 근거 부대명만을 지금 보고하기 바란다(일련번호 不用)

좌기

1. 殘置暗號書

제32군 암호서 1호 2부, 제32군 부대용 난수표 5,6호 각 1부, 제28호 사단 합성 난수표 2호 1부, 제28사단 계산표 3호 2부, 明碼사전 1부

2. 前項 이외의 것 및 암호서의 작성에 관한 일체의 통첩지시. 전보 작업지 등은 전부 소각(沖大東島 全部隊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3. 잔치 암호서 및 관계 簿表의 소각은 別命한다

단 비상처분에 관해서는 일체 유감없도록 할 것

1945.8.25

18:00 전원 집합 중대장으로부터 작전 임무의 해제에 관한 훈시

5. 수비대 전 제 504호

서류 소각 명령 대동도 수비대 대장 田村大좌

2. 오키나와 군문서 2

吉見義明, [중군‘위안부’자료집] 및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의 [‘중군‘위안부’관계자료집성] 수록 자료 번역

1) 眞志喜 警備中隊 陳中日誌

1944년 11월 - 12일

(전략)

11월 7일 화 맑음
眞志喜 1. 중대는 어제에 이어 「2」호 연습 참가를 위해 현 임무를 수행하고 8시 연습 종료, 전원 이상없이 귀대함.
(중략)

1. 松尾 일등병 위안소 설치 사역병으로서 7시 대대 본부에 도착 18시 이상없이 귀대함.

(후략)

11월 8일
眞志喜 1. 중대는 주력으로써 현재 수행 중인 강화진지작업을 위해 7시 출발 일부 병력을 남겨둔 채 야간작업을 실시 공사의 촉진에 노력하고 있음.
(중략)

1. 松尾 일등병 위안소 설치를 위해 8시 출발 19시 귀대함.

(후략)

11월 14일 화
眞志喜 1. 중대는 여전히 현 임무수행을 위해 6시 30분 출발, 각소대 담당지구에 도착 17시 귀대함
(중략)

1. 松尾 일드영 위안소 설치를 위해 8시 출발 19시 귀대함.

(후략)

12월 13일 수 구름
眞志喜 1. 각소대 7시부터 17시까지 진지공축에 종사.
1. 중대장 이하 9명 위령제 참례를 위해 13시 출발 대대보누에 도착 16시 귀대함.
(중략)

1. 高井 상병 위안소 설치 요원으로서 본부 경리실에 도착 18시에 귀대함.

(후략)

12월 14일 목 흐림
眞志喜 1. 중대주력을 가지고 방위지구의 진지 구축을 위하여 7시 출발 17시 이상없이 귀대함.
1. 高井 상병 위안소 설치를 위해서 대대본부(경리실)로 7시 30분 출발 18시 귀대함.

(후략)

12월 16일 토 흐림
眞志喜 1. 중대 7시부터 담당지구의 진지 작업을 실시 17시 귀대함.
(중략)

1. 高正 상병 본부 위안소 설치 요원으로서 7시 30분 출발 18시 귀대함.

(후략)

2) 北飛行場 56飛行派遣 重信班 陳中日誌

1944년 12월분

(전략)

12월 24일 출장인원 하사관 1, 병사 38

맑음

北비행장

1. 작업대장의 명에 따라 重信 하사는 병사 31명을 구분배치하여 아래의 각 작업을 실시하였음.
- (1) 宮田 상병은 병사 9명을 지휘하여 동굴 시설 작업을 속행하였음.
진도, 동굴틀짜기 7개소 완료.
- (2) 荒武 상병은 병사 20명을 지휘하여 군인 클럽 개축 및 목공작업에 종사하였음.
진도, 군인클럽 내부개조 3할 정도까지,
궤도운반차 적재함 수리 22대 완료.
노동시간 각 반 모두 9시간.

위생

1. 입원 3, 입실 2

12월 25일

출장인원 하사관 1, 병사 38

구름

北비행장

행동

1. 작업대장의 명에 따라 重信 하사는 병사 31명을 구분배치하여 아래의 각 작업을 실시하였음.
- (1) 宮田 상병은 병사 9명을 지휘하여 동굴 시설 작업을 속행하였음.
진도, 동굴 테두리짜기 6개소 완료.
- (2) 荒武 상병은 병사 20명을 지휘하여 군인클럽 개축 및 단조 공장 설치와 목공잡작업에 종사하였음.
진도, 군인 클럽 5할 정도까지
鍛工場설치 8할정도까지 소나무 벌채 10石
궤도운반차 적제함 수리 11대 완료

위생

1. 입원 3, 입원실 2

12월 26일

출장인원 하사관 1, 병사 39

흐림

北飛行場

행동

1. 작업대장의 명에 따라 重信 하사는 작업반 구분배치 작업지시 후 본대로 출장, 단공기계의 수령 및 사무연락에 종사 후 그날 귀대함.
각 반이 실시한 작업성과 아래와 같다
- (1) 宮田 상병은 병사 9명을 지휘하여 동굴시설 작업에 종사하였음.
진도, 동굴틀짜기 6개소 완료.
- (2) 荒武 상병은 병사 20명을 지휘하여 제427부대 군인클럽 개축 및 단조공장 설치 작업에 종사하였음.
진도, 군인클럽 내부개조 8할 정도, 단조공장 설치 완료.
노동시간 각 반 모두 9시간.

(중략)

12월 28일

출장인원 하사관 1, 병사 39

흐림

北飛行場

행동

1. 작업대장의 명에 따라 重信 하사는 병사 32명을 구분 배치하여 아래의 각 작업을 실시하였음.

(1) 宮田 상병은 병사 11명을 지휘하여 군인클럽 내부 개축 작업에 종사하였음.

진도, 56비대(飛大) 군인클럽 개축 2할 정도까지.

제427부대 군인클럽 개축 사양 변경 완료.

(2) 荒武 상병은 병사 20명을 지휘하여 건축재료 벌채 및 鍛工作業에 종사하였음.

진도, 소나무 벌채, 11.32石 단조공장 기재 수리

노동시간 9시간

위생
(중략)

1. 입원 3, 입실 2

12월 31일
호림
北飛行場
행동

출장인원 하사관 1, 병사 39

1. 작업대장의 명에 따라 重信 하사는 병사 32명을 구분 배치하여 아래의 작업을 실시하였음.

(1) 荒武 상병은 병사 13명을 지휘하여 군인클럽 내부개축 작업에 종사하였음.

진도, 내부개축 완료(별지 약도와 같음).

(2) 宮田 상병은 병사 17명을 지휘하여 벌채 및 단공작업에 종사하였음.

진도, 벌채 통소나무 8.24石.

단공작업 공구제작 절반정도

노동시간 각 반 모두 9시간

위생

1. 입원 3, 입실 2

3) 第62師團 副官部 陣中日誌 第 19 號

1945년 1월

군사극비

194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陣日 제19호

陣中日誌

제62사단 부관부

(전략)

1월15일

가랑비

최고온도

15도

최저온도

13도

仲間村

명령

1. 사단장 本郷 중장은 1944년 3월 7일 무훈일등을 서수받고 서보장(瑞寶章)을 하사받음.

2. 별지하기 명령을 하달함.

이시(石)병단 일일명령 제 8호 부내 일일명령

제14호

3. (1) 선발자 篠 중위 이하 엄폐(掩蔽)호 구축 및 숙사 설비작업을 실시함.

(2) 배속화물자동차에 의해 진영(陣營)기구 기타물품을 수송함.

이주준비 (3) 관리반 山口 중사 이하 5명 省里위안소 설비작업을 실시함.
(후략)

4) 平作命 제5호(字作命 제6호)

平山大 명령 1월 14일 18:00

船窪臺

1. 國頭지대는 군의 위안시설 증강을 위해 1월 16일부터 약 10일의 예정으로 眞部山 진지내에 병사를 축조함.
2. 중대는 이 축조를 위해 일부 병력을 보내려함.
3. 지휘소대 및 전포대에서 각각 병사 1명을 차출하여 1월 16일 08:00까지 滿名 運立橋에 도착 제2보명대 中島 주계 중위의 지시를 받아 전기 작업에 참가시킬 것.
복장은 단독의 군장으로 하고 점심, 토공기구를 지참할 것.

대장 平山 대위

하달법 구달(口達)

보고(통보)선 2i II/2i

平作令 제17호

平山大 명령 2월 10일 14:00

船窪臺

1. 중대는 당분간 만나(滿名)에 연락소를 설치하여 집적양식, 무기, 축성자재 등의 감시 및 대외연락의 적확원활을 기하려 함.
2. 지휘소대는 주력으로 연락소의 설비를 맡아 명 11일 중에 이를 완성할 것.
연락소 - 중대사무실 간의 연락은 중대사무실 - 오키나와(沖繩) 제9포대간에서 후퇴 3곳 일계로 할 것.
3. 연락소 근무원의 편성은 병장(상병) 이하 4명(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으로 하고 2월 11일 10:00 이후 복무할 것.
4. 세부에 관해서는 古賀 중위로 하여금 지시케 함.
5. 新行橋 위병을 2월 11일 08:00 이후 그 편성을 풀고 원소속에 복귀할 것.

대장 平山 대위

하달법 구달(口達)

보고(통보)선 2i I/2i II/2i9NA 26sep 50ab

平作命 제17호 별지

1. 명칭 平山大 연락소
2. 위치

5) 군위안소 관계 회보 등

제62사단

石兵團 會報

1944년 9 - 12월

제54호
石兵團 會報

소재지	명칭	소재지	명칭	소재지	명칭
安波茶	見晴亭	經塚	觀月亭	安波茶	군인회관

9월 14일 18:00

仲間

1. 原職이 검사인자의 유무를 조사해서 16일 정오까지 보고할 것.
2. 외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할 것.
 - (1) 하사관, 병사의 지각 외출은 불허할 것.
 - (2) 여단마다 그 방위구역을 외출 구역으로 하고 외출일 기타 적절히 여단에서 통제할 것.
 - (3) 직할부대의 외출구역 및 외출일은 별지와 같음(외출 허가의 시기는 별도 지시함)
 - (4) 위안소의 가격은 아래와 같이 잠정 정함.

1시간	23시 이후 다음 날 아침까지
병사	4.00 장교 15.00
하사관	5.00 영관 20.00
장교	6.00 (본 가격에는 12퍼센트 세금 포함)
 - (5) 우선 당분간 길들이기 위해 매포제로 하고 '위안부' 1인에 대해 병사는 2매, 하사관 1 매, 장교 1매로 대략 정함.
 - (6) 각부대는 사단 여단의 통제하에 외출을 허가할 수 있음.
- (3. 이하 약)

제56호
石병단 회보

9월 17일 16:00

仲間

- (1.- 4. 약)
5. 재 仲間 후방시설을 아래와 같이 호칭하고 9월 20일부터 영업을 개시함.
또 사령부 및 직할부대의 외출은 20일 부터 실시할 것.
- (6. 약)
7. 각 부대는 위안소를 개설함에 있어 하기 사항을 조속히 보고할 것(차후 변경될 시는 각 서로써 가하니 그 취지 보고 할 것).

하 기

 - (1) 후방 시설 담당위원회(위원 진원을 보고할 필요없음. 세무담당자만으로 가)
 - (2) 영업 개시일
 - (3) 경영장소(경영장소는 현주소 외에 구○○여관 또는 민가 등과 같이 부기 하기 바람)

- (4) 경영자 성명
- (5) 기녀수
- (6) 경영내규 등이 있으면 그 사본
- (8. 약)

제57호
石兵團 會報

9월 19일 16:00
仲間

- (1. 2. 약)
- 3. 石병단 회보 제56호의 군인회관의 영업 개시일을 9월 20일로 돼 있는 것을 9월 25일로 변경함.

제58호
石兵團 會報

9월 21일 10:00
仲間

- (1. 2. 약)
 - 3. 후방 시설에 관하여 먼저 주의하기 바람.
 - (1) 세금액은 영업자로 하여금 예금의 방법으로 보존시켜 후일 세액 확정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
 - (2) 검진에 있어서는 기녀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할 것. 모병단에서는 기녀의 얼굴과 국부를 보면서 검진 한자가 있었음.
 - (3) 경영자와 기녀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할당을 연구하여 빈틈없도록 할 것.
 - (4) 다른 병단방면에서는 국민학교 아동이 들여다 보아 풍기상 불가한 것이 있다. 들여다 보지 못하도록 시설할 것.
 - (5) 풍기상 기녀로 하여금 부근을 함부로 산책 못하도록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있었음, 장소에 따라서 주의할 것.
 - (6) 기녀 등이 나패(那覇)?에 가끔 나가고 싶어한다. 그런 때에는 기회가 있으면 증명서를 위원이 발행하여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토록할 것.
그 때에는 조수석에 앉히지 말 것.
 - (7) 기녀가 담배 때문에 곤란하다는 신고가 있었음. 가능하면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것.
 - (8) 28일 이후는 표를 다시 병사, 하사관 각각 1매씩 증가해도 무방함.
 - (9) 배당의출을 못할 때에는 적어도 전일 정오까지 신고할 것.
무신고로 해당일을 사용하지 않은 부대에게는 후방시설의 이용을 금지시킬 것.
- (중략)

제62호
石병단 회보

9월 28일 16:00
浦添국민학교

- (1. - 6. 약)

7. 후방시설에 관하여

- (1) 콘돔의 지급을 적절히 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
- (2) 등화재료의 배급은 주의할 것. 또 등화관제는 군시설이므로 면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할 것.
- (3) 경영자와 기녀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차기 회보 시 연필이라도 무관하니 보고할 것.
- (4) 외출자 중 물통에 술을 넣어 가지고 등루(登樓) 음주하는 자가 있다. 이런 자를 발견하게 되면 그 부대는 이용금지 시킬 것.
- (5) 병사 중에 표없이 위안소에 오는 자 및 표를 보이지 않고 각방을 들여다 보고 돌아다니는 자가 있다. 금후 이용시간을 12:30부터 대략 지정할 것. 또 표는 카운터에 바로 제시하도록 지도할 것.

배포선 중대까지 각 부반

(후략)

제64호

石병단 회보

(1. - 4. 약)

5. 위생 콘돔은 후방시설 담당부대에 일괄 교부하여 직접 위안소에 비치토록 할 것인 바 양지할 것.

배포선 중대까지 각 부반

(후략)

제74호

石兵團 會報

10월 19일 12:00

浦添국민학교

(1. - 9. 약)

10. 후방시설에 관하여

- (1) 병단회보 제62호에서 주의한 바 있는데도 아직 병사로써 표를 보이지 않고 각방을 들여다 보고 혹은 기녀의 손은 잡고 강요하는 자가 있다. 또 야간에 표를 지참치 않고 카운터에 와서 거절당하자 돌을 던지고 폭행하는 자가 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2) 병단회보 제62호에서 경영자와 기녀와의 관계를 조사보고 하도록 했는데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부대가 있다. 조속히 제출할 것.
또 경영자와 기녀와의 할당은 금후 7할(기녀), 3할(경영자)로 하고 □□의 경비는 전부 경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이전부터 현재의 경영자와 기녀와의 관계에 있는 것은 차한에 부재한다.

(후략)

제79호

石병단 회보

10월 26일 16:00

浦添국민학교

(1. - 7. 약)

8. 후방시설에 관하여

(1) 위안소의 표의 월 일 및 시간 등을 고의로 정정해서 지참하는 자. 한 사람이 4매의 표를 지참하는 자. 새벽 01:00 무렵 오는 자. 준위로서 표없이 음주 만취상태로 등로(登樓)하여 카운터 또는 기녀의 방에 들어놓고 무리를 강요하는 자 있음(24일 이시제4283부대)

월 일 시간을 정정한 것은 무효로 하고 표가 남았을 경우에는 신속히 위원에게 반납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

배포선 중대까지 각 부반

제84호

石兵團 會報

11월 12일 12:00

浦添국민학교

(1. - 4. 약)

원 주소	원 옥 호	성 명	연 령	비 고

5. 각 부대는 공포로 인하여 피난 갔다가 다시 와서 '위안부'로서 새로이 채용된 자 중에 이미 류구군(琉球軍)과 '위안부'로서 계약한 자가 있으면 조사하여 11월 14일까지 하기 양식에 따라 보고할 것.

하 기

(6. 약)

제90호

石兵團 會報

12월 4일 16:00

浦添국민학교

(1. 약)

2. 위안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바 각부대는 적절히 실시하도록 할 것.

(1) 石병단 회보 제54호 2의 4, 위안소의 요금을 12월 5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함.

	1시간	자정까지	하룻밤
병사	2.50		
하사관	3.00(3.60)		
준사관	5.00(6.00)	10.00(12.00)	25.00(30.00)
장교.준사관	5.00(6.00)	10.00(12.00)	25.00(30.00)

()내는 기생 또는 특히 다른 부현(府縣)에서 초치한 자로하고, 전반 밤에 이어 후반 밤에 걸칠 때에는 그 차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즉 후반 밤에 걸칠 때에는 15원을 다시 지불하여 함께 25원이 된다.

(2) 위안소 사용시각은 병사는 저녁식사 시간 1시간 전까지 하사관은 점호시간 1시간 전까지 하사관은 점호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하고 개시시간을 더욱 당길 수 있도록 할 것.

(3) 石병단 회보 제58호 제3항의 1은 12월 5일 이후 폐지되어 면세로 될 예정이며 종래의 세액으로서 보존해 놓았던 것은 별도 지시하겠으나 '위안부'의 수입으로 돌아갈 예정인 듯.

(4) 매표제는 여전히 존속하고 그 매수는 적절히 각 지구별로 결정할 것.

(5) 仲間에 제3위안소(구 군의부 터)를 설치하여 12월 5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사용 일정을 仲間 위안소 내규에 따르며 표는 발생하지 않고 가격은 1의 ()안을 적용한다.

제101호

石兵團 會報

12월28일 16:00

浦添국민학교

(1. - 6. 약)

7. 군회보 중 필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히 헌병대에 진정해온 지역주민의 통신에 나타난 사항 등은 병단에는 전무하도록 각 부대는 엄격히 주의하고 또 ○○후 점검할 것.

(1) 9월 이후 군내에서 화재발생사건 8건이 있었음. 첫째로 간부의 감독단속의 불철저와 취급자의 부주의에 따른 것이다. 화재사건에 관해서는 상부에서 중요시하고있으며 책임자는 각각 처벌된다. 화재가 많은 시기에 접어들었으므로 각대는 주의할 것.

(2) 군내 某위안소에서 음주한 다음 카운터에서 자다가 지갑을 털린 일이 있었다. 유흥에서도 규정을 엄수하여 규정 이외의 장소 등에서 유흥 수면 등을 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것.

(3) 군내에서 최근 음주한 다음 위안소에서 폭행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 위안소에서는 재미있게 놀도록 할 것. 옛 말에도 「놀 때에는 바보가 돼라」 고 했다.

(4) 군편성 이래 음주에 따른 범죄가 많음에 비추어 연말 연시에 있어서 이런 종류의 범죄방지에 노력할 것(법무부).

(5) 최근 각대 각소에서 검미(성병검사)를 실시하여 이에 소요되는 약품을 군 군의부에 청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종류의 약품은 입수 곤란한 실정이므로 최인근 부대와 협의한 다음 일괄 실시토록 할 것(군의부)

(중략)

5) 독립혼성 제15연대 속사포중대 陣中日誌

1944년 10, 12월

1944년 10월 1일부터 1944년 10월 31일까지

진중일지

독립혼성 제15연대 속사포중대

10월 4일 1. 08:00 중대는 병사내에서 연대의 지시사항에 따라 칙유(勅諭) 봉독식을 거행

맑음(수) 합.

- 渡久地 2. 09:00 의무실에서 대장 이하 전원 체중 측정을 실시함.
- 3. 10:00 병사 앞에서 (町田) 군의의 위생강화 있음. 지휘반 전원에게 청강토록 하였음.

(중략)

- 주둔지명 13. 15:00 北지구 주둔지 명령
- 제2호 (1) 本部町 渡久地에 개설한 군위안소를 渡久地 군위안소라 호칭함.
- (2) 渡久地위안소는 10월 5일 ○○○○부터 이용 허가한다.
- (3) 渡久地위안소의 이용에 관해서는 북지구 주둔지 군위안소 이용규정을 엄격히 이행할 것.

(후략)

독립혼성 제15연대 제1대대 본부 陣中日誌 제7호

1944년 12월

1944년 12월 1일부터 1944년 12월 31일까지

(표지포함 56매)

진중일지 제7호

독립혼성 제15연대 제1대대 본부

(전략)

- 12월 28일 1. 대대장 전투지휘소 작업 지시함 10:00
- 흐림 2. 대대장 제3대대로 출장 15:00
- 3. 水野 소위 구주둔지로부터 연락 때문에 내대함 10:00

(중략)

회보 桑江위안소 이용의 건

(후략)

6) 南지구 주둔지 사령관
주둔지 회보에서의 시달사항

1945년 1월 13일

주둔지 회보에서의 시달사항

1945년 1월 13일

南지구 주둔지 사령관

1. 군기의 진작에 관하여

주둔지 일반의 군기는 획기적으로 진작 향상을 요한다.

아래에 진작을 위한 요망 사항을 제시함

(1) 「위로는 대권의 승행(承行)을 근엄하게 하고 아래에서는 삼가 복종의 지성을 다한다」는 관념의 투철을 요함.

(2) 군기의 진작은 전승필수의 요건이며 장교는 군기의 근원임을 명시하고 자대는 물론이고 다른대의 자라할지라도 결코 군기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과방임 함이 없이 현장에서 교정하는 열의가 요망된다.

(3) 경례의 엄격한 실시를 강력히 요망한다.

간부는 경례의 실시가 부정한 자는 자타대를 불문하고 엄격히 교정하여 주둔지 내의 경례의 실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요망한다.

- (4) 부대의 지휘장악을 확실하게 할 것을 요한다.
- (5) 순찰장교의 활약을 요망한다.
- (6)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태도를 엄숙하게 하도록 지도할 것.

嘉手納에서는 시간외 외출, 복장, 태도 특히 부정한 자가 많음 장차 간과하지 않을 것임.

2. 부대의 혼주(混住)에 따른 풍기대책에 관하여
3. 위안소 문제에 관하여
4. 대 주민 및 몰자 취득에 관하여
5. 수목 벌채 진지 기타시설 구축시의 상호협정에 관하여

南지구 주둔지 사령부

군 및 여단에서의 부관회동 회보사항

1945년 1월 13일

군 및 여단에서의 부관회동 회부사항

1945. 1. 13.

南지구 주둔지 사령부

군회보사항

1. 아직 자동차사고 다발의 경향에 있다. 지휘감독을 엄중히 할 것.
2. 12월 말 미검열 서한 2천통에 달함. 아직도 외부에서 투합하는 자 있음. 주의를 요함
3. 산부대 일반적으로 경계 양호함. 이재민에 대해 금일봉을 보내온 자 등 있음.
4. 음주하고 장교가 부하를 칼로 찌른 사례 宮古島에서 있었음. 또 본도에서도 정월 2일 상병이 총검으로 반장을 찔렀음.
5. 화재예방에는 엄격히 주의할 것.(별지와 같은 사례 있음)
(별지 약) 주변, 이직자는 내무령대로 단속할 것.
6. 12월 18일 嘉手納에서 那覇행의 산제 3034부대의 자동차에서 떨어뜨린 중위의 군도가 있다. 총검도 습득한 것 2개 있으나 신고 없음.
7. 외출은 내무령에 따를 것. 현재로서는 임시외출은 없는 것으로 사료함.
8. 위안소의 이용시간을 엄수할 것.
9. 야전병기창은 南風原字宮平의 직물공장으로 이전했음.
전화 津賀山 14
10. 치과치료는 1940년 陸普 제8139호를 연구한 다음 실시할 것.

여단장 주의사항

1. 적기행동 중에는 자동차를 움직이지 말 것.
2. 술은 선용할 것. 음주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사고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지 말 것.
3. 불지르지 말 것, 빼앗지 말 것, 강간하지 말 것의 3원칙에 투철하라.
4. 각급 지휘관의 위치는 높은 곳을 선정하고 지휘관이 자리한 장소에 본부는 숙영할 것.
5. 각부대 상호간 악감정을 가짐은 좋지 않다. 특히 嘉手納 부근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
(「여단회보」 약)

3. 전일본군 野田實 미간행 수기 「さいわての島」

육군의 모리타 중위가 통솔하는 수비대와 해군의 전신원 2, 신호원 1, 거기에 중앙기상대 요원 3 외에 라사광업 관계 사람 약간명이 상륙해 있었다. 畠山 兵曹는...죽음의 섬과 같은 라사섬에서 레다 통신원으로서...

전전부터 대판의 라사광업이라는 회사가 이 섬에 진출하여 인광석을 채굴하고 인산비료의 원료로서 내지로 반출하였다. (320쪽)

항구같이 들어오는 강 등은 보이지 않고 다만 한 개소만 복잡하게 융기한 해안 암벽의 한 구퉁이에 콘크리트로 만들어 튀어나온 제방이 튀어나와서 그곳에 붉은 구렁을 세워 알게 하였다. 응시하던 그의 눈을 놀라게 했던 것은 그 제방 가까이 조금 높은 위치에 색깔이 선명한 푸른색과 핑크색 의복을 입은 사람의 그림자가 이쪽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의 누구도 이 섬에 여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321쪽)

전장원이었던 貴島一水이 그때 마스트 위에서 [어- 여자들이 있다-] 둔광한 소리를 내었다. ...그 때 여성들은 7인으로 붙어 있었다. 상륙하여 확인한 것이지만 그녀들은 여자정신대의 미명 하에 먼 조선(한국)에서 모집되었던 '위안부'들이었다.

그녀들은 아직 이십세 전의 어린 처녀정도였다. 그런데도 육해군 합해 500에 가까운 장병의 성을 위로하도록 제일 끝 고도에서 몸을 파는 슬픈 운명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비참한 경우에 처해 있었다. 내일의 희망도 꿈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후 없는 그들이만큼 더욱 불쌍하였다.

중요한 식량도 또 수송이 두절된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323쪽)

라사섬에 상륙하였던 다음해 5월 결원으로 레이다 기지의 지휘관 近藤소위가 착임하였다. 진급사령에 의해 전신장인 西川上曹는 兵曹長으로 畠山一曹는 上等兵曹로 진급하였다. 인하여 西川 兵曹長은 응소하였다....(330쪽)

육군부대도 물론 통신반은 있었지만 출력이 작은 송신기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의존하는 것은 해군 장비였다....(331쪽)

마리아나기지를 발진한 B29 폭격기는 이미 일본 본토 상공에 침입하여 폭탄비를 내리고 있었다.(335쪽)

소화20년 8월 모일 드디어 건곤이 하나되는 결정적 순간이 도래하였다. 그날도 전산 병조는 조용히 수신기에 대고 연합함대의 전파를 잡고 있었다....(336쪽)

몇 인가 방수전보를 처리한 후 연합함대, 기지항공부대, 육상부대를 총괄한 해군부대전반을 호출하는 모르스 부호가 그의 고막을 진동하였다. 발신자는 연합함대사령장관이였다. 그는 신경을 집중하고 조정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다. 호출 부호로 계속하여 지정, 자수, 착신자, 통보자, 발신자라는 계속된 본문을 적고 전산병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왜냐면 그것은 암호문이 아닌 평문이었기 때문이다.(337쪽)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 점차 지신으로 돌아온 전산병조는 번역 마무리한 전보를 레이다 지휘관의 近藤소위에게 제출한 후 일인 동굴의 개인실로 들어갔다...(339쪽)

병사들은 불러모아 알리자 [우리들은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선 어떻게 될 것인가 내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많은 의문을 품고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있었지만 그 이래 동경 통신대도 기능을 정지하고 신문 전보도 들어오지 않고 오직 스쳐지나가는 정보를 간신히 대강 파악할 정도였다. 이곳에서 와서 엄격하였던 군규도 이완하여 차

레로 황폐한 심정을 紛하였기 때문일까 최후의 드람깡은 열려져 메틸알콜로 취한 육군병이 이 때 울분이나 분노를 씻으려고 [‘위안부’를 독점한 장교의 개인실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렸 다라는 소문이나 바위 귀퉁이에 머리를 크게 다쳤다라는 등 트러블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났 다. 또 대우가 다른 육해군 사이에서도 그것으로 약간의 경쟁이 끊이지 않았다. 해군의 기총 대 지휘관이 총애하고 있었던 섬에 있었던 한 마리의 개도 육군병에게 잡아 먹혔다라는 소 문이 전해졌다.

‘위안부’를 둘러싼 동굴부근에서는 매일 밤 여자를 둘러싼 싸움이 그치지 않았고 황량... 야수같은 격투를 시작하여 가만있던 사람까지 끌려들어가 대소동이 되었다.(344쪽)

그 안에 7명의 ‘위안부’는 육군간부의 개인실로 분산되져, 그들 간부가 독점하는 바로 되 었다. 그 중의 한사람인 다마에(玉惠)라는 여성은 안경을 끼었던 극히 빈약한 언뜻 보기에 군인 같지 않은 군의 소위의 아이를 배고 있었다. 이러한 무쾌도인 광경을 담 사이에서 본 畠山 兵曹는 군규의 한계를 느꼈다. 신념과 희망을 잃은 남자들이 절해의 고도에 방치되어 저 隱忍의 끝에 드디어 광인 같이 변신하여 간 모습은 비참의 극이었다.(345쪽)

라사섬은 1974년 일미안보조약의 지위협정에 의한 미군의 연습지로 되었다. 일본의 영토 이지민 일본인이 자유로 상륙할 수 없는 섬은 북방 영토만은 아니다. 나하 남동 450킬로미 터의 태평양의 고도, 오키대동[라사]섬도 그러한 영토의 하나이다. 섬 전체가 미군이 실탄연 습의 표적으로 되고 미생물이 서식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죽음의 섬이 되었다.(346쪽)

부록 2 증언

증언 1

1. 이름 고히자메 이세이(古波鮫 唯成) 1928.6.17일생 당시 충승현립 제1중학교 4학년
2. 일시 2002.7.11
3. 장소: 나하시 오키나와 잉글리쉬 센터 학원
4. 조사경위 오키나와타임즈 기사를 보고 제보
5. 내용: 증언내용은 증언자가 쓴 <나하대공습과 조선‘위안부’와 조선군속들>(NHK 제1 방송 549 K 1995년 12월 2일 7:40-8:00 방송)과 동일.

나하대공습과 조선‘위안부’와 조선군속들 1-3

NHK 제1방송 549 K 1995년 12월 2일 7:40-8:00 방송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격, 말레시아전 및 필리핀전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 면서, 전국민이 대승리에 취해있었던 것은 잠시, 동쪽 전황이 점점 악화되고 ‘1억총 결기’라 는 표어 아래에 노소불문하고 우군의 비행장 건설, 미군 상륙에 대비한 진지구축, 탄약이나 식량의 우송, 방공호 파기, 그리고 농촌 젊은이를 잃은 농가에서 중학생 생도들의 근로봉사 작업등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나날이 전시상황이 나빠져 갈 무렵인, 1944년 10월 10일 아침 을 맞이하여 평상시처럼 도시락을 지참하고 코미도리(小祿) 군비행장으로 작업을 하러 출발 하려고 했을 때 미군함재기가 나하대공격을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누구나 우군의 대연습인가라고 생각했지만 나하항의 폭탄투하, 적기에서 기총소

사하는 탕탕탕하는 소리, 지상에서 우군 고사포의 격력한 소리를 들었을 때는 우군도 현민도 엄청난 혼란상태에 빠졌으며, 엄청난 폭탄 작열음과 몇 백대라고 생각되는 폭음과 공포떠는 의한 사람들 소리가 지금까지 분주해 보이던 거리가 생지옥으로 바뀌었다.

입고있던 그대로 首里의 守禮의 門에 가까스로 이르렀을 때 그 주변은 열은 어둠이 깔리고 시내를 내려다 보니 한 쪽의 불바다가 되어 3킬로 떨어진 곳에서 강한 열기를 느낄 정도였다.

바다를 바라보니 수평선에 검고 가는 긴 선이 줄지어 있어, 그것이 미군의 함선이라는 것을 알자 피가 멎는 듯했다. 다음날 집안 식구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마을을 지나는데 불탄 후의 열기로 불속을 걷는 느낌이었다. 집 지붕의 기와가 가지런이 나열되어 지면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기둥이나 판자 부분이 완전히 소실되어 천천히 땅바닥에 떨어진 것일테죠.

소이탄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놀랐다.

그 날부터 소개지인 大謝名에서 학교(一中, 현 首里高)를 통학하게 된 어느 날 몇 대의 군 공용차로 새하얀 옷을 입은 30대 전후의 조선인 여성같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군가를 부르면서 흙먼지를 날리며 북상해 가는 것을 보았는데 씩씩하게 들려야 할 그 노래가 왜 그런지 슬픔을 담고 있었던 것이 아직도 귀속에 남아있다.

나하항에서 군수물자의 운반작업에서 3시 휴식시간에 병참부에서 배급된 카스테라를 모두 함께 먹고 있는데 군복을 입은 (계급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선인 군부로 생각된다)사람들이 눈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비쩍 말라 먹고싶은 듯이 우리들이 먹고 있는 것을 결눈으로 보면서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며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강제중노동을 강요당하면서 충분한 식사를 제공받지 못했던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 사람들의 얼굴이 나의 뇌리 카메라에 찍혀서 지금도 생각이 난다.

1945년 4월1일 미해병부대에 의한 무혈 오키나와 상륙으로 시작되는 잔학 치열한 오키나와 지상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신이 아닌 몸은 알지도 못하고 미군과 우군 그렇게 비전투원인 오키나와 현민을 휘말리게 하여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사상최대의 지옥 일대 두루마기그림이 펼쳐져 가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그대로다.

공해 그리고 지상전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된 분들의 명복을 마음 깊은 곳에서 빕니다.

증언 2

1. 이름 야마다 요시아키(山田義晃) (1938년생: 西原町 (945-4433))
2. 일시 2003.7.11
3. 장소 다카자토의원실까지 와서 증언
4. 조사경위 신문을 보고
5. 내용

도마리(나하 항구)에 살고 있었는데 도마리국민학교를 막사로 삼았다.

그 여성들은 웅크리고 길거리를 다녔는데 우리가 ‘조센삐’라고 놀리던 기억이 난다. 치마 저고리가 아닌 무늬없는 옷, 하늘색옷 핑크색 옷을 입었다. 오키나와인이 잘 입는 옷색은 아니었다. 위안소 근방 콘돔이 널려 있었다. 풍선처럼 가지고 놀았다. 조선인 야시키(屋敷:집) 있었다. B29도 본적 있다. 도마리는 군인들의 집결장소로 다른 곳으로 파견되고 이 지역에는 폭격도 많았다.

전후 오키나와의 검은 향을 팔고 있던 여성은 오키나와인이 아니다. 나하의 農業連合 이치바(시장)의 노점상하는 할머니 중 오키나와 사람이 아닌 듯한 사람이 있었다.

증언 3

1. 이름 킨쥬 요시노부(金城喜慶) 오키나와인(1945년 1월 당시 18세)
2. 일시 1차 2002.7.12 2차 2002년 10월 8일
3. 장소 전화통화
4. 조사경위: 류큐신보 7/12일자 보고 제보
5. 내용

1차 증언: 1943년 징용으로 뽑혀 나가사키로 갔고 1944년 12월 26일 나가사키에서 휴가를 받고 가고시마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1945년 1월 오키나와행 배. 가고시마에서 탄 배에 90명쯤 되는 조선 여자가 타고 있었다. 남에게 밝히지 말라.

2차 증언: 9월 오키나와 타임즈 기사 보았다.

1945년, 소화 20년 1월, 가고시마발 오키나와행 최종편의 배였다. 당시의 배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을 못한다. 그때 여성이 몇 명쯤 있었는지 확실히 모르나 배안의 좁은 객실 안에 군인들하고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소년이었다. 인원수는 확실히 기억 못하나 20명쯤? 일반손님이 열명쯤 있는 곳이었다. 보고 같이 이야기했다, 배 안에서.

폭뢰(잠수함 공격용 어뢰) 공격에 대해 배에 타고 있을 때 들었다. 배가 쪼개질 듯한 느낌의 공격이 있었다. 배안에서 들은 얘기다. 날이 밝자 오오시마군 고미야 항에 입항했다. 그 항구에 2일간 체재하였다. 새벽에 다시 출발하여 저녁 5시쯤 나하항에 도착하였다. 배를 내렸는데 (폭격으로) 여관도 아무것도 없어서 어쩔 줄 몰라하였다. 그래서 친구 집을 찾아다녔다.

토마리의 오오하시, 토마리 오오하시에 안바루행 버스센터가 당시 토마리바시에 있었다. 일주일 걸려 버스에 탈 수 있었다. 이십 며칠간 걸려서 우리집에 도착했다.

(조선여성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질문에) 조선 한국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다.

그 이후 계속 오키나와에 있었다. 나는 일반객, 그녀들은 단체손님으로 군인과 함께여서 나하에 도착한 이후에는 그 여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증언 4

1. 이름 마시키(眞志喜トミ)
2. 일시 2002.8.20
3. 장소 나눔의 집
4. 조사경위 오키나와 시민활동가로서 한국의 [동아시아 아메리카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네트워크] 제4회 모임에 참석 후 나눔의 집 견학은 오키나와 일행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언
5. 내용

내가 고등학교 1학년쯤이었다. 1957-8년경이라고 생각된다. 뒷집에 조선 여성이 세들고

살고 있었다. 장소는 기노완(宜野灣)시 아자 키유나(字 喜友名)였다. 1년 정도 혼자 살다 갔다. 정신적으로 좋은 때도 있었지만 힘들어 했다. 자살 시도를 하였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 갔다. 입원하였다가 퇴원 후 다른 곳으로 갔다. 현재 어머니도 사망하고 집주인이었던 할머니도 돌아가셨다. 그 여성의 이름은 알 수 없다. 난 학생이라서 잘 기억할 수 없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친하게 지냈다. 여동생이 기억력이 좋으니까 물어보고 혹시 알게 되면 시즈요씨에게 알려주겠다.

그 여성은 일본말을 잘 하였다. 나중에 미국 병사와 함께 산 젊은 한국여자도 있었는데 그 경우는 일본어를 하지 못하였다. 조선여성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말해 주어서 알았다. 자살 시도한 그 여성은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서 알게 되었다.

<후기>

10월 오키나와 조사기간에 나중에 동생에게 물어봐서 다시 답해 주었는데 1957/58년경 자살시도한 것이 신문에 기사화 되었다는 내용이다. 동생은 마시키 기쿠인데 9월 말쯤 신문에 본 것 같다고 하였다.

강정숙과 후지오카 요오코씨가 [琉球신보] 1957년 58년치를 전체 10월 7-8일에 걸쳐 류큐신보사에서 검토하였다. [오키나와 타임즈]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되어 있다는데 검토할 시간이 없어 하지 못하였다. 자살 미수한 여성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잔존자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만둘 수 없다. 당장 안되더라도 여러 가지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기노완 고자 등에 대해서는 이때 신문에 자주 언급되는 기지촌이 있는 지역이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대강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어떻게 그곳으로 갔으며 어떻게 전쟁기를 지냈으며 왜 한국으로 오지 않았을까?

증언 5

1. 이름 나카무라 하즈코(仲村初子)할머니(1923년생)
2. 일시 2002.7.8
3. 장소 도카시키섬 이웃집 신자토(新里)할머니 집
4. 조사경위: 과거 위안소로 수용한 그집에 그대로 살고 있는 나카무라할머니는 방문객이 많아 대인기피하고 있어 우리 방문자들의 설득에 의해 집이 아닌 이웃집(당시 위안소에 식사를 해줄. 만 87세)에서 증언을 해 주셨다. 이웃집에 들어 와서는 이웃집에 조상신을 피시는 방에서 조상신께 인사하고 걸터 앉아 증언을 시작하였다.
5. 내용(이 할머니는 말이 빠르고 사투리가 많아서 재통역이 필요할 정도이다)

나카무라: 당시 나의 나이는 17세였고 식구는 5명이었다. 나는 학교에 다니느라 나하에 나가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도 함께. 전후에 마을 사무소의 사람과 함께 아카마츠 대장이 있었던 방공호에 처음 가 보았지요. 우리는 집밖으로 쫓겨나서 친척집으로 가 있어서 이 안에서 생활은 잘 몰라요. 접근할 수가 없었고. 집이 커서 방이 여럿 있었어요. 당시 우리 마을에서는 보통 돼지우리 옆에 변소가 있었고 거기에 염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우리 집은 면사무소에서 보조를 받아 근대식의 개량변소였어요. 개량변소가 있는 집은 마을에서 모두 세 집뿐이었어요. 집도 크고 기와지붕이었고 변소가 깨끗하여서 위안소로 접수 당했어

요.

처음 40 전후한 가네코란 반장을 포함해서 여덟 명이 같이 왔어요. 가네코란 남자는 군과 상담해서 식사 문제라든지 감독 등을 결정했어요. 키쿠마루는 키가 컸고 스즈란, 아키코, 하루에, 카츠코 그리고 밧짱 또 한 사람은 기억이 안나요. 붕기 씨는 여기서 카츠코로 통했는데 서른 세 살로 나이가 가장 많았어요. 늦게까지 이 곳에 남아 있었어요. 스즈란은 스무살이었고 일본어는 잘 못했고 아이가 하나 있었대요. 하루에는 일본말을 아주 잘 했는데, 아기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왔다면서 나한테 직접 올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군인들한테 밥 해주는 일 하는 줄 알고 왔는데, 군인을 접대하는 이런 일인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을 것이 다라고도 했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강제연행이었던 것 같애.

우리 집 아저씨들과 아버지가 함께 호를 파서 건너편의 산에 여자들을 피난을 시켰어요. 여기서 밥을 지어서 건너편의 산으로 날랐지요. 하루에는 아라키 상등병과 사이가 좋아서 함께 걸어도 다니기도 하였어요. 미군의 폭격이 심해지면서 일본군이 그 여자들을 내버려두고 돌보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과 우리 친척이 힘을 합쳐 방공호를 파서 그 여자들을 옮기게 한 거예요. 산에 있는 방공호로 출입할 때 그 여자들은 물색이나 핑크색의 원피스를 아주 밝게 입고 다니고 얼굴도 희어서 고생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즐거워 보였고 둘씩 같이 다니기도 하였어요.

연: 집을 접수당할 때 군대가 왔나요?

나카무라: 도카시키키에서는 타마 부대가 학교 교실에 먼저 주둔하고 나서 우리가 피난지로 쫓겨났어요. 산 속 기지에 있던 3중대 대장이 와서 말해서 우리는 산 속의 피난지로 이동을 했지요. 2중대 군인들이 산의 계곡으로 이동했어요. 당시에 우리 식구는 다섯 사람이었는데 내가 장녀였고 장남과 여동생이 있었고 열 일곱 살 때였어요. 하루에가 여기서 죽은 것을 알았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서 비행기에서 눈에 띄어 기총소사의 대상이 된 것 같애요. 밥을 지어서 방공호로 가져가다가 사격을 당했지요. 3월 23일날 산에서 내려와서 일곱명의 화장품도 가지고 갈 예정이었는데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화장품이 반 타버렸네, 붕기 씨가 그 말을 해서 모두가 옷은 바람에 모두가 야단을 맞았어요.

나중에 신자토 아줌마하고 건너편 아줌마하고 둘이서 유골을 수습하여 시라타마의 탑에 넣었어요. 나는 그 때 본도(오키나와 本島)에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 군인, 군부의 유골도 시라타마의 탑에 모두 들어 있어요. 도카시키키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누군지 모르니까 다 같이 안치했지요. 하루에 가족이 혹시 참배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루에와 밧짱은 모두 다 순정을 지닌 귀여운 아가씨였죠.

전쟁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전후에 나는 혼자 남아서 고생이 많았어요.

키쿠마루는 군부와 함께 미군 배를 탔으므로 어딘가 살아있을까 싶어요. 만약 일본군에 발견되었다면 살지 못했겠지요.

이 섬에 조선에서 온 의사로 박 선생이 있었는데, 붕기 씨에게 출신지를 물었을 때 자기는 북쪽 출신이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 것 괜히 물어봤나 했어요. 키쿠마루도 북쪽 출신이었는데 조선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죽은 것 본 것은 하루에 말고 또 한사람 있었는데, 학교로 데리고 갔지만 살아나지 못했어요.

연: 할머니네 집을 빼앗긴 것이 언제였어요?

나카무라:소화 19년 가을 9월말쯤 타마 부대였는데, 그 부대 번호는 잊어버렸어요.

붕기 씨는 이웃의 신자토 씨를 엄마 엄마 부르며 사이가 좋았어요.

연: 자마미에서 죽은 사람이 누군줄 아세요?

나카무라: 밧짱이었을 걸. 하루에가 어디 출신인지 들은 적 없어요. 그런 비밀은 말 안 했는데 어쨌든 북쪽이었을 거예요. 군인들 도와주는 간호부 같은 일 하는 줄 알고 왔다고.

연: 일곱 명 가운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나요? 여기서 죽은 사람 말고.

나카무라: 키쿠마루, 아키코, 카츠코 이 세 사람이 제일 연장자였는데, 봉기 씨 말에 의하면 군부와 같이 배를 탔다고 미국의 주정을 탔다고 했어요. 아메리카의 주정이라도 포로가 되었으면 틀림없이 살아 있을 걸요. 거기서 부엌 일을 시켰다고 하거던.

연: 봉기 씨는 어떻게 돌아갔어요?

나카무라: 저 쪽(본도)의 이시카와 포로수용소에서 취사일을 했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아키코는 오키나와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옹고 그 뒤에 결혼생활을 하는 지 어떤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후에 아키코가 죽었다고 했던가.

연: 카네코 씨는 군인이었나요?

나카무라: 군속이 아니었을까? 자신이 한국사람이라고 했는데, 나이는 마흔 살 전후로 아직 젊었어요.

연: 전쟁이 끝나고 그 사람 어떻게 되었지요?

나카무라: 우리 형편이 힘들고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 것도 몰랐어요. 봉기 씨가 본도로 돌아간 뒤에 나랑 가끔 연락하면서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밖에 몰라요.

증인 6

1. 이름; 니시하마 요시노부(西浜良修, 1923년 생)

2. 일시; 2002년 9월 30일

3. 장소; 미나미다이토지마 민숙집 킨조

4. 조사경위; 제2차오키나와 조사시에 미나미다이토섬을 방문하여

5. 내용; 이하 니시하마는 니시, 연구원 질문과 답은 연으로 함

니시; 오키나와에 잔류하고 있는 조선인 생존자는 얼마나 될까?

연; 700명에서 1500정도가 오키나와로 왔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니시; 50몇 년이나 지났으니까 한국인과 일본인의 경계는 없어지지 않았을까. 아마도 살아서 이곳에 남아있다면 일본인이 되어있지 않을까. 그것은 오키나와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일본인과 동일해졌다. 옛날에는 야마토와 오키나와의 경계가 분명했지만 지금은 결혼도 경계 없이 하고 있다. 일본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도 없어지지 않았나?

연; 전쟁 전부터 살고 있는 조선인이 있습니까?

니시; 현재 생존하고 있는 조선인은 내가 알고 있는 한 없을 것이다.

소화 18년(1943년)에 예전부터 있었던 동서코스(비행장 활주로)에다 남북 코스를 추가 건설하기 위해 노동력으로 동원하기 위해 조선인들을 징용하였다. 인원은 불투명하다. 내가 그 사람들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식당에서 해군들 6,7명이 돌아오는 것이 늦어서인가 몇몇을 심하게 꾸짖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매를 맞으면서 ‘아이교’라는 소리를 내었다. 따라서 아 조선인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소화 19년(1944년) 4월에 다마(球)부대가 오고, 그 해 7월 토요일, 9월에 해군부대가 상륙했다. 다마부대가 상륙 후에 곧바로 오키나와 출신 ‘위안부’ (6-7명 내외)가 왔다. 당시 오키나와 사람들은 ‘위안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뼈야, 조선뼈라고 불렀다. 모치마루(持丸)저

택에 살았다. 책임자는 해야시였으며 상당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군속인 것 같았다. 군대 이상이 아닌가 싶었다. 왜냐하면 군인들을 야단치기도 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군인들은 鑑札같은 것을 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이 많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8-9월경이 아니었다 생각되는데 모치마루 저택의 연못에서 목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물을 끼얹으며 씻고 있었다. 연속적으로 병사를 상대해야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몸이 지저분해져 청결하게 하고자 했을 것이다. 밤에도 섬사람들(청년)은 ('위안소' 이용이) 금지 되어 있었다. 장교들이 지키고 있어서 군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다른 이름으로 빼야 오키나와빼야라고 했다.

곧바로 19년 7월에 도요 (農)부대가 상륙했고 곧 조선빼야, 조선인 '위안부'가 나타났다. 5-6명 정도이지 않을까?

연; 미나미다이토 촌지(村誌)에는 소화16년(1941년)에 6인의 조선인 '위안부'가 왔다라고 써어있다.

니시; 오키나와가 먼저다. 잘 못 쓴 것일 것이다. 옆 저택이 내 아내의 저택이었기 때문에 못에서 몸 씻는 것이 잘 보였다. 사나에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중요한 조사 대상은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지요?

조선에서 온 사람들은 새롭게 온 토요부대와 전후해서 조선빼들이 왔다. 많아도 5-6명이었다. 조선인 '위안부'들은 오키야마 미네마스의 집을 사용했다.

연; '위안부'들의 활동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니시; 연대본부가 바로 조선인 위안소 옆이었고 전시 중에는 행동범위가 넓지 못하니까 자신의 집이나 동굴근처에서 지냈고 그래서 미네마스씨 집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내지 않았나 생각된다. 고추 구하러 조선 빼들이 마을에 왔었는데 군견들이 지나가면 무서워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자신도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연대 본부는 현재 아자신토(字新東)지역에 있었다. 위험하니까 전시 동굴 가까이에서 살고 있었다. 위험해지면 오키나와 '위안부'도 학교 뒷산으로 이동했다. 조선에서 온 '위안부'들도 연대 본부 바로 옆 동굴로 가지 않았을까...

연; 조선인 '위안부'들이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니시;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 종전 후 재판소에서 문의가 있어서 조선빼 철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45년 9월에 20 몇 일쯤 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군이 비행장에 착륙해서 교섭한 후 무기와 탄약 등은 몰수하였으며 포대는 폭파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미군이 돌아갈 때 조선에서 온 '위안부'들을 비행기에 태워갔다. 미군이 데리고 갔다. 돌아가기 전까지는 몰랐다. 재판 서류 때문에 알았다. 재판 서류를 보고 처음으로 알았다.

재판 서류 속에 다이토 청년이 한 사람 있었다.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다. 설마 종전 후 미군 비행기는 있을 수 없었다. 그 청년은 다리가 불편하고 타코즈루(식물명, 아단), 센로를 기차길이라고 말했다. 이런 표현법은 다이토섬 말이기 때문에 이 청년이 이 섬 사람이라는 증언을 해 주었다. 그는 쇼지로씨의 자식이며 자신의 제자이다. 전쟁이 끝나고 조선인 '위안부'와 함께 있었다는 것 알았다. 그 청년이 국적이 없다고 문의(청년 무국적)가 있어서 청년의 국적을 증명해 주었다. 조선인 '위안부'와 함께 비행기로 갔다. 배 탔고 갔다는 소문은 없다.

연; 왜 조선인 '위안부'들 만 데리고 갔을까요?

니시;오키나와의 '위안부'는 점령군이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았다.

연; 기타다이토 섬의 '위안부'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는지요?

니시; 기타다이토에는 '위안부'가 없었다.

연; 그 청년은 혹시 조선인 ‘위안부’와 관계가 있는가?

니시; 조선인 ‘위안부’와 청년은 관계가 없으며 함께 미군 비행기로 돌아갔다는 것뿐이다. 하지쥬 사람인데 호적을 정비할 때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하지쥬 호적은 모두 타고 없어졌다. 그래서 재정리할 때 하지쥬의 본적에 신고해야하는데 신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국적자가 되었다. 이 청년은 미네마스 집안과 친척관계에 있어서 미네마스씨가 철수한 후 그 집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곳은 위안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미군이 ‘위안부’를 데리고 갈 때 국적을 말하면 비행기를 태워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적을 말하면 패전국 사람을 태워주지 않았을 것이다.

연;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니시; 당시 소학교 선생님이로 22세 정도였다. 생년월일은 다이쇼 12년(1923년) 3월19일이다. 지금 80세이다.

연; 기타다이토에 왜 ‘위안부’가 없었다고 생각하는가?

니시;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는 없었다. 뭔가 들은 것이 있는나? 오키다이토(라사섬)의 모리타 대원에는 ‘위안부’가 있었다. 여기 킨조 민숙집 옆 길로 조선인 ‘위안부’가 다녔는데 고추를 아주 많이 가져갔는데 3,4일 정도에 전부 다 먹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연; 고추는 야생고추를 따러 온 것인가 아니면...

니시; 야생 고추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재배한 것을 받으러 왔다. 두 사람 정도가 와서 군견을 무서워했다. 목숨이 소중하니까 고추에 관심을 갖는 정도로 그 이상의 관심을 표명하지 못했다. 군인들이 도처에 있었고 ‘위안부’들이 츠키미 다리를 건너서 호단 연못에서 빨래하거나 했다. 모두 진지구축을 위해서 일하러 가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군속이라고 할 수 있나?

연; 글썽요.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군속과 군부의 차이도 있고, 반쯤 군속이라고 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연; 전쟁당시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수 있는 이 섬의 나이 드신 분들을 소개해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촌지에 나오는 사람들 중 생존자는 있습니까?

니시; 생존자는 없다. 오쿠야마가 치바현, 마타요시 케이지가 나하, 마츠다가 미나미다이토(교육위원장), 오오시로 경비부대 대장은 사망하였고, 이토가즈 농업조합장은 기타다이토섬에 있다.(미나미다이토촌지명부 확인 작업 후) 마타요시씨만 생존해 있고 모두 돌아갔다.

연; 위안소의 위치도 알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니시; 뼈야의 위치는 잘 알고 있다. 조선뼈야 위치는 재판서류로 알게 되었다. 오키나와 위안소 위치는 원래 알고 있었다.

연; 촌지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니시; 자료는 각 촌지의 참고문헌을 참고하였다.

연; 조선인 ‘위안부’와 위안소의 책임자나 그녀들을 싣고 온 배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군인 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니시; 36연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 배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조선인 ‘위안부’ 책임자는 모르겠다. 오키나와 ‘위안부’와 위안소의 책임자는 하야시였다. 감독 같은 남자 없었다.

조선인 ‘위안부’는 36연대의 토요부대와 함께왔고 타마부대와 함께 온 것은 오키나와 ‘위안부’이다. 토요부대의 군인수는 3,700명(약 4000명 정도)였다. 조선인 ‘위안부’는 토요부대 장교급 이상만 사용했을 것이다. 토요부대는 잘 모르겠다. 신토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중이었고 그곳에 가는 일이 없었다. 지나다니는 사람을 5-6인정도 보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다. 해군부대는 다이토 신사에 체재(700명 정도)했다. 그러나 위안소는 없었다. 오키나와 ‘위안부’는 5-6인 정도였고 행렬이 있었는데, 장교는 없었다. 모치마루야시키는 오키나와 위안소였는데 전쟁이 격렬해지면서 소학교 쪽으로 이전하였다. 이사키누씨는 신토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서 알 것이다. 당시 다큰 아가씨였고 전시 이곳에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오키나와 ‘위안부’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인도 잘 안다.

연: 44년 11월 오키다이트로 ‘위안부’(7명)가 이전할 때 미나미다이트를 들러서 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니시; 나하에 있었던 ‘위안부’들이 각 지역으로 배분해서 갔는데 그 중의 하나가 미나미다이트를 들렀을 뿐이지 않을까? 오키다이트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기타다이트에는 1000명(해군 포함)정도의 병사가 있었다.

조선인 ‘위안부’는 전쟁이 격렬해지면서 왔기 때문에 군한테 잘 대접받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곳은 오키나와와 달리 주민학살 같은 일도 없었기 때문에 ‘위안부’도 민과 같이 대우받거나 또는 그 이상의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조선인 ‘위안부’들은 식량을 구하러 마을로 오지 않았다. 생각하건데 조선인 ‘위안부’들은 식량사정이 좋지 않았을까? 군에서 배급이 있었을 것이다. 오키나와 ‘위안부’들은 종전 후 일반민과 같은 대우로 식량사정이 안 좋았다. 종전 후 바로 조선인 ‘위안부’들은 9월말 경에는 돌아갔기 때문에 그 때 군은 아직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이 데리고 갔을 것이다. 패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조선은 전승국이 되었으니까 미군이 일본 본토로 조선인 ‘위안부’를 데리고 간 다음 조선으로 가지 않았겠는가 생각한다. 군대가 예상 이상으로 빨리 돌아갔다. 12월 토요일에는 가즈라기 항공모함으로 데려가 46년 1월 일본 본토로 귀환했다. 장교가 오키나와 ‘위안부’와 함께 살기도 했다. 오키나와 ‘위안부’는 몇 개월 정도 이곳에 남아있었는데 대개 모두 돌아갔다. 현재 이 곳에 오오시로대에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귀가 떨어져서 ...

연: 조선인 ‘위안부’는 미군에 대한 저항 없었을까?

니시; 일본은 패전, 자신들은 의기소침해 있었다. 조선인들은 승전... 오키나와인들도 승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야에야마와 미야코분할론도 있어서 그때 청국으로 간 오키나와 사람도 있다. 하야시씨 병사들에게 권위적 행동으로 군속이 아닌가 추측, 조선인 ‘위안부’에는 그런 책임자가 없었다.

니시; 조선인 ‘위안부’가 군속으로 취급당했다고 볼 수 있나?

연: 어떤 육군병원에서 죽은 ‘위안부’를 군속으로 취급한 경우가 있지만 ‘위안부’를 군속으로 보는 예는 없다.

니시; 당시 조선인도 일본인으로 취급되었다. 국민 속의 조선인, 일본인이기 때문에...

연: ‘위안부’들은 대개 취업사기나 속아서 아니면 인신매매 또는 강제연행 당해서 왔기 때문에 군속으로 보기는 어렵다.

니시; 비행장 건설을 위해서 온 사람들도 군속으로 보기 어렵나?

연: 군부라고 한다.

니시; 오키나와에서는 군부와 군속은 거의 비슷한 뜻으로 사용한다. 국가 간 문제라 어려운 문제이다.

연: 촌지 445쪽에 41년경 비행장건설시 조선인 군부와 ‘위안부’가 함께 왔다는 식의 기술이 있는데....

니시; 공사장 미이케쿠미(큐슈)가 왔는데 조선인도 있었다. 그러나 인원수는 모른다. ‘위안

부'는 오지 않았다. 445쪽은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조선인 '위안부'는 타마부대와 함께....44년에 왔다.

연; 조선인 군부는 종전 후 어떻게 되었는가?

니시하마; 그들은 배로 돌아갔다. 토요부대 철수와 함께...죽은 사람 속에 속해 있을지도 정확하지 않다.

연; 왜 전승국이 된 조선인데 '위안부'는 데려가고 노동자는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니시;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위안부'는 특별취급을 했다. 남자들은 일본병사와 함께 갔을 것이다. '위안부'는 눈에 띄기 때문에...

연; 미군들이 이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니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패전국 장교의 여자로 계속 둘 수 없기 때문에 데리고 간 것이 아닐까.

- 지도에서 위안소 유적, 연대본부, 사령실 등의 유적지 장소 확인과 증언 가능한 분들의 연락처를 전화부에서 확인 중-

연; 타마부대와 토요부대, 해군부대, 세츠에(해군도 육군도 아님)의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니시; 타마부대(큐슈부대)가 가장 먼저 왔다. 쿠마모토,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모집되었으며 처자식도 데리고 온 소집부대였다. 현역군인들이었다. 그래서 스모가 아주 강했다. 토요부대는 몸이 작아도 갑종에 합격한 높은 사람이 많았다. 치치할, 만주(난징)에서 부대를 편성해서 (스파이망 때문에 임무를 숨기기 위해서) 사이다마부대와 토후쿠부대와 함께 편성해서 히로시마에서 전함진용관을 타고 큐슈 오오타현으로 일단 입항해서 행방묘연하게 출항해서 오키나와에 와서 거기서 짐을 내리고 다시 범선을 타고 다이토섬으로 왔다.

토요부대가 오자 타마부대의 대장은 대좌 아니면 중좌인데 나중에 온 히라노 대좌가 지위가 높으니까 대장이 되었다. 다음해 연대장이 바뀌어 군용기로 전임해 온 것이 타무라로 다이토에 있었던 부대는 36연대장의 지휘 하에 들어가 있었다. 후카야 중좌는 토요부대에 오기 전까지는 대장이었으나 토요부대가 오면서 대좌의 지휘 아래로 들어갔다.

당시 사망자는 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아니면 폭약을 잘못 취급하거나 적이 투하한 폭탄에서 화약을 제거하는 일을 하다가 죽는 일이 많았다. 해군 24명, 육군 40명, 민간인 2사람 정도가 사망했는데 충혼비에 기재되어있다.

후카야는 종전 후 철수했으나 그 후 연락 취하지 않았다. 30몇 명이 전범으로 오키나와로 직접 끌려가서 걱정했는데 무사히 돌아갔다고 한다. 히라노 중좌는 전범으로 잡혀갔는데 이전 연대장이 나쁜 사람으로, 히라노는 팬클럽은 사람이었다. 때문에 촌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탄원운동을 했다. 그러나 교수형에 처해졌고 후카야는 철수해서 귀국했다. 그는 당시 60세정도였기 때문에 이미 죽었을 것이다. 타무라씨는 귀국했으며 30몇명 정도가 전범으로 몰려 쿠바사키로 들어갔으나 모두 전범에서 풀려 귀국했다.

연대본부는 현 기상대 입구 있는 곳에 있었다. 기상대는 현재와 그때와 같은 장소이다. 내가 있었던 숙소가까이에 군기가 있었고 기상시간에는 나팔이 울렸다.....

메이지시기부터 일본과 청나라 사이가 험악해지면서 메이지 5년, 12/3년에 무인도 미나미다이토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메이지18년까지는 여전히 무인도였다가 탐험선을 파견하여 일본 영토로 한다고 내외에 선언하였다. 그러나

메이지33년까지 여전히 무인도였다. 그러다 대정4년 무선전신소가 생기고 소화6년 비행장이 생겼는데 이는 해군 관할(사세보)이었다. 이것을 더 넓혀서 소화9년 해군비행장 특별 대

연습(사세보 해군)장으로 삼았다. 소화13년 기상대 설치가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어 소화16년부터 기상대가 관측을 시작했다. 항공무선 무선전신소도 문서 교류, 류큐전선기지는 일본의 전선기지로 일본해군, 육군 그렇게 접근해왔다. 전시 중에는 육해군 다수를 파견하였다.

36연대는 다이토수비대이고 라사, 미나미,기타가 다이토제도 인데 이는 군사전략상 중요한 섬이었다.

연; 87병참부대는 어디에 속하는가?

니시; 다마32군에 속하고 있는 부대로 오키나와 군의 지휘하에 있었다. 제32군인 오키나와군. 그 아래 87병참부대 속하고 있었다. 다마, 토요부대도 32군으로 오키나와 전체가 32군으로 우시지마의 지휘 하에 있었다.

증언 7

1. 이름; 쓰지 코사쿠(通事孝作), 사료편찬실 주사

2. 일시; 2002년 10월 3일

3. 장소; 이시가키섬의 竹富町사료편찬실

4. 조사경위; 제2차오키나와 조사시에 이시가키 섬 부둣가에 있는 이시가키섬의 竹富町사료편찬실을 방문하여 자료를 구하며

5. 내용;

데즈다수기의 미간행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열람하게 해주었다.

미간행 부분; [이리오모테의 우치마나리에 소노다 위안소가 있었으며 젊은 조선인‘위안부’들이 있었다. 사병들이 이용했다. 시라하마에는 난카이 위안소가 있었는데 장교들이 이용했으며 조선인들과 달리 늙은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쓰지; 데즈다수기를 출판했는데 수기 원본과 출판된 책의 내용이 다르다. ‘위안부’에 관한 서술은 대부분 생략했다. 데즈다씨는 이미 사망했고 부인이 모두 체크해서 누락시켰다. 우리들은 빼지 않고 출판하고 싶었는데 부인 설득에 실패했다. 우치마나리에 있던 조선인 여성은 8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케도미조사에서 이시가키코우토쿠 씨 증언에는 20명이라고 한다. 데즈다 수기의 사진들은 모두 데즈다씨가 소장하고 있는 사진들이다.

증언 8

1. 이름; 오오시로 세이조(大城清三, 1924년 생)

2. 일시; 2002년 10월 3일

3. 장소; 이리오모테

4. 조사경위; 2000년 방문시 증언자

5. 내용;

미야코에서 돌아왔을 때 전후 2년 정도가 지난 후였다. 시라하마로 돌아왔다. 배도 없었다. 범선(뽀뽀선)타고 왔다. 돌아왔을 때 ‘위안부’ 있었다. 2-3인 정도 있었다. 산속에서 텐트 같은 것을 치고 남자 한 사람과 함께 있었다. 전후 정신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섬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배 있었다. 2-3인용정도의 범선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빌려서 나갈 수 있었다.

증언 9

1. 이름; 이시가키코우토쿠(石垣高德, 소화4년생, 73세)

2. 일시; 2002년 10월 3일

3. 장소; 이리오모테 이시가키씨 댁에서

4. 조사경위;

5. 내용; 연구원은 언, 이시가키씨 딸은 이시로 함

이시;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있었으며 우치바나리에서 소나이에 있는 학교까지 어린이를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 난카이 탄광이 생기면서 분교소학교가 생겨서 시라하마에서 다녔다.

소화 17년경(1942년)에 육군시모나가 부대가 왔고 그때 조선인과 오키나와인이 와서 여기서(시라하마) 장사를 했다. 처음에는 요정이었는데 부대가 있는 곳(우치바나리, 소토바나리, 사바자키, 소나이)으로 여자들을 데리고 갔다. 오키나와인과 조선인을 15명 정도씩 내가 배 타고 있었을 때 군용선으로 운반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4곳을 돌아가면서 오키나와인과 조선인을 따로따로 데리고 갔다. 조선인도 10명 정도씩 데리고 갔다. 우치바나리와 소토바나리에는 위안소가 없었으며 병사숙소로 가서 장사하였다.

언; 그곳에서 자고 오는 일도 있었나?

이시; 저녁에는 위안소로 돌아왔다. 부대장 명령으로 자고 오는 일은 없었다.

언; 조선인 ‘위안부’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가?

이시; 양산은 일본 것을 쓰고 조선인은 조선옷을 입고 있었다. ‘위안부’들은 부대이동과 함께 없어졌다. 위안소는 공습으로 불타 없어졌다. 소화 19년 4월3일 미군공습이 있었다. 8시-3,4시, 이 근방은 바다였다. 종전직후까지 이 곳에 있었다. 소화 18,9년에 부대는 남방으로 철수하였다. 부대가 없어질 때는 여자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부대가 위안소를 만들었다. 숙소도 만들었다. 사람들이 쓰던 건물이나 요정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붕은 카야부키였다.

언; 탄광 사람들을 위한 술집은 없었나?

이시; 있었다. 전쟁 전에는 술집이 한곳 있었고 종전 후 2곳으로 늘어났다.

언; 전후 이 곳에 “위안부”가 2,3명 남아있었다고 하는데...

이시; 전후 조선인 오키나와 인 “위안부” 보이지 않았다. 모두 돌아가고 없었다. 헌병대, 대장숙소가 있었다. 시모나가 부대로 시모나가 켄지가 대장이었다.우치바나리의 위안소를 소노다위안소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다. 그 곳의 중대장이 소노다(?)였다. 소토바나리는 오노대장이었으며 소나이는 키타무라대장이었다. 위안소는 시라하마 위안소 정도 기억하고 있다. 18세부터 30대 정도의 여성들이었다.

언; 조선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수 있었는가?

이시; 옷차림과 말투로 조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야기해 봤는데 일본어를 쓰고 있었다. 일본어를 아주 잘했다. 위안소의 감독자는 병사가 했다. 대부분 20세 이상의 여성들이 많았다. 전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종전에 2사람 정도 남아있었다.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한때 시라하마에 있었는데 이시가키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언; ‘위안부’들이 왔을 때 어떠했는지 기억하는가?

이시; 군의 배를 타고 왔던 것 같다. 시라하마에서 소개한 사람들은 타이완까지 간 사람이 많았다. 자신의 가족은 이곳에 남아있었다. 때문에 이곳의 나무 등 이시가키(산이 없기 때문에)로 운반했다. 해군 군속을 했다. 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 여성들은) 소화 18년쯤에 부대와 함께 철수한 것이 아닐까? 전후 남았다고 하는 조선인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오키나와 사람은 있었다. 오노대 120명 정도가 끝까지 남아있었다. 시라하마 공습은 있었지만 상륙은 없었다.

연; 위안소에서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식사 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고 있는가?

이시; 위안소에서 식사는 각자가 해결했다. 식량은 군이 제공했으며 군의는 소토바나리의 병원에 있었다. '위안부'들은 군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내가 데리고 갔다. 배가 3척 있었는데 우치바나리, 소나이로 작은배에 태워서 갔다. 썰물일 경우 업어서 데리고 갔다. 한 사람씩 업어서 갔다.

연; 왜 업어서 갔는가?

이시가키; 젖으니까.. 구두, 게타 신은 사람들 태워서 50미터 정도 업어서 갔다. 우치바나리는 만조시에는 선착장이 있었고 간조시에는 업어서 갔다. 군의 명령으로 업고 갔다. 업고 가다 넘어졌던 때도 있었다. 갈아 입을 옷 가지고 갔다. 마중갔을 때도 업어서왔다. 우치바나리에 데리고 간 여성들은 오키나와 사람, 조선인 등 정해져 있었다. 시모나가 대장은 시라하마에 있었다. 요나구니섬 사람을 현지처로 데리고 있었다.

연; 배에 태웠을 때 조선인 '위안부'들의 복장은 어떠했는가?

이시; 복장은 조선복이었다. 갈아 입을 옷도 조선인 옷이었다. 막사를 위안소로 사용하였다. 우치바나리의 해안가 등에 있었다. 해변가에 막사가 있었다. 전쟁 전부터 조선인 일하러 왔다. 10명 정도 있었다. 막 왔을 때는 모르지만 딸로 조선인이라는 것을 안다.

연; 우치바나리의 탄광 많았는데 혹시 탄광 '위안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시; 탄광 '위안부'는 들어본 적 없다. 탄광이 종전 직후까지 15곳 정도 있었다. 본인은 전후 건축일을 하고 있었다. 산일, 운수업 등.. 이시가키에 간 적 없다. 우치바나리에 요정이나 술집은 없었다. 시라하마에만 있었다. 우타라에 노다탄광이 있었으며 사장이 노다 코우이치로이다. 전무가 오구리 코우이치로이며 회사명은 마루산공업이었다.

연; 탄광노동자들은 어떻게 돌아갔나? 병사들과 함께였는가?

이시; 아니다. 야에야마의 요로이 또는 이시가키시마에서 죽었는데 이시가키섬의 기자가 한국으로 뼈를 가지고 갔다. 노다 탄광에 조선인 노동자들 있었다.

연; 전후까지 남아있었던 탄광이 있었는가?

이시가키 킨세이; 전후에도 남아있는 탄광은 하에사카탄광(후나우키의 오른쪽에 있는 우치바나리에 있었다)이다. 노다씨는 전후 직후까지 있었다. 우치바나리의 나리아탄광이 이리 오오때 탄광의 시작(메이지 18년)이며 사장은 카와노, 그 아래 기타가와가 전무이다.

처음에는 석탄이 뭔지 몰랐다. 나뭇잎을 모아 태우다 보니까 돌이 타서 그 돌을 '불타는 돌'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탄광의 시작이었다. 구리와 동도 나왔다.

이시; 탄광의 파는 방식을 너구리 파기라고 한다. 옆으로 판다. 직선으로 파고 옆으로 또 파는 방식이다.

연; 동이나 구리가 나왔다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 아닌가?

킨세이; 동은 그다지 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

연; 혹시 위안소나 '위안부'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나? 이시가키 소학교 근처에 위안소가 많았다고 한다.

코우토쿠씨 부인; 이시가키 소학교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고 대만으로 소개했다.

이시; 위안소에서 밥하거나 빨래하거나 청소 같은 것 전부 자신들이 하고 있었다. 장작불 지펴서 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숙소에서 식사를 해결하였다. 시라하마에는 부대가 없었다. 헌병대장과 대장만 있었다.

연; 술집 여자들 업어 뒀을 때 기분은 어떠했습니까.

코우토쿠; 기분이 좋았다.

연; 조선뻘에 대한 이야기 청년단사이에서 했는가.

코우토무; 별로 안했다. 업어주다가 넘어져서 뺨맞은 적도 있다. ‘위안부’ 여성들 산보하기도 했다, 도시락 가지고 우치바나리나 소토바나리에 가지고 다녔다. 그 음식 맛을 봤는데 난 입에 맞지 않았다. 고추를 부락에서 받아다 먹었다. 소나이에서 야채를 팔러오면 그것을 ‘위안부’들이 사서 만들어 먹었다. 병사들한테 가서 돈을 받아왔다. 오키나와에서는 군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 최장층이 30대 정도였다. 일본어를 모두 사용했다. 자신을 이시가키상이라고 불렀다. 조선노래를 잘 부르곤 했다. 30대 정도 사람들이 잘 불렀다. 젊은 사람들은 노래하지 않았다. 숫자는 15명 정도가 있었다.

연; 규칙이 있었나 시간, 가격 등등

이시; 잘 모르겠다. 병사들이 좋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전후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다. 언제 돌아갔는지 모른다. 남방에 간 것도 잘 모른다. 18년 중반 경에 전부 없어졌다. 밤중에 철수했는지도 모르겠다.

연; 이리오모테의 인구는 얼마나 되나?

킨세이; 이리오모테 인구 2000명 정도이다.

증언 10

1.이름; 나라이 마사노부(奈良井正伸, 다이쇼 15년 생) 등

2.일시; 2002년 10월 3일

3.장소; 이리오모테 나라이씨 댁에서

4.조사경위; 보충 증언

5.내용;

나라이; 소화 17년에 병사로 갔다. 시모나가 부대가 오기 전이다. 우치바나리의 시모나가 사령부에 있었다. 통신소 부관의 당번을 했다. 당시 16세였다. 시라하마에는 위안소 없었다. 우치바나리에만 있었다.

마사할머니; 시라하마에도 있었다. 조선뻘아가 있었다. 조선뻘라고 말했다. 오키나와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다. 조선뻘 의미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부른다 모두.

나라이; 지원병으로 갔다.

마사(政)할머니(다이쇼9년 생) ; 원래는 다이쇼9년 생인데 작아서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출생신고가 늦어져서 10년 생으로 되어있다. 닭의 해인데 원숭이띠와 함께 학교 다녔다. 소화 19년에 시라하마에 위안소가 이미 있었다. 그전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억이 그렇다.

나라이; 소화 21년에 돌아왔다. 전쟁 끝나고. 해군이니까 다른 병사들을 수송하고 돌아왔다. 사세보 진큐호에 사령실이 있었다. 우치바나리에 우다키(신을 모신 곳) 근처에 위안소가 있었다.

연; 나리야가 맞습니까 나라이가 맞습니까?

나라이; 나리야라고 집을 부르는 명칭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나라이로 되었다. 우치바나리 위안소의 ‘위안부’는 하사관, 사관, 병사들의 여성이 따로 있었다. 조선인인지 아닌지 모른다. 복장을 잘 모르겠다. 팔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보통 복장을 입고 있었다. 섬사람들하고 같은 종류의 옷차림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식사문제는 합숙처럼 공동으로 식사해결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마사; 그 당시 시라하마에서 남편이 경찰을 했었다. 남편이 그래서 낮에 놀러갔다 오곤 했다. 오키나와 ‘위안부’도 있었다. 부락으로 놀러오거나 하지 않았다.

(주위에서 조그마한 목소리로 아는 할머니들을 호명하면서 ‘위안부’였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라이 부인; 전후 요정 경영했던 가카즈나씨가 ‘위안부’였다. 소화 19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

연; 소화 15,6년경에 군대가 오기 전에 요정은 없었나?

나라이; 위안소는 도단지봉으로 길게 연이어지은 집(나가야)이었다. 시라하마에 부대는 없었다. 우치바나리에만 있었다. 시라하마에 시모나가 부대의 사령부가 있었다.

마사; 시모나가 사령관 노래도 있었다. 시모나가켄지의 이키오미요....쿠사무스카바네(시체)히게오미요 *노래를 불렀다.

마사; 시모나가의 평판이 안 좋다. 폭탄 떨어지면 자신은 참호로 도망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쏘라고 명령하고 했다. 현지처도 있었다.

마사; 남편 여동생과 아이 데리고 대만으로 소개했다. 남편이 살아서 남아있다면 벌써 80은 되었을 것이다.

우라사키; 한국만이 아니라 대만도 대만인 ‘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행하고 있다.

마사, 나라이 부인; 절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싶다. 조선빠, 조선빠야라는 말은 자주 듣고 사용했지만 대만빠, 대만빠야, 오키나와빠, 오키나와빠야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나라이; 우치바나리에 살고 있는 ‘위안부’는 없었다. 시라하마에 있는 위안소가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다닌 것 같다. 장교가 위안소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16세정도로 의미도 잘 모르지만 나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청소하러 다니거나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우치바나리에서도 위안소를 보는 것도 허락 받지 못했다. 병사, 하사관, 부관, 소위 이상의 여자로 나뉘어 있었다.

나라이 부인; 시라하마는 탄광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전시 중부터 전후까지 남아있는 술집이 있었다. 대만, 오키나와, 일본인 등으로 마치 합중국 같았다. ‘위안부’들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모른다. 대개 타이완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나라이 부인; 여자청년단 단장했던 사람, 전시 중에 이 곳에 있었지 않나? 여자 청년단들에게 적을 망보고, 산 정상까지 포탄 쏘아지게 했다. 학생들도 12-3세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일시켰다. 밤에는 하늘을 망보게 하였다.

마사; 나도 보수작업, 청소 등 명령받아 했다. 무네노 하나코에게 기타무라대장이 반해서 살아있는 하나(꽃) 데리고 오라고 하곤 했다. 30살에 남편 잃고 가족만 소개했다. 자신은 시라하마에서 일 했다. 혼자서 농사지어 3명 아이 키웠고 부모도 모시고 살았다. 소개할 때는 뽕뽕선 타고 요나구니에서 대기하다가 타이난까지 갔다. 수오와 기륭을 거쳐 타이난으로 갔다.

연; 2000년 이곳을 방문했을 때 ‘위안부’가 마사할머니택에 놀러와서 아이들과 놀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부인; 그녀는 마사씨 쪽 친척이었다. 따라서 남편이 걱정되어 어떻게 지내나 보러 가기도 했다. 경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사; 그 아이 데리고 와서 아이 돌보게 했다. 살아있는지 어떤지도 모른다.

연; 한국에서 처럼 오키나와에서도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우라사키; 쓰지의 유리(유곽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군대가 와서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경우가 있다. 트럭에 싣고 이곳 저곳 돌게 했다. 유리와 ‘위안부’와는 질적으로 달라서 피하려고 쓰지의 여성들 노력했지만 그들은 빛 때문에...부대로 가라고 하면 가야했다. 거절이 불

가능한 상태였다. 츠지의 유곽. 조선에서와 같이 보통 여성들이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가는 경우는 들어 본적 없다. 쿠메지마에서는 군속이었는데 18, 9세의 여자아이를 아이 낳게 하고 버리고 일본으로 돌아가 문제가 된 쿠메지마사건이 있다. 시라하마의 탄광노동자들처럼 속아서 온 경우가 많을 것이다. 타이완에서 ‘위안부’ 모집이 있어서 (오키나와 여성들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여자아이도 많았다. 야에야마 이시가키 등에서도 있었다.

마사; 팬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일본 본토로 간 섬사람도 있다.

나라이; 21년에 이리오모테로 돌아왔는데 그 때는 ‘위안부’도 병사들도 없었다. 치안, 행정 담당, 군정부가 있었다. 복귀를 위해 이리오모테의 소나무를 전부 베서 오키나와 본토로 가져가 학교 등 건설에 사용했다.

연; 혹시 오키나와 ‘위안부’가 언제 돌아갔는지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고 있는가?

마사; 잘 모른다. 아이들 데리고 타이완에 가있었기 때문에

이선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버려졌는지.... 궁금하다.

나라이; 찾아도 살아왔던 곳이 고향이고 익숙해진 곳이 좋지 않을까요. 이제야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자신이 살던 부락의 살던 사람도 없고...

마사; 료텐부쿠라는 대만 사람은 탄광노동자로 왔다가 미군정부가 돌아가라는 명령으로 돌아갔으나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산돼지 잡는 법도 가르쳐 줘서 마사 할머니 남편이 그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줬다.

나라이; 이런 일 해서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연; 역사에 남겨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라사키; 츠카사는 누가 하나 며느리가 하던가 아니면 장녀가 하는데 이곳은 장녀가 한 다.

나라이; 자신이 있었던 곳 익숙해진 곳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 캄보디아로 끌려가 혼자서 살아왔지만 죽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도 있다.

부인; 전후 혼란기에 남아 있었다고 해도 먹고사는 일이 큰일이지 않았나 술집 같은 거 가능하지도 않았고...일본 본토는 그래도 팬찮았으니까....

증언 11

1. 이름; 오오하마 하츠코(大浜初子,1927년 3월25일생)

2. 일시;2002년 10월4일

3. 장소; 이리오모테 민속 호시즈나(星砂) 민속집에서

4. 조사경위;

5. 내용;

소화 16년 진조 고등소학교 졸업 후 타이완으로 갔다. 오우(타이완 사람)씨가 소개했다. 시라하마항에서 케이운호타고 타이완으로 갔다.

연; 신고서 같은 거 제출했습니까?

오오하마; 이전까지는 타이완에 자유롭게 갈 수 있었지만 전쟁시 노동력 부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타이완으로 가야만 했다. 일하러 간다는 신고서 제출하고 갔다. 시라하마는 탄광이 많았는데 그 곳에 있는 창고에서 일하던 오우씨가 함께 가서 소개해주었다.

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는가?

오오하마; 기류에서 대북으로 가서 카와바타조의 카라시마단록쿠씨 집으로 갔다. 그 곳에서 청소하고 목욕물 데우기 등의 일을 하였다.

연; 카라시마는 어떤 사람이었나?

오오하마;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이 아닐까? 상업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연; 대만에 대한 인상은 어떠했는가?

오오하마; 깜짝 놀랐다. 기류에 도착했을 때 ‘아 이런 곳도 있구나’ 하고... 대도회지였기 때문에. 기차도 처음 타봤다. 전기와 수도가 이리오모테에는 들어오지 않았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썼다. 물독에다 물 받아서 사용했었다. 1941년(소화 16년)경 소학교 졸업할 당시 병사들 있었다. 소화16년 12월에 어머니가 사망하셔서 귀국했다. 12월 8일 ‘대동아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대만에서 뉴스를 듣고 알았다. 돌아와서 시라하마에서 일했다. 간호부 견습생으로 이에자키병원 원장 집(가족과 함께)에서 숙식하면서 일했다. 약을 혼합하는 법 등을 배웠다. 본토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군수공장모집이 있어서 신청했다. 그런데 원장이 야전병원에서 근무하기 위해 타이완으로 간다고 함께 가자는 권유를 받았으나 군수공장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람을 소개시켜준 후에 그만두라고 원장이 말해서 ‘아! 잘 되었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대신 부탁하고 본토 군수 공장으로 갔다.

소화 18년 10월 20일에 시가현 히코네시 오오우미 항공기 공장에 입사했다. 이 공장은 이전에는 방직공장이었다. 제3공장은 기계, 제2공장은 부품공장으로 나는 여기에 속했다. 제2항공과 검사반이었다. 일주일간 양성기간 거쳐서 파견(윗사람이 정해줌)되었다.

연; 이 섬에서 몇 명 정도가 갔나?

오오하마; 이리오모테에서 사다코랑... 나 4명 정도였다.

연; 어떤 식의 모집이 있었나? 벽보가 붙었나?

오오하마; 벽보 모집이 아니라 연락이 있었다. ‘가지 않겠습니까?’라는 제안 듣고 따라 갔다.

연; 부모가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나?

오오하마; 부모는 반대하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였지만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기분 좋게 승낙했다. 이시가키에 모두 모여 케이운호를 타고 갔다.(배는)이것 말고도 코우난호도 있었다. 오키나와 본섬에 들리서 훈련소로 먼저 가서 정신훈련을 받았다. 정신 훈화 등을 했다. 오키나와 본섬에 도카시키여관으로 먼저 갔다. 야에야마에서 온 사람만 있었다. 약 40명 정도였다.

연; 인솔자 있었나?

오오하마; 있었다. 연령층은 다양했고 17,8,9세가 많았다. 하늘에서 망보면서 배타고 갔다. 비상가방하나씩 들고 있었다.

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나?

오오하마;가츠오부시, 건빵, 칼, 사라시...등이 들어있었다. 비상시에 칼로 가츠오부시를 깎아서 먹으라고... 당시 미군에 의한 잠수함폭격이 많았기 때문에 조난시를 대비했던 것이다. 어뢰에 의한 침몰이 많았다. 오키나와 정신대가 소화 19년에 어뢰로 침몰 당했다. 가고시마 오키에서 침몰했다고 한다. 그 소식 듣고 안도했다. 자신들의 무사에 대해서...오오시마에 들러 상륙은 하지 않고 가코시마에 상륙해서 다시 기차를 타고 갔다. 창 밖으로 벼가 노랗게 익고 감도 열린 것을 보면서 수확여행 같은 기분이었다. 몇 시간이나 기차를 타서 다리가 붓고 그랬다.

군수공장에서 직장을 결정하기 위해 양성, 지도, 결정과정을 거쳤다. 현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나는 검사반으로 갔다. 부품을 검사해서 균열, 어긋난 것 등 골라내는 일을 했다. 못을 박을 때 틈새가 있어도 안 된다. 공중에서 분해되기도 하기 때문에. 검사반 남자들은 사범학교 출신이나 대학 출신 등이었다. 나는 소학교밖에 나오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자연스럽게 가르쳐줘서 평등하게 일했다. A반 일주일씩 2교대 아침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B반 오후 2시부터 12시까지 A반과 B반이 일주일씩 교대했다. C반 아침 8시부터 5시까지였다.

더운 오키나와에서 온 사람들은 날씨가 춥고 부품도 차가운데 추운 곳에 적응하는데 어려웠다. 동상도 걸리고 그랬다. 식사는 쌀이 보일 듯 말 듯하고 무, 호박, 감자 등 잡곡이 섞인 것으로 그것도 반그릇 정도밖에 주지않았다. 젊은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당근, 무 같은 것 훑쳐서 생으로 먹고 그랬다. 그곳에서 본토 사람들에게 처음 야채를 날 것으로 먹는 것 배웠다. 훑쳐서 나눠먹었다. 누카(살겨) 훑쳐서 후라이팬에 볶아서 설탕대신 먹기도 했다. 설탕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에 나가 외출하는 날은 누카단고(살겨로 만든 완자)를 사서 먹었다. 외출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얻고 몇 시까지 돌아올 것 등 엄격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낮설어서 도망가고 그랬다. 오키나와 현인 또 도망갔더라는 소리를 들으면 긴장하곤 했다. 부자인 사람들은 특히 못 참고 도망가곤 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었다. 3년 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감기도 한번 걸리지 않았다. 오부츠마에서 표창식이 있어서 3년 간 매번 상 받았다. 면으로 된 스쿠(외투같은 옷이라고 함) 받았다. 화학섬유로 된 스쿠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스쿠는 귀한 상품이 된다). 자주 공습경보가 나서 피난하곤 했다. 소화20년 6월경 대공습이 있었다. 그전에 토조히데키 각하가 시찰나왔다. 여자아이들 격려하러 왔었다. 일하면서 슬쩍 봤다. 훈장을 많이 달고 있었다.

연; 토조가 왔다는 것을 보면 오오우미공장은 상당히 큰 공장이었나 보다.

오오하마; 여자아이들이 아주 많이 일하고 있었다.

연; 조선인 여자아이들 봤나?

오오하마; 여러 지역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만 등 그러니까 있지 않았을까.

연; 보수가 있었나?

오오하마; 급료도 받았다. 낭비하지 않고 모두 저금 돌아올 때 가져왔다. 먹지도 않고 모았다. 그랬더니 어느 사이에 말라서 뼈와 가죽만 남아있어서 꼭 폐병환자 같았다. 이리오모테에서 간 사람 중에서 끝까지 남은 것은 타하라(타마요시) 치요코하고 나 둘이 남았다(철수까지). 그런데 친구는 신장병으로 입원해서 빨리 병 나으라고 죽을 식당에서 받아다 주고 그랬다. 외출하면 토마토 사서 주고 그랬다. 오후 2시부터 일할 때는 오전에 병문안을 하고 쉴 시간이 없었다. 치요코씨는 나보다 두 살 아래로 16살에 갔다. 도중에 도망들 가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우리 두 사람이었다.

이리오모테에서 6명이 갔는데 한 사람은 아이치현으로 가고 5명이 함께 갔다. 아이치로 간 한 사람은 현재 내 남편 여동생이다. 아이치 군수공장으로 갔는데 공습으로 불타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오오시로 요시코가 이름이다. 군수공장에서 누군가 면회 와서 보니까 요시코였다. 모두 불타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옷을 나눠주었다. 철수는 가고시마의 원호소에서 했다. 병사들도 모여들고 아메리카의 엘씨시 배로 왔다. 두 번으로 나눠서 귀향하는데, 첫 번째는 병자, 장남 등을 첫 번째로 태웠다. 나는 말라서 병자로 생각했는지 첫 번째 배를 탔다. 친구도 병자였기 때문에 친구 위로하면서 귀향했다. 이시가키에서 배로 4시간 걸렸다. 배멀미하면서 왔다. 소나이오키에서 배를 내려 걸어서 왔다. 부모형제들이 환영해주었다. 돌아와서 치요짱의 부모, 할머니한테 고맙다는 인사 받았다. 함께 데리고 와줘서 고맙다라고

했다.

연; 도망간 사람들 잡혀오기도 했나? 잡히면 어떻게 되었나?

오오하마; 도망간 사람들 잡혀오면 야단 맞곤 했다. 친구 이시가키가 있었는데 한번은 ‘하짱 너는 돌아가고 싶지 않지? 매년 표창 받고 그러니까 기쁘지 않냐구’ 빈정거렸다. 그래서 ‘왜? 왜? 나도 돌아가고 싶다’고 한 적이 있다. 소화20년 6월에 공습 받고 돌아왔다.

연; 이리오모테에서 타이완까지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나?

오오하마; 이리오모테에서 타이완까지 가까웠다. 이케하타 항운회사의 정기선이 있었다. 시라하마에서 출발해서 기릉에 도착한다. 본토는 멀고 돈이 많이 드니까 모두 타이완으로 사탕공장, 미싱회사 등 일자리 구하러 모두 갔다. 남편은 버스회사에서 일했는데 출세해서 군인이 되어 해남도로 보병대로 갔다. 대만에서 편성된 군대였다. 소화 17년경이었다.

전쟁 후에 남편은 본토에 살고 있는 이전 군인들과 함께 중국에 간 적 있었다. 자신들이 중국인들을 죽였으니까 중국에 가면 살해당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시라하마에 도착했던 것은 소화 21년 9월말이었다. 음력 8월 15일에 도착했으니까.. 이시가키에서 텐트에 격리되었다. 그리고 디디티를 살포시켰다.

연; 시라하마에서 이에자키병원에서 근무할 때 이야기를 좀 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오하마; 이에자키병원에 근무할 때 시라하마 위안소에서 카나이소위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안 계셔서 나한테 가라고 했다. ‘괜찮겠느냐’고 걱정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긴장하고 갔다. 면허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선생님이 안 계셔서 몰핀 주사를 놓았는데 금방 좋아져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15분쯤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며 고맙다고 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하고 생각했다. **조선빠들 자주 병원으로 와서 몰핀 놔달라고 하고 그랬다.**

미군정부에서는 밥짓는 일을 했는데 아스파라가스, 밀가루 등 배급받아서 집에 보내곤 했다. 미군정부도 시라하마에 있었다. 배급소에서 배급해 주었다. 별채하는 사람들 숙소, 사무실, 간호사, 의사 등도 있었다. 당시 별채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연; 혹시 전후에 조선인 여성들이 남아있거나 하지는 않았나?

오오하마; 당시 조선빠 여성들은 없었다. 전후 이리오모테에 남아있다는 소리 들은 적 없다.

연;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었나?

오오하마;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본적도 별로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다.

연; 국방부인회나 여자청년단들이라면 혹시 알 수 있지 않겠나?

오오하마; 국방부인회, 여자청년단 같은 것 잘 모른다. 본토, 본섬 등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 당시 섬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전쟁 후 시라하마 군정부에서 일하고 있다가 결혼하면서 그만 두었다. 남편은 농업(쌀농사)하고 있다. 아이는 6명을 두었다. 4째 딸이 호시즈나민숙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민숙 경영 30년째이다. 딸에게 물려주었다.

증언 12

1. 이름; 니시오오마스(西大舛 高壺, 다이쇼6년 3월 생, 86세)

2. 일시; 2002년 10월 4일

3. 장소; 이리오모테 니시오오마스씨의 사탕수수밭에서

4. 조사경위;

5. 내용; 니시오오마스는 니시로 약함

사탕수수10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이리오모테 전체 생산량의 10/1정도이다. 오키나와는 소화 47년(72년)에 일본으로 복귀했는데, 복귀 전에는 하나의 국가였다. 소화 45년쯤이었다. 사탕수수 수확 시에는 대만, 한국 등에서 젊은이들이 왔다. 한국에서 여자 4명 정도 와서 수확하는 일 도와주었다. 제당공장은 남자 5,6인정도 사용했다. 그때 아내와 한국여성이 함께 한복 만들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다. 입을 일이 없어서 장롱 속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연; 사탕수수재배하는 사람들이 정부에 요청한 것입니까?

니시; 일손이 부족하니까 제당회사, 역소(구칭같은 기관) 등이 정부에 부탁하면 한국 정부를 통해서 왔다. 한국인은 일당제였으나 타이완 사람은 청부(사탕 수수 1톤에 얼마)제였다. 일당제면 조금 여유가 있지만 청부제는 힘들다.

연; 전지 한국인 노동자나 여자‘위안부’에 대해서 듣고 싶다.

니시; 시라하마의 남쪽 후나우키만 그사이에 우치바나레섬이 있고 바깥쪽으로 소토바나레섬이 있다. 일본군이 ‘대동아 전쟁’시 남쪽(필리핀, 보루네오 섬, 말레이시아)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였다. 남쪽으로 5,60척 정도의 선단으로 군사물자를 수송하는데 후나우키항이 넓으니까 5-60척 정도의 배가 들어올 수 있다. 남방은 멀고 그러니까 이곳을 휴게소로 사용했다. 정세가 어려워지자 적 잠수함 등이 등장하고 당하지 않도록... 후나오키요새는 소토바나리와 우치바나리에 요새사령부가 있었다. 소화 18년 6월 나는 몸집은 작아도 38세에 징집된 국민병이다. 그때 요새사령부로 갔다. 부대명이 다마114부대라고 불렀다. 보안상 요새사령부라고 부르지는 못하였다. 나는 통신병이었다. 전화 교환을 했다. 평상시에는 대포도 다뤘다. 그때는 유선통신이었다.

사령부 숙사의 일부에 위안소가 있었다. 전화 전주를 조사하러 갔다가 그곳을 돌고 온 적이 있었다. 그때 ‘위안부’ 5,6명이 있었다. 수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수명이라는 것은 일본어로 5,6명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5,6명이 있었다. 병사들은 만질 수 없었으며 장교들만 사용했다.시라하마항에는 야에야마‘위안부’들이 있었다. 민간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안부’ 3명 정도와 우치바나리에서 비켜지나간 적이 있다. 여자들 관리하는 위안소 ‘위안부’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이 소노다라고 했다. 우리들은 그곳을 소노다 부대라고 부르곤 했다. 다른 부대처럼 그렇게 불렀다.

소화 19년 6월 전황악화해서 후나오키요새가 해산되어 미야코 항구로 전근했다. 45여단을 만들었는데 3개월 정도 있다가 9월에 이시가키섬으로 이동했다.

연; 이 여성들 어디로 갔는지, 전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는가?

니시; 잘 모른다. 아마도 이시가키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나는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다. 우치바나리에 없었기 때문에 철수할 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남자 군속 100명정도는 이시가키섬에 있었다. 전쟁 중에 진지구축 등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잘 모른다.

연; 길에서 ‘위안부’를 본적이 있다고 했는데 복장 같은 것 기억하고 있나?

니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테즈다대(중위), 오노대라는 식으로 소노다대라고 불렀다.

연; 테즈다의 일기에 소노다라는 사람이 위안소 관리했다고 나와 있다.

니시; 부대가 아닌데 병사들이 제멋대로 소노다대라는 이름을 부쳤다. 내가 직접본 ‘위안부’는 3명 정도이다. 스쳐지나가면서 봤다. 시라하마 위안소는 목조건물이었다. 일시건물이니까 기둥은 삼나무, 유카도 삼나무, 지붕도 삼나무에 투핑을 했다. 삼나무는 군이 군사물자로

가져왔다. 소화16년경에 만들었다. 시라하마위안소 안을 본 적은 없다. 여자들을 본 적은 있지만..

연; 시라하마사람들은 시라하마위안소를 조선빼야라고 불렀는데 이 부분은 그곳이 오키나와 '위안부'들만 있었다면 왜 조선빼야라고 불렀을까?

니시; 확실하게 우치바나리에만 위안소가 있었다. 시라하마에는 야에야마사람들이었다. 야에야마사람들의 말투로 야에야마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다. 시라하마 '위안부' 몇 사람정도인지 잘 모른다. 내용은 잘 모른다.

증언 13

1. 이름; 후쿠나카 카즈이(福永一尉, 다이쇼14년생,)

2. 일시; 2002년 10월5일

3. 장소; 이시가키시 위안소터

4. 조사경위; 소년병으로 전쟁 경험

5. 내용;

카와노 키로쿠가 군조(軍曹)였다. 자신은 소년병으로 이등병 반장이었다. 하사관 상관 등의 위안소가 있었다. 반 이상이 조선인 '위안부'였으며 반 정도는 오키나와와 야에야마인 '위안부'였다. 소화 20년에 비행장 완성되자 종전되었다. 난 다케도미조 출신이다. 위안소에는 일반병사는 갈 수 없었다. 조선인 노무자들 조선어 말하면 일본병들이 이지메했다.

전후 위안소 운영되지 않았다.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른다. 남은 것도 잘 모른다. 카와노를 안내해서 이곳(위안소)에 온 적이 있었다. 이곳을 지나면 소화 17,8년경의 일들이 떠오르곤 한다. 대문은 저쪽이었다. 이 부근은 1960년대까지 술집들이 많았다. 주리들이 있었다.

증언 14

1. 이름; 오오타시즈오(大田靜男, 1948년 9월 생)

2. 일시; 2002년 10월5일

3. 장소; 이시가키시 大原호텔로비

4. 조사경위;

5. 내용;

연; 『야에야마의 전쟁』에 나오는 바바하루씨의 매장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그리고 조선인 '위안부'가 죽었다고 하는 남방병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가?

오오타; 바바하루는 조선인 '위안부'는 아니다. 일본인이었다. 남방병원은 없다. 흉종필이 보여준 서류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 남도의원은 있었다. 하지만 남방병원은 없다. 카비라위안소에는 일본인과 오키나와 인이 있었다. 요나구니는 잘 모른다

연; 산이, 히라에, 시라미즈위안소에는 어느 나라 '위안부'들이 있었나?

오오타; 히라에에는 위안소 없었다. 산니, 시라미즈, 이시가키 위안소가 있었는데 전쟁이 격렬해지면서 산 속으로 들어갔다. 산니에는 조선인, 일본인, 오키나와인, 야에야마인 등이 있었다. 시라미즈는 잘 모른다. 해군위안소(마을 안에)는 원래 위안소를 만든 것이 아니다, 통신대의 시설 중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위안소로 삼아버렸다. 이 시설을 만든 사람이 오키나와에서 파견된 코쿠바쿠미였다.

연; 이리오모테 증언자들은 우치바나리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다고 하고 시라하마에는 오키나와와 야에야마인 '위안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오오타씨는 우치바나리에는 조선

인과 오키나와인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기나?

오오타; 배로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따로 위안소 시설이 있으면서 이곳 저곳으로 부대를 찾아 다녔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치바나리에서 산니로 등등 옮겨다녔기 때문이다. 우치바나리에는 육군병원이 있고 육군의 후나우키요새가 생기면서 ‘위안부’가 생겨났다. 소화 19년에 후나오키 요새 등을 일부 이시가키로 이전하면서, ‘위안부’들도 옮겨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이전하냐면 남방에서 석유, 고무 등 수송선단기능을 후나우키요새가 하지 못하게 된다. 공습이 격심해지면서 배로 운항은 어렵게 된다. 그러면서 최후의 결전은 비행기로 하게 된다. 그러면서 요새가 이전했다. 요나구니에 ‘위안부’ 조사하러 갔다. 그것이 조선인 ‘위안부’라는 사실을 알았다. 우치바나리에 있던 사람이 산니에도 있었던 여성을 확인한 사람이 한 명 있다. 요나구니섬의 이토카즈씨가 ‘위안부’를 시라하마, 우치바나리에 신고 갔던 사람의 이야기로 확인했다.

우라사키씨가 오오타씨의 증언에 부연 설명; 오오타씨는 요나구니에서 대만에서 ‘위안부’를 운반하다가 폭격 당해 다수 사망했다는 의사의 기록을 보고 확인하러 요나구니에 갔다. 유골이 어떻게 되었나 확인하러 갔다가 이토카즈씨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다. 해안에 묻었다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다. 이토카즈는 요나구니에서 우치바나리로 징용으로 왔다.

연; 이토카즈와 이시가키코우도쿠씨도 비슷한 일 했다.

연; 소나이 위안소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있는가?

오오타; 소나이 위안소는 잘 모른다

연; 요나구니의 사망자가 조선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

오오타; 이토카즈씨에게 어떻게 조선인이라는 것을 알았나하고 물었다. 그러자 자신이 ‘위안부’를 운반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연; 각 증언 마다 장교용, 병사용에 차이가 생기는가?

오오타; 처음에 위안소 생겼을 때 장교용이었으나 시라하마는 요정이 있었기 때문에 병사들도 다니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래서 장교용, 병사용 증언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연; 니시오오마쓰씨의 증언에 의하면 5,6명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오타; 맞을 것이다. 시모나가부대는 나중에 없어진다.

연; 데츠다수기도 혼동되어있다. 장교용 병사용이..

오오타; ‘위안부’중 누구누구는 장교용, 누구누구는 일반으로 나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장소는 같지만, 날짜를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

연; 미나미다이토에서는 행렬이 늘어서 있다는 이야기를 모두가 했는데 이곳에서는 듣지 못했다. 왜 그런가?

오오타; 이 곳에서도 줄서서 있었다고 한다. 마을 외곽집 접수해서 위안소를 삼았다. 그 집 사람들을 쫓아냈는데 갈곳이 없어서 본체에서 떨어진 곳에서 살게 해 달라고 해서 살았는데 병사들이 줄서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손자가 보면 교육상 좋지 못하여 그 집을 나갔다고 어떤 할머니가 증언했다.

연; 미나미다이토 섬의 증언자 중에 그 당시 소년병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오오타; 소년병들은 매일 훈련 당하고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불가능했으며 시키는 일만 했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다. 이시가키의 요정에서 일하고 있던 딸이 갑자기 없어져서 찾아보니 우치바나리 위안소에 가있었다. 딸의 편지를 받고 경찰서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경찰이 업자에게 딸 내놔라라고 따져서 그래서 돌려 받았다.

우라사키; 아직 경찰이 군보다 힘이 있었나 보지요.

오오타; 업자는 군의 명령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군대대장에게 직접 전화했다. 대장은 시모나가였으며 시모나가대장이 이런 귀찮은 딸은 돌려보내라고 했다. 그 위안소는 우치바나리 위안소였다. 우치바나리 위안소는 도망갈 수가 없다. 시라하마는 도망갈 수 있지만 딸이다. 경찰한테 직접 들었다. 이 일이 있는 후 시모나가대장이 경찰을 이지메했다. 대장들이 연회를 열면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전등켜지말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주의를 주자 너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연; 오키나와인들은 유곽과 위안소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는가?

오오타; 유곽은 남자들 술시중들다가 어쩌다 함께 잘 수도 있지만 위안소는 다르니까 큰 일이라는 감각을 지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연; 저서 41쪽에 조선인 '위안부'가 결혼해서 섬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오오타; 현재는 없어졌다. 국적은 일본으로 되어있다. 이시가키에 없다. 몸 상태가 안 좋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해보면 그럴 것이라든 3명이 있다. 그 중 한 명이 동급생 엄마일 가능성이 있어서 곤란했다. 현재는 오키나와에 가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생존자, 정체불명. 야마토병사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야마토 이름이었다.

연; 요정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산니목장에서 일하던 여성이 있었고 현재도 살아있지 않나?

오오타; 남자인 자신이 이야기 꺼내기 어려워 스텝했다. 일본인으로 현재 요코하마에 생존하고 있으며 오키나와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다. 성문제라 어렵고 남녀문제라 또한 어렵다

더구나 자기 친구인 경우는 더더구나 어렵다. 탄광에는 이리오모테 청원경찰이 있었다.

연; 이리오모테 탄광은 죄수들을 형벌 대신에 일하게 했다는 기록을 보았는데 어떠한가?

오오타; 탄광 초기에 그랬다. 범죄자(수인)들 형벌 대신에 탄광에서 일하게 하기도 하였다. 팔라리아 등으로 거의 살아 돌아오지 못하였다. 밖으로 도망갈 수도 없었다. 도망가고 싶어서 살인 저지른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섬사람들 모두 매수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실패했다. 그리고 오키나와 본섬까지 가는 배도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니까.....최후에는 산 속으로 도망가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주 많다.

연; 야에야마에서는 군표가 없었다고 코우토쿠씨가 이야기했는데 사실인가?

오오타; 위안소에서는 표를 사용하지 않았나? 표라고 들었다. 날짜가 썩어진 표 같은 것 받아서 사용했다고 한다. 섬사람들은 그런 것 잘 모른다. 하위 층 사람들이니까 군 관계 문제를 알 수 없었다.

연; 다른 지역은 '위안부'가 국적별로 나뉘어 있는데 이곳은 섞여 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오오타; 요정에 있었던 여성, 탄광에서 온 타이완 여성 등이 함께 모여있었기 때문에 섞여 있었을 것이다. 요나구니의 이토카즈는 군속으로 군의 배를 사용하고 있었다. 후나우키만의 우치바나리섬, 소토바나리섬, 시라하마 등에 걸쳐 요새가 있었다. 우치바나리에 사령부가 있었다.

연;이리오모테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카노카와(우치바나리의 반대편)에서 아사하거나 병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한다.

오오타; 안동호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저서 95쪽이다.

연; 섬 주민들이 안동호에 타고있던 사람들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서의 내용과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오타; 안동호사건 때 생존했던 사람들을 군이 사용했다. 군이 징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두 죽었는데 한 두 사람을 대만(?)으로 데리고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다.

연; 타이완에서 '위안부'들을 수송했다는 증언이 있는데 이 곳도 그랬는가?

오오타; '위안부'는 타이완에서 왔을 확률이 높다. 타이완에 조선인이 일하고 있는 유곽이 많았다. 그리고 타이완에서 데려오는 것이 운송하기 쉽다. 본토보다 위험성이 적다. 미야코의 이케무라씨에 따르면 타이완에서 조달하다가 요나구니에서 폭격맞아 다수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 중 수명을 미야코에 데리고 왔다. 전쟁 전부터 타이완에는 조선인들만이 하는 유곽이 있었다. 이시가키섬에서 철수한 여성이 조선인에게 다량의 돈을 받아서 여관을 경영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시라미즈 위안소 유적지는 흔적이 없다. 산속의 움집은 장작불로 모두 사용했다.

증언 15

1. 이름; 후쿠치 히로아키(福地曠昭) 증언
2. 일시; 2002년 7월 7일
3. 장소; 액카호텔 조사자 숙소
4. 조사경위; 오키나와전쟁과 군'위안부' 전문연구자
5. 내용;

오키나와 전쟁경험에 대해 나는 주로 민간측의 조사를 해왔으며 <마을과 전쟁>, <방위대>, <호향대> 등의 책을 썼다. 2만 5천명의 오키나와 사람들이 오키나와 민간방위와 군속으로 징용되었다. 14세에서 18세까지의 젊은이부터 노인들까지 포함되었다. 19세부터는 군대에 갔다. 소화 19년에 나온 토야마의 <불타는 바다>에는 카고시마에서 오키나와로 오던 배가 카고시마현 토쿠노시마 앞바다에서 미군 잠수함에 격침되어 오키나와 수비대 제1진 4천명이 죽었다. 군사 기밀로 다루어져 전후에야 알려졌다. 오키나와 전쟁에 관한 나의 마지막 책이 <오키나와전의 상흔>이다. 5천명이 가입한 부상자회의 고문을 지금 받고 있는데 아직 보상 받지 못하고 있다. 오키나와 전쟁에서 있었던 조선인 군부와 '위안부'들의 희생에 대해 내가 처음으로 썼던 책이 <아이고(哀号) 조선인의 오키나와 전쟁>이다 (1986년 6월). 책의 전반부는 군부, 그리고 나머지는 '위안부'에 관한 것이다. 그 이후의 조사를 포함하여 배봉기 씨의 1주기 때 출간한 것이 <오키나와의 여성들> (1992)이다. 1992년에 오키나와에 있었던 위안소 지도가 만들어지면서 세상에 이 문제가 알려지게 되었다.

오키나와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소화19년 봄(1944) 오키나와에 미군이 상륙하리라는 정보에 따라 제32군 수비대 9만명이 타마(球) 부대 중심으로 꾸려졌다. 우시지마 중장이 사령관이었다. 나중에 2만명이 늘어 11만명이 되었다. 중국 또는 남방에서 이시(石) 부대와 타케(武) 부대가 오키나와로 더 이동해 왔다. 그 때 비행장 건설을 위하여 조선인 군부가 왔으며 '위안부'들도 같이 왔다. 1944년 10월 10일 나하 공습으로 나하市の 8할이 파괴되었다. 그 뒤 '위안부'들이 많이 오면서 여기저기에 위안소들이 만들어졌고 전쟁은 다음 해 6월에 끝났

다. 전시 중에는 ‘위안부’에 대해 잘 몰랐다. 전후 조선에서 온 ‘위안부’가 있었다던가 조선인 위안소에 대한 것은 내가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오키나와 인권협회와 일본 변호사회가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그 때 내가 안내를 했었다. 오키나와에 온 조선인 ‘위안부’들은 올 때부터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겪었다. 요나구니 항구에서 미군으로부터 기총소사를 당하는 등으로 오키나와 전쟁이 가까워졌던 때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전쟁 후 미군의 ‘위안부’가 되어야 했던 이중의 경험을 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곳, 남방이나 중국 전선에서는 없던 일이었다.

미군으로부터 얻은 유일한 자료로 처음의 내 책에서 언급했던 것인데 <미래에의 증언>이라는 영화에도 나오는 것이다. 당시 조선인 ‘위안부’는 대부분 18세에서 20세였다. 배봉기 씨는 29세였지만, 일본군 사령부 근처에서 아메리카 헌병대가 전쟁터에서 수용했던 위안소의 조선 여성들 사진으로 드문 것이다. 포로가 된 뒤 미군에게 다시 사용되어 ‘위안부’가 된 케이스이다.

연: 이 사진은 선생이 미국에서 구하신 건가요?

월간 오키나와사가 미국립공문서관에서 구한 것을 내가 부탁하여 얻은 것이다. 설명을 원문으로 확인하고 내 책에도 언급했다. 나는 거의 매년 미국립공문서관에 자료 찾으러 간다. 이 책 112페이지에 있는 소화 20년 8월 되기 전 전쟁 때 전쟁터에서 잡힌 사람들 사진 이것도 미국립공문서관에서 찾은 것이다. 6월 14일이라는 설명이 있다.

오키나와 전쟁에서 최대의 희생자가 된 것은 역시 조선인 군부와 ‘위안부’였다. 미군이 상륙할 때 최일선에 배치되었으며 지리를 잘 모르고 식량이 있는 곳도 몰랐기 때문이다. 전쟁터에서 여기 저기 헤매다가 희생이 많이 되었다. 올 때도 갈 때도 어려운 상태였다. ‘위안부’의 경우 어디를 떠 돌아다녔으며 어디서 죽었는지도 정확한 추적이 어렵다.

白玉의 탑은 토카시키 섬의 아하렌이라는 곳에 청년의 집 옆에 있다. 일본군 수비대가 있었던 곳이다. 한국에서 돌을 가져와서 만든 <한국인 위령의 탑>도 있다. 오키나와 전쟁과 남방전에서 희생된 한국인 1만명이 모셔져 있는데 매년 11월에 위령제가 열린다. 키노완 시의 카카즈에는 청구(靑丘)의 탑이 있는데 30명의 ‘위안부’ 유골이 모셔져 있다.

연: 전쟁 전부터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 모임이 있었나요?

소화 초기부터 모임이 있었다. 소화 5년 조선 상조회가 만들어져 50내지 60명이 참가하였다. 요정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며 모임이 열리기도 하였다. 회장인 안도씨는 카데나에 살고 있었고 전후에도 생존자 중심으로 모임이 계속되었는데, 민단이 먼저 이 모임과 관계를 맺었다. 나는 조총련계와 오래 전부터 교제하고 있다. 소화 18년(1943년)경부터 살아온 구씨는 양바루 근처 밭 가운데서 카야마 부대의 스파이 혐의를 받고 가족 7명이 학살된 사건이 있었다. 카르시야마에서 이들을 태워서 민단에서 처리하였다. 총련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민단 단장인 金 상과 전 단장인 全 상이 잘 알고 있다. 유골을 한국에 보냈을 때 신문에 났었다.

야케나 수용소에는 조선인 군부와 ‘위안부’만 수용하였다. 천연 형무소처럼 입구는 좁고 안은 넓으며 바다를 끼고 있는 지형이라서 도망갈 수가 없었다. 조선인들은 질문을 해서 말을 시켜보면 금방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중부, 남부의 각 전장으로부터 4월계부터 데려다가 수용하였다. 4월 1일 미군이 상륙했을 때 시체 처리반, 식량 운반 등을 위해 미군 트럭에 싣고 가서 일을 시켰다.

야카(屋嘉) 수용소는 텐트가 세 개로 나뉘어 있었다. 조선인과 오키나와인 그리고 일본인 텐트였다. 오키나와 포로 텐트에는 오키나와 출신의 군인과 군속만 전쟁포로로 수용하였다.

민간인은 별도로 타이라 수용소 등에 보내졌다. 일본인 텐트에는 사병과 하사관 이상의 장교가 수용되었는데 명령 불복종으로 내부에서 싸움이 있기도 하였다. 8월 15일날 조선인 군부들은 조선해방을 외치며 만세를 불렀다. 일본 포로에게 저항하여 싸움이 생기기도 하였다. 8월 15일 이후 일본이 패전하고 조선이 독립하여 왔던 길 그대로 오키나와와 카고시마와 모지(門司)를 거쳐 부산항으로 대부분 귀국하였다. 커다란 미국의 배(LST)가 직접 부산에 실어나르기도 하였다. 리토(離島, 다이토지마와 미야코)에서는 비행기로 포로를 야카 수용소에 실어날랐다. 조선인 중에서는 이런 더러워진 몸으로는 고향의 부모를 볼 수 없다고 귀국을 거부하여 큐슈의 탄광으로 지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당시 탄광에는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 한편 일본이름을 만들어서 요정에서 일한 여성도 있었다. 지금의 비행장 근처인 카테나 로타리 그리고 나하의 아사토라는 술집에는 전후 1, 2년이나 일한 여성이 있었다. 도쿄 요정에서 작부로 일하며 접대업에 종사한 여성도 있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그가 조선 출신인 줄 알지만, 본인은 나는 일본사람이라면서 이름도 일본 이름을 붙이고 일하였다. 따라서 조선에서 온 여성들이 전후에 오키나와에 남아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연: 조사 때 선생님은 직접 그런 증언을 들으셨나요?

류큐 신보 사장이었던 이케미야씨한테 그리고 돌아가신 부인한테서도 들었다. 나는 당시 젊을 때여서 요정에 술 마시러 갈 나이는 아니었다.

미야코에도 2만명의 사단이 주둔하였는데 거기 타이완에서 데려온 ‘위안부’들이 상당수 있었다. 전후 미야코의 히라라시에서 정신 이상이 된 조선인 전 ‘위안부’가 시장 바닥을 헤매고 다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그는 포로수용소에 가는 것을 거부했을 지도 모르겠다. 미야코에는 산이 없어서 미군이 상륙하기가 쉬웠다. 타이완 관할이었던 방면군은 미군이 타이완에 먼저 상륙한 다음 오키나와를 공격할 줄 알았다. 그래서 제일 강한 군대였던 타케 부대가 1944년 12월 45년 1월에 걸쳐 2만명이 타이완에 이동하였다. 그 때 조선인 ‘위안부’도 같이 타이완에 데려갔었다. 그런데 거꾸로 미군이 오키나와에 먼저 상륙했으므로 미야코의 사단은 여자가 부족하여 공습이 있던 시기였음에도 타이완에 있던 조선인 ‘위안부’들을 데려왔다. 정신이상이 된 앞의 그 여자는 아마 끌려왔다가 살아남은 여자가 아닌가 싶다.

토미쿠스쿠의 절에 봉안되어 있는 배봉기 할머니는 오키나와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은 피해자였는데 조총련이 그를 돌보았다. 이런 몸으로는 한국에 못 간다, 통일이 되지 않으면 한국에 갈 수 없다고 유언처럼 말했는데 통일이 안 되고 죽어서 정말 안되었다. 한국은 38도선으로 분단되어 있으나, 오키나와는 27도선을 기준으로 오키나와와 일본으로 나뉘어 있었다. 1972년 5월 15일에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복귀되었을 때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인으로 귀화가 가능했다. 그 때까지 오키나와 사람들은 미군 지배하에서 류큐인 주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등록이 안된 외국인들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일본인으로 귀화하여 호적을 가지는 것이 가능했다. 그 때 몇 명이 귀화하였는데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 배봉기 씨는 그 때까지 주민등록이 없었는데 요정에서 그녀를 도와주었던 오키나와 사람이 입국관리사무소에 가야한다고 알려주어서 1975년에 한국 국적을 얻게 되었다. 배봉기 씨가 조총련 사람을 만난 것은 호적을 얻은 다음이었다. 나는 조총련 사무실에서 배봉기 할머니를 처음 만났다. 그가 마에지마에 살게 된 이후 ‘위안부’에 관해 조사하려고 했는데 조총련의 김씨 부인이 주로 돌보고 있었다.

연: 오키나와에 있었던 ‘위안부’의 총수는 얼마나 되나요? 그 중에 조선인 수는 얼마인가요?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 위안소는 조사된 수로 78개소 정도이다. 일개소에 10명 정도 평균해서 있었다면 780명 정도 된다. 모토부, 이즈미, 구메지마도 마찬가지로 늘 군대가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계산하기 어렵다. 오키나와 출신 여성도 있었으며 혼슈의 유곽에서 온 여성도 있었고 중국에서 부대가 올 때 일본의 유곽 출신 여성들도 같이 왔다. 낮에는 사병, 밤에는 장교를 상대하는 것으로 보통 나뉘는데 밤의 연회 때 일본에서 온 여성이 노래하기도 하였다. 복장과 언어로 미루어 대체로 그 출신을 알 수 있으나 반드시 이곳은 조선 여자가 있는 곳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았다. 큰 곳은 30명이 있었던 곳도 있으며 두세 명 있었던 곳도 있다. 공습이 있을 때나 10월에 나하항(지금의 도마리항)에 카고시마에서 배로 도착을 하자마자 루핑으로 지붕을 엮어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덮고 위안소로 쓰기도 하였다. 그곳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이 곳에서 트럭으로 다시 탄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당시엔 이름도 없었고 평균 10명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추측일 뿐이다.

이 책에는 위안소가 있었던 장소를 표시한 지도가 나와있는데 모두 130개소쯤 되며 ‘위안부’의 명부는 없다.

연: 조선인 ‘위안부’를 천명 정도로 추측가능할까요?

알 수 없다.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세어졌을 수 있다. 위안소 지도를 만들었을 때 증인에게 물어서 조선인 여자가 있었다고 답한 것만 표시한 것이다. 부대 자체가 이동을 하였고 여자들도 이동 가능성이 높아서 숫자는 겹치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언급한 것은 전부 조선인 여자만 언급한 것이다.

연: 오키나와에서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 150명의 명단이 있다. 라사도에 있었던 7명, 배봉기 할머니 해서 158명은 확실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다.

그 명단을 보고 싶다. 배봉기 할머니의 경우 토카시키키에서 기총소사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살았다는 등 부분적으로 알려진 것은 있으나 전체는 알 수 없다.

연: 오키나와 ‘위안부’의 생존율로 미루어 전체의 생존율을 추측가능할까요? 일반 주민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과 비교하거나 오키나와에 온 군인이 몇 명 살아 남았는지와 연결해서 알 수는 없나요?

우선 몇 명이 이 곳에 왔는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오키나와의 주민은 보통 4명 중의 한 명이 죽은 걸로 말한다. 나의 형 두 사람도 죽었다. 죽은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카카즈의 청구의 탑의 경우다. 30여명이 그 곳에 있는 것으로 남아 있지만 이름은 새겨져 있지 않다. 타마 부대에서 회계 보던 사람으로 카카즈에서 구청장 했던 사람 세이에이 씨는 당시의 증인인데 군에서 하루 안내비 20엔을 받고 병사들을 안내했다고 하였다. 지금은 죽고 없다. 하루 4-5명 이상을 상대하였다고 했다. 위안소는 구메지마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6월에 태풍으로 타이완 가는 길에 일시 체재하였다고 하였다. 4-5일 정도였을 것이다. 카와타라는 곳에 있었던 타마 부대의 별채 부대에도 ‘위안부’ 15명 있었고 막사가 있었다. 이것도 일시적인 것이었다. 보통 일본군은 ‘위안부’의 비율을 군인 30명에 한 사람으로 잡았다. 전쟁 당시 군인이 12만, 적어도 10만명 있었다고 하면 ‘위안부’가 3천명쯤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중국 전선도 마찬가지였고 일본군이 있던 곳이라면 대체로 이런 정도 아니었겠나? 중국 출신, 타이완 출신, 조선 출신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키나와에서 숫자 확인 가능한 방법은 지금까지 증언을 통해 들은 것을 통해 확인하는 정도다. 당시 한국에서 몇 명의 여성이 보내졌는지는 아직 총독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국에서 총독부 자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마부니의 평화의 초석에는 남쪽사람과 북쪽사람이 모두 봉안되어 있

고 그 명부가 있는데, 이 명부에 여성의 이름도 있는데 그들이 ‘위안부’였는지는 모른다. 또한 카고시마의 치란에는 특공대가 있었고 거기 대장은 지원병인 조선인이었는데, 명단에는 조선인들이 많이 들어 있다. 하지만 ‘위안부’는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 ‘위안부’의 명부는 남아있지 않다. 조선에서 징용으로 오키나와에 몇 명이나 보내졌는지 알 수 있다면 좋겠다.

연: 야케나 포로수용소는 조선사람만 따로 수용되었다고 하는데, 군부와 ‘위안부’ 모두 있었는지? 야케나는 지명입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다. 요카츠 반도 야케나 항에서 약간 바다에 면하고 있다. 지금은 밭이 되었다. 태평양 쪽을 향하고 있다. 도망갈 수 없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쉽게 드나들 수 없다. 나는 여러 번 갔었다. 야케나 항의 위쪽에 있다. 한 때 조선인들의 유골이 한 동안 있었다. 그런데 내가 보러 갔을 때는 없었다. 인부, 군부가 많았다. 유골이 없어졌기 때문에 의회에 가서 따졌다.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하였다. 조사를 조총련이 주체가 되어 하였다. 민단 쪽이 유골을 이미 보냈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조선인들이 4월부터 수용되었는데 8월 15일까지 수용되어 있었다. 독립만세, 조선만세 등을 외쳤다고 하는 증언이 있었다. 명단이나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다.

연: 중요한 질문인데, 생존자에 대해서 묻고 싶다. 류큐신보의 사장이 카데나의 요정 아사토에서 일하던 조선인 ‘위안부’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하였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생존하여 있는지, 또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 어디로 갔는지, 그들에 대한 소식을 알 수는 없는지?

류큐신보의 사장 및 그 부인으로부터 들었을 뿐이다. 나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요정에 출입을 하지는 못하였다. 그 ‘위안부’는 나중에 동경으로 옮겨졌으며, 동경에서 성공하였다고 한다. 일본인과 결혼하였다고 한다. 큐슈의 탄광으로 옮겨간 사람들은 군부인데, 본국에는 돌아갈 수가 없어서 큐슈에 사는 친척이나 아는 사람을 찾아서 그리로 갔다. ‘위안부’였던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탄광에는 조선사람들이 아직 많이 일하고 있었다.

우시지마 중장이 당시 오키나와의 사령관이었는데 오키나와의 해군에서 제일 높은 군인인 오오타 중장에게 ‘위안부’를 이만큼 예정하고 있는데 해군도 원하는가를 물었다. 그러자 해군은 오키나와는 내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라사토의 해군 수비대가 위안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육군만이 ‘위안부’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 남방이나 중국에서는 육군만이 위안소를 운영했지만, 오키나와에서는 그렇지 않다. 물론 ‘위안부’를 배에 싣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해군의 라사토 수비대에도 위안소를 운영하였다. 전후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쓰여졌지만, 희생자는 없었다고 한다.

연: 왜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책을 내게 된 계기는?

본격적으로는, 오키나와 인권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을 때에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의 문제의 조사에 참여하면서부터이다. 강제연행된 조선인 군부들을 소학생 때에 처음 보았다. 일본군의 주정으로 목탄이나 장작 등을 날라오는 조선인 군부 4-5명을 본 것이 처음이었다. 그들 큰 나무 아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 ‘위안부’에 대해서는 본 적도 없고, 아직 국민학교 고등과 2년생이었다. 13세경이었다. 전혀 ‘위안부’에 대해서는 몰랐다. 본 적도 없다. 나보다 두어 살 위의 사람들은 군사훈련도 받았고 군속으로서 ‘위안부’와의 접촉도 있었던 것 같으나 나는 아직 소학생이었다.

조사는 70년대 있었는데, 조사하고 나서 좀 있다가 보고서가 나왔고, 오오노라는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고, 법률순보라는 잡지에도 개략적인 내용이 실렸다. 내가 그것을 하나씩 뒤져

서 책으로 엮었다. 4, 5년전에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허락을 해주었다. 지금은 절판이다. 이것을 주겠다. 고서점을 뒤지면 나는 또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카카즈에 야고산다이이에라는 큰 위안소가 있었다. 알려준 사람은 아직도 생존해 있다. 아카지마에도 위안소가 있었다.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보상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기 위해 내각심의관을 파견하였으며, 내가 오오타 지사의 부탁으로 이들을 안내했다. 아카지마까지 심의관을 안내하였는데, 외무성에서 온 한 사람까지 합하여 모두 두 사람을 안내하였다. 국회에서는 오키나와 전쟁도 포함하여 강제연행이 없었고, ‘위안부’도 군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보상의 의무도 없으며, 그리고 일한조약으로 처리완료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때 내 책이 나와있었고, 그것을 보고 조사를 해 보기로 한 모양이었다.

아카지마에 부인회장을 하는 분이 있었다. 아직도 생존해 있다. 여러 가지 증언을 해 주었다. 매일 밤 7-8인의 여성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고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울고 있었는데, 물어보니 조선인이었다. 밭에서 일하다가 경찰이 함께 한 일당에게 붙잡혀 왔다고 하였다. 부모에게 하직인사도 못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확실히 군의 명령에 의해 이쪽으로 끌려온 강제연행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의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였으며 산 쪽에 병영이 있는데 그 곳의 막사에서 군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명백히 군의 관할이었으며, 민간이 그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심의관은 오키나와 전쟁에서 ‘위안부’는 군의 명령, 강제연행, 군의 관할이었음을 확실히 알았다고 말하였다. 돌아가는 배 위에서 확실히 말하였으며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였다. 오키나와에서도 ‘위안부’가 민간의 장사꾼에 의한 것이라고 정치가들은 말하였다. 군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언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아카지마의 그 아주머니는 아직도 건재하다. 이 책에 쓰여있으니 읽어보기 바란다. 아카지마 근처의 도루마라는 작은 섬에도 군부들이 은폐호를 만들고 있었다. 최초의 미군 상륙이 3월 20일 8시 20분경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사람은 한번 만나보기 바란다. 여러분이 가면 나도 같이 가서 낚시도 할 수 있다.

연: 아카지마의 ‘위안부’들은 군인들과 함께 돌아갔을까요?

야카 수용소에 상륙용 배인 주정(舟艇)으로 옮겨진 것 같고, 아주 먼 곳에서는 비행기로 이송되었다. 미나미다이토오는 굉장히 멀어서 비행기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미나미다이토오에서 비행기로 야카 수용소에 옮겨졌다. 야카 수용소에는 조선인 군속도 ‘위안부’도 있었다고 한다. 짧은 동안이기는 하지만, 돌을 던져서 얻어맞기도 하였다고 한다. 일시적으로 거기에 수용이 되어 있었다. 그 때는 야케나는 아직 전쟁 상태였다. 위험했다. 그 뒤에는 큰 수용소가 생겼다. 오키나와 사람들과는 모두 격리되었다.

연: 군‘위안부’를 군속 또는 군부로 취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위안부’는 군속이 아니다. 군부도 아니다. 조선에서 여성근로정신대로, 일단은 그런 목적으로 데리고 온 것이다. 일단은 간호원이나 정신대로 일을 하러 온 것이다. 오키나와는 남방이라서 놀고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모집하여 오지만, 오면 바로 ‘위안부’로 군인들을 상대하게 한다. 일단은 特志(특별지원) 간호부로 조선에서 모집되어 데리고 온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군인이나 군속이 아니라 特志 간호부이다. 그런 식으로 오키나와로, 아마 오키나와에 간다는 것도 말하지 않고 데려왔을 것이다. 행선지는 최후까지 비밀이다. 서울이나 부산에서 죽 오는데, 물론 입소문으로 어디로 가는지 들었을지 모른다. 또한 배 이름이 류큐호니까, 그리고 타마 부대로 가니까 그 이름으로 오키나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특지 간호부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고, 조선에서 총독부가 행한 것이다. 오키나와와는 관계없

다. 오키나와에서 부른 것이 아니다. 그러한 제도의 증거나 근거는 이 책에 쓰여 있다. 쇼와 17년 무렵부터 오키나와에 데리고 왔다. 물론 중국이나 다른 곳으로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데려갔다.

부록 3. 오키나와 위안소 지도와 관련하여

1) 오키나와현의 위안소 지도 작성을 통하여⁷⁹⁾

위안소 지도에 대하여

위안소 지도가 모두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 우리들이 보고하고 싶은 것은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쓰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위안소는 지도작성이 (1992년) 9월 5일 현재 121개소입니다. 쇼와 19년(1944) 10월 10일 대공습으로, 那覇시 80퍼센트가 불에 타는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장과 항만시

79) 전국여성사연구교류집회 실행위원회, [제5회 전국여성사연구교류집회 보고집], 1994 8-15쪽. 이 보고는 1992년 9월 일본의 [전국여성사연구교류 집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오키나와 활동가들이 힘을 합하여 만든 것으로 일본군위안소에 대해 가장 포괄적 정보를 보여주는 조사자료이다.

설에 가깝게 있던 위안소가 상당히 불타고, 새로 재건되거나 해서, 실수(實數)를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폭넓게 세어본 숫자입니다.

市町村명, 장소, 기간, ‘위안부’의 수, 군대로 해서, 위안소 분포표를 만들었습니다.

조사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쇼와20년(1945) 4월 1일 이전을 조사대상으로 했습니다. 4월 1일 미군상륙 후에도 ‘위안부’가 군대와 행동을 함께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안소로서 기능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조사방법은 시정촌역사(市町村史), 전기(戰記), 등의 문헌, 각지 연구자들의 보고, 증언입니다. 증언은 가능한 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멀리 떨어진 섬 등 갈 수 없었던 곳도 있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위안소 수에 대하여

이 121개소 중에 위안소로서 말할 수 있을까 아닐까, 확실하지 않은 곳이 5곳 있어서 설명합니다.

(1) 09-02 名護市 字城(구수쿠). 名護市の 伊波寛一상이 「이어서 말하는 전쟁(語りつゝ戦争)」이라는 책 중에서, 國頭 군대는 요정 「一樂, 菊水, 마츠노야(松ノ屋), 山海樓」 등에서 「출장위안」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로서는 그런 곳에 다니는 것은 위안소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장소가 가까운 곳에 집중되어 있기에 현지에 나가보았습니다. 당시 요정을 경영하고 있던 사람이 전시 중의 서류 등을 보여줘서 알았지만, 그 요정은 19년(1944) 6월부터 20년(1945) 3월 25일까지는 여관을 경영하고 있던 것입니다. 名護로 온 것은 44여단의 國頭지대의 군대입니다. 5, 6월에 왔습니다. 주둔하고 있던 시기와 겹치는 것에서, 이 기간만 요정에서 여관으로, 즉 위안소로서 이용되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독립중포병 제100연대의 진중일지에 「8월 26일 菊水는 출입금지, 병은 위안소를 이용할 것, 외출은 주에 2회로 한다」가 있습니다. 이 위안소라는 것은, 여관을 가리키는 것일까 다른 위안소가 있었을까, 확실하지 않지만, 상황으로 보아 여관인가 요정 어느 쪽이든 하나의 곳은 이용되었다고 판단하여 합산하였습니다.

(2) 19-01 오키나와시의 호(壕)입니다. 20년 3월까지로 책에 써있지만, 댐이 되어서 확인은 불가능한 곳입니다.

(3) 20-01 北谷입니다. 「北谷村民の戰時體驗記錄集」에서 浜元씨 증언에, 집 가까운 병사에 트럭으로 50인 정도 ‘위안부’를 데려와, 병장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병사를 위안소로 세어도 좋을까, 판단할 수 없어서 물음표로 두었습니다

(4) 26-10 那覇시입니다. 上原榮子씨가 저서인 「辻の華」에서 위안소라는 간판은 걸었다고 썼습니다만, 위안소로서 기능했는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5) 30-04 具志頭村 港川입니다. 당시 구장이었던 安次富씨에게 증언을 확인하러 방문했습니다만, 돌아가셔서 실망했습니다. 장소의 확인도 불가능해 물음표입니다.

이상 5개 곳이 위안소였다는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일단 121개소 중에 집어넣었습니다.

讀谷村 10개소, 宮古 11개소, 八重山 12개소는 그 지역 연구자로부터 보고를 그대로 게재 하였습니다.

사용된 건물

(1) 민가

121개소 중 60개소가 민가, 민가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않은 12개소를 합하면 반수이상이 민가가 됩니다. 민가로 사용되었지만, 소개(疏開, 피난) 등으로 빈 집이 된 건물, 이것은 유일하게 개업 날이 판명된 西原町의 사례입니다만, 세입자가 국민학교 훈도로 학동소개 인솔차 출발한 다음날 19년 8월 20일에는 위안소로서 사용되었다고 당시 인근에 살던 사람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빈집이 먼저 그대로 쓰이거나 혹은 약간 손을 봐서 사용한 것이 많아 보입니다. 玉城村의 嶺井씨는 소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쇼와 17년(1942) 출정했다. 나는 부락 常會에서 다만 소개하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소개할 예정은 없었습니다만, 宮里순사에게 전쟁 이야기를 상세히 듣고 8살, 6살, 4살, 한 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용하고 싶은 가옥이 있으면, 소개가 진행되었는지, 설득했는지, 가옥조사를 했는지 등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키나와의 많은 가옥은 정면에서 큰방, 작은 방, 부엌이 있고, 뒷면에 뒷방이라고 부르는 손님방이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거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손님방으로 쫓아내거나, 심한 경우는 마굿간으로 쫓아내고 앞의 방을 이용한 곳도 있습니다. 浦添에서는 마굿간으로 쫓긴 할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식만 방에서 했지만, 그것이 끝나자 곧 마굿간으로 돌려보내지고, 다음날부터 위안소로 이용되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金武에서는 아이들 3명은 손님방으로 쫓겨나고 ‘위안부’가 3명 있었기에, 앞의 두칸을 모포를 걸어 나누어서 이용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那覇시 高良에서는 빌려준 약국과 이발소에 갈 방도도 없는채 방출되어, 할 수 없이 친척에게 몸을 의탁한 예도 있습니다.

本部반도에 있던 宇土부대에 「군인구락부 내부개축설계약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을 상당히 작게 잘라서 방수를 늘렸다. 본부 眞部山에서는 (군인구락부를) 개축하고 있다.

사이판이 함락된 19년 7월 7일, 10만명(본토 8만, 대만 2만) 소개 명령이 중앙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 당황해서 소개를 진행시켰습니다만, 10만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인가 하면 10만 兵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이시기는 적의 잠수함이 출몰하고, 제해권, 제공권도 위협한 때였습니다. 10만인의 식료가 부족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거주권도 박탈된 것입니다.

(2) 방하나 건물

다음으로 막사가 10, 길게 늘어선 집 3, 발굴한 작은 집 2, 텐트 2개로 합계 16개소입니다. 이것은 군이 지은 곳이기에 규모도 큰 것입니다. 07-03 伊江村 眞謝입니다만, 이것은 요새 건축근무 제 6중대 진중일지에 남아있습니다. 요새건축근무대라는 것은 목수들입니다. 병사의 건축 등으로 이른 시기 19년 4월경부터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중일지를 조사하면 5월 26일경부터 위안소 건축이 시작됩니다. 眞謝의 막사에는 조선과 오키나와 여성이 20인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10.10 공습으로 불타버려, 그후 07-01동촌 西江 위로 이전하여 20인 이라는 인원수는 곱치는 것입니다.

막사는 宮古, 八重山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3) 기타

여관, 사카나야 4, 요정 7 합해 11개소입니다. 사카나야라는 것은, 오키나와 특유의 술집 비슷한 곳으로, 단순한 음주장소라기보다 사창을 두고 놀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인지도된 사카나야도 군대 전용으로 된 것입니다. 민간인의 출입은 없었다고 하니 이것도 위안소로 넣었습니다. 기타 병원 6, 면사무소(현재의 공민관, 자치회관) 6, 설탕집 1, 관사(검사정관사) 1, 회사의 기숙사 2, 兵舍 1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었는가

이상의 사실에서 당시의 공장, 매춘업자, 그것을 인정한 사회의 양상이 떠오릅니다. 모든 증언자는 위안소 앞에 (군인들이) 행렬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병사도 여성의 성을 이용하여, 관리, 통제된 모습을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는 위안소의 장소, 수만이라도 남기고 싶어서 작성하였습니다. ‘위안부’의 수에 대해서는 불명인 곳이 많고,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수입니다만, 조사의 과정에서 인원수도 들었기에 우리 나름으로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인 ‘위안부’의 수는 584명이 됩니다.

설명이 부족한 곳도 있겠습니다만, 여성의 성이 군대의 도구로 사용되어, 인간이 누더기천과 같이 취급된 사실을 서술하였습니다.

2) 자료

1. 일본군, 오키나와에

오키나와전은 태평양전쟁의 최후 일미대결로, 결과부터 말한다면, 본토결전의 전초전이라고 보다 황토(皇土)방위를 위한 사석(捨石) 작전이었습니다.

쇼와 17년 6월, 전년 12월 8일 진주만 공격으로 시작된 대미전쟁은 반년 지나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했습니다. 이후, 미군의 “개구리 뛰기” 침공과 일본군의 옥쇄가 이어졌다. 절대방위권의 결성도 의미를 잃고,奄美, 류큐열도에 제32군이 창설된 것은 쇼와 19년 3월 22일이었다.

그 이전 오키나와지역은 오키나와연대군사령부만으로 「군마한마리」로 불릴 정도로 군사적으로 무방비였다. 다만 쇼와 17년 간신히 本島, 中城灣의 津堅島와 西表島 주상에 요새중포병연대를 두고 비행장도 해군이 불시착용 정도의 것을 만들었을 뿐이었는데, 18년 여름경부터 伊江島, 오키나와 북비행장 건설이 육군항공본부에 의해 착수되었다. 이것이 대본영직할하의 제32군 창설과 함께 본격적으로 全島에서 15개인가 16개라고 하는 비행장건설을 서둘러 10만에 가까운 군대가 주류하기에 이른 것이다.

제32군사령부는 3월 27일 후쿠오카에서 편성되어, 하늘로 那覇로 향해, 4월 1일 統師를 발동했다. 당초는 비행장건설이 중심으로 4월 하순부터 병사의 운송이 시작되어, 비행장설영대, 독립혼성여단, 보병연대, 기지대, 가이쵸데이신파이(海上挺身隊) 등, 차례로 일본군의 상륙이 계속된 것이다.

2. 위안소 만들기

이렇게 오키나와에 들어온 병사는 도보로 많게는 밤중에 각진지에 도착했지만, 국민학교, 면사무소(공민관, 인보회관), 설탕집(砂糖小屋), 거둬들 각민가에 분숙한다.(별책 역사독본 □沖繩-일본군 최후의 결전-村은 어떻게 잔멸되었는가□) 오키나와는 25년이나 늦었다고는 해도 징병제도 발표된 말하자면 병사들로서는 자신들의 부채지역이다. 지금까지처럼 식민지 그대로 방약무인인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강간 등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훈계하는 사령관 渡辺중장은 4월 20일 비행장건설 앞서 요망사항 중에 「지방민중에 대한 횡포한 행동 특히 강간 약탈 행위는 결코 하지 말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沖繩방면육군작전□)

그러나 그들의 논리로는 그렇기 때문에 위안소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전 입법원의 원, 당시 那覇경찰서 경부였던 山川泰邦씨의 기술에 의하면, 오키나와 유일의 유곽, 공창지대인 쓰지에서 「그후 쓰지유곽은 군인군속이 횡행, 유녀를 둘러싼 군인동지의 다툼과 칼부림이 매일맡처럼 일어났다. 때로 시민이 등루, 그녀들이 뜯는 샴시엔 소리에 정서를 음미하고, 넘치는 잔을 서로 마시고 있으면 일본도를 들고, 여자를 내라고 횡포부리는 군복의 크고 작은 호령에 시민은 쫓겨나간 것이다」(에세이집 □群屋□)

위안소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수의 출판물로 명확하므로 그 역사적 경위와 함께 생략하고 싶다. 다만 여기서는 오키나와에서 일반인을 배제하고 군전용으로 된 성적 시설로, 오키나와전 개시전(대략 쇼와 20년 4월 이전)의 것을 대상으로 했다.

제32군 상륙 이전에는, 西表島の 탄갱, 内難의 위안소가 확인될 뿐으로, 津堅島에도 위안소가 된 식당과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 (□津堅島の 기록□의 저자.比嘉繁三郎씨 이야기)

우선, 면사무소(공민관, 인보회관), 진료소와 같은 공설기관이 이용되었다. 南風原町 津嘉山の 면사무소(35-01), 浦添市 仲間の 면사무소(25-01) 등은 전자로, 知念村의 현립 知念진료소(31-01), 那覇시 泊의 台的 瀬避병원(26-06) 등은 후자이다.(避병원이라는 것은 전염병의 격리병동의 역할을 가진 것)

그때부터 민가가옥도 점점 이용되었다. 西原町 嘉手세에는 유일하게 개업한 날이 관명된 위안소(24-02)가 있다. 이것은 주인이 하와이로 이민한 집.新玉那覇小의 저택으로 당시 西原국민학교 훈도 仲宗根英輝씨가 빌리고 있었다. 씨는 소개아동의 인술로 출발했지만 인근에 살고 있던 尻屋마카토씨에 의하면 그 출발한 다음날부터 위안소로서 사용되었다고 한다.(平良利夫씨 조사)

이와 같이 빈집이 된 집부터 적당한 크기를 가진 것을 선택, 그대로, 혹은 약간 손을 봐서 이용한 것이 많다고 한다.

그 중에는 渡嘉敷(39-01, 02)나 座間味(40-01, 02), 혹은 名護시 田井 등(9-03)과 같이 촌민의 눈을 의식해 촌에서 떨어진 집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那覇시 高良(26-12)과 같이 물을 조사해, 빌린 집인 2채 긴 가옥으로 세입자를 추방하고 사용한 곳도 있다. 또한 거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뒷방 혹은 마굿간으로 쫓아보내고, 큰방, 작은 방을 이용한 浦添시 安波茶(25-02), 金武町 屋嘉(12-01), 那覇시 久場川(26-14) 등이 있다.

몇 개인가 본격적으로 부대가 건축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요새건축근무 제6중대 진중일지(쇼와 33년 미국에서 반환)에 그 기술이 있다.

이 부대는 가장 이른 시기인 4월 22일, 名護에 상륙하여 伊江島에 있었지만, 「5월 24일 새로 위안소 건축 작업을 맡기로 한다」 「5월 26일 橋元오장이하 52명은 위안소건축을 위해 용재 벌채 운반 및 부지 정리에 종사」 「5월 27일 이하 87명은 위안소건축부지의 정비에 종사」라고 계속해서, 6월 4일에는 6, 7일의 제50 비행장대대 등의 반감휴가 때문에 임시 위안소까지 만들면서, 10일에는 지붕 잇기까지 종료했기에 이때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07-03). 또한 이 설계도는 「兵寮」라고 써있는데 한 칸 사방이 구획이 다다미 하나만 정도의 통로 양측에 20개정도 늘어서, 위안소인 것은 명확하다. 이런 종류의 것은 □'위안부' 110번□에도 증언이 있고 막사로 표시된 것으로, 伊江島 西江위(07-01), 眞謝(07-03), 具志川の 大田(14-01), 嘉手納(18-02), 宜野灣市の 嘉敷(22-06), 玉城村的 富里(30-02), 平良市 野原越(45-06), 城辺町比嘉(46-01), 上野村野原(48-01)의 것으로 완전한 군관리에 규모도 크다.

3. 위안소 경영에 협력

名護에 조사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1985년에 名護시가 모은 □이어서 말하는 전쟁□이라는 전시체험기록집이 있었다. 거기에 있는 伊波寛一씨(당시 23세) 증언에 의하면 「쇼와 18년인가 19년, 名護에 월 1회 정도, 북부의 여러 부대가 “출장위안”을 요정 一樂, 菊水, 마츠노야(松ノ屋), 山海樓등에서 개최하였다」 출장위안이라고는 말해도 이것은 보통의 등루는 아닐까, 위안소로 해야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당시 그 일각에 가보았다. 그 4개 곳이 모여있는 것이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 당시 경영자는 이미 타계했지만 지금은 달리 경영하고 있는 그 후계자가 골판지 가득 당시 서류를 보여주었다. 전시 국채증서, 예기영업허가원서, 쌀, 된장 등 배급 통장 서류이다. 거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은 「A」는 쇼와 15년에서 19년 5월 6일까지는 요정이었지만, 그 5월 6일부터 20년 3월 25일까지는 「B」여관으로, 가족은 19명, 부부와 일하는 사람이 한명 있고 남은 16명은 창기인가 작부였다는 것이다.

오키나와의 港町, 那覇는 물론, 名護, 今歸仁, 嘉手納, 与那原 등은 애매한 宿이 많고, 여관으로서, 사창들을 작부의 명목으로 두었다고 한다. 이미 사카나야라는 얼핏 보면 술집풍이지만, 실은 매춘굴인 가게도 상당히 있었다고 한다. 이들 장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개는 공창지대, 쓰지에서 흘러 들어왔지만, 그녀들은 “치이지의 여자”라고 불리웠다. 또한 요정에서는 쓰지의 축소판으로 인근에서 소녀를 사서, 일하게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당시, 선박 출입은 군관계 이외 거의 없어, 남성은 방위대로서 군에 들어가, 일반 객을 대상으로 이런 종류의 장사가 성립될 수 없었다는 상황에서 「B여관」은 군전용의 위안소로서 사용된 가능성이 높지만, 딱 잘라할 수 없다.

한편 쇼와 33년 미국공문서관에서 반환된 독립중포병 제100대대의 쇼와 19년 7월 26일에서 8월 31일 진중일지중, 「8월 26일 菊水는 출입금지, 병은 위안소를 사용할 것(위안소로의) 외출은 주에 2회로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장교와 병은 엄연히 구별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이 네 요정이 어떤 형태로 이용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관, 사카나야가 군전속으로 영업하고 있던 곳은 오키나와시의 知花(19-01), 同泡瀬(19-03), 糸満市の 여관(36-01, 02, 03) 등이다.

이외, 쓰지 여주인이나 그 부부가 카운터에 서서 여자들을 일하게 하였다고 하는 곳은 糸満의 민가(36-04), 那覇의 高良(26-12), 金武의 屋嘉(12-01) 등이 있다.

이미 이번 与那原이나 今歸仁에서 위안소가 보이지 않는 것은 위안소 “장사”가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것으로서, 특별히 의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도 추측된다.

여자를 돈으로 사는 것이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사회가 있어, 그 사회가 위안소를 지지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들이 군의 관여 없이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전용으로서 다른 손님은 받지 않거나(19-01), 말을 탄 장교가 감독한다거나, 빌린 임금으로 군에서 쌀이 왔다고 한다.(26-12)

4. 오키나와의 유곽

과거 오키나와에서는 가족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면 인신매매가 이루어졌다. 「남자는 糸満에 팔고, 여자는 쓰지에 팔고」인 것이다. 남자는 쫓겨 어업에 종사하기에 糸満을 시작으로 伊平屋島, 伊是名島, 慶良間諸島에 팔렸다. 그리고 여자는 유곽이다.

오키나와에서는 쓰지라고 하면 유곽의 대명사로 되었지만, 여기는 1672년, 당시 섭정, 羽地朝秀에 의해 부근 사창을 모아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현재 上之藏 큰길에서 西, 波之上 큰

길에서 南, 요정 松之下 부근까지 구획을 가리킨다. 현재 那霸市 사무소부근에 중국 책봉사 일행의 체재소인 天使館이 있고 이것과 사츠마(薩摩) 재변봉행소를 대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이어서 오키나와의 사족, 평민도 다니게 되었다. 쓰지를 다니는 것은 차츰차츰 금지되었지만, 「傾城証文」(매년, 사족은 류큐왕부에 유곽 다니지 하지 않는다는 証文을 냈다)는 항상 깨지게 되었다. 이 제도적 특징은 명목상, 완전히 여자의 손에 의해 경영되어 요정은 置屋, 貸座敷, 요리옥이 일체화된 것이라고 한다.

그 주인은 암마(抱親, 오키나와 사투리로 어머니를 뜻함)로 불리워, 抱子=창녀를 가진다고 하는 특유의 제도를 가지고, 「의리, 인정, 보은」이라는 불문율로 구속되었다. 또한 손님과 창녀와의 관계는 흔히 가정적이라고 말해지지만, 개인적인 결연이 중시되어, 의사 연애관계, 의사부부관계의 모양을 취했다. 적어도 그것이 바람직한 모양으로 생각되었다.

쓰지 외에 仲島, 渡地(와탄지)가 있었지만 1908년 쓰지에 합병되어, 「창기취체규칙」(1900년), 「대좌부영업취체규칙」(1910년)가 적용되어, 창녀는 감찰을 받고, 성병검사도 의무가 되었다(1897년).(이상 □辻情話史集□ 및 □沖繩대백과사전□에서)

1940년 쇼와 15년 1월 15일 류큐신보에 의하면, 「전시 인플레이션을 반영/창기와 유흥관람인 격증/게이샤 置屋, 貸座敷는 차츰 감소한다」는 추세로 那霸署 보안과의 조사로서 14년 11월 현재의 전체 현의 각 수치를 싣고 있다. 대좌부 250, 창기 845, 게이샤 置屋 200, 예기 287, 작부 255, 요리옥 109, 음식점 439, 흥행장 11, 유예인 2. 물론 이것은 정식으로 감찰을 받은 것으로 기타 많은 사창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상황은 앞에서 다루었기에 생략한다.

5. 일본군의 현실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계와 군을 연결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薩摩의 붓케몬□이라는 한권의 책이 있다. 저자는 大迫瓦, 당시 치과의사를 하면서 제32군 사령부참모, 長勇의 부관의 뜻을 받아 활동한 인물의 오키나와 전 고백서이다. 여기서 「다음 급 부관으로 長참모의 한쪽팔로서 제32군에 영향력을 행사한 무서운 세력을 가졌던 坂口대위는 군이 직접 손을 대지 않는 일을 비밀로 뒤에서 빨리 처치할 수 있는 민간인을 찾고 있었다는」 것은 쇼와 19년 6월의 일. 그는 坂口대위와 만나 「오늘부터 특무원으로서, 숨겨진 몸으로 치과의사를 계속하면서 임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鹿兒島縣 사람으로 밤에는 일심회(一心會)라는 극우단체를 이끌던 그는 거절하지 않고 차례차례 임무를 수행했다. 제일 임무는 那霸市 壺川の 赤畑에 있는 坂橋叶 별장을 영빈관으로 바꿀 것. 金森 伝助에 의해 개장되어, 대만군 北川중장의 점대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는 장교 위안을 위해 津嘉山에 偕行社를 만들 것. 이것은 민가를 개조하여 단기일에 완성했지만, 이 고용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10월 4일 그는 군용기로 날아가, 大分 別府의 錦龍館에서 요리사, 회계, 하녀(나카이) 각 1명, 게이샤 14명, 총수는 17명을 데리고 돌아오는 등등. 군은 겉으로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필요한 것은 손쉽게 손에 넣는 계략이 여기에 있다. 특무원이다.

제32군사령부의 長坂口에 대해서는 濱川昌也 □나의 沖繩戰記□에도 기재가 있어, 여기서는 군대에도 야쿠자처럼 오야봉꼬봉 관계가 있다는 등 이야기된다. 그림자로 민간인 협력자를 야쿠자처럼 조직, 군도 뒤로 그들의 편의를 봐준다. 군에서 이 담당은 대개 부관이라는 입장이다. 쓰지에 신청해 ‘위안부’가 되도록 연설하거나 ‘위안부’에게 壕를 할당하는 것도 말하자면 배후인물, 부관이다. 이 계략이 있었기에, 「‘위안부’는 민간인이 데리고 다녔다고 들었다」라는 답변이 47년 후가 되어도 이루어진 것이다.

6. 10.10 공습

지금은 10.10이라고 말하자면 那覇축제의 초점인 大綱을 끄는 날로 정착되었지만, 원래 이것은 쇼와 19년 10월 10일, 오키나와 本島를 중심으로 습격한 미군 대공습의 날을 기념한 것이다.

이것은 이른 아침 6시 40분부터 2시간 가까이, 240대에 의해 남, 중, 북 등 비행장 중심의 제일차 폭격을 시작으로, 이하 제2차 9시 20분부터 비행장과 선박의 폭격, 제3차 11시 45분부터, 那覇, 名護, 渡久地, 運天, 与那原, 泡瀬 등 항만시설. 제4차 12시 40분부터 那覇에 집중, 제5차 14시 45분부터 那覇를 시작으로 18개 市町村이 폭격되어, 오키나와의 거의 도시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당시 31세인 狩俣惠綱씨는 24선단으로 鹿兒島를 출항, 곧 잠수함에 폭격되어 가까운 무인도로 계속 헤엄쳐, 구축함에게 구조되어 25일 那覇에 상륙했지만, 이 공습으로 창고가 파괴되어 식료품이 거의 타버렸다고 한다.(증언집 □沖繩戰-통한의 날들-□) 이것을 계기로 오키나와는 대중에게도 드디어 전장화한다고 실감되었고, 군도 임전체제로 들어갔다고 한다. 곧 8월에 임명된 牛島제32군사령관으로부터 군민의 혼재금지가 시달린다.

생각해 보면, 그후 오키나와는 전시하의 불에 탄 흔적을 포함해 전장으로 돌입하는 것이다. 이 공습으로 의식주 전부를 잃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생활해왔을까. 저장된 물건은 군이 대개 확보하고 있고, 민중의 군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전멸한 쓰지에서 불에 타서 집을 잃은 여성들은 대개 ‘위안부’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10.10공습이후 생긴 위안소에는 공습으로 불타 재건한 것(07-01) 외에 새롭게 지은 것(20-02), (26-08, -10, -12, -13) (35-02, -04)도 많다. 또한 어떻게든 탄 텐트를 덮은 작은 집의 것도 있다.(26-02, -05, -11). 각각 ‘위안부’가 생긴 시기를 안다면 확실하겠지만, 그것을 몰라 폭넓게 세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폐하고 자포자기적인 기분이 만연하자, 위안소는 그 필요성이 높아져, ‘위안부’의 공급원도 커지게 되었다.

7. 조선인‘위안부’는

제32군은, 설립당초 방위군이라기 보다 작전군이라는 성격이 주어져, 대본영 직할로 되었다. 그러나 전황의 악화와 함께 황토방위를 위해 조직전환이 이루어져, 19년 5월 5일부로 서부군(큐슈를 관할)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5월 19일 서부군사령관의 오키나와 순시가 있었는데 □‘위안부’들의 태평양전쟁□(沖繩편)에서 山田盟子는 그 전후로 남서제도로 조선인군부, ‘위안부’들을 데려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위안부’들이 어떻게 오키나와에 운송되었을까 전부 군사기밀로 취급되어 명확하지 않지만, 儀同保 □慶良間戰記□에 의하면 19년 11월 6일 那覇항에 도착한 말레丸으로 60명 남짓 ‘위안부’들이 승선했다는 기록이 있다. 川田文子 □붉은 기와집□의 배봉기씨도 이 배로 오키나와에 왔다. 6월부터 상술한 듯이 10만인 병사가 상륙했기에 그들 배의 몇 척인가에 동승했던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기타 금년의 □寶石□ 5월호의 전 ‘위안부’(金谷光子)의 증언에 (「5계단의 커다란 배로 승객은 거의 여자였다. -오키나와에서 상당한 여자가 내려 - 사이공에 도착했을 때는 40인 남아있었다」라고 하므로 이야말로 “상당한” 여자들이 끌려온 것일 것이다. 또한, 宮古에는 대만에서도 운송되었다.(縣史.池村증언))

직접 취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적었던 때문인지 「조선인 ‘위안부’」를 실제 눈으로 본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兵隊가 조센삐라고 불렀다」든가 「아리랑 노래」가 들렸다」라는 것은 많았다. 헛되이 지나가버린 시간이 길어서일까 아니면 그녀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서일까 아

마 그 둘 다일 것이다. 그녀들이 있었다고 하는 곳은 거의 멀리 떨어진 섬이나, 산, 언덕 중이다. 그 중에는 10.10공습직후 辻原(26-11)인가 仲井眞(26-15), 東風平의 宜次(28-01)과 같이 무차별로 둔 것같이 보이는 곳도 마을과 떨어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이다. 慶良間 諸島(39, 40), 南北大東島(43, 44), 宮古(45, 46, 48), 石垣(51, 52)는 역시 비율이 높다. 물자 보급이 중단된 섬에서는 공동체와 떨어진 생활은 생각할 수 없다. 전면적으로 군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장 약한 입장에 놓여진 것이 이들 강제연행되어 온 「조선인‘위안부’」들이었다.

賀數가츠코

(번역 여순주 연구원)

3) 위안소에 대한 증언⁸⁰⁾

알려두기:

※ 증언 1, 20, 21, 22, 24, 27은 1992년9월 집회 이후 1994년 2월 1일까지 보완한 것이다.
(01-01) 이 번호는 아래 위안소 지도의 시정촌에 대한 일람번호

<오키나와 위안소 시정촌 번호 일람>

01	國 頭 村	28	東 風 平 町
02	大 宜 味 村	29	具 志 頭 村
03	東 村	30	玉 城 村
04	今 歸 仁 村	31	知 念 村
05	伊 平 屋 村	32	佐 敷 町
06	伊 是 名 村	33	與 那 原 町
07	伊 江 村	34	大 里 村
08	本 部 町	35	南 風 原 町
09	名 護 市	36	糸 滿 市
10	恩 納 村	37	仲 里 村
11	宜 野 座 村	38	具 志 川 村
12	金 武 町	39	渡 嘉 敷 村
13	石 川 市	40	座 間 味 村
14	具 志 川 市	41	粟 國 村
15	與 那 城 村	42	渡 名 喜 村
16	勝 連 町	43	南 大 東 村
17	讀 谷 村	44	北 大 東 村
18	嘉 手 納 町	45	平 良 市
19	沖 繩 市	46	城 邊 町
20	北 谷 町	47	下 地 町
21	北 中 城 村	48	上 野 村
22	宜 野 灣 市	49	伊 良 部 町
23	中 城 村	50	多 良 間 村
24	西 原 町	51	石 垣 市
25	浦 添 市	52	竹 富 町
26	那 覇 市	53	與 那 國 町
27	豊 見 城 村		

80) 전국여성사연구교류집회 실행위원회, [제5회 전국여성사연구교류 집회 보고집], 1994, 18-24쪽. 이하 증언은 1992년9월 집회 이후 1994년 2월 1일까지 보완한 것이다.

1. 今歸仁村天底(04-03) ※

증언자 : 吉嶺 圭二(당시 소학 2년)

칭취자 : 賀數(전화, 平成 6년, 1995)

당시 天底소학교에 해군 白石부대가 있었다. 육군도 있었지만, 식료품이든 매우 풍부했다. 위안소로 이용된 집은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으로 매우 큰 집이었다. 10.10 이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한다. 확실치는 않지만, 일본인인가 오키나와인 뿐으로 10명 정도 었다고 한다.

2. 伊江村(07-01)

石川 芳子(大正 15년생, 1926)

칭취자 : 中野

「船頭主」 저택 옆이 통학로였기에 아이들이 보러가곤 해서 모두 잘 알고 있다. 병사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보았다. 10.10 공습 후였다. 막사건물이었다.

3. 伊江村(07-02)

知念 威彦

칭취자 : 賀數(전화)

초대 촌장인 당시 우편국장을 했던 大灣忠之進씨의 집이 그랬다. 나의 어머니가 忠之進씨 사촌이어서, 알고 있었다. 당시 伊江소학교와 소개된 민간에 병사들이 살고 있었다. 부자들은 거의 본토나 今歸仁으로 소개하고, 남은 사람은 적었다. 전쟁으로 죽거나 해서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자식인 武雄은 군의로 전사했다. 이제 저택도 아무 것도 없다.

병사들이 「조센삐」라고 불려서 조선인이었구나 하고 생각한다. 군대와 함께 행동해서 모두 죽지 않았을까.

4. 本部町伊野波(08-01)

山川 宗一(大正 11년, 1922)

칭취자 : 外間, 河名, 賀數, 浦崎

나는 아내가 여기(並里家) 딸이었기에 전후(戰後) 직후부터 살게 되었다. 위안소였다고 하는 것은 저집(이웃의 빈집)이 세워지기 전 집으로 컸다고 한다. 牧志병원도 저기 집이 있었던 곳이다. 이 부근은 眞部山 平山隊의 진지였다.

5. 本部町健堅(08-02)

S.E(익명) (昭和 2년, 1927)

칭취자 : 外間, 河名, 賀數, 浦崎

기와지붕의 큰 집이었다. 그 앞 길은 우리들(여자청년단)이 만들었기에 “여자들 언덕”이라고 불리웠다. 매일, 파서 나르고 큰 일이었다. 병사들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을 분이지만 무언가 가까이 가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7살 아이들까지 미국이 뿌린 뼈라를 주워 뒤에 까지 가지고 있으면 스파이다- 정말 큰 일 이었다. 여자청년단은 간호부 강습을 하므로, 밤에 산의 본부로 모이라고 해서 가고 싶었지만, 엄마가 싱가포르 이민이었다. 그래서 가면 어떤 일을 당할까 알고 있어서 내가 가지 못하게 했다. 간 사람들,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전후는 전쟁으로 불타버려 내가 그 토지를 샀지만, 지금은 보통 밭으로 있다. 健堅분교로 가는 길의 집이 끝나는 바로 그곳이다.

6. 名護市 大南(09-01)

比嘉 親平

칭취자 : 賀數(전화)

지금 大南급유소 있는 곳이다. 당시는 기와지붕의 커다란 민가였다. 「아나파한의 여왕」이라는 여자가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南榮樓라고 하는 것은, 전후 5년 정도였지만, 훗날의 이야기이다.

7.

砂川 久子(昭和 3년, 1928)

칭취자 : 河名(전화)

나는 那覇에 살았지만, 소개로 山原으로 가서 거기서 보았다. 쇼와 19년 12월인가 다음해 1월경, 大兼久南區에 있던 名護기념운동장(전후 琉米문화회관이 되었다가 현재 名護 시청)의 경사를 향해 빨간 기와의 커다란 민가가 있었다. 문에 「宇土부대」 간판이 있고, 2~3인의 조 선인 '위안부'가 있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여기는 다니지 마라」고 듣고, 다른 길을 통학로로 했다.

8. 名護市 田井等(09-03)

平良 松善

칭취자 : 賀數(전화)

나의 삼촌(土地正義) 집이었다. 마을과 떨어져 밭 가운데 한 칸만 있어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삼촌이 함께 살았다. 당시 나는 소학교 5년생이었지만 5, 6인씩 열을 지었던 것을 보았다.

羽地소학교에 군대가 있었다.

지금은 이제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다.

9. 金武町 屋嘉(12-01)

安里惠美子(昭和 7년, 1932)

칭취자 : 賀數(전화)

내 두 살 위 친구 我如古秀씨 집이 그랬다. 요전에 만나 막 이야기했다. 嘉藝소학교에 石부대인가 山부대인가가 있어 병사들이 계속 인가 구석까지도 줄을 서 있었다.秀씨가 그 구석에서 金平糖을 찾기에 어디에 있는가 들은 적이 있다. 그렇게 하니까 마루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정말이라고 믿고. 그래서 마루밑에 들어갔다. 여자가 붉은 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10. 金武町 屋賀 (12-01)

宮城 秀

칭취자 : 賀數, 河名

남자인데도 임신한 걸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뚱뚱한 오키나와인이 집을 빌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큰방, 작은방을 모포로 3개로 해서 사용했다. 오키나와 여인이 3명이다.

우리들은 엄마와 동생과 3명이었지만, 뒤에서 생활했다. 식사는 어디서인지 가지고 오T다.浴衣를 입고 있었기에 확실히 여름이었다.

(미국이) 상륙할 때는 다른 嘉納씨라는 사람이 빌렸기에 1월경까지일 것이다. 문에서 30미터도 줄서 있었으니까.

그런 여자도 妙子라고 하는 사람을 전후 石川에서 만났지만 모르는체 했다.

11. 沖繩市 知花(19-01)

中村哲次郎(大正 3년, 1914)

칭취자 : 賀數, 河名

나는 당시 농림 기수로 여기(知花)에서 具志川까지 자전거로 통근했다. 美里소학교에 石부대가 있어, 嘉手納 비행장 건설을 하고 있었다. 일하면서 야채 공출계를 하고 있던 부대의 인원수 등 서류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미국이 그런 것을 별도로 이용할 리도 없어 상륙 때 모두 태우고 말았다. 위안소는 新城間라고 해서 이전부터 2, 3명 여자를 두고 사카나야를 하고 있던 곳이다. 이 바로 앞이다. 나도 마시러 들어간 적이 있지만, 작은 곳이다. 거기가 부대가 왔으므로 군전용이 되어 민간은 들어갈 수 없었다.

여기와 동일한 곳이 泡瀬의 비줄 옆에 있었다.

※ 中村씨는 자신의 전쟁.포로체험을 정리한 口鐵棚의 群像口을 기증해주었다.

12. 北中城村 仲順(21-01)

大田요시코(大正 13년, 1924)

칭취자 : 河名(전화)

당시 남편은 두 번째 출정중으로 나는 조모와 동생 셋이서 살고 있었다. 내 집은 위안소로 된 大順堂병원 근처에 있어 군에게 큰방을 공출당해, 鹿兒島와 오키나와의 병사들이 5명 정도 묵었다. 우리들은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에 있어서 군인들 목소리가 잘 들렸다. 자주 「꽤 순서가 돌아오지 않으니 계속 줄서고 있다」고 鹿兒島 병사들이 말했다. ‘위안부’들이 몇 명 있었는데 몰라도, 창녀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는 아이를 가진 여성도 있었다. 인원수는 5, 6인 정도이지 않았을까.

소학교가 石부대 병사로, 클럽(지금 말하는 공민관)이 취사장으로 되었다. 위안소는 여름 경부터 있었고 미군 상륙 즈음에는 없어졌다.

13.

Y. H(익명)(大正 11년, 1922)

칭취자 : 河名(전화)

나는 결혼해서 那覇로 와서, 10.10공습 후, 친정 仲順으로 돌아가, 國頭로 강제소개되었기에 거의 보지 못했다. 大順堂병원은 지금은 없지만, 당시 두사람의 의사가 있었지만 원장 선생만 있었다. 甥 선생은 남방에 군의로 가서 부재였다. 병원이 적었기 때문에 勝連이나 与那城에서도 왔다.

위안소가 된 병원은 입구가 칸막이 되어 있었다. 환자용과 병사용으로. 위안소는 입원실을 사용했다고 한다.

14. 西原町 小那覇(24-03)

H.M(익명) (昭和 9년, 1934)

칭취자 : 河名, 賀數

大久保병원이 야전병원에 접수되었다. 그것은 지금 전나무 보육원 방향에 있는 건물이지만, 鹿兒島에서 기류민이었던 의사는 군의로 끌려갔기에 빈 집이 되었다. 취사하는 집이 가까이 2, 3곳 있었다. 나는 아직 10살정도였기에 아무것도 몰랐다. 위안소라는 것은 없었고 생각한다.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듣게 되면 무언가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메사(집 이름)에 坪井소위와 蓮江중위, 군의가 있었다.

15.

H. T(익명)(昭和13년, 1938)

칭취자 : 河名, 賀數

언니는 근처 사람에게 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하지 말아요. 나는 위안소는 여기(구 大久保 병원)인가 2개소 정도 있었고 아이들이 샷쿠(콘돔)을 주워서 풍선으로 불고 놀아서 부모에게 혼났다고 말했다.

16. 那覇市 久場川(26-14)

大城正榮(昭和 9년, 1934)

칭취자 : 賀數(전화)

盛光寺 앞 언덕 위 부근에 현재는 빈터가 되어 있는 곳이 糸洲씨라는 집이었다. 자식은 본토로 갔고, 할머니와 딸만 살던 집이었다. 집이름은 大糸洲라고 했다.

4월 28일 실지확인(中野, 賀數, 浦崎), 虎頭山の 일부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위안소를 물으니 곧 가르쳐주었다.

17. 那覇市 古良 (26-12)

具志幸雄(古良區구장)

칭취자 : 河名, 浦崎, 賀數

약간 연상의 친구에게 들었다. M씨의 집이 취해져 위안소가 되었다고. 곧 바로 인근 長嶺씨가 건강하니까 물어보면 어떨까요.

M씨에게 전화로 물으니, 군대가 취하여 위안소가 되었다고 증언했지만, 그 이상은 거절했다.

18.

長嶺 喜代 (大正 3년, 1914)

칭취자 : 賀數, 河名

거기는 우리 집의 빌린 집이었다. 같은 부지에 나의 집도 한동 더 있고, M씨의 약국과 山城씨라는 床屋이 빌렸다. 거기를 추출하고 兵隊가 집 내부를 바꾸었다.

宮城과의 경계라기보다는 물이 맑아서 선택되지 않았을까. 처음에 두 개 있던 우물물을 조사하여, 여기로 하자고 말했으니까. 그리고 커다란 집이었다. 10.10 공습의 후였다.

일요일에는 계속 늘어서, 장교가, 말에 탄 채 「좋아, 다음, 좋아, 다음」하고 지도하고 있었다. 여자들은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우리가 아직 어렸을 것이다, 무서워서 얼굴에 떡을 칠하고, 항상 아이를 업고 있었다.

그것과 콘돔인가, 그것이 저편에 한가득 흩어져, 아이들이 놀면서 더럽혔다.

집세는 받지 못했다. 다만 쌀인가 가져다줬기에 쌀은 자유로 먹었다.

그리고 여기는 해군 上川부대가 있었지만, 바로 이 방향의 安次嶺씨의 집은 육군 위안소였다. 그것이야말로 잘 모르겠지만 여기와 같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19. 那覇市 仲井眞(26-15)

嘉數 初子(大正 10년, 1921)

칭취자 : 賀數, 河名, 浦崎

國場に 친정이 있었는데 그당시 國場은 커다란 철도역이 있어, 那覇항에서 와서 여기서 与那原행이 나 糸滿행으로 갈라졌다. 그러므로 山이다 石이다 曉선박부대라는 여러 부대가 많이 있었다.

우리집은 군의 취사장이 되어, 병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仲井眞의 공민관에 조센삐가 있다고 했다. 곧 인근에 커다란 집도 있으니깐 그것도 사용했는지도 모르지만, 공민관에서 놀지만 말고 미국에게 대포 먹지 말라고 조롱하곤 했다. 「순번 기다리기가 큰일이다」라고 이야기했다.

3명의 조선인이 國場에 있었다고 I씨에게서 들었다(山内)

20. 那覇市 首里平良町(26-16) ※

증언자 : 高江洲敬勝(昭和 6년생, 1931)

칭취자 : 賀數, 河名(平成 6년, 1995)

현재 실무학원이 있는 곳은 首里 제3소학교로 당시는 武부대가 들어왔다.

아버지는 소집으로 어머니는 동생이 아직 어려서 집에서 한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나갔다. 지금 國場組화약부가 있는 곳에 탄약고 굴파기 등을 했다. 작업에 나갈 때 병사들과 함께 들은 이야기로 조센이라는 것이다.

장소는 津嘉山小라고 했고 모자 원료 섬유(뿔라더라?)를 말리는 곳 옆의 건물에 창이 작아서 커다란 창고같았다. 지나가면서 잘 보았다. 강이 가까워서 가솔린 스텐드 앞, 슬레이트 공장이 있는 곳이다.

(소유자 津嘉山씨는 장교클럽에 빌려주었다고 함)

21. 那覇市 垣花(26-17) ※

증언자 : 上江洲桂子

칭취자 : 賀數, 小松(平成 5년, 1995)

우친다 가까이였다. 모자회사 건물이다. 방에 번호를 붙여 일요일에는 兵隊가 출서 있었다. 19년 여름, 7월에는 이미 있었다. 10.10이후에도 새로운 明治橋 가까이에 있었다. 조센삐라고 불렀다.

22. 那覇市 安次嶺(26-18) ※

증언자 : 西川우메(大正 15년생, 1926)

칭취자 : 賀數(平成 6년, 1996)

지금은 군용지가 되었지만, 安次嶺이다. 瀬長씨라고 해도 커다란 집이었다. 해군이다. 나는 오키나와현 의사회부속 간호부양성소 1기생으로 垣花 大城산부인과로 출근했었는데 10.10 공습으로 타버리고 말아서 선생은 군으로 가버렸기에 해군 沖根司-오키나와 근거리 사령부 의무부에 간호부로서 일했는데 아이가 있어서 兵隊로서 나이먹은 久松軍曹가 콘돔과 소독용 크림을 취급했다.

23. 東風平町 宜次(28-01)

石川 츠루(大正 13년, 1924)

칭취자 : 賀數, 河名, 金子

나는 浦添 태생이지만, 결혼해서 昭和 17년 宜次로 왔다. 부락에서 떨어져서 살고 있었다.

위안소는 國場에서 와서 東風平과 大리로 갈라졌을 때, 지금 급유소가 있다, 그 방향에 知名씨 집이 있는데 그 뒤 두 번째 집이었다. 首里的 사람이 살고 있어 당시 벌써 이사간 후였다. 뒤에는 밭뿐이다. 따로 이었고 그다지 크지 않았다. 몇 명 있는지 본 적은 없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긴 것은 10.10 공습 후이다. 2월까지는 있었지만. 5월에 具志頭로 도피했을 때에는 이미 없었다. 군과 함께 도망갔는지는 모른다.

저녁 아리랑 노래가 들리거나, 이상한 액센트의 일본어가 들렸다. 조센삐라고 兵隊가 말했다.

가까이에 조선인 군부도 있고 가족혁대로 심하게 맞은 것을 보았다. 그래도 친절한 군부가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 파인애플캔을 준 적도 있다.

24. 大里村 目取間(34-01) ※

糸數 良子(昭和 4년생, 1929)

칭취자 : 賀數(平成 6년, 1995)

19년 7월, 武부대가 오자 동시에 우리집이 위안소로 접수되어, 내부는 개장되었다. 간단하게 비스듬한 통나무에 판자를 대는 것으로 벽을 만들었을 뿐이다. 집세는 군에서 월 25엔 받았다고 한다.

‘위안부’는 쓰지 사람으로 전부 15, 6인이었을 것이다. 때로 근처에 있던 내가 집에도 갔기에 알고 있다. 2층은 연회장이 되었다고 하고 장교들이 큰 소동을 벌였다. 종이가 붙어있어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兵隊, 4시부터 9시까지는 하사관, 그 이후는 장교라고 쓰여있다. 당시는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먹는 것 등이 사람들은 운택했다. 건너편 이발점도 접수되어 거기는 검사하는 곳으로 일주일에 한번인가, 군의가 왔다. 병이 발견되면 那覇 병원으로 보낸다고 것이었다.

위안소 주위는 높은 담이 둘러쳐졌지만, 태풍으로 그 담이 넘어져 兵隊가 줄서 있는 것이 보이게 되었다.

25. 糸滿市 糸滿(36-01~04)

新城 우토(大正 7년, 1918)

칭취자 : 賀數, 河名

전쟁 전 우리는 돼지를 키웠으므로 부대에 잔반을 가지러 갔다. 武부대의 때는 고기, 생선, 달걀 등 있어 좋았지만, 山부대가 되고부터 양도 적고 좋지 않아진 것을 기억하고 있다.

上原의 집은 친척 K 집 건너편으로 거기는 그 당시 대만으로 소개했다. 모두 쓰지의 여자로 달아둬서 더웠을 것이다. 자주 창을 열고 이렇게 해서 기모노에 바람을 통하게 했다.

거기 주인은 M 아주머니로 알지 못했다. 전에 쓰지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여자는 6, 7인 정도 있었지만 전쟁이 되자 언제인가 없어졌다.

兵隊가 일요일이 되면 계속 늘어서서 더우니까 위는 벗고, 아주 싫었다. 샷쿠라던가 그것이 이 주변에 흩어져 더러웠다.

이외에도, 石川여관, 國吉여관, 糸滿여관이 있어 역시 兵隊들이 늘어서 있었다. 여자를 둔 술집이었다.

26.

上原 初枝(昭和 4년생, 1929)

칭취자 : 賀數, 河名

이 주변에 있던 사람은 모두 봤다. 나는 10월 공습 직후 神谷의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神谷의원에 여자들이 왔다. 뒤에는 모두 말라서 비틀비틀하고 몇사람이나 의사에게 다녔다. 사카나야는 평소에 여자를 두고 남자를 즐겁게 하는 곳. 옛날에는 사탕수수 돈이 들어오면 남자는 놀러갔다.

27. 糸滿市 字糸滿(36-04) ※

上間 幸弘(昭和 7년생, 1932)

칭취자 : 賀數(平成 6년, 1995)

당시는 아직 국민학교 생도였지만 소년의용대로 군인처럼 견게 하고 잇은 물건을 가지러 위안소에 간 적도 있었다. 糸滿에는 第一, 第二 위안소에 번호가 붙여져 第五 위안소까지 있었다. 國吉여관인가는 세 번째인가 네번째로 제5는 糸滿이어도 眞榮里 쪽의 린던가마 근처였다.

28. 糸滿市 南波平(36-05)

大城 順子(明治 36년, 1903)

칭취자 : 賀數(전화)

친정이 있는 부락이었다. 저 책은 손자들에게 전쟁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썼지만, 조금만 만들었다.

위안소는 공민관 옆 부락에도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부자 집을 사용했다. 몇 명 있었는데 풀랐다. 오키나와인이었다. 쓰지의 창녀였다. 兵隊들이 즐서 있었다.

29. 玉城村 富里(30-01, 02)

神里 세츠코(大正 2년, 1913)

칭취자 : 賀數, 河名, 浦崎, 仲村

아래 십자로 부근에 위안소가 있었다. 내 집에는 장교가 머물고 있었는데, 여자가 와 있었다. 오키나와인으로 나는 이야기한 적 없어도 옆 방에서 이야기하였다. 「양밭쥬」(북부, 山原 사람)이다라고 들은 적이 있다.

내 집은 만주사변으로 주인이 전사해서 자식과 할머니와 3인이었다. 식사는 아래를 취사장로 만들어 거기부터 운반해오거나 건너편에서 먹기도 하지 않았을까.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집에 있었던 것은 확실히 “야나기” 중위라고 했지만 아주 짧은 기간이었다. 반달 정도.

집에는 커다란 벚나무가 있어서 두세명씩 벚꽃을 보러 왔다. (‘위안부’들이) 기모노를 입고, 이상한 말을 했다. 그 외는 본 적이 없다.

그 당시 28살이었다. 내 자신의 생활로 바빠서 주의해서 보지 않았다.

30. 玉城村 富里(30-01, 02)

神里 세츠코(大正 2년, 1913)

칭취자 : 賀數, 山内, 三宅

昭和 16년 3월에 짓기 시작해 7월에 완성되었다. 2층 건물로 20평씩 40평 집이었다. 1층은 쌀 배급소로, 지하도 창고로 사용했다. 2층은 다다미 8장 2칸으로 4장반, 주위에 가장자리가 있었고 뒤에 반침이 있었다.

남편은 17년에 출정했다. 나는 常會에서 다만 소개하시오라고 했을 뿐이었기에 갈 계획은 없었지만 宮里 순사가 전쟁이 났다고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어서 아이(8살, 6살, 4살, 한 살)을 데리고 구마모토(熊本)로 소개했다. 1개월 늦어 조카며느리가 역시 소개해와서 「너의 집은 위안소가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2층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21년 11월에 돌아왔는데 이미 아무 것도 없었다. 그 부락은 지상전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友軍이 불태웠다는 사람도 있다.

31. 城辺町 下北(46-03)

砂川 次郎(明治 41년, 1908)

요시(明治 43년, 1910)

칭취자 : 奥浜 幸子

野原嶺 뒷편 부근, 현재는 사탕수수밭이다. 빨간 기와지붕의 위안소였다. 언제 세워졌는지 언제 철거되었는지 모른다.

조선여성들 12~15명 정도 있었다. 나이는 15~20세 어린 여자였다. 兵隊들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여성들의 허드렛일을 하고 있던 것은 일본이름의 조선인 남성이었다.

이웃집의 아기를 자신들의 방에 데려와 봐 주곤 해서 부근 주민과 사이가 좋았다.

번역 여순주

4)

<군위안소 분포표>

여기에는 군위안소 분포표가 들어갑니다. 가로쓰기로 되어있어서 같이 못올렸습니다.

7페이지정도의 표가 들어갑니다.

5) 제1분과회의 좌담회⁸¹⁾

사회 한국에서 개최된, 「중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아시아연대회」에 참가한 高里鈴代씨, 이번 「위안소 지도」에 대한 반응을 들려주세요.

高里(沖繩) 지난 8월 10일, 11일 서울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시점에서 정리된 오키나와 「위안소」수를 보고했습니다. 오키나와의 「위안소」는 전장에서 「위안소」라는 것은 공통 인식으로 일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확인된 것은 「중군‘위안부’」라고 하지만 이것은 「강제」라고 하는 말을 확실히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과 성적 봉사가 아니고 성노예화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신고한 여성들에 대한 배려, 특히 오키나와에서 이런 회의가 있는 것이 보도되면 몸을 움추리는 여성들이 많을 것이라는 현실을 시점에 넣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회 오키나와전이 한창 일 때 강제중군‘위안부’를 만난 체험을 가진 분 계십니까?

安里(沖繩) 오키나와전에서 살아남아 현재 전쟁체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45년 3월 11일 이후 6월 23일 포로가 되기까지 糸滿 근처 방공호에 피난했습니다. 그 호는 한편은 민간인이 한편은 군대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쓰지에서 일하던 여성이 있어서 나는 굶주린 아이를 위해 누룽지라도 좋으니까 뭐라도 달라고 부탁하자, 군대용으로 조리한 것에서 주먹밥을 4개나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취사부와 같은 일을 했지만 포로였는가 어떤가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上江洲(沖繩) 오키나와에는 쓰지나 사카나야가 있어 거기 여성들을 군대에 데려가, 兵隊 상대를 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습으로 불에 타 나온 간호부를 부대로 데려가 18세에 아이를 낳기도 했다. 태어난 딸은 불행한 결혼을 했습니다. 일본군은 2대 3대의 불행만을 남긴 채 철수했습니다. 그 부대 대장이 久米島 주민학살에 관련된 대장이었습니다. 나도 살해될 예정에 있었던 것을 살아남았습니다만 이런 일을 알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高橋(北海道) 나는 8년전에 한국 8개 대학에 초청되어 여성사 강연에 참가했습니다. 그때 부산일보와 부산대학 사람과 교회 목사가 전 ‘위안부’들을 소개하는 일로 매우 번두리인 장소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6명 중 2명은 61세로 돌아가셨습니다. 4명 중 2명은 누우면 방한 칸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돌아왔어도 가족제도 중에 가문의 수치라고 해서 이중의 차별을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 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둘러쌓여 「당신은, 그녀들에게 무엇을 하는가, 당신들이 사죄한다고 그녀들의 청춘이 돌아오는가」라고 들었다.

나는 여성사는 인권의 문제이므로 그것을 배려하면서 쓰지 않으면 안되니까, 청취를 하면서도 쓰고 싶은 것을 쓸 수 없다. 그러한 가운데 모두 잘 조사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사람과 재회할 수 있었고 1년간 오키나와, 오키나와, 오키나와라고 떠들어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81) 전국여성사연구교류집회 실행위원회, [제5회 전국여성사연구교류 집회 보고집], 1994, 32-35쪽

糸數(沖繩) 나는 모래 전적지와 기지를 안내할 멤버의 한사람입니다. 관광버스 가이드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지도를 보고 내 설명이 아무래도 과학적이지 않았다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내 출신지인 讀谷村은 47년 전 처음 미군이 상륙한 땅으로 현재도 기지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일본군의 비행장이 있어 군인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 지도를 보고 이곳 만으로도 많은 위안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내가 알고 있던 屋號의 집이 위안소가 된 것에 놀랐습니다. 과거에 무엇이 있었는가 잘 조사해서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반성과 함께 통감하고 있습니다.

村上(沖繩) 지방에 있는 주민이 가까이 있는 것을 조사한다. 伊藤선생도 강연 중에 말씀 하셨지만, 위안소 일은 나도 신경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키나와전 체험기록 중에 나오는 것은 방관자적인 기술입니다. 「저기에는 조센삐가 있었다」 라든가 「위안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몇 개라도 있었다. 오키나와전을 체험한 사람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것을 과학적으로 확실히 조사하여 모아 보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고싶다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여성사 하는 모두가 한다고 해서 협력을 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121개소라는 숫자를 고쳐 생각하고 싶습니다. 후생성이 오키나와에는 11개소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다만 浦添市史를 기초로 한 것 뿐으로 전국적으로 157개소. 오키나와 만으로 121개소라니, 후생성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조금 전에 계산을 해봤지만 대개 조센삐라고 불린 사람들이 550명 정도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는 10만의 兵隊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당초 여성 1인에 兵隊 30명에서 40명이라고 형태로 조선인 여성을 사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도 121개소라는 것은 아직 4분의 1인가 3분의 1 숫자라고 예상할 수 있을뿐입니다. 위안소 일도 '위안부'의 일도 좀 더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남자의 측, 兵隊의 측에서만 말해져왔지만 전장 중에 죽은 것은 아이들이고, 노인이라는 것은 오키나와전에서 우선 가르칠 일입니다. 피해를 직접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확실히 써서 남겨야 한 일이 오늘 시작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岩田(岐阜) 보고자에게 조선인 '위안부'의 수 계산의 방식을 다시 한번 듣고싶은 것, 성적 봉사 말을 무엇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지, 그리고 하나 더 증언자를 일괄해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충하여 묻고 싶습니다. 강제연행된 여성은 죄가 없어 안됐지만, 원래 매춘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하고 감상을 위해 듣고 싶습니다.

高里 군을 위해 성적 서비스 다시 말해 성적인 서비스를 했다, 위안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의 노예제랄까, 노예화라는 식으로 영어의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채택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소하고 있는 재판에는 종군'위안부'가 아니고 군대'위안부'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침묵 중에 신고하셨지만, 증언한 용기를 헛되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중 10명 중에서 2명은 익명으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금후 그런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지만, 거기에도 정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에게 들어가도 일괄하지는 말도록. 그 사람들의 청취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도 여러 기관이나 장에서 문제로 하는 중에도 확실하게 인권, 개인의 자유의지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부가하고 싶습니다.

賀數 아까 어디까지나 ‘나열하여“ 수치의 중복을 피하지 않고 대략적인 숫자로 하였습니
다.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출신지 불명 29
 조선인만 41 인원수 대략 266인(26개소)
 오키나와인만 38 “ 188인(25개소)
 본토인만 4 “ 34인(2개소)
 오키나와+ 조선 5 “ 49인(4개소)

본토 + 조선 2
 본토 + 오키나와 1
 본토 + 조선 + 오키나와 1
 계 121

이 세 개 곳은 특수한 케이스로 계산에서 뺐다.

조선인 ‘위안부’수는

알고 있는 곳의 평균
 $= 266 \div 26 = 10.23(\text{인/장소})$

불명인 곳은 $41-26=15$ 이므로 $15 \times 10.23=153$ 인이 불명인 곳의 ‘위안부’수가 된다

오키나와 + 조선은 $49 \div 4 = 12.25$ $49+12=61$ $61 \times 0.495=30$ 인

원래 출신지가 불명인 29개 곳은 $537 \div 57 \times 29 \times 0.495 = 135.2$ 인므로

(알고 있는 것만을 숫자로 하면 537은 전체 ‘위안부’ 수, 57은 위안소수, 0.495는 전체 ‘위
안부’수중에서 조선인 ‘위안부’의 비율로 $266 \div 537=0.495$)

대략 계산만으로 상당히 철저하지 못하지만, 모두 이래저래 시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名護(총승) 국회의 2분의 1 이상이 여성으로 점령되면 모든 세상이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계속 생각해온 남자입니다. 나는 어떤 글 중에 남자란 선거 포스터 붙이는 것 밖에 할 수 없다고 썼지만, 오키나와에 연결시켜 말한다면, 오키나와 전후 본토도 그렇지만, 그 시기 어떻게 여성은 남성이 보기에 변하지 않았을까 부정부패가 이어지고 있는데 끝이 없습니다. 여성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결국 남성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아 얻는다면 모든 전쟁은 없어질까 - 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여성은 곤란합니다만. 요약하면 남성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아 버리자. 세상에서 전쟁을 없애는 것은 그때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회 전후 전쟁책임을 추구하지 않은 채 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키나와는 어떻습니까

山内(증언자) 전쟁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한사람의 ‘위안부’에 40명의 병사의 성 상대를 시키는 계산을 한 머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오키나와전에서 지식계급의 사람들이 전쟁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鐵血勤皇隊라든가, 姫百合부대, 白梅, 제3고녀였다. 오키나와에서는 데이키야라고 했지만.

지금 九辯連(큐슈변호사연합회)에서 ‘위안부’, 군부에 한하지 않고 연행문제로서 생각된다. 당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키나와인이 어떤 대응을 했는가, 관계된 문제이지만, 국민학교라든가 심상소학교 초등과를 나온 사람들은 감자를 나누어주거나 손을 뻗쳐 도와주었다. 지식층은 이 사람들을 피했다. 무엇을 위해 지식을 가지는 것인가, 우리들이 여러 조사활동을 했을 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것을 활용하는가 주체성이 필요하다.

사회 그러면 마지막으로 반전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조연자 中村선생에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中村 나는 大正 초기 태어났으므로 2년 지나면 여든살이 됩니다. 이 시기는 1차 세계대전부터 태평양전쟁까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시 중 나도 군국교사가 되었습니다. 가르친 많은 제자들이 姫百合간호대가 되거나, 鐵血勤皇隊가 되어, 白梅, 제3고녀, 昭和여학교, 積徳고녀에 가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 사실의 반성에서 전후 이런 반전평화운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沖繩戰-피트운동》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반전평화 사상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내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두 한사람 한사람의 발언이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愛媛부터 천황제에 대한 시비(是非), 걸프전과 오키나와 현민, 6.23 위령의 날 존속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자료와 함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사정으로 토론을 할 수 없는 것을 사죄드립니다. 양쪽 모두 뿌리는 하나이므로 지금부터 활동에 활용해 주세요.

사회 浦崎成子

기록 小松瑠美子

조연자 中村文子

번역 여순주

부록 4 배봉기할머니 연표 및 관련자료

1) 배봉기 할머니 연표

- 1914년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에서 2녀 1남 중 둘째 딸로 출생.
아버지는 머슴, 어머니는 품팔이. 외가에서 태어나 자람
- 1920년 만 여섯 살 엄마가 도망간 후 백부집으로 옴
- 1921년 만 일곱 살 민며느리로 들어갔다 며칠만에 쫓겨남
- 1922년 만 여덟 살 두 번째로 민며느리로 들어가서 반년정도 지냄
- 1923년 만 아홉 살 아버지에게 되돌아갔다 남의 집 고용살이로 보내져 9년을 지냄
열네살부터는 일본사람 집에 일을 하러가기도 함
- 1931년 만 열일곱살 첫 번째 결혼 남편은 서른이 넘음
- 1932년 만 열여덟살 부자집 첩하는 친구가 꼬여서 함께 도망나와 서산 숙박소에서 친구는
노주인의 첩이 되고 봉기씨는 28살 이혼 남과 두 번째 결혼
- 1933년 만 열아홉살 두 번째 결혼을 스스로 매듭짓고 떠남. 여기저기 방랑하다 홍남으로
(김현옥씨가 이 시기 만주에까지 가서 방랑을 했다는 증언 들음)
- 1942년 만 스물여덟살 정신대 훈련을 받음
- 1943년 만 스물아홉살 홍남에서 여자소개인을 만남
- 1944년 만 서른살 경성 여자 소개인 집으로 감. 3월에 부산으로 가서 여관에 투숙
5월 경 부산을 떠나 일본 모지 도착. 반년 후 시모노세키에서 50여명이
가고시마로 옮김. 배를 타고 출항하려다 10.10 공습으로 대기.
11월 3일 배를 타고 떠나 오키나와 나하항에 6일 도착. 나하에 20명, 다이토오
제도에 10명, 게라마제도 도카시키키, 자마미, 아카섬에 각 7명씩 배치
됨. 배할머니는 도카시키키섬으로 배치되어 빨간 기와집으로 들어감
- 1945년 만 서른한살 위안소에서 아키코라는 이름을 씀.
3월 23일 빨간 기와집 폭격당함. 동료 여성 한 명(하루코) 죽고 두명(밋짱과
아이코) 부상. 미군 상륙
8월 26일 일본군 무장해제되고 항복. 민간인 수용소에 수용.
수용소를 나와서 무국적자로 여기저기 여러 술집을 전전
- 1975년 만 예순한살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면서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이 의무
가 됨. 불법재류자로 적발될까 두려워 등록수속을 시작
10월 22일 高知신문에 「전시중 오키나와에 연행된 한국여성 30년만에 □자유□를
손에 불행한 과거를 고려 법무성 특별재류를 허가」 기사 실림
기사를 보고 조충련계 김주섭, 김현옥 부부가 찾아가 만남. 배할머니

는 결벽증, 인간기피증, 두통, 신경통으로 시달림

1977년 만 예순세살

4월 23일 □조선신보□에 「일제시기 오키나와에 끌려온 한 할머니의 피의 고발」
기사 실림

12월 5일 작가 가와다 후미코를 만남(10년을 어려운 작업을 하여 1987년 □붉은
기와집□ 1987년 출간

1980년 만 예순여섯살 윤정옥 당시 이화여대 교수와 만남

1988년 만 칠십네살 윤정옥 교수가 두 번째로 찾아갔으나 거절당함

1991년 만 칠십칠세

10월 18일경 사망. 말년에 「일본에게 사죄와 보상을 받고싶다, 원수를 갚아달라」
고 하심. 할머니 유골은 인근 절에 안치되었다가 한국의 친척에게
반환되어 1997년 11월 충남 아산 선산에 안치됨

12월 6일 오키나와에서 추도회 열림(김학순 할머니도 부조하심)

배할머니 유품은 1997년 12월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에 기증되었다.

1992년 3월 1일

배할머니가 있었던 도카시키섬에서 위령제 열림

여순주 작성

2) 배봉기 할머니 관련 자료 목록

- 「원한의 섬 오끼나와 -일제의 조선동포들에 대한 학대와 학살의 기록(1-9)-」, □조선신보□
1972. 10. 14 ~ 12. 21(계재)
- 「일제시기 오끼나와에 끌려온 한 할머니의 피의 고발」, □조선신보□, 1977. 4. 23(자료 1)
- 김현옥, 「강제연행 역사적 사실 밝히고 새 관계 이루어야」, □조선신보□, 1992. 3. 2(자료 2)
- 강명희, 「從軍慰安婦」にされた裴奉奇さんの生涯 - 統一祖國を夢見た晩年」
川田文子, □赤瓦の家□, 筑摩書房, 1987(번역본 □빨간 기와집 - 조선에서 온 중군‘위안부’
이야기□, 매일경제신문사, 1992)
- _____, □皇軍慰安所の女たち□, 筑摩書房, 1993(제1장 봉기씨가 돌아가셨다)
- 石飛仁, 「故郷の山河をいま一度見たい!」, □女性自身□ No. 822, 1985
- 加藤賢治, 「あれから45年 生きて故郷へ歸りたい!」, □女性自身□ No. 1012, 1989
- 「軍夫」, 「慰安婦」の實態を調査, 沖繩 タイムス, 1991 5. 23(자료 3)
- 「浦添市仲間の慰安所 - 朝鮮人慰安婦が11人」, 沖繩 タイムス, 1991 12. 3(자료 4)
- 「奉奇さん - 戦後も故郷へ歸らず」, 沖繩 タイムス, 1991 12. 4
- 「奉奇さん ② - 朝鮮料理を食べる」, 沖繩 タイムス, 1991 12. 5
- 「元軍夫 慰安婦問題 縣内でも新たな動き」, 沖繩 タイムス, 1992 1. 20(자료 5)
- 「ハルモニの遺言 元「從軍慰安婦」ペ.ポンギさんの戦後 ① ~ ⑥」, 1998 6. 18 ~ 6. 23
- 「最前線で食料もなく/過酷な處遇浮き割り/沖繩連行の朝鮮人軍夫」, 琉球新報, 1999 6. 22
- 「消えぬ恨ハンの記憶 沖繩戦の朝鮮人/阿嘉島に強制連行された/ 姜仁昌さん」, 琉球新報, 1999
6. 26
- 「消えぬ恨ハンの記憶 沖繩戦の朝鮮人/將校専用「慰安婦」に/戦後生きるため「こじき」装う/臺灣
に強制連行された/李貴分さん」, 琉球新報, 1999 6. 27
- 「消えぬ恨ハンの記憶 沖繩戦の朝鮮人/日本の加害責任を問う/「從軍慰安婦」の真相を究明/女性
國際戦犯法廷を開く/尹貞玉さん」, 琉球新報, 1999 6. 29
- 「消えぬ恨ハンの記憶 沖繩戦の朝鮮人/ナムムの家/人間回復と記録の場「從軍慰安婦」らが生活/
今も心の痛み抱き續ける」, 琉球新報, 1999 6. 30
- 「消えぬ恨ハンの記憶 沖繩戦の朝鮮人/生死確認と補償求める/日本政府へ不信感根強い/韓國
2万5000人の遺族で組織/太平洋戦争犠牲者遺族會」, 琉球新報, 1999 7. 2
- 윤정옥, 「정신대 발자취를 찾아서」, 특별연재 □한겨레신문□ 1990. 1.
여성신문사, □이야기여성사□, 1992(배봉기 할머니가 실렸는데 누가 썼는지 언제 만났는지 등
출처불명)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정신대문제 자료집 중군위안부 발자취를 따라서」, 1992(김현옥씨의
故 배봉기 할머니에 대한 증언 원고가 실려있다)
- 김원영, □17255일간의 침묵□, 장락, 1993(오끼나와에 군부로 강제연행되어 위안소 짓는 일을
한 피해자의 수기로 그중에 “위안부”를 만나 들은 이야기도 수록되어 있다)
- 조혜란, 「일본 오끼나와 방문보고서(1997 12. 25 ~ 12. 30)」, 1998
- 山谷哲夫, □沖繩のハルモニ.證言.從軍慰安婦□, 1979

3) 수록 자료해설

자료 1은 배봉기 할머니에 대해 본격적으로 보도한 최초의 신문기사이고 자료 2는 배봉기 할머니와 17년간 가깝게 지낸 김현옥씨가 쓴 글이다. 조총련계 사람들과 교류를 했기에 남한에서는 배할머니가 뒤늦게 알려지게 된다. 남북분단의 피해는 여기서도 드러난다. 강제연행 문제를 일찍부터 조사하고 문제를 제기해온 데는 조총련계 사람들의 공적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이후에도 배할머니 관련 기사가 신문과 잡지에 실린 점, 전쟁 피해를 입은 오키나와인들의 정서가 있어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일본군 성노예 조선인 피해자에게 공감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배봉기 할머니의 존재는 이후 오키나와에서의 위안소, 군부 등 강제연행 문제를 조사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자료 3과 5는 배할머니 사망이후 오키나와에서 시작된 조선인 군부와 ‘위안부’ 조사 관련한 기사로 오키나와 위안소지도 작성에 기초가 되었다. 자료 5는 그 외에 1992년 배할머니가 있었던 도카시키 섬에서 열린 위령제를 알리고 있다.

자료 4는 浦添市에 있었던 준코라는 이름의 조선인 ‘위안부’와 관련된 기사이다. 위안소를 상대로 식료품 행상을 했던 증언자 又吉씨는 오키나와 소녀를 자식담에 데리고 귀국하는 조선인 피해자를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피해자는 아마 귀국하더라도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낳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체념하고 아예 일본에서 낳았다고 주위에 알리고 친자식 처럼 의지삼아 기를 마음을 먹고 아이를 데려간 것이 아닐까?

자료 1. 「원수들의 발굽에 청춘과 삶을 짓밟혀...」, 조선신보, 1977년 4월 23일(내용 약)

자료 2. 「[강제연행 역사적 사실 밝히고 새 관계 이루어야], 조선신보 1992년 3월 2일 (내용약)

자료 3 「[軍夫], 「慰安婦」の實態を調査」, 沖繩 タイムス, 1991 5. 23

7월에 공개된 영화 「아리랑의 노래」 상영운동의 일환으로서, 상영위원회(眞境名光회장)은 오키나와전 당시 조선인 「군부」 「위안부」 실태조사를 할 것을 22일 나하시 八汐莊에서 발표했다. 사무국에서는 모아진 증언을 회가 발행하는 뉴스에 게재하고, 최종적으로는 책자의 형태로 모으는 방침이다.

전화로 증언을 받는 방법으로 기간은 23일부터 7월 7일까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구체적으로 조사항목을 12개 설정했다. ① 「군부」 「위안부」를 보았는가 ② 이야기를 들었는가 ③ 장소는 어디인가 ④ 숙박소는 어떤 곳이었는가 등

상영위원회에 의하면 「군부」 「위안부」의 공식통계는 나라에서도 현에서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실제 오키나와에는 적어도 1만명에서 2만명의 조선인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각 市町村史 등의 조사시에 「군부」 「위안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은 나오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사무국에서는 증언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오키나와 전의 자리매김하고, 아시아 태평양침략전쟁의 자리매김을 하고 싶다」 「지금까지 말할래야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아픔을 가지고 듣는 것으로 다음 활동으로 연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락처는 이짜리야쵸 센타 내 「아리랑의 노래 - 오키나와로부터의 증언」 상영위원회(전화 098-885-4235)

한편 「군부」 「위안부」를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듣는 연속강좌 제2회는 24일오후 7시부터 슈리(首里) 공민관에서 열린다.

자료 4

「浦添市仲間の慰安所 - 朝鮮人慰安婦が11人」, 沖繩 タイムス, 1991 12. 3

오키나와 전시하, 本島와 離島 각지에 군대의 성을 처리한 위안소가 만들어져서, 식민지 조선에서 연행된 여성들이 일을 하게 했다. 그 수는 천명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제 수는 알 수 없다.

위안소 이용에 대해 「내무규정.산제3475부대」에 기록이 남아 있다. 兵, 하사관, 장교마다 요금과 이용시간이 나뉘어, 매일 정오에서 한밤중까지 영업. ‘위안부’는 「모두 공평을 제일로 할 것(중략) 최대의 봉공」임을 강조했다.

兵隊 중에는 위안소를 「공동변소」로 부르는 자도 있었다.

浦添市 仲間區 공민관에 만들어진 위안소에는 조선인 ‘위안부’ 11명이 있었다. 주에 2번 정도 石부대와 球부대의 兵隊들이 교대로 트럭으로 와서 열을 지었다. 「불쌍한 처녀들이다. 많은 兵隊를 상대하게 되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구민은 병사도 ‘위안부’도 입에 올리는 일 없이 위안소를 관심 밖에 두었다.

又吉初子씨(80)는 식료품 행상으로 위안소에 출입하여 ‘위안부’와 대화를 했다. 명랑한 성격인 준코는 「빨리 전쟁이 없어지면 좋을텐데」라며 말했다.

미군의 상륙 때 仲間の 구민은 浦添城跡의 호로 피난갔다. ‘위안부’들은 어느샌가 없어졌다.

전후 고자의 포로수용소에서 又吉씨는 준코와 재회했다. 고아원에서 데려왔다는 오키나와 소녀를 데리고 「내일 조선으로 돌아가는 배에 탄다」고 기뻐했다.

학대받던 ‘위안부’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왜 일본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걸까 47년이 된 지금도 모르겠다. (사진 石川眞生 글 謝花直美)

자료 5

「元 軍夫 慰安婦問題 縣内でも新たな動き」, 沖繩 タイムス, 1992 1. 20

전 군부 ‘위안부’ 문제 현대에서도 새로운 움직임

위령제와 소송을 지원

九弁連, 10월 심포지움 전후처리로 조직

방한한 미야자와 수상의 중군‘위안부’에 대한 사죄발언, 동경과 오사카에서 이어서 제기된 전 군부‘위안부’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 등, 군부‘위안부’ 문제에 많은 활동이 있는 가운데, 현대에도 새로운 운동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의 여성단체가 작년에 돌아가신 전 ‘위안부’ 봉기씨의 위령제 등을 예정하고 있는 외에 큐슈변호사회연합회가 나하시내에서 강제연행 등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연다.

한국에서 오키나와에 오는 것은 동경지방법관소 조선인군부‘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단체의 하나로, 서울에 있는 한국교호여성연합의 약 30인. 일행은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로 일본에 체재하여, 도쿄, 지바 등에서 중군‘위안부’ 위령탑을 방문하고, 국내에서 운동하는 시민단체와 교류한다. 현대에도 봉기씨가 있었던 도카시키섬에서 위령제를 하는 이외에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는 집회를 연다고 한다.

접수창구가 된 나하시청 高里鈴代씨는 「 이 위령제를 계기로 나하지방법관소에서 재판을 희망하는 군부인 김원영씨를 지원하는 등, 가까운 것에서부터 역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한다.

한편 九弁連의 심포는 올해 10월 나하시내에서 정기 대회 중에 열린다. 「오키나와 (본토) 복귀 20년. 쌓인 채 남아있는 전후처리」의 주제로 「전쟁말라리아보상문제」 「전시조난선박보상문제」와 함께 「강제연행문제」가 분과회로 채택되었다. 일본의 전후책임을 전쟁피해보상의 관점에서 다시 보고, 법률키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토의한다.

심포실행위원회의 眞境名光변호사는 「오키나와로 강제연행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오키나와 변호사가 가능한 일이 있을 것이다. 심포 조직만이 아니라 증언, 정보의 받는 수단으로 □‘위안부’ 110번□을 설치하는 등, 큰 시민운동과 연결하고 싶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부록 5 오키나와 ‘위안부’ 관련 자료 목록

- 森田芳雄, 1995, 『ラサ島 守備隊記』, 河出書房新社
- 上原榮子, 1989, 『辻の華』(戦後篇 上), 時事通信社
- 上原榮子, 1989, 『辻の華』(戦後篇 下), 時事通信社
- 石原昌家.大城將保 保坂廣志.松永勝利, 『争点.沖縄の 記憶』, 社會評論社
- 福地曠昭 著, 1986, 『哀号.朝鮮人の 沖縄戦』, 月刊 沖縄社
- 沖縄縣平和紀念資料館 綜合案内, 1975, OKINAWA PREFCTURAL PEACE MEMORIAL MUSEUM
- 『證言 從軍慰安婦』 -ダイヤル110番の 記録-, 日朝協會埼玉縣聯合會
- 『讀谷村史-弟5巻 資料編4』 戦時記録 上巻, 2002, 讀谷村役場
- 琉球新報 관련 기사 자료 목록(생략)
- 『第62師團關係資料綴』 62D司令部, 防衛研修戰史室
- 『なは.女あしあと』 那覇女性史(近代編)
- 『座間味村史』 上巻, 沖縄현座間味村, 1989
- 『座間味村史』 下巻, 沖縄현座間味村, 1989
- REPRODUCED AT THE NATIONAL ARC,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CAPTURED PERSONNEL & MATERIAL BRANCH』
- 續谷村史 第五巻 資料編4 (戦時記録 上巻) 沖縄현續谷村役場(2002.3)
- 米國ナショナルア-カイブ 慰安婦關係資料調査報告書 4-25-97 淺野豊美
- 福地曠昭, 平和教育講演會 1994年 12月3日講演より, 『私と沖縄戦』
- 卷地著, 『祖先人軍慰安婦』, 『沖縄戦の概観』
- 古汲?唯成 沖縄縣立笑-中學校 昭和3年6月17日生(当時4學年生)
- 宮城晴美, 「母の 遺したもの」、高文研
- 「平和のための市民講座」, 「アメリカは何故」, 沖縄を日本から切り離したか」, 宮里政玄, 沖縄市
- 「鐵田義司日記」, 船桴要塞重石包兵連隊の軌跡、竹富町
- ‘중전50주년기념특집 「태평양전쟁기록 石垣島方面陸海軍作戰」, 瀨名波榮, 沖縄戦史刊行會
- 「南大東島開拓百周年記念誌」, 南大東, 村役場
- 「米國支配二十七年の回想」, 宮里松正, 沖縄タイムス社
- 福地曠昭, 「オキナワ戦の女たち」, 朝鮮人從軍慰安婦, 海風社
- 外間米子, 「時代を彩つた女たち」, 琉球新報社編
- 「民衆史を掘る西表炭坑紀行」, 三木健, 本邦書籍
- 「沖縄の女たち」-女性の人權と基地.軍隊-, 高里鈴代, 明石書店
- 「人重山戦日記」, 吉田久一, ニライ社
- 「沖縄のハルモニ」, 山谷哲夫, 晚聲社
- 「「集團自決」を心に刻んで」, 金城重明, 高文研
- 「沖縄戦」, 衝撃の記録寫眞集, 月刊沖縄社
- 「沖縄から 琉球人」, 仲宗根源和, 月刊沖縄社,
- 「青年醫學徒の沖縄戦回想記」, 遠藤幸三, 橋本確文堂
- 「具志川市史」, 大正.昭和戦前編, 新聞集成

「竹富町史」, 제12권 자료편, 戰爭体験記録

「北大東村」, 北大東村役場

「舊南洋群島と沖繩縣人」, 沖繩縣教育委員會

「村勢要覽 -南大東村 平成 14年 1月」, 南大東村

‘北大東島守備隊?係 第十軍司令官の指示に基く報告書

‘沖繩の慰靈塔.碑’ 沖繩市

南大東村誌(改訂)」, 1 장 南大東島の位置及び地形.地質, 南大東村誌編輯委員會, 南大東村役場

太田静夫『八重山の戦争』南山舎、1996年

加藤秀一, 坂本佳鶴恵, 瀬地山角, 「フェミニズム.コレクションⅡ」, 勁草書房

森口 豁, 「沖繩近い昔の旅」, 凱風社

防衛廳戰史室資料3, 沖繩縣沖繩史料編集所 受入, 1981年 3月 31日 第8258号

龍沼梅光, 『北滿.宮吉島戰記』, 旺史社, 1989,

八江正吉, 『イラワジの 誓い - わがビルマ戰記』, 昭和59年,

大田嘉弘, 『沖繩 陸.海.空 戰史』, 相模書房, 1988年.

『防衛廳戰史室資料3』, 沖繩縣沖繩史料編集所, 1981年3月31日 第8258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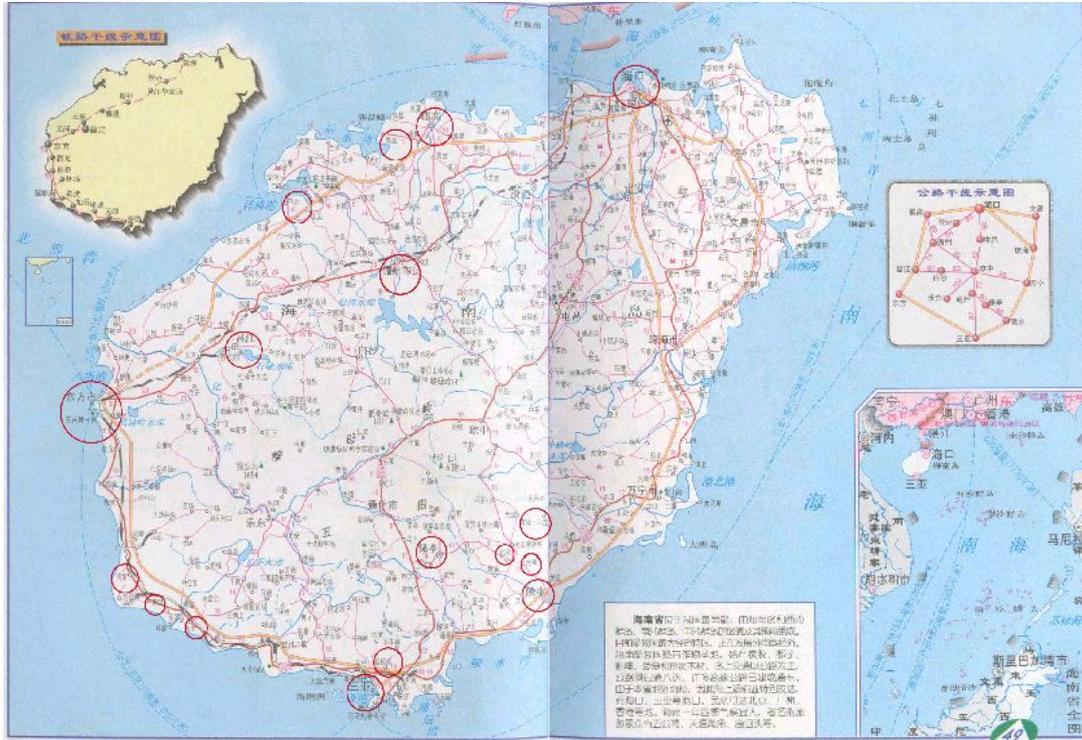
金城繁正, 『玉城村誌』, 南西印刷, 1977年.

沖繩縣, 『沖繩の慰靈塔.碑』

朴壽南, 『沖繩戰の朝鮮人「軍夫」「慰安婦」』, 『アリランのうた』制作委員會, 1991年.

元北大東守備隊長 須永力之助, 『須永史料 北大東島守備隊關係 第十軍司令官の指示に基く報告書』, 防衛研修所 史室

중국 해남도와 조사지역(원으로 표시된 부분)



3부 해남도 조사 보고

I. 일정 보고

10. 13 (일) 대한항공 오후 8시 15분 인천 국제 공항을 출발, 14일(월) 오전 00시 05분 삼아 도착, 통역인 신희매씨의 안내로 호텔(新興海景大酒店)로 갔다.

10. 14 (월)

아침 우리가 간 삼아시 여지구진(荔枝溝鎮) 현 정부 청사 자리는 일본군 제 16경비대 주둔지였다. 먼저 삼아신문사를 갔으나 중국 연구소 등의 공식 요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남정의 조선촌 애사지(哀史社.유골 발굴 및 기념 사업지)로 가는 큰 길가에는 □조선족 천인갱(千人坑)□(사진1 조선족 천인갱표지판)이라는 자그마한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그곳 입구에는 「일구시기수박해 조선동포 사망추모비(日寇時期受迫害 朝鮮同胞 死亡追慕碑)」(1999. 9.1) 큰 비석이 더 있었다. 당시 후원 회원의 부인인 이미현씨가 썼다는 비문에는 1942년 조선인이 강제 징용으로 와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고, 끝내는 집단 학살당해 이곳에 묻혔는데, 그 중 130여구가 발굴되었다고 쓰여 있다. 그 옆에 넓게 또 다른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천인묘 후원회 회원 명단을 적은 기념석인데, 단 7명의 이름만(1만원 후원)이 올라 있었다. 안쪽으로 영락재(迎樂齋)라는 간판이 붙은 유골 전시(기념)관은 굳게 닫혀 있어 들어가 볼 수 없었다. 그곳을 조성한 신우농업종합개발유한공사가 2001년부터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관리인 1명만이 지키고 있었다.

관리인 임관재(林關材)씨의 안내를 받았으나 그는 열쇠도 갖고 있지 않았다. 왼쪽의 이름도 없는 작은 집에는 발굴된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항아리에 넣은 것을 쌓아 모셔 두었다. 그곳 안치실에서 왼쪽 오솔길을 따라 10분 이상 걸으면 조선보국대원을 생매장한 구덩이가 나온다. 지금은 벌써 오래 세월이 흘러 그곳에 흩어져 있던 유골도 다 씻겨 나가 흔적을 찾기 어려웠지만 1998년 6월 당시에는 주변에 나뭇굴고 있는 유골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곳 원주민들이 종전 후 일본군이 물러가자 그곳에서 늘상 유령이 출몰하고, 울음 소리같은 것이 들려와 원래 동네 이름은 삼라이촌(三羅二村)이었는데, '조선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원혼의 혼백을 위로하자 그런 일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다. 그 원주민들은 소몰이와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여족으로 동네 50호에 400명 정도가 살고 있다. 그만큼 황량하고 쓸쓸한 기분이 지금도 그곳에서 배어 나오는 것 같았다.

그곳에서 주민 주학권(周學權.70세)씨를 만나 1944년(12세) 당시 자신이 본 조선보국대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나무에 매달려 매를 맞고 울부짖던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다는 것이다. 또 그 근처에 조선보국대 숙소가 있어 130명 가량이 살았다고 한다. (일본 방위청 소장 일본군 시설 지도에 그 숙소는 나와 있다) 그곳에 현재 여족 집이 여러 채 있었다. 그 옆은 야채 등을 재배하여 보국대 식당에 공급한 밭이 있었는데, 지금도 집집이 붙은 작은 텃밭이 있었다. 그리고 돌아 나오면 남정소학교가 너른 운동장과 함께 있다. 그곳에서 조금 나오면 바로 큰 도로와 터널, 뭇지 잘 모르는 콘크리트 건조물 등이 당시에 조성되었고, 징용자들은 그런 일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폐허로 변해 버린 곳도 많다. 학교 운동장 한 쪽에 큰 우물과 일본군인 식당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그 학교 학생은 300명 정도이다. 학교 담밖에는 여족의 무덤도 100개 이상 있는 곳이었다.

1시간 반 정도 후 우리는 전독진 홍화(田獨鎭 紅花)소학교를 지나 남림으로 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영국군 소속의 인도인과 호주인 포로들이 노동에 동원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12시 10분 경 도착한 전독 하홍화촌(下紅花村), 동네는 옛날에는 3집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28호가 있는 작은 동네였다. 우리가 만나려고 했던 노인은 외출 중이었고 마침 일본군을 안다는 80대 노파 진아랑(陳亞娘)씨를 만났다.(부록 2)

진씨의 4남 고성광(高成光.47세)씨가 옆에서 통역도 해주고 말을 거들었다. 숙모할머니가 '위안부'로 잡혀간 기간은 1년 정도였다. 진할머니는 이야기 중 계속 돌아 앉으셨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여 여쭙더니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그러셨단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난생 처음으로 받아본다고 하셨다. 외출 중인 주아시(周亞時) 노인과 그 아들 주일창(周日昌.남정소학교 교원)씨는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1시에 다시 그곳을 떠났다.(이들은 23일에 만났다)

2시에 만난 나아명(羅阿明)씨는 전독진 나봉촌위원회 초봉촌(羅蓬村委會 草蓬村)에 사시는 분이였다. 98세라고 하시는 그분은 자신이 일터로 오가며 길가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인 남녀를 수없이 많이 또 여러번 보았다고 하셨다. 오후에 낮잠을 주무시던 할아버지를 깨워 들은 이야기 중에는 약간 신빙성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부록 2)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곳 사람들의 나이 개념이다. 10년 정도 뛰어 넘는 것이 예사인 것 같았다. 아무튼 그 집은 꽤 잘 지은 건물에 큰 우물이 있어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퍼 올려 손을 씻기도 하였다. 화장실은 시멘트 바닥에 시멘트로 삼면을 둘러친 꽤 넓은 곳,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앞에 우물이 있었다.

남림 길 공사로 길이 끊겨 다시 돌아 등교로 나온 시간은 3시였다. 그 때 점심을 먹었다. 등교의 위안소가 3년 전에 불에 타 없어졌다고 한다. 원래 그곳은 익기서(翼奇瑞)씨의 집이었는데 위안소로 접수 이용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그래도 능수현 신촌(陵水縣 新村)의 조향영(趙向盈.82세)씨를 만나 뜻밖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 집으로 가는 길은 신촌중심소학교를 지나 벽돌집이 즐비하게 있었고, 큰 길에는 시클로와 많은 사람들로 번잡하였다. 16경비대 파견대 건물이 있었다는 시정부를 지나 우회전하면 역시 벽돌 건물들이 즐지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조씨가 살고 계신 곳이었다. 마침 2주일 전에 81세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홀에는 사진을 모시고 향을 피운 아주 작은 빈소가 있었다. 우리는 먼저 그곳에 예를 표하고 좁은 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일제 시대에는 아랫동네에 사시다 70년대부터 이곳으로 와 계속 사신다. 그는 한족으로 일제 군정 때 치안유지회 부회장을 지낸 시첻말로 친일파였던 분이다.(부록 2)

조씨에게서 6시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와 바로 근처의 위안소 터를 찾아갔다. 물론 조씨가 안내해주었다. 그곳은 뒤에 신촌 바다(능수만)를 끼고 있는 「해남삼특소도(三特素道.케이블웨이스)유한공사」 건물이였다. 이곳이 위안소였다고 한다.(사진2 신영위안소터에 세워진 회사건물) 이 회사는 맞은 편 원숭이산으로 케이블카를 운행하는 회사였다. 현재 그 산은 원숭이를 보고 경관을 즐기는 관광지였다. 그곳은 능수만에서 배로도 간다. 당시 일본군이 이리 상륙하였던 곳이다. 14일 늦게 신촌에서 해구까지 고속도로로 계속 달려 9시 30분 에야 해구에 도착했다. 저녁을 먹고 나니 11시였다.

10. 15 (화)

현재 해남성의 성도인 해구는 해남도 침략 일본군 제 15경비대 사령부 소재지였다. 해구의 아침은 해남일보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우리의 조사 목적과 일정을 설명하고 협

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장달웅 선생으로부터 소개받은 남국도시보(南國都市報) 소속 여가량(余家亮)기자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다 먼저 악훤(岳欽)이란 여기자를 만나 자신이 취재한 피해자여성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조선인 여성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었다. 일본 기지가 주로 여족 집단 주거지에 있으면서 여족 여성의 피해가 컸다고 한다. 그리고 여족 여성들은 성에 대한 관념이 중국만큼 강하지 않아 피해 사실도 드러난 셈이지만 중국여성은 아직도 감추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측 연구자들이 바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뒤에 다시 거론할 것이다. 여가량기자가 와서 자신이 이미 쓴 기사와 사진 등을 주고 설명도 해주었다. 더 고마운 것은 우리 방문 및 조사에 대한 기사를 내일(10. 16) 아침 신문에 게재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약속대로 나온 이 기사는 계속 우리 조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부록 4)

신문사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하고 해남성 해남성사지공작관공실(海南省史志工作辦公室)의 부화적(符和積)씨를 만나러 가기 전 시간이 좀 있어 중산로 위안소 터를 찾아 나섰다. 중산로는 입구에 1920년에 세워진 시계탑을 기준으로 길 양쪽이 프랑스식 건물 등 유럽 풍 건물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었다. 당시 그곳은 세관과 함께 일본군 사령부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는 해남성公安청주사범정사국(公安廳走私犯偵查局)이라는 간판이 달린 관청으로 바뀌었다. 곧 마약 밀수사범 등을 검거하는 곳이란 뜻이다. 그러나 주변을 여러번 돌며 찾아도 □증언 3집□의 에비스 위안소 건물은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되어 정협의 부씨를 만나러 갈 수밖에 없었다.(부록 2)

6시가 안돼 부씨의 이야기는 거의 끝났으나 그곳에서 해남도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구입하느라 거의 7시까지 있었다. 그러나 힘들게 가져온 책에는 군‘위안부’ 관계 자료 등 일제시기 역사는 별로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10. 16 (수)

아침은 전날 저녁 식사 때 만난 해남방송 라디오부 강미란(姜美蘭, 조선족) 기자의 안내로 다시 당시 해구의 중심지였던 중산로 위안소 터를 찾아가는 일로 시작되었다. 마침 비가 꽤 많이 내렸다. 오전 내내 오락가락하는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맸다. 다니며 간단한 해남도의 역사도 들었다.

세관 뒷길은 덕성사로(德勝沙路), 신화북로(新華北路), 가운데 중산로로 들어가는 입구 길은 박애(博愛)로, 그리고 100년 전부터 도시와 상가가 형성된 중산(中山)로, 이 일대가 현재도 큰 상가와 시장이었다. 입구에서부터 길 양쪽으로 기생집이 즐비했던 곳이며, **3, 4층집의 2층은 대부분 기생집이었고 1층은 상가였다.**(사진3 해구시 위안소자리) 바로 큰 항구와 세관이 있어 외국인과 돈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은 50년된 중국집을 비롯하여 10년 사이 새로 지은 집들도 많았다. 결국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는 집은 별로 없었던 것이다. 98년 나눔의 집의 혜진, 김옥주, 이옥금 할머니 방문시 확인한 에비스 위안소(증언 3집 99쪽, 김옥주씨가 있었던 곳)를 찾다 못해 결국 옛집을 관리, 보수하고 매매도 하는 해남성 방산국(房產局)을 찾아갔다. 그곳은 강을 건너 이서로(二西路)에 있었다. 거기는 예전에는 황무지였으나 새로 시가가 조성되어 해남대학 등이 들어선 문화신도시였다. 방산국에서는 3년 전부터 건물 보수가 활발해 에비스 위안소도 당연히 변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산로로 되돌아와 다시 주소만 확인할 수 있었다. 장환로(長還路)12-14호라는 것이다.

그 사이에 그곳에서 가게를 하는 노인 황예문(黃禮文)씨의 안내, 설명을 들으며 쌍미루(雙美

樓), 부내가(富乃家) 등 위안소 3곳을 확인하고,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그분 이야기로는 홍콩인이 여러 곳의 위안소를 상가와 같이 경영했다고 한다.

2시가 좀 지나 임고시 정협(王碧中)씨를 만나 잠시 도움말을 들었다.(부록 1) 그는 조선인 피해자를 안다는 송복해(宋福海)씨를 소개해준 분이다. 곳곳의 정협은 방마다 이름은 많이 붙어 있어도 낮에는 거의 텅텅 비어 있기 일쑤였다. 특히 점심시간이 1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라고 할 만큼 긴 것은 해남도의 더운 기후 탓도 컸다. 아무튼 그곳의 공식 명칭은 제안법제교과문위(提案法制教科文衛)위원회였다.

4시 지나 우리는 다시 임고현 신영진(新盈鎭)정부를 찾아가 송복해씨(당시 신영위안소에서 세탁, 취사 등을 담당한 고용인)를 물어 찾아갔다. 남녀 직원 두 명이 안내를 해줬는데, 그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의 4째 부인(68세, 인민로 006호, 신흥거민위원회)을 만나 약간의 이야기만을 들을 수 있었다. 송씨는 5년전 72세로 작고하셨다. 부인은 현재 68세였다. 16세 때 남편 송씨는 노임은 한푼도 못 받고 4, 5년 일했지만 여자는 구경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일본인 관리인 밑에서 밥해주고, 채소도 조달했다고. 예쁘게 생긴 여자는 군관이 1주일씩 데리고 살기도 하였다. 남편은 22, 3세에 혼인하였고, 이 부인과는 70년대 혼인하였다. 종전 후 남편은 재봉 일을 하였는데, 지금도 본가에는 재봉틀이 3대가 있었다. 본가인 **홍민남가 016호(사진4 신영의 홍민남가위안소)**에는 송씨 사진과 그 모친의 사진까지 걸려 있었다. 그런데 그곳 일대인. 홍민남가(紅民南街) 010번지, 002호, 005호, 007호 등 3, 4집이다 위안소였다.

가까운 곳에 신영중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은 군부대 자리였다. 학교(사세보.佐世保 해군 기지 터)에서 위안소까지는 돌길 70m 정도만 따라 가면 나오는 지척 거리였다. 그곳에서 당시 학생이었던 77세의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진위(陳偉)씨로 한족이었고 소학교 교사를 지낸 분이었다. 그도 당시 위안소 상황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그는 어려서 그 여성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다고 한다.(부록 2)

해가 질 무렵에야 찾아간 신영중교는 현재 학생이 1000명인데, 이곳에 사세보 부대(佐世保 新盈司令部) 건물이 7년 전에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포대 터, 식당, 주방(2002, 9월 철거) 터가, 그리고 건물 뒤에 수탑은 아직 그대로 서 있고, 수탑 뒤에는 사방으로 「자형의 철근 구조물이 있었으나 그 용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 밑에 포대 모양의 석축이 100-150미터 정도 길게 쌓여 있었다. 지하방공굴 내지 지하실로 추정된다고 누군가 말하였다. 총구 구멍도 나 있었다. 그밖에도 군마에 물을 먹이던 우물, 비둘기집 터와 일제 때 있던 낮은 담벽 위에 더 높이 돌을 쌓은 흔적 등이 남아 있었다. 그 학교 교사가 나와 안내를 해주었다.

10. 17 (목)

아침 일찍 신영항 가까이 사는 임길소(林吉蘇.1925년생)씨를 방문, 어려운 증언을 들었다. 그는 일본군 특무대에서 통역 일을 하여 전 후 친일파로 크게 박해를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 절대로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신문 기사 등을 확인한 후에야 아주 조금씩 조심스레 말문을 열기 시작하셨다.(부록 2) 그래도 두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듣고 걸어서 10분 거리의 신영항을 갔다. 그곳은 일본군들이 상륙했던 부두였다. 신영항은 얕은 바다였기 때문에 먼바다에 큰 배를 대고 작은 배로 이곳 선착장에 들어왔다. 부두의 선착장 만드는 일에 동네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당하였던 것은 당연하다. 당시 선착장 축대가 지금도 남아 있고, 그 위에 더 쌓아 올린 흔적이 뚜렷했다. 전날 본 홍민남가의 위안소도, 학교로 변한 군부대(특무대 파견대)도 모두 이곳 선창에서 가까운 거리였던 것이

다. 그 위안소들을 다시 가서 확인하였다.

이제 신영을 떠나 우리는 10시 40분 담주현 백마정으로 가는 서선(西線)고속도로를 올랐다. 고속도로로 오르기 전 그곳의 흙길을 닦았다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통행료를 받은 후에야 길을 안내해주었다. 그곳 위안소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1939년 4월 일본군이 들어간 곳이 지금의 담주현, 당시에는 나대라는 곳이었다. 오후 3시에 담주(나대, 일본군 무학진수부 제1 특별 육전대 사령부 소재지)시 정부를 방문, 담당 과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구슬과 정리자 2명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온학상(溫學祥)씨는 출장 중이라 안내해줄 수 없다고 거절당하였다.

그곳 허유통가라는 위안소 터를 찾아가기 위해 애영위생원(愛嬰衛生院) 의사에게 물어 갔다. 그 병원의 길 건너 맞은편 하얀 2층집이 위안소였다고 한다. 1942년 이곳 허씨(許氏) 집에 위안소를 설치, 9-10여명의 '위안부'가 있었다는 곳이다. 또 다른 위안소터를 찾아간 곳이 대용상업광장(大勇商業廣場)이란 큰 간판이 붙은 백화점 같은 곳이었다. 그곳 나대진(加來라고 불렀다)에서 가장 큰 변화가이고 상업의 중심지였다. 여기가 예전의 조국가(趙國家)위안소 자리이고, 이가원(李家園)위안소는 해방남로의 시정부초대소 자리였다. 이 두 곳은 큰 길 하나 건너면 될 정도의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대용상업광장 후문인 대용상업성(大勇商業城)에는 해방과출소 치안연방대 간판이 나란히 붙어 있고, 그 맞은 편이 현재 시정부 제1초대소였던 것이다. 우리는 그곳 초대소에서 묵기로 하였다. 그곳은 3층 건물이었었는데 우리 숙소도 3층이었다. 그곳이 바로 위안소였던 것이다.

10. 18 (금)

아침 일찍 일어나 아래를 보니 우리 숙소 앞 건물 1층 식당에 노인들이 옹기종기 무리를 지어 식사와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준비했던 전단지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를 찾습니다」라는 광고문(부록 4)을 수십장 들고 내려가 나눠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였다. 해남도에 와서 가장 많이 뿌렸다. 그 때 마침 임양재(林良材)씨를 만난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분 말씀은 우리가 잔 그 건물이 당시 위안소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는 일본침략사 책 2권을 쓰신 1923년생이니 80이시다. 아침 식사 후 임씨 댁으로 가 증언을 듣기로 하였다. 그의 집은 신생가(新生街) 43호, 「신상가 군방군치영심소조(群防群治領尋小組)」라는 긴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곳도 황무지였던 곳이 지금 시장으로 개발된 지는 20년 가량 된다.

임씨의 아버지는 혁명부대 통신원으로 일하다 국민당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는 항일부대에 있어 위안소를 보긴 했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46년에 혼인한 83세의 부인 온소매(溫素梅)씨와 딸 임소금(林少琴)씨가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러나 이분에게서는 오히려 별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1시간쯤 후 담주시 정협외 온학상(溫學祥)씨가 왔다. 그러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여전히 협조를 거부하였고 우리도 갈 곳이 많아 나왔다. 그러나 10시 20분 경 임씨와 함께 군사령부 터 가기로 한 것을 포기해야 했다. 젊은 공안국 요원 2명이 와서 임씨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해남도에서 담주시가 치안이 가장 잘 된 곳으로 그 이후 우리는 계속 검열을 받게 되었다.

12시 30분경 금파, 석록(石□) 철강석 광산(사진5 석록광산 저장창고와 철강석 운송열차)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한 때 총 8,000명 노동자가 있었고, 그 중 조선보국대 2, 3000명이 강제 노동을 당한 곳이다. 광산에는 일제 시기 구조물, 당시에는 철강 저장소로 사용한 곳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었고, 그 위로 이곳에서 팔소까지 철강석을 운반한 철도가 있었다. 전쟁

당시 팔소가 폭격을 받으면서 그 때도 운반이 불가능했다. 그 철길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대로 있었다는데, 이젠 흔적만 있을 뿐, 실체는 없다.

광산 입구에는 사적(史跡) 공원이 있고, 그 오른쪽의 만인갱은 당시에 학살되어 묻힌 곳이다. 공원에는 이 만인갱에서 나온 유골을 모신 위령탑이 서 있었다. 1965년 10월 1일 건립된 이 탑에는 일구장비 사난광공기념비(日寇蔣匪 死難礦工記念碑)라고 쓰여 있었다. 공원 오른쪽에는 극장과 모택동 주석의 동상도 있다. 그런데 그 기념탑에는 총구멍 같은 상처로 훼손된 곳이 여러 군데 있었다.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었다.

광산 안에 해남철강빈관이란 현재 건물 뒷편에다 나무로 된 1층 위안소가 있었다. 그 뒤는 산이다. 황무지에 그 집만이 있었고, 동네 노인들은 다 안다고 했다. 광산 아래의 일본 부대와 뒤의 포대 군인들이 이 위안소를 이용했다.

차로 10분이 채 안 되는 거리의 위안소 터는 지붕과 기와로 아직 일본식 건물(사진6 석록위안소)이라는 것이 원래 그대로 3곳 정도 남아 있고, 목욕통이 놓인 자리도 2곳 이상 확인되었다. 그 건물은 60년대 창강현 건립 때 사무실로 쓸 만큼 단단한 벽돌집이었다. 가까이 또 다른 위안소 터에는 현재 소학교가 들어서 있다. 그곳 여성들은 기생이라 했고 군관 뿐 아니라 광산의 기업인도 그 위안소를 출입했다. 이는 해남성 창강 여족자치현(昌江黎族自治縣)위원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즉 창강현 정협(政協)의 문우광(文宇光)주임의 도움말이었다. 이웃의 증언을 해줄 만한 70대 노인(杜國光씨)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3시 15분 석록 정협에 갔으나 그 조사를 한 하십리(何十里)씨가 신천으로 가 안 계셨다. 시루 정협(政協)의 조주임이 조사한 바로는 석록위안소의 조선인 ‘위안부’가 광동인과 결혼해 자녀와 살았다는 증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문씨의 안내로 대만에서 와 살고 있는 백천(白川, 대만인, 82세)선생을 만나러 갔다. 그분도 꽤 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셨으나 그것은 모두 강제 징용당한 남자들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아리랑’ 등 조선인에 대한 기억에는 틀림없었다.

5시 삼아 가는 길에 6시 30분 북여 도착했으나 확장 공사 중인 길이 아직 남은 데다 어두워져서 위안소 터 확인에 실패하였다. 북여는 일본군 횡수하진수부(橫須賀鎮守府) 제 4 특별 특별육전대 사령부 소재지였다. 북여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는 사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피곤하면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것은 화장실의 수도물이 수도관 옆구리로 솟아 나왔기 때문이다. 팔소 만인갱도 답사하지 못했다. 9시 경에야 삼아에 도착. 숙박하였으나 내일 보정 가는 길이 공사중이라 큰 문제가 되었다.

10. 19 (토)

아침 삼아시 정협 안에 살고 있는 양결신(羊杰臣)씨를 만나러 갔다. 그곳은 항문로(港門路) 031호, 85세의 그분은 병원을 가서 오후에나 오신다고 하여 메모를 남기고 나왔다.

우리는 먼저 조선인 피해자 박래순씨가 있었다는 홍사 구가원(歐家園, 오자이엔) 위안소 터로 갔다. 그곳은 삼아시 사회복지원과 아동복지원 간판이 붙어 있고 한 때 호텔로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입구 오른쪽에는 역시 홍교소학교(紅郊小學校)가 있었다. 일본군 주둔지와 위안소 터가 대부분 학교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삼아시 근처에 위안소가 많았다. 유림은 현재도 해군기지라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다. 그 곳이 일본군 부대 주둔지였고 때문에 홍사의 오자엔 위안소를 비롯하여 도처에 위안소가 있었던 것이다.

11시경 우리는 등교진기본농전보호구라는 간판이 크게 내걸린 넓고 큰 바나나밭을 지나 비포장 흙길로 오르막, 내리막 산길을 거의 두시간 가까이 계속 달린 후에야 다시 큰 길로 나

올 수 있었다. 한창 진행 중인 도로 공사 때문이었다. 길가 도랑에는 커다란 물소가 더위를 쫓으려고 들어앉아 한가로이 쉬고 있었다. 해남성 국영 삼도(三道)농장이라는 큰 대문이 있고, 그 옆으로 약간의 아파트와 허름한 집들이 주변의 산과 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길가의 사람들은 양산을 쓰기도 하였고, 대부분 허름한 옷차림의 노동자들로 보였다. 금강(金江) 시장 앞에 잠시 주차를 하였다. 이곳은 향수(響水) 등옥민씨의 집, 박래순씨의 묘소가 멀지 않은 지점으로 금강농장이라고 적힌 큰 담도 길가에 있었다.

우리는 먼저 보정현 성진 문명중로(城鎮 文明中路)의 **장응용(張應勇)선생(사진7 장응용씨)**부터 찾아가 뵈었다. 선생은 60세 전후의 현재는 퇴직하신 여족 공무원이자, 문학연구자이다. 그분은 91년에 대만에서 온 기술자로부터 처음으로 박래순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부록 2)

박할머니가 사시던 집은 공로국 분국 숙사 1동 2층 거물의 한 방이었다. 주방은 뒤에 따로 있었고, 건물 2층은 당시 사무실로 썼다. 숙사는 모두 2동으로 지금도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할머니 방은 빈 채, 작은 침대와 책상이 그대로 있었다. 그곳 침대 옆에 관을 놓고 사셨다고 한다. 해남성 교통청 소속 공로국은 지금은 새 청사로 이사를 나가고 이곳은 세를 놓거나 창고로 쓰인다. 계단 복도에는 다 타고 난 연탄재가 가지런히 쌓여 있기도 하였다. 공로국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 할머니가 4월5일 청명에는 빠지지 않고 할머니 묘소를 찾아가 성묘와 별초를 하신다. 그런데도 그곳은 어찌나 풀과 나무들이 왕성하게 자라는지, 갈 때마다 우거진 풀을 헤치지 않고는 찾기조차 쉽지 않은 곳이었다.

묘소로 가는 길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좋은 길이었다. 분명 그 길을 할머니가 닦은 것이었으리라. 우리는 할머니의 직속 상관이었던 공로국 판공실 주임, 왕덕남(王德南.1954년생)의 안내를 받으며 묘소로 갔다. 49세인 71년에 퇴직하셨다고 그는 말했다.(그러면 출생연도가 1922년생이 된다. 16년생인데, 6년을 젊게 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원래 나이로 하면 55세가 되는 셈이다.) 길 닦는 일이 힘들어서 소키우는 일로 바뀌었다. 그곳이 산소와 가까운 곳, 집, 외양간, 주방이 있던 곳이다. 길 건너 야자나무에 소를 매놓기도 하였다.

산명수수(山明水秀)한 곳 산소의 비문에는 “생어(生於) 1912년 졸(卒) 1995 조비 **한국교공래순 박씨묘(祖妣 韓國僑工來順朴氏墓)**”(사진8 박래순씨 비석)라고 새겨져 있다. 여기에 1912년생이 22년생인지, 아니면 앞의 49세가 59세인지, 분명한 것은 호적에는 1916년생이고, 그곳에 간 나이가 26세라는 사실이다. 왜 비문에는 1912년생으로 돼 있는지, 4살을 올린 것이 된다. 아마도 그보다는 22년의 오기가 아닐까, 아니면 원래 12년생인데, 그만큼 10년을 더 젊게 사신 것일지도 모른다.

할머니 묘소에 마련해 간 술과 과일 등 간단한 제수를 놓고 명복을 빈 후 돌아 나왔다. 우리라도 가족을 대신하여 같은 동포로, 여성으로, 할머니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돼 드렸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할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져 꿈속에라도 고향과 가족을 만나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였다.

돌아 나와 할머니의 친구이자, 후배로 친밀하게 지낸 임완향(林玩香.64세, 남편 陳友仕, 66세)씨를 뵈고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부록 2) 그는 보정 시대에서 식당과 가게를 경영하는 유복한 분이셨다. 또 매년 청명(한식)날에는 할머니의 산소를 찾아가 별초도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감사했다. 우리는 이날 저녁 식사를 그 식당에서 후한 대접을 받으며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 때 누군가가 조선인이 일본군 장교를 사살했다는 이야기는 삼아시 흥화에서 들은 적이 있다고만 증언하였다.

10. 20 (일)

아침 8시 장응용(張應勇, 保亭縣城鎮文明中路 公產樓 A-106)선생의 안내로 보정현 위안소 쾌락원을 둘러본 후(부록 2) 향수(響水, 보정현 가무의 남무농장 三區 什坡隊)의 황옥봉(黃玉鳳, 본명, 黃伍仲)씨를 찾아갔다.

무지하게 험한 산길로 접어들어 1 km 정도 가 그의 집에 도착했다. 그 집은 그들이 일하던 집단 농장에서 개인에게 약간의 땅을 준 곳에 야자수 등 열기설기 허름하게 지어진 그런 곳이었다. 펜티만 입은 노인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황씨의 남편으로 황씨는 몸이 불편하여 병원을 쉽게 갈 수 있는 아들네 집에 가 계신다고 하였다. 가무의 일본군 위안소에 있었던 황씨는 자식을 낳지 못하였으나 아들, 딸 1명씩 양자를 들여 키웠고, 모두 결혼하여 따로 산다. 닭과 오리가 꽤 많은 아들 집은 본 집보다는 7, 8개 이상의 간이용 의자가 들어올 만한 거실이 환한 곳이었다.

황씨는 1925년생, 78세로 지난 4월 이후 목 아래 혹을 3개나 수술하였는데, 자꾸 다시 생기고 얼굴이 부어 눈도 잘 안 보인다고 했다.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기 위해 아들네 집에서 요양중이었다. 그래도 양쪽 팔찌와 귀고리 장식을 하였고 티셔츠와 청색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반백의 예쁜 얼굴은 지금도 볼 수 있었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라고 요청하였다.(부록 2)

황씨를 만나고 나와 가무진 가무촌(加茂鎮 加茂村)의 일본군 기지와 그 왼쪽 야자나무가 서 있는 곳이 위안소였던 곳을 멀리서나마 확인했다. 우리가 서 있던 곳이 남북을 가르는 남무교이고 아래 흐르는 강은 당시는 대수(大水)강, 지금은 가무하(河)란다. 다리 끝 남쪽이 현재 남무 농장이며 그 오른쪽이 부대, 왼쪽이 위안소인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다리 아랫부분은 당시 그대로 돌을 쌓았던 것이 남아 있고 이후 개축한 것이 뚜렷이 표가 났다. 그곳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큰 도로가 바로 등교와 능수로 이어지는 곳이었다.

두 번째 만난 피해자 진금옥(陳金玉)씨(사진9 진금옥씨)가 강 건너편에서 잡혀와 그곳에 같이 있었던 분이다.

가무의 전지후근복무대(戰地后勤服務隊)에 끌려가 폭행당한 진씨(南茂農場 北賴下村)의 증언을 듣기 위해 그 집으로 향했다. 또 다른 산 속에 위치한 진씨 집은 검은 색 흙집으로 굴속 같았다. 돌로 나뉜 집의 한 칸은 침실 겸 거실, 한 칸은 부엌으로 큰 화덕이 있었다. 여족, 묘족의 방언이 마을마다 있어 자그마치 11가지나 되는데, 그 중 장선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6, 7개란다. 아무튼 우리의 조선족 통역사 신희매씨와 한어(중국의 보통어)로, 그리고 다시 피해자에게는 그들 방언으로 이중 통역을 하여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답을 듣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

예쁘고 귀엽성 있는 진씨는 깡마른 체격이었지만 활달한 모습이였다. 우리가 들어가 앉은 방은 어두운 굴속 같았지만 자세히 둘러보니 모기장을 친 침대와 책상 옆에 옷가지가 걸려 있었고, 의자도 몇 개 있었다. 그곳은 아무리 깡촌이라도 크고 작은 의자들이 몇 개나 있어 손님이 가면 금방 준비되는 것이 아마도 그들의 생활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옆방 화덕 위에는 시뻘건 불 위에 스프라도 끓이는지 솥이 올려져 있었다. 진씨는 한쪽 팔에는 금속 팔찌(은이겠지)를, 다른 한 쪽에는 옥팔찌를 끼고, 검은 색 머리띠를 치렁치렁 늘어뜨린 것이 소녀들이나 할 것 같은 악세서리 같았다. 검은색 바지에 긴팔 브라우스와 모두 잘 어울리는 멋쟁이였다. 이웃의 몇 명 부인들이 어느새 모여들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가끔 거들기도 하였다. 그곳 더위를 내쫓는 데 쓰이는 얇은 나무판 부채가 신기하게 보였다. 엄청 시원할 것 같아 무척이나 부럽기도 하였다. 어쨌든 할머니의 계속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

이지 않을 수 없었다.(부록 2)

아직도 할머니는 베틀로 천을 짜서 직접 치마를 만들어 입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약한 할머니가 일제에 온몸으로 항거하며 지금까지 살아 계시고 또 자신과 다른 여성을 위해 일본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에 경이와 경의를 동시에 느끼며 그곳을 나왔다. 한 40여분 차로 가다 보니 길가의 아담한 벽돌집이 있었다. 그곳이 바로 당시 주민을 뽑아 일본군에 보낸 라이징(賴進興)씨의 집이라는 장선생의 설명을 들었다. 그는 한족으로 전쟁이 끝나고 중국 정부가 들어서자 재판을 받고 오랜 감옥 생활을 했다. 그리고 76년엔가 감옥에서 병사했다. 그의 자식들이 지금도 계속 그곳에서 산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고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는 생각에 착잡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물리적 고통과 함께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 후로도 30분 가량 산 속으로, 산 속으로 계속 들어가 그 안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깊은 곳에 이르러 내렸다. 정말 험한 산길을 헤쳐 간신히 들어 왔기에 그곳에 아직도 나무로 집을 짓고 있는 모습(사실은 사위 집을 수리 중이었다)은 아주 새삼스럽기만 하였다. 그만큼 깊은 산 속이었다.

그곳이 우리가 만나려고 한 **묘족 피해자 등옥민(鄧玉民)(사진10 등옥민씨)**씨의 집이 있는 향수진 십재촌(什齋村)이었다. 할머니는 딸이 만들어 줬다는 묘족 고유 의상과 모자도 스카프도 아닌 화려한 수가 새겨진 천 조각을 쓰고 계셨다. 검은 색의 윗옷 양팔에는 머리의 것과 같은 화려한 수가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딸과 사위, 외손이 한 가족으로 살고 있었고, 묘족은 기본적으로 짝시 같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목민이었다고 한다. 사위와 딸 체계란(蔡桂蘭)씨, 그리고 외손들도 그곳에 그렇게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한 폭의 그림 속의 사람들 같아 보였다면, 아니 슬로 모션으로 찍은 비디오를 보는 듯한 정말 안정된 정적인 광경으로 그 평안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잔잔히 스며들어 오는 느낌은 나만이 받은 것일까? 그 때까지 아직 햇빛은 눈부셨지만 깊은 산, 나무 그늘 탓인지, 서늘함과 상큼함이 하루의 피곤조차 산뜻하게 씻어 가는 듯했다. 할머니의 집은 우선 환했고, 시멘트 바닥에 비닐 옷장이 2개 들어 있는 방들이 몇 개 있었다. 딸이 먼저 할머니가 쾌락원(위에 나온 곳이 아니다)에 계셨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이들이 말하는 쾌락원이란 위안소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이해된다.(부록 2)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사시는 할머니의 피해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을까? 이는 소수민족문화사에 깊은 관심이 있던 장선생이 마침 정부의 부빈(扶貧)공작 사업을 위해 깊은 산골의 원주민들을 찾아다니던 중 이 할머니를 여러 차례 만나고 이야기하다가 알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다른 여성 이야기만 하다가 마침내 할머니 자신의 이야기도 하시게 되었다. 그것도 박래순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후에서야 겨우 입을 여셨다고 한다.

딸의 다짐을 뒤로하며 우리는 돌아갈 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 가난에도 우리에게 뭔가를 선물하고 싶어했다. 영지버섯 비슷하게 생긴 몸에 아주 좋다는 큰 버섯 한 송이를 결국 받아 나와서 장선생님께 드렸다. 그들의 하나 같은 소원 일본의 가해 사실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고, 철저한 사죄와 보상이 이뤄질 날이 언제일지. 할머니를 뵈러 갈 때보다 더 무거워진 마음으로 안타까운 작별을 하고 돌아 나왔다. 그 깊고 깊은 산 속보다 더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의 세계로 돌아 나오는 느낌은 차라리 아련하기만 하였다.

10. 21 (월)

해남도는 현재 도로 곳곳에 공사를 하며 길을 넓히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중이었다. 그 공사를 하다 만 곳은 결국 도로가 끊기고 만다. 삼아에서 능수 가는 길이 바로 그랬다. 우리는 포장되지 않은 시골길을 물어 물어 제발 잘못가지 않기를 바라며 조심스레 능수로 향했다. 워낙 기도하는 심정으로 출발한 탓인지 큰 문제없이 큰 도로로 접어들어 안도의 숨을 내쉬며 능수로 갈 수 있었다. 그것만도 감사했는데, 산관가(産管街) 2구(區)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능수현 여족 자치기율검사위원회에 도착, 능수 시 정부 자리는 옛 일본군 부대 자리로 아주 넓었다. 아무튼 그곳에서 정협을 물어 가보니 1명은 해구에 출장 중이고 1명은 다시 건설여국토 환경자원국(建設與國土 環境資源局)에 가서 만날 수 있었다. 그곳 주임 풍소웅(馮少雄)씨는 양쪽 일을 겸하고 있는 분이였다. 그를 만난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큰 행운이었다. 40대 전후의 그는 선뜻 자신도 조사하고 싶던 차였다며 자신의 카메라를 가지러 집에 들러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약속대로 그는 온 종일 우리를 안내하고 통역도 도맡아 해준 바람에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먼저 풍선생의 안내로 만난 막동호(莫同湖, 84세)씨는 현재 그대로 남아 있는 **취려원(翠麗園) 위안소(사진11 취려원위안소)**(능수현 성진 해방항로 13)의 주인이었다. 그곳에는 모두 조선인 여성 7, 8명이 있었다고 한다. 막씨의 부친이 지은 지 72년이 된다는 이 집은 규모가 크고 화려한 2층 건물이었다. 가운데 넓은 홀에는 큰 항아리, 의자 자전거 등 가재 도구와 함께 역시 관이 놓여 있었다. 홀 양쪽으로 가족의 방과 주방 등이 7, 8칸이나 되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한쪽은 폐쇄되어 있었는데, 2층의 가운데에는 제실도 있어 “가문의 영광”을 생각해 하는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양쪽 마루바닥 방의 출입문은 쇠도르레에 단단하고도 일정하게 굽은 나무봉으로 가로질러 자물쇠도 큰 것이 매달려 있었고, 천장에 아주 작은 창문이 2개 나있어 마치 감옥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곳 2층이 위안소로 사용되었을 때 여성들의 감금 상태를 충분히 연상케 하였다. 이야기의 실마리는 우선 그 집의 영광에서 시작하였다.(부록 2) 1층 홀에 붙여진 공군 소위 사진이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남도 지주 집의 수난의 역사를 보는 듯했다. 그 집에 부수된 단층 건물 2채와 조금 떨어진 곳, 한 때 전신국 숙소로 쓰였고, 현재 방관소(房管所) 건물도 당시 위안소를 허물고 새로 지은 것이란다.

마침 막씨의 딸이 베이두(北斗)의 한 노인을 소개해주었고, 우리를 그 노인에게 안내해 주었다. 11시 5분 우리는 능수현 능성진 북두, 동이로(東二路) 057호의 텔레비전이 놓인 거실을 지나 안쪽 집으로 찾아가 78세의 왕아교(王亞交) 노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맨발에 거의 팬티에 러닝 셔츠만 입은 옷차림에 머리도 짧은 지금도 일군처럼 보였다. 검고 거친 피부에 평생 일을 하신 건강한 모습이셨다. 이 노인은 처음 취직한 곳이 바로 이 취려원 위안소였고, 그곳에서 잡일을 했던 분이라 그곳의 생생한 생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기대 이상의 수확이었다.(부록 2) 우리는 점심을 먹은 후 술 2병을 사서 그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다시 전했다. 이곳 관습은 언제나 짝수로 선물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능수현 삼재진 후석촌(三才鎮 后石村)에 조선보국대가 노동했던 곳, 위령탑, 위안소 등을 찾아 나섰다. 입구 왼쪽에는 타조 사육장도 있었다. 2시 좀 지나 용기의(龍起義)씨 등을 만났다. 그들의 안내로 군부대와 위안소 터, **만인갱을 답사(사진12 만인갱 기념비)**하였다.

먼저 만인갱은 2000년부터 현재 대만인이 경영하는 대규모의 과수 농장 안에 있었다. 자그마한 기념비에는 「수난동포영수불후 기념피일구살해지동포(受難同胞永垂不朽 記念被日寇殺害之同胞)」라고 새겨져 있었고, 1970년 12월 20일 4442부대가 세웠다고 했다. 이 부대는 물

른 해남도의 중국군부대이다. 이곳을 개간할 때 많은 유골이 나와 이 비석이 세워진 것이다. 주변 일대를 만인갱으로 기념하는 것이다. 부대는 이곳을 신병 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유골에는 대나무의 이름표가 달려 있었고, 차례로 눕혀 있었다고 한다. 일본 해군 시설부가 이곳에서 비행장을 닦기 위해 나무 베는 일을 군공(軍工)에게 시켰다.

또 평지지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좀 더 들어가 너른 들판 안에 지금은 윗 부분만 남아 있는 우물을 보았다. 지름 1.5m에 길이 8m나 되는 큰 우물이었다. 양수기로 물을 뽑아 올려 보관했다고 한다.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는 일본군관만 사용하는 목욕 시설도 있었다고 한다. 근처 우물이 있었다. 주변 고구마 밭에 보국대 숙소가 2 채 있었고, 거기 5, 60명이 있었다. 그 반대편에는 대만보국대 숙소가 있었고, 근처 위안소에는 해구인 1명을 빼고는 전부 외국인이었다. 우물 뒤에 위안소가 있었고, 옆에는 주방도 있었다. 중년의 일본인 남녀 1명씩이 그곳에 있었다. 여자들의 나이는 20-30세 정도였다. 저녁이 되면 군인들이 몰려 왔다. 그들은 주로 사병들이었지만 군공(군에 소속된 노무자, 군속이라 할 수 있음)도 있었다.

안내한 노인은 당시 위안소에서 거름(인분)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면서 여자들을 봤다고 한다. 30명 내외의 여성이 있었던 위안소와 주방 등이 흙집으로 한줄로 늘어서 있었다. 중년의 일본인 남녀가 1명씩 있었고, 여자들 나이는 20, 30세였고 예뻐다. 저녁에 군인과 군공이 다 이용했다. 현재는 흰 석회 벽에 팔자 지붕, 함석판의 집으로 개조되어 있었고, 앞에 돼지우리 등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그곳들이 당시 다 위안소였다고 한다.

5시 좀 못돼 보정에서 30km 정도 더 들어간 본호진(本号鎭) 인민자치정부에 가서 다시 주임의 안내를 받아 조관진 정부 조관촌위원회 조효촌(祖孝村)의 **진아편(陳亞扁)씨(사진13 진아편씨와 통역의 신흥매씨)**를 만나러 갔다. 이날 일정에서 가장 마지막이었던 그곳도 역시 큰 길에서 벗어나 다시 산 속으로 20분 이상 달려, 계곡 물도 건너고 광야 같이 너른 들판도 지나 겨우 도착하였다. 흙벽돌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6시였는데 집 앞의 숲은 야자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주변에 몇 집이 더 있었다. 꽤 너른 마당에는 검은 고양이 자고 있고, 한 쪽에 병아리 집도 한국의 옛 농촌에서 볼 수 있던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있었다. 병아리의 울음소리도 들으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도 꽤 늦은데다 웬만큼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다. 또 할머니도 방언이 심하여서 통역에 곤란을 겪었다. 그래도 마침 할머니를 조사한 적이 있는 진정부의 호무진(胡茂震)씨의 힘을 빌어 간신히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원래 진씨였지만 남편 성을 따라 탁(卓)씨로도 불린다.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 가장 연하이시고 또 그만큼 나이가 어릴 때 성노예가 됐던 것이다. 할머니가 입고 계신 검은색 브라우스와 바지는 중국식이었다. 귀고리, 팔찌에 양손에 반지를 끼신 할머니는 지금도 아주 여자다운 맵시에 얼굴이 작고 예쁘셨다. 즉 진씨는 1928년생으로 74세였고, 1940년 겨울 12세 때 등교 위안소로 끌려갔다. 본인말고 같이 있었던 또 다른 분이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로 할머니는 말씀 시작하셨다.(부록 2) 그 분은 백석촌위원회 숙풍촌(白石村委會 宿風村)의 탁천매(卓天妹.1927년생)씨라고 한다.

10. 22 (화)

삼아(일본군 제 16경비대 사령부 소재지, 당시에는 애현 崖縣으로 불림) 근처를 다시 조사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아침에 구소(九所)를 지나 도로 왼편에 충파집무시장(冲波集武市長)이란 간판과 오른편 양쪽 상가를 지나는 길가에는 씨클로와 자동차로 길이 거의 꼭 차 있었다. 이렇게 운집한 광경은 이곳에 와서 처음 보는 듯했다. 소촌의 큰 수탑(사진14 소촌의

대형수탑)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또 한참을 가니 왼쪽에는 길게 잘 쌓은 돌담이 둘러 쳐져 있었고, 오른쪽은 넓은 농지로 이어져 있었다. 그 돌담을 끼고 골목으로 접어들어 한참을 간 곳은 곳곳에 무덤들이 상당히 많은 한적한 숲속 오솔길이었다. 흰색, 노랑색, 보라색 등의 크고 작은 들꽃들이 보기 좋게 피어 있는 숲속을 가다 보니 드디어 거대한 수탑이 모습을 드러냈다. 직경이 7m, 높이 20m 이상의 시멘트 구조물에, 2m 크기의 창 같은 것이 이층으로 있어 무슨 수탑이 저렇게 생겼을까 하며 둘러보고 또 둘러보았다. 수탑 입구에는 또 크고 작은 선인장이 보초 같이 서 있었다. 오른쪽 창 밑에 철사다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라낸 흔적만 남아 있었다. 그곳을 지나가던 17,8세 정도의 소녀나 30대 남자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정확하게 설명해주지는 못했다. 다만 이 수탑 근처 황류와 구소에 일본군 부대가 크게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곳을 둘러보고 동네로 나와 보니 소옹루(蘇翁樓), 흥삼당(興森堂), 경창(涼昌) 등 건물 꼭 대기에 이같은 이름이 새겨진 양식집들이 길 양쪽으로 꽤 많이 있어 작은 동리이지만 유서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마을 안쪽에 75세 정도의 노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먼저 본 수탑은 특히 황류 비행장 시설물까지 필요한 물을 땅 밑의 수관을 통해 여기서부터 공급했다고 증언해주었다. 그리고 황류의 여자들을 잡아다 기생을 시켰다. 길 닦는 일도 했다. 그런 사람들이 100여명이나 되었다. 남녀 노무자 숙소도 각 1채씩 있었다. 군인들은 2주일에 1회 정도 왔고, 황류 사람들은 잡혀와서 일을 많이 했다. 그런데 동네 남녀노소가 모이는 대로 와글와글, 시끌벅적하여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다.

다시 위안소 터를 보러 가는 길에 장례 행렬을 만났다. 관을 메고 가는 몇 사람 뒤로 2, 30명이 따라가고 있었다. 가는 도중 황류와 구소를 오가는 철길에 불형(佛亨)이라는 시골 역이 있었다. 그 철길 위에는 화물차 3칸도 정지해 있었다. 황류와 불형 12공리(公里), 불형 구소간은 5공리라고 적힌 안내 입간판도 있었고, 야자수에 가린 불형站(역) 앞은 깨끗하게 잘 다듬어져 아주 아담하고도 예쁜 시골 간이역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 철도는 물론 일제 때부터 삼아-석류 사이의 철도로 지금도 하루 1, 2회 운행한다는 해남도 유일의 철도였다.

이후 길은 먼길은 아니나 역시 비포장 도로로 길이 나뉘었다. 특히 농로 같이 길 양쪽은 광활한 농지였다. 그 가운데 덩그마니 2, 3층의 건물이 구조만 남아 있었다. 국민당이 개조한 거물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폐건물이다. 학교에서 위안소라고 가르친단다. 계단은 아직 그냥 있어 안으로 들어가 올라가 보기도 했다. 그곳에서 좀더 가니 황류 비행장(사진15 황류비행자 활주로터)이 나왔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활주로 위에는 양쪽으로 버를 널어 말리고 있었다. 당시 참혹했던 역사는 간 곳 없이 간혹 모를 베며 수확하는 농부의 모습이 한가롭기만 하였다. 오후는 뜻하지 않은 공안국 외사과의 조사로 우리 조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10. 23 (수)

23일 마지막 일정도 무시할 수 없었다. 아침에 첫날 갔던 조선촌, 남정소학교를 다시 방문하여 주일창 교사를 만났다. 40세가 좀 넘는 그분은 그 학교의 부조장이었다. 우리가 들어간 교무실에는 □교서육인(敎書育人)□ □위인사표(爲人師表)□라고 적힌 두 개의 액자가 걸려 있었고, 중국과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중국 시골의 소학교보다는 훨씬 크고 훌륭했지만 소박한 느낌은 비슷했다. 큰 은테 안경에 순박한 농부같은 주선생님은 친절하게 우리를 아버지, 주아시(周亞時)씨에게 안내해 주었다. 첫날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분이 다.(부록 2) 아들이 통역을 해주기도 하였는데, 그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항일 역사교육을

이렇게 할 것 같았다.

홍사 오자이엔 위안소를 다시 가서 소홍진(蘇洪稹)씨를 만나 증언을 듣고 싶었는데, 끝내 연락이 안돼 만나지 못했다. 점심 후에 삼아의 백월민족문화촌(百越民族文化村)을 가서 여족, 묘족의 가무 등 생활 풍습과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잠시지만 행복한 휴식도 되었다.

이후 전독광산(사진16 전독광산)으로 이동하여 먼저 입구에 세워진 ‘전독만인갱사난광공기념비(田獨萬人坑死難廣工紀念碑)’를 가보았다. 2년 전에는 없던 새로운 탑이라는 일본인 공동조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눈길을 끈 것은 이곳 추모비 탑에는 다른 탑에서는 보이지 않은 ‘조선(朝鮮)’이라는 글자가 비석에 새겨져 있었다. 규모가 상당히 큰 광산에는 큰 창고 등 일제시대 건물이 아직 그대로 있는가 하면 아직도 광산은 계속 생산 중이었다.

끝으로 양걸신(羊杰臣, 한족, 86세)씨 댁을 방문 양선생을 만났다. 이분은 정협에서 나온 책에 구가원 위안소에 관해 쓰셨고, 일제시대에는 항일 유격대를 하신 분이다.

이 분은 ‘위안부’에 관해서는 고 박래순 할머니 외에는 잘 모르셨다. 54년도에 박래순 할머니를 뵈는 적이 있다고 하며, 현재의 사회복지원 자리가 위안소터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다.

유격대 활동중에는 조선인 ‘위안부’나 조선인 보국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일제 시대에 이미 결혼을 하셨는데, 옆에 계신 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여자를 잡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는 온가족이 모두 산에 숨어 있었는데, 그 전에 마을에서 여자 하나를 죽이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모르나 칼로 목을 치는 것을 보았고, 일본군 부대가 당시에 마을에 주둔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여자를 죽이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다. 이후 우리는 삼아시 전경을 찍기 위해 서울의 남산 같은 녹회두 공원을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10. 24 (목) 오전 1시 15분 삼아를 출발, 6시 20분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다.

II. 본 보고

1. 일제의 해남도 침략사
 2. 군위안소와 군성노예 여성
 - 1) 위안소의 설치와 특징
 - 2) 군 성노예 피해자의 동원과 생활
 - 3) 피해자의 전후 생활과 트라우마 문제
 3. 조선인 강제동원,연행
 - 1) 강제동원의 배경
 - 2) 조선촌과 조선보국대
 - 3) 석록광산과 전독광산
 - 4) 만인갱
 - 5) 황류비행장
- 소결

1. 일제의 해남도 침략사

해남도는 중국의 최남단에 있는 섬으로서 대만과 비슷한 크기를 가진 섬이다.(3.39만 평방 킬로미터) 해남도의 인구는 현재 700여만인데, 그중 소수민족은 120만으로서 약 16.9%에 달한다. 가장 다수를 점하는 소수민족은 여족으로서 100 여만 명이고 묘족은 약 6만, 회족은 약 1만명이다.⁸²⁾ 소수민족이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서도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남겨 놓았다.

해남도는 기원전 111년 한무제 시기 한족에 의해 정복되었고 그 시기부터 해남도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해남도는 바다의 남쪽이라는 의미인데, 오랫동안 죄인들을 유배 보내는 장소였다. 해남도에 서구 제국주의 침략이 시작된 것은 중국이 영불 연합군에 패해 1858년 천진조약을 체결하여 가적, 문성, 나대, 삼아 등을 통상항구로 개방한 이후부터였다. 열강에게 개방되고 침략의 표적이 된 후 해남도는 특히 프랑스의 세력권 하에 있었다. 프랑스는 1899년 해남도의 대안에 있는 뇌주(雷州)반도의 광주만을 조차하는 조약을 청과 체결하여 해남도 일대를 그 세력범위로 간주하고 있었다. 1911년 신해혁명 시기부터 1926년까지 해남도에서는 중국의 대소 군벌이 지배하고 있었고, 북벌이 완성된 이후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세력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1) 일본의 해남도 침략과 지배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제국주의는 화북에서 화중, 화남으로 침략전쟁을 확대하였고 이어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으로부터 남방으로 침략전쟁을 확대함에 따라, 해남도는 남방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중시되었다. 해남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해남도의 점령은 이른바 원장(援蔣) 루트라고 불리는 버마 루트와 하노이 루트를 차단할 수 있어 대안에 있는 뇌주반도와 광동에 있는 항구들의 군수물자 수송의 중계기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요지로 떠올랐다.⁸³⁾ 또한 일본군은 해남도를 남진의 거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풍부한 광물자원 때문에 중요자원의 개발 대상지역으로서도 주목하였다.

그 결과 1938년 9월 대만총독부는 대만, 해남도, '남양군도'를 통합하여 「제국남방정책의 진진거점」으로 한다고 하는 「해남도 처리방침」을 작성하였다. 해남도 공격은 1939년 1월 17일에 히로히토일왕을 포함한 회의에서 결정되었고 1939년 2월 10일 일본 해군과 육군은 해남도를 점령하였다. 해군은 삼아에 제5함대 사령부(사령관 近藤信竹 중장)를 주둔시켜 군정사무를 담당하고, 11월에는 해군 특무부로 개칭, 조직을 확대하였다. 육군은 제21군의 지휘 하에 있는 반전지대(飯田支隊.대만혼성여단장 飯田祥次郎 소장이 지휘한 동 여단을 기간으로 한 부대)를 해구에 주둔시켰다.⁸⁴⁾

일본 제국주의는 해남도를 점령하자 1939년 4월 21일에 외무성, 육군성, 해군성 3성간에 책정된 「해남도잠정정부처리요강」에 의해 육 해군 각 정무처리기관과 외무 파견기관으로 구성된 해구연락회의를 설치하였다. 그 후 최고기관으로서 해구연락회의를 발전시킨 삼성연락

82) □海南旅游地圖冊□, 中國地圖出版社, 2001, 4쪽

83) 大藏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海南島編□,1947, 81-82쪽

84) 金靜美, 「國民國家日本の他地域,他國における暴力-海南島の場合」, 흥종필선생퇴직기념논문집, 2002

회의(三省連絡會議)를 설치하고 치안유지회를 만들었다. 남진이 구체화되고 있던 1941년 4월 1일에는 점령지 행정을 통괄하는 기관으로서 해남 경비부를 설치하였고, 치안유지회를 통합하는 형태로 괴뢰정부 경애(瓊崖)임시정부를 설립하여 정무부장(특무부장)이 최고 고문으로 취임하였다.

해남 경비부는 사령부, 제15 방비대, 제16 방비대, 해남 해군특무부, 경리부, 군수부, 항공창, 건설부, 통신대, 임시군법회 등으로 구성되어 해남도의 군정을 경비부 사령장관이 지휘하고 특무부가 군정사무를 담당하였다. 같은 해 7월 31일 방비대는 경비대로 개칭되었다.

2) 태평양 전쟁 시기 지배 전략의 수정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이후 해남도는 남진의 거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해군은 개전을 계기로 해남도의 정무에 대한 근본방침을 수정하였다. 즉 해남도에서 정무처리의 기초는 그 공략 목적을 보아 현재 작전토벌을 수행하기 위해 치안확보와 함께 군사기지의 건설에 중점을 두고, 해남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촉진하고 또 전시에 필수적인 주요 국방자원의 급한 필요에 기여함을 본지로 한다.'고 하여 해남도를 중요자원의 개발지역으로서 인식하고 해남도의 자원약탈에 박차를 가하였다.

당시 일본은 중요물자의 수입이 점점 어려워졌고 한편 일본 영토 내에서의 자금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국에 필요한 물자를 해남도의 자원개발에 의해 최대한도로 보급하려고 하였다. 일본군은 점령 직후부터 비행장, 항만, 도로 등을 정비하고 해남도의 군사기지화에 나섰다. 아울러 일본군은 해남도의 자원을 약탈하기 위하여 일본기업과 함께 광산개발, 자원개발, 철도, 도로, 항만건설 등을 추진하였다.⁸⁵⁾

해남도에서 석원(石原)산업은 전독(田獨)광산, 일본질소는 석록(石碌)철광산, 삼릉(三菱)광업은 나대석(那大錫)광산과 양각령(羊角嶺)수정광산, 천야(淺野)시멘트는 포파령(抱坡嶺)석회산의 자원약탈을 시작하였다. 삼릉광업은 해남도 북방 남봉도(南鵬島)의 텅스텐도 약탈하였다.

1939년 2월 점령 직후부터 석원산업은 해남도의 자원 조사를 개시하고 남부(현재 삼아시 교외)의 전독광산을 독점하여 “수십명의 사원과 수십명에 이르는 자위단을 조직”하고 그해 8월에 기공하여 이듬해 7월부터 철광석을 일본의 야하타 철광소로 보내기 시작하였다. 전독광산의 채광과 광산에서 파낸 철광석을 유럽항까지 운반하기 위한 철도건설을 위해 해남도의 민중뿐만 아니라 상해, 광주, 아문, 선두 등 중국본토와 홍콩, 타이완, 조선에서 연행된 사람들이 희생당했다고 한다. 일본의 남방 침략과 동시에 성장한 기업인 석원산업은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해남도에서도 조선인을 강제노동시켰다.

일본 질소는 1940년 4월 일본해군의 원조를 받아 해남도 서부에 있는 석록광산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1941년 1월에 석록광산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군 주둔지인 북려에 일본질소해남사업소 현지사무소를 설치했다. 이를 위한 노동력으로 1941년 9월에 3천명 이상의 중국인이 상해에서 화물선으로 팔소항에 도착했다.

일본군과 일본 기업은 현지 주민 뿐 만 아니라 중국대륙이나 홍콩, 타이완, 조선의 민중, 말레이 싱가포르 등지에서 포로가 된 영국병사와 오스트레일리아 병사도 강제노동에 동원하

85) 金靜美, 「일본점령하 중국 해남도에서의 강제노동-강제연행. 강제노동 역사의 총체적 파악을 위해」, 강덕상.정진성 외 공저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해남도에 대한 일본기업의 침략은 전거를 밝히지 않는 한 이 논문에 의거하였다.

였다. 그 뿐만 아니라 1943년 봄부터는 조선의 각 형무소에서 많은 수감자가 남방과건보국대의 대원으로 해남도에 연행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해남도에서는 주민을 강제노동에 동원시키기 위해 일본군이 직접 동원되었다.

3) 해남도 민중의 항일투쟁

일본이 해남도를 점령한 후 해남도민의 항일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해남도에서 일본군은 1940년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Y2 작전, 1941년 2월 하순부터 3월말까지 Y3 작전, 1941년 8월에 Y4 작전으로 이름 붙여진 도내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태평양전쟁이 개시되기 직전인 1941년 11월 25일부터 1942년 1월 말까지 해남도의 일본군은 육해공에서 ‘섬내부와 연안의 대토벌작전(Y5 작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어 1942년 6월 8일부터 25일까지 Y6 작전을, 11월1일부터 1943년 5월 하순까지 Y7 작전을 수행하였고, 1943년 12월부터 1년간 간헐적으로 Y8 작전을 실시하였다.⁸⁶⁾ 해남도 경비부의 □전시일지□ □전투상보□를 보면 1942년 3월 단계에서 해군 육전대를 중핵으로 한 치안부대의 「토벌전」에 의한 출동은 매달 3 백회를 넘고 있다. 주요한 토벌 대상은 국민당계의 보안단(경애수비사령 왕의의 군대)와 유격대, 그리고 공산군이였다. 특히 통신차단 등의 후방교란을 위한 게릴라전을 항상 수행하고 있는 공산군이 주요한 공격 대상이였다. 그러나 패전까지의 6회에 걸친 대규모 토벌전과 계속된 치안출동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은 1만에서 1만 5천인 정도의 병력을 항상 유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공산군은 그 세력을 증강시키고 있었고 그에 대항해서 보안군도 치안유지회 요원의 편입 등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벌전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⁸⁷⁾

오하계차량 증장은 해남도 경비부 사령장관으로 취임한 1944년 11월 이후 진공작전에 대비하기 위해 현지에서 재향군인을 소집하고, 대만적(臺灣籍)의 인민을 특별지원병으로 소집하여 병력의 증강을 도모하였고 방위진지를 구축하였다. 게다가 1944년 12월 철광채굴이 중지되자 식량 증산과 진지 구축을 강화하였고, ‘총력방위’를 목표로 관청 직원을 경비대로, 또 거류민을 의용대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전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1945년 8월 15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진주해운 중국군(제46군)은 각 시설을 접수하고 군을 무장 해제시켰으며, 군관 계자와 거류민은 모두 해구와 남부로 나뉘어 숙영지에 모여 일부를 제외하고 귀환했다.⁸⁸⁾

2. 군위안소와 군정노예 여성

1) 위안소의 설치와 특징

일본군은 해남도를 점령하자 곧 위안소 설치를 추진하였다. 일본군은 해남도 점령 직후 곧 대만척식주식회사(이하 대척으로 함) 사원을 해남도로 파견하도록 대만총독부에 요청하였다. 대척은 해구에 출장소를 두고 해군과 밀접한 관계 하에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중에 위안소의 건설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척은 민간회사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대척

86)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編, □中國方面海軍作戰(2), 朝雲新聞社, 1975, 163-164쪽, 282-283쪽, 373-375쪽, 395-396쪽, 439-440쪽. 金靜美, 「일본점령하 중국 해남도에서의 강제노동-강제연행. 강제노동 역사의 총체적 파악을 위해」, 강덕상. 정진성 외 공저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222-223쪽에서 재인용

87) 小池聖一, 史料解題 外交史料館所藏 □海軍省等移管南方軍政關係史料□ 解題, 104쪽

88) 小池聖一, 앞의 글, 105쪽

의 활동은 대만총독부를 중심으로 조직된 국가사업의 일부였다.

1939년 3월 해구의 해군정보부장은 대북의 해군 무관실을 통해 대척 본사에게 해군위안소의 건설을 의뢰하였다. 대척이 제국의회에 제시한 자료에서는 “현지 삼성(三省)연락회의의 요청에 의해 대만총독부를 통해 건설사업의 하명이 있어 해남 건물공사를 설립해서 그 사업에 착수”했다고 기록하고 그 하나로서 ‘해군위안소’를 들고 있다.⁸⁹⁾ 1939년 대척회사는 해군위안소, 병원, 총독부 사무소 등 주요 건축사업 방면의 예산이 약 90 만엔이었으며, 그 중에 다무라가 청부하여 대규모로 건설한 해군위안소 및 그 관련 시설에 약 4만 1천여 엔의 비용을 썼다.⁹⁰⁾

해구에 해군위안소가 1939년 6월 초 완공된 것을 필두로 해남도 각지에 위안소가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요한 군사주둔지였던 지역, 즉 일본군 횡수하진수부(橫須賀鎮守府) 제 4 특별 특별육전대 사령부 소재지였던 북려, 일본의 사세보 해군이 주둔하고 있던 임고현 신영진, 무학 제1특별결전대 사령부가 주둔한 지역인 나대 등의 중요 군사 주둔지에 많은 위안소가 세워졌다.

해구는 일본 해군사령부가 있던 지역으로서 해구 시내에 위안소가 6개 설치되었다. 우리가 확인한 위안소는 증산로에 있는 쌍미루(雙美樓), 부내가(富乃家) 등의 위안소 3곳이다. 우리를 안내해준 황예문(黃禮文)에 의하면 홍콩인이 여러 곳의 위안소를 상가와 함께 경영했다고 한다. 1998년 나눔의 집의 혜진, 김옥주, 이옥금 할머니 방문시 확인한 에비스 위안소도 바로 이 곳에 있었다.⁹¹⁾

삼아는 근처에 있는 유림(楡林)이 일본군 부대 주둔지였기 때문에 도처에 위안소가 있었다. 일본군이 당시 애현(崖縣.현재의 삼아시)에 설치한 ‘위안소’는 11개였고, 잡아 온 ‘위안부’는 모두 300여 명이었다고 한다. 이 ‘위안부’들은 대부분 조선, 대만, 일본에서 잡아온 여성들이었으며 해남도의 각 현에서 잡혀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⁹²⁾ 조선인 박래순씨가 있었던 홍사의 구가원 위안소는 지금은 삼아시 사회복지원과 아동복지원 간판이 붙어 있는데, 한 때 호텔로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임고현 신영진은 일본의 사세보 해군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었다. 현재 신영중학교 자리는 당시 일본의 사세보 해군 기지였다. 이곳에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위안소는 3군데였는데, 모두 건물이 남아 있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소학교 교사를 역임한 진위(陳偉)씨는 남아임고현 신영진(新盈鎮) 홍민남가(紅民南街) 010번지, 002호, 005호, 007호 3집이 위안소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위안소들은 신영중학교와 돌로 된 골목길로 70m도 채 안되는 거리에 있었다.

이처럼 일본군은 해남도 각지를 점령함에 따라 중요한 군사주둔지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이 적은 시골에 위치한 일본군 군영과 거점에도 위안소를 배치하였다. 따라서 일본군이 주둔한 모든 현, 도시, 읍, 향촌에 위안소를 설치하여 1941년 후에는 위안소가 널리 분포하고 있었다. 조사에 의하면 일본군은 애현의 위안소 15개를 비롯하여, 경산(瓊山)현에 5개, 문창(文昌)현에 5개, 담현(儋縣)에 7개, 임고현에 3개, 감은(感恩)현에 적어도 10개, 창강(昌江)현에 3개를 각각 설치하였으며 이밖에도 경동(瓊東), 낙회(樂會), 만영(萬寧), 정안(定安), 등대

89) 駒込 武, 『臺灣植民地支配と臺灣人 ‘慰安婦’』, □慰安婦戰時性暴力の實態1-日本, 臺灣, 朝鮮□, 綠風出版社, 2000, 142-143쪽

90) 주덕란, 『전쟁과 성산업-타이완척식주식회사의 공문서를 중심으로 한 고찰』,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 1□(정근식 외편, 삼인출판사, 2001), 127쪽

91) 해구위안소 답사는 해남방송의 姜美蘭(라디오부, 조선족) 기자의 도움을 받았다.

92) 羊杰臣, 『崖縣侵瓊日軍“慰安所”調查』, □鐵蹄下的腥風血雨□ 下, 海南出版社, 1996, 440쪽

(澄邁), 능수(陵水), 보정(保亭) 등에도 위안소를 설치하여 함께 60여 개의 위안소를 설치하였다.⁹³⁾

위안소가 다수 설치되면서 군위안소로 사용한 건물은 해구처럼 대척을 통하여 건물을 건축한 경우도 있었지만 강제로 민가를 몰수하여 개조하는 방식도 널리 사용되었다.

나대(현재는 담주로 바뀌었음)는 당시 무학 제1특별결전대 사령부가 주둔한 지역으로 일본군은 나대를 점령하자 위안소 설치를 준비하였다. 일본군은 우선 조가원(趙家園)을 강점하고 3채 12칸의 민가를 이용하여 조가원 위안소를 설치하고 1942년 2월부터 조가원 위안소에 '위안부'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담현지구 주둔 일본군의 성적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1943년 나대시의 일본군위안소를 확대하여 나대시의 민간인 가옥인 이가대원의 3채 20칸을 강점하여 이가원(李家園) 위안소를 설치하였다.⁹⁴⁾

현재 조가원 위안소는 대용상업광장(大勇商業廣場)이란 큰 간판이 붙은 백화점으로 탈바꿈하여 옛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그곳은 나대진(加來라고 불렀다)에서 가장 변화가이고 상업의 중심지였다. 이가원 위안소는 해방남로의 시정부 제2 초대소 자리로 이 두 곳은 큰 길 하나 건너면 될 정도의 바로 가까운 거리에 붙어 있었다. 담주의 허유통가(許維統家)라는 위안소 터는 애영위생원(愛嬰衛生院)이라는 병원의 길 건너 맞은편 하얀 2층집이었다. 1942년 이곳 허씨 집에 위안소를 설치, 9-10여명의 '위안부'가 있었다.

능수현의 취려원(翠麗園) 위안소는 막동호(莫同湖)씨의 2층집을 강제로 몰수하여 위안소를 만든 것으로 이 집의 2층 양쪽 마루방의 출입문은 쇠도르레에 단단하고도 일정하게 굽은 나무봉으로 가로질러 자물쇠도 큰 것이 매달려 있었고, 천장에 아주 작은 창문이 2개 나있어 마치 감옥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곳 2층이 위안소로 사용되었을 때 여성들의 감금 상태를 충분히 연상케 하였다.⁹⁵⁾

보정현은 소수민족 여족의 거주지로서 많은 여족 여성들이 전지후근복무대(戰地後勤服務隊)로 끌려갔던 지역이다. 보정현에서는 위안소 2곳을 확인하였는데, 그중 하나인 가무진 가무촌(加茂鎮 加茂村)의 일본군 기지 부근에 있던 위안소는 여족 피해 여성 진금옥씨, 황옥봉씨가 있었던 곳이다. 또 다른 하나인 '쾌락원(快樂園)' 터는 현재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었다. 당시에는 꽤 높은 언덕의 구릉 지대로 그곳에 동굴을 파 놓고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언덕 위에 위안소가 있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대부분 일본여성이 기모노 차림으로 1층 홀에서는 춤도 추고 술도 접대하다, 2층 방으로 군인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다고 한다.⁹⁶⁾

또한 황류 위안소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종강(鍾強)⁹⁷⁾의 증언이 있다.

1945년 겨울 나는 담현봉(儋縣奉)에서 황류비행장으로 전근하여 투항일본군과의 접수 수속을 담당하였고, 후에는 비행장에 남아 임시사령부 서기와 비행장 서기 등을 역임하였다. 때문에 일본군 황류비행장에 설치된 '위안소'의 사정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었다.

황류비행장의 일본군 위안소는 '군중낙원(軍中樂園)'이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군 소속 기생집이었다.

93) 蘇智良, 慰安婦研究, 上海書店出版社, 1999, 148-150쪽

94) 吳連生口述, 林良材, 梁春田, 符和積 整理, 『楚館悲歌 紅顏血淚-日軍那大慰安所 親睹記』, 鐵蹄下的腥風血雨, 續, 海南出版社, 1996, 272, 278쪽

95) 莫同湖씨의 증언

96) 張肅翁씨 증언

97) 黃流 西防村 사람으로. 현재 73세로 항일전쟁 시기 국민당 152사의 정보참모(영관급)를 역임하였다고 한다.

위안소는 황류비행장의 동문 밖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숙사가 두 칸으로 두 개의 ‘낙원’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제 1낙원은 5명의 ‘위안부’가 있었고, 제 2낙원은 16명의 ‘위안부’가 있었는데 제 1낙원은 공군 군관들에게만 향락을 제공하였고, 제 2낙원은 공군사병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었다.

“위안부”의 대부분은 광주(光州)에서 잡혀온 여인들로 내가 황류비행장에 도착하여 일본군의 행복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단지 4 명만이 남아있었다.⁹⁸⁾

황류 위안소에는 그곳의 여자들을 잡아다 기생을 시켰다. 광활한 농지 가운데 덩그마니 2, 3층의 건물이 구조만 남아 있었다. 국민당이 개조한 건물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폐건물이다. 학교에서 위안소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2) 기업위안소 문제

해남도에는 많은 일본 기업들이 진출하였기 때문에 기업위안소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석록광산으로 끌려가 해방 전까지 일본질소주식회사가 운영한 광산에서 노동과 경비, 물자수송을 했던 장달웅씨는 석록광산 근처에는 “다니는 길목마다 위안소가 있었고 이들 위안소는 군인, 군속, 민간회사원 등 가리지 않고 받았다”고 한다.

석록위안소에 관해서는 창강현(昌江縣)정치협상위원회 원고를 제공하고 오육영(吳陸榮)이 편집한 책을 보면 그 증언⁹⁹⁾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위안소’는 석록광산의 기슭에 있었고, 일본 토치카 동쪽으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현재 石礫 河南派出所와 縣供鎖貿易公司의 소재지, ‘위안소’의 건물은 건국(중화인민공화국) 후에 현식품공장과 현전분공장의 직원 기숙사로 사용되었고, 80년대 초에 철거하였다) 건축면적은 약 300여 평방미터이고 벽돌과 나무구조에 기와지붕이었으며, 건축모양은 ㄱ형이었다. 건물의 남서쪽에는 구석에 남쪽을 향해 대문 하나가 있었고, 동쪽, 북쪽을 향해 작은 문이 하나씩 있었다. 실내 한가운데는 넓이 약 1.5미터의 통로가 나 있었고, 통로 양쪽에는 칸막이로 작은 방 20여 개씩을 만들어 놓았는데 창문은 나무로 만든 일본식 창문이었으며 바닥은 시멘트로 만들었다. ‘위안소’의 대문은 일본군들이 지키고, 표객(접대받기 위해 오는 손님-역자주)들은 특별히 제작된 나무판으로 출입하였다. ‘위안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일본 관병, 총관리인, 짐장들이어서 ‘위안부’들이 손님을 접대할 때 약간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심하게 맞곤 하였다.

이들 증언에 의하면 석록위안소는 일본군과 노동자 일본인 관리자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골목 골목마다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확인한 곳은 세군데 정도이다.

북려에 있던 하등급 ‘위안소’는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안소였다. 그 위안소는 일본군 사령부에 속한 각 회사직원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는데, 돈만 있으면 신분, 계층을 상관하지 않았다. 심지어 심부름꾼이나 노역자(징용으로 끌려 온)도 들어갈 수 있었다.¹⁰⁰⁾ 능수현 삼재진(三才鎭) 후석촌(后石村)에 있는 위안소도 주로 사병들이

98) 樂東縣정치협상위원회 원고제공, 范運晰편집.?

99) 何十里,「三白“慰安婦”慘死泰半-石礫鐵鑛“慰安所”調查實錄」,口鐵蹄下的腥風血雨□下,海南出版社, 1996, 749쪽

100) 牛泊,「北黎日軍“慰安所”情況調查錄」,口鐵蹄下的腥風血雨□下,海南出版社, 1996, 711-712쪽

이용했지만 군공(軍工, 군에 소속된 노무자, 군속이라 할 수 있음)도 이용했다고 한다.

해남도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강제연행된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를 상대로 회사에서 위안시설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많다. 노무자 전용의 별도의 기업위안소와 함께 군인, 군속, 노무자가 구분 없이 이용한 위안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증언에는 군속, 군공, 민간회사원, 십장, 노동자들이 위안소를 이용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 연구는 군공, 공병, 군속 등의 성격에 대한 보다 정밀한 확인작업이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다.

2) 군성노예 피해자의 동원과 생활

(1) 동원 주체와 방법

일본군은 해남도에 위안소가 세워지자 ‘위안부’들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위안부’들을 징집하기 시작하였다. ‘위안부’의 징집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만의 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시작되었다. 대책은 위안소의 건설 뿐 만 아니라 ‘위안부’의 징집에도 깊게 관여하였다.

대책은 1939년 4월 4일의 「海南島海軍慰安所の件」이라는 문서에서 “총독부 목원(木原) 조사과장은 고산(高山) 이사에게 다음의 인원을 파견해주도록 의뢰했다”고 해서 ‘예창기(藝娼妓) 함께 90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화월(花月)과 죽지가(竹之家)’에게 자금을 융통하고 예기와 창기 10인을 파견하기로 하고 있다.¹⁰¹⁾ 4월 21일 대책회사 사장 가등공평(加藤恭平)은 총독부 총무장관 삼강이랑(森岡二郎)에게 편지를 보내 그 후 경과를 보고하고, 같은 달 18일에 ‘특요원(特要員)’을 파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파견된 인원은 위안소 경영자 3명, 예기 4명, 작부(酌婦) 7명, 하녀 2명, 요리인 1명, 잡역 2명이었다. 그 이름을 보면 예기 및 작부는 모두 일본인이라고 생각된다. 또 「대책관계 해남도 도항자 인명표」와 대조하면 예기 및 작부의 현주소는 11명 중 8명이 위안소 경영자인 오전심삼랑(奧田甚三郎)의 주소와 일치한다. 대북 교외의 북투(北投)는 온천지역으로서 군인과 고급관료의 ‘유혹지’였던 지역이며, 북투에 있는 대좌부 일부가 해남도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오전심삼랑 등은 대책으로부터 3만엔을 도항비로서 용자받은 위에 대책이 해구에 설립한 건물을 빌려 해군위안소를 운영하였다.¹⁰²⁾

대책이 해남도에 “위안부”를 송출했던 또 하나의 사례는 삼아의 해군 위안소에 관한 것이다. 1939년 5월 대책 사업과장 대서문일(大西文一)은 대만총독부 임시 남지(南支)조사국 이사장 금천연(今川淵)에게 편지를 보내 「4월 26일 부(付) 대해(臺海)기밀 제285로써 해군 무관실로부터 귀국(貴局)을 통해 소개한 건에 관해서는 별지 대로 배치한다」고 보고하고 ‘특요원(삼아방면행)의 명부를 첨부하고 있다. 이 문서를 통해 해군이 대만총독부 해군 무관실로 “위안부” 징집을 의뢰하고, 게다가 총독부 관료의 중개를 통해 대책으로 의뢰한다고 하는 경로를 알 수 있다. 이 때 특요원은 경영자 1명, 장장(帳場)장부 기입이나 회계를 보는 사람) 1명, 요리인 2명, 하녀 2명, 작부 10명이며 일행은 5월 24일에 해남도로 도항했다. 이 명부에는 본적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작부 중 1명은 조선인, 기타는 일본인임을 알 수 있다. 작부의 현주소는 위안소 경영자 옥엽우칠(葉玉友七)과 모두 동일하며 역시 북투의 대좌부 등의 일부가 이동한 것이라고 생각된다.¹⁰³⁾

101) 「海南島海軍慰安所の件」 1939년 4월 4일. 朱德蘭編輯, □臺灣慰安婦調査と研究資料集□, 1999년 7월, 18-19쪽

102) 駒込 武, 「臺灣植民地支配と臺灣人 ‘慰安婦」, □慰安婦戰時性暴力の實態1 - 日本, 臺灣, 朝鮮□, 綠風出版社, 2000, 142-143쪽

대척을 통한 ‘위안부’ 모집과 함께 취업사기나 인신매매 등의 방법도 사용되었다. 석록위안소는 홍콩 ‘합기공사(合記公司)’라는 이름으로 홍콩, 광주 등지에서 대량으로 젊은 여공들을 모집하였다. 통틀어서 300여 명의 젊은 부녀자들은 이러한 취업사기에 의해 석록광산에 왔다.¹⁰⁴⁾ 북려에 있는 위안소의 경우도 이러한 취업사기의 전형적인 경우이다. 일본군은 특무를 파견하여 회사직원으로 변장시켜서 상해, 광주, 홍콩 등지에 가서 사람을 모집하고 선동하게 하였다. 이들은 “해남도에 매우 많은 큰 병원을 설립하여 많은 처녀들을 모집하여 그곳에 보내 기술을 배워서 간호사가 되게 하려고 한다. 월급이 많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므로 집으로 많은 돈을 부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곳 중국여성들을 향해 선전하였으며, 뿐 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착비로 반 년치의 월급을 지불하였다.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던 양가의 규수들은 집안 식구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모두 ‘위안소’로 끌려갔고, 햇빛을 볼 수 없는 인간 ‘마굴(악마의 소굴)’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¹⁰⁵⁾ 팔소위안소에 있던 조선인 ‘위안부’들도 인신매매에 의해 ‘위안부’가 된 경우가 많았다고 보인다. 팔소에 있는 서송조(西松組)에서 군속으로 있었던 최성렬씨는 팔소위안소의 조선인 ‘위안부’들은 “중국, 만주 등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있던 그들 중에는 아버지에 의해 팔려온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오기 전에 술집 등 경험에 있었던 여성들은 별로 보지 못했다. 내가 알던 여자도 500원에 팔려 왔다고 했다. 나보다 2세 아래였던 그는 그때 온지 3년 정도 되었다고 하니 아마 5년은 된 것이다. 나는 그를 위해 고향으로 편지도 써주고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와 주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해남도 점령 초기 일본군의 대척을 통해 ‘위안부’ 동원은 곧 난관에 봉착하였다. 즉 대만에서 온 위안소 경영자들은 경영난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군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현지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가서 것과 같은 방식도 그 중 하나였다.

(2) 현지 여성의 전지후근복무대

일본군에 의하면 ‘전지후근복무대(戰地后勤服務隊)’의 임무는 일본군 장교와 사병들에게 빨래를 해주고 부상병을 돌보며 병영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대외 선전에 불과하였고 사실상 ‘전지후근복무대’는 양가집 여성들을 강박하여 일본군 장교와 사병들에게 성욕을 발산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그들(일본군) 멋대로 유린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¹⁰⁶⁾

‘전지후근복무대’의 인원은 대부분 현지에서 강제로 징발되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남성들과 같이 노동대로 선발된 후 그 중에 예쁜 여성들은 별도로 선발되어 담배 잎의 벌레 따기, 손질하기 등 비교적 가벼운 일을 하면서 주로 군인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성노예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여족 피해 여성 진금옥씨는 전지후근복무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103) 「人員并に物資輸送の件」 1939년 5월 9일. 朱德蘭編輯, □臺灣慰安婦調査と研究資料集□, 1999년 7월, 48-57쪽

104) 何十里, 「三白“慰安婦”慘死泰半-石硯鐵鑛“慰安所”調査實錄」, □鐵蹄下的腥風血雨□ 下, 海南出版社, 1996, 749쪽

105) 牛泊, 「北黎日軍“慰安所”情況調査錄」, □鐵蹄下的腥風血雨□ 下, 海南出版社, 1996, 712쪽

106) 張忠勇, 「日軍“戰地后勤服務隊”中的黎族婦女」, □鐵蹄下的腥風血雨□ 下, 海南出版社, 1996, 547쪽

처음 끌려갈 때 한 마을에서 몇 명씩 배당을 받아 한집에서 1명씩 뽑혀 갔다. 남자들은 다리를 놓거나 길을 닦는 일을 주로 했고, 여자들은 담배 잎의 벌레 잡는 일을 했다. 나는 예뻐서 바로 뽑혀가 폭행(강간)을 당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도망쳤다.

처음에는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가 ‘위안부’ 생활도 겹하여 하는 전지후근복무대의 성격은 등옥민씨의 증언에서도 동일하다.

내가 그곳에 가보니 이미 여성 2명이 있었다. 내가 나이가 제일 어렸다. 나도 동리에서 할당제에 의해 뽑혀 갔고, 그렇게 끌려간 여성들은 쌀의 돌이나 벌레 고르는 일, 키질 등을 했다. 나는 3일째 되는 날 폭행을 당했다. 폭행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는데, 일본군인이 뒤쫓아와서 아버지를 때리고 나를 또 잡아갔다.

해남도에 설치된 위안소 중 어느 정도 전지후근복무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지만, 진개학(陳開學), 담화량(潭和良) 등 내막을 아는 노인들의 회상에 의하면 가무, 번아, 남입 등 일본군 거점에 모두 ‘전지후근복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¹⁰⁷⁾

해남도 현지에서 강제로 징발된 전지후근복무대는 외지에서 온 ‘위안부’ 여성보다 더욱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 외지에서 온 ‘위안부’ 여성들은 부대에서 집과 옷, 식사 등을 제공받았고, 군표나 샷쿠, 성병 검사 등 나름대로 위생 시설과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지후근복무대로 동원된 소수민족 여성들은 식사조차 집에서 제공하는 것을 먹는 경우도 있었다. 여족 피해 여성 황옥봉씨는 “우리는 집에서 쌀과 채소 등을 갖다 주면 우리가 직접 밥을 해먹었고, 소금만 일본군인이 조금씩 줬다. 그 때 소금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진금옥씨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다. 즉 집에서 가까운 위안소에 있는 여성들은 먹는 것도 집에서 조달했고, 아프면 집에 가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돌아와야만 하였다. 그러나 위안소가 집에서 먼 경우는 군에서 음식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들은 보통 집에 가까운 위안소에 끌려갔기 때문에 도망가기도 쉬웠지만 또 쉽게 다시 붙잡혔고, 이로 인한 피해는 가족에게까지 크게 미치기도 하였다. 황옥봉씨의 증언에 의하면

조금이라도 도망갈 기미를 보이면 소갈이 꿰어 엮드리게 하였는데, 배 아래쪽과 등 위쪽에 각각 쇠칼 창살을 놓아 움푹달락할 수 없게 고문을 하였다. 그렇게 며칠씩이고 벌을 받아야 했다. 나중에는 중국인 유지회(일본군부 등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선발, 소개하는 기관) 라이징(賴進興)씨가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하였다. 나 때문에 온 식구가 잡혀갈까 두려워 다시 따라간 후 도망치지 못했다.

당연히 도망간 ‘위안부’들은 잡히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석록위안소에서는 ‘위안부’가 도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안소’ 사방에 경계망을 설치하여 일본군이 하루종일 순찰하였으며 경비가 매우 삼엄하였다. 도망하다가 잡힌 ‘위안부’들은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옷을 다 벗긴 후 나체로 나무에 매달아 심하게 구타하고,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하기도 하였다.¹⁰⁸⁾

일본군은 ‘위안부’ 여성들을 한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이동시켰다. 보정현에서 전지

107) 張成勇, 「日軍“戰地后勤服務隊”中的黎族婦女」, 《鐵蹄下的腥風血雨》下, 海南出版社, 1996, 547-548쪽

108) 何十里, 「三白“慰安婦”慘死泰半-石碌鐵鑛“慰安所”調查實錄」, 《鐵蹄下的腥風血雨》下, 海南出版社, 1996, 749쪽

후근복무대로 동원된 소수민족 여성들은 등교와 흥사 등 가까운 위안소거리 교대로 왔다 갔다 옮겨 다니며 성노예로 봉사할 것을 강요당하였다. 황옥봉씨는 보정에서 동족 여성 4명과 함께 ‘위안부’ 생활을 하다가 등교위안소로 끌려 갔다가 다시 보정으로 돌아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자주 지역을 이동시키는 이유를 위안소에서 잡일을 했던 능수 복두의 왕아교씨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만영(万寧)에 여자들을 따라 같이 가 밥해주고 또 같이 왔다. 그곳과 여자들을 교환했던 것 같다. 아마도 군인들이 새로운 여성을 상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일본군은 병사들의 수요에 응해서 ‘위안부’ 여성들을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일본군의 거점 지역에 파견하였다. 나대의 조가원 위안소는 일본군 측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일본군의 거점에 가서 ‘위문’하고 황군을 위로하였다. ‘위문’기간동안 ‘바나거’는 ‘위안부’들을 몇 개의 노선으로 나누었는데 각 노선은 2인 내지 3인으로 구성되어 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본군의 각 거점으로 보내어 졌다. ‘위문’의 노선은 일반적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오게되어 있었는데 때로는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위문’을 하는 경우 각 거점의 일본군 수에 따라 하루 내지 반나절, 혹은 하룻밤 정도의 시간이 결정되었다.¹⁰⁹⁾

보정현 괴뢰군 거점에서 취사원으로 일하였던 노인 임백천공(林帕公天)은 “매달 중순 일본군은 또한 삼아 군부에서 트럭으로 대, 여섯 명의 ‘위안부’를 싣고 보정의 각 거점에 데려가서 ‘순회복무’를 하도록 하였고, “위안부’가 현 소재지의 거점에 도착하게되면 역시 ‘쾌락방’의 방청소는 내가 맡아 하였다”고 회상하였다.¹¹⁰⁾ 그런데 ‘위안부’ 여성들이 황군을 ‘위문’하러 올 경우 전지후근복무대 여성들은 그 시기 동안은 좀 편하게 지냈다고 한다.

(3) 조선인 성노예

일본군이 해남도를 점령하는 동안 ‘위안부’로 충당시킨 여성들의 숫자는 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위안소에는 30여 명의 ‘위안부’가 있었으며, 규모가 큰 위안소에는 ‘위안부’가 100여 명 이상이 있었고 ‘위안부’ 수가 적은 위안소에는 ‘위안부’가 10명 정도 있었다. 황류 비행장 군인낙원위안소에는 ‘위안부’가 21명이었고, 흥사의 구가원 위안소에는 52명의 ‘위안부’가 있었으며, 애현에서 운영한 14개 위안소에는 합쳐서 400여 명의 ‘위안부’들이 있었다. ‘위안부’가 한창 흥성할 때에 나대에 ‘위안부’ 150명(조가원 위안소에 45명이 있었고, 이가대원에 105명이 있었다)이 있었고, 감은현 팔소시에 ‘위안부’ 200여 명이 있었으며, 창강현에 있는 3개의 위안소에 모두 400여명의 ‘위안부’가 있었다. 일본군이 점령한 16개의 현과 1개의 건제시(建制市) 중에 단지 위에 언급한 4개 현에만 1300여 명의 ‘위안부’가 있었다.¹¹¹⁾

해남도의 ‘위안부’들은 현지에서 모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외국에서 모집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가장 다수는 중국 본토여성들이었지만 조선인 여성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 박래순씨

109) 吳連生 口述, 林良材, 梁春田, 符和積 整理, 『楚館悲歌 紅顏血淚-日軍那大慰安所 親睹記』, 口鐵蹄下的腥風血雨 續, 海南出版社, 1996, 274쪽

110) 張成勇, 『日軍“戰地后勤服務隊”中的黎族婦女』, 口鐵蹄下的腥風血雨 下, 海南出版社, 1996, 547-548쪽

111) 蘇智良, 『慰安婦研究』, 上海書店出版社, 1999, 153쪽

가 있었던 홍사의 구가원 위안소에서는 52명의 ‘위안부’ 중 조선여성이 절반을 차지하였다.¹¹²⁾ 동방, 팔소 위안소에도 조선족은 많았으며 팔소시의 중급 위안소에는 주로 조선여성과 일본여성이 있었다. 우리가 채록한 증언에서도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왕씨는 “마당에서 제기 차기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이들이 조선인 여성인 것 같다. 안하는 여성도 있었는데, 말은 한가지로 같았다. 그러나 옷은 달랐다. 이들도 긴 치마를 입었다. 여자들이 불쌍했다.”고 하였고, 김옥주씨도 해구의 위안소에 있을 때 조선인 여성만 있었다고 하였다.¹¹³⁾ 신영의 임길소씨는 아주 어렵게 한 증언에서 조선여성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위안부’를 본적은 있다 - 보통 본토 복장을 하고 있었다. 기모노 입은 여자도 있었다. 타이완 여인은 다른 옷을 입었다. 패전 후 삼아에 갔을 때 본 조선인 ‘위안부’는 치마(裙子)를 입고 있었다. 말을 걸어야 누가 누구지 알 수 있었는데, 나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신촌의 조향영씨는 “광둥에서 일본 여성과 조선 여성들이 이곳 위안소로 많이 왔다.....능수 쪽 위안소에 한국여자 많았다. 당시 신촌의 ‘위안부’들은 모두 삼아에서 데려왔다. 10명중 4,5명이 조선 여성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4) 성병검사 등 위안소 생활

위안소는 보통 장교용과 사병용으로 나뉘어 있었다. 삼아의 경우 일본인 ‘위안부’는 장교용 위안소, 조선인 ‘위안부’는 병대용 위안소, 대만인 위안소는 군속용 위안소에 속했다.¹¹⁴⁾ 황류 위안소도 장교와 사병이 이용하는 위안소를 구분하고 있는데, 종강(鍾強)¹¹⁵⁾의 이야기에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다.

황류비행장의 일본군 위안소는 ‘군중낙원(軍中樂園)’이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군 소속 기생집이었다. 위안소는 황류비행장의 동문 밖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숙사가 두 칸으로 두 개의 ‘낙원’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제 1낙원은 5명의 ‘위안부’가 있었고, 제 2낙원은 16명의 ‘위안부’가 있었는데 제 1낙원은 공군 군관들에게만 향락을 제공하였고, 제 2낙원은 공군사병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었다.

위안소는 장교용, 사병용으로 나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안소에 소속된 ‘위안부’의 국적도 달랐고 위안소 시설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북려의 위안소에서 그 전형을 가장 잘 볼 수 있다.

북려의 위안소는 세등급으로 나뉘어 있었고 ‘위안부’의 국적과 시설이 달랐다.¹¹⁶⁾ 상등급 ‘위안소’는 북려시에 있는 두 칸 짜리 일층건물에 있었다. 이 건물은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

112) 朴來順 口述, 張忠勇 整理, 「我被騙逼當日軍“慰安婦”的經歷」, □鐵蹄下的腥風血雨□ 下, 557쪽

113) 김옥주, 「쫓고 또 쫓음서 살았어」,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엮음, 한울, 1999, 101쪽

114) 종군‘위안부’110번편집위원회 편, □종군‘위안부’110번□, 1992, 31쪽, 여순주 123에서 재인용

115) 黃流 西防村 사람으로. 현재 73세로 항일전쟁 시기 국민당 152사의 정보참모(영관급)를 역임하였다고 한다.

116) 牛泊, 「北黎日軍“慰安所”情況調查錄」, □鐵蹄下的腥風血雨□ 下, 海南出版社, 1996, 711-712쪽

는 광대한 저택이었고, 실내장식이 호화로웠고 환경이 쾌적하였다. 이 곳에는 ‘위안부’가 7-8명이 있었으며 모두 일본국적의 여자들이었다. 이 일본여자들은 젊고 예뻐서 엄격한 훈련을 받아 전문적으로 일본군 장교들만 접대하였으며 장교 이외의 사람들은 절대 손을 댈 수 없었다, 그들은 일본 전통복장(기모노)를 입었으며 짙은 화장을 하였고, 일년 내내 맛있는 음식을 제공받았으며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병이 났을 때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또 그들은 매일 오후 2시부터 저녁 6-7시까지만 손님을 접대하였다. ‘위안부’들은 일요일 혹은 쉬는 날이면 더욱 바빠졌다. 일본 장교들은 때를 지어 오곤 하였는데 보통 한 무리가 십수명 정도 되었다. 한 무리가 끝나면 다른 한 무리가 들어갔다. 장교들은 규정에 따라 특별한 상황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 주일에 한 차례만 위안소에 갈 수 있었다. 이 ‘위안부’들(일본인 ‘위안부’들)은 비록 대우가 좋고, 순서대로 한 명씩만 접대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 역시 일본군이 성욕을 발산하는 전문적인 도구로서 모욕감, 두려움,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항상 ‘대동아성전을 위한 복무’라는 선교를 들어야만 하였다. 이런 선교는 일본국적인 특무-포주가 맡아 가르침이 매우 엄격하였으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

중등급 ‘위안소’는 일본군 제 7영대 주둔지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두 채의 흰색 일층건물에 있었다. 그 안에는 ‘위안부’ 열 몇 명 정도가 있었는데 주로 대만, 조선 등지에서 왔으며 전문적으로 일본병사들을 접대하였고 일본 국적인 ‘위안부’들 보다 대우 낮았다.

하등급 ‘위안소’는 북려시 서쪽 일대의 나무숲 안에 만든 몇 채의 간이 일층건물에 있었다. 이 안에는 ‘위안부’가 20여 명쯤 있었고, 모두 속아서 잡혀 온 중국 내지의 여성들이었다. 이러한 하등급 ‘위안소’는 일본군 사령부에 속한 각 회사직원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이곳은 돈만 내면 심부름꾼이나 노역자(징용으로 끌려 온)도 들어갈 수 있었다. 이 곳의 ‘위안부’는 인신의 자유를 완전히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음식도 매우 형편없었고, 대우도 매우 좋지 않았다. 그들은 강제로 하루 24시간 손님을 접대해야 했고, 가장 많을 때는 하루에 ‘위안부’ 1인당 20여명의 손님을 접대하기도 하였다. 기생어미(포주)는 대만, 혹은 조선에서 선발되어 온 무지막지한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손이 매섭고(매질을 잘하고) 마음이 악랄하여 항상 병에 걸린 ‘위안부’를 강박하여 손님을 접대하게 하였고 규정된 접대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밥도 주지 않았다.

일본군은 민족별로 나누어 ‘위안부’를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우도 민족별로 차별하였다. 일본군이 ‘위안부’에게 실시한 성병검사에서도 그 차별 실태는 잘 드러난다. 일본군은 정기적으로 ‘위안부’에게 성병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해남도예 중군간호부로 간 일본인 여성 치요는 그 검사 실태를 잘 묘사하고 있다.¹¹⁷⁾

매주 목요일 병원 앞에 큰 텐트를 치고, ‘위안부’의 성병을 검진하였다. 가설 검진장에 4대 트럭이 왔다. 1대에 25명의 조선인 대만인 ‘위안부’를 싣고 보통 100명이 검진하러 왔다. 텐트 안에 6개의 검진대가 있었다. 위생병 책상에 있는 검진표에 ‘위안부’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위에 장교용, 병대용, 군속용이라고 써서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였다. 군의는 내진을 하지 않고 눈으로 봐 증상이 심한 경우에만 약을 주도록 지시하였다. 임병은 고름으로 쉽게 안다. 연성하감(軟性下疳)의 ‘위안부’의 성기는 석류같이 터져 딱했다. 그러나 군의는 조선인에게는 606호 주사를 놓지 않았다. 그것은 군인에게만 사용하였고 ‘위안부’에게는 요오드징크나 머큐롬을 팔라주는 것이 전부였다... 조선인 ‘위안부’는 입원을 안 시켰다. 성병에 요오드징크를 바르면 아프다고 소리내 울었다.

117) 西野瑠美子, 「我が見た海南島海軍病院の慰安婦たち」, □週刊 金曜日□, 1997. 5. 23,

그렇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성병검사 조차 소수민족 피해여성들은 받지 못하였다. 대도시의 위안소에서는 군표와 샷쿠를 이용하였고 성병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았지만,¹¹⁸⁾ 소수민족 피해 여성들은 군표, 샷쿠 등에 대해 아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진아편씨 같은 경우는 정기 검진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해남도의 이들 소수민족 성노예의 생활은 더 열악하여 형편 없었던 것이다. 이는 ‘위안부’ 생활에서조차 민족별 차별이 있었다는 점을 예시하고 있다.

3) 피해자의 전후 생활과 트라우마 문제

해남도에 있던 많은 성노예 여성들은 전쟁이 끝나자 버려졌다. 대부분의 ‘위안부’ 여성들은 자신의 나라로 어떻게든 귀국하고 일부는 해남도에 남았을 것이다. 해남도에 남은 ‘위안부’ 여성들과 해남도 출신 ‘위안부’ 여성들은 자신의 과거를 전후 거의 50년간 침묵해왔다. 해남도에서 ‘위안부’ 여성들이 만여명에 가까웠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남도에서 ‘위안부’라고 자신을 드러낸 여성들은 10 여명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그들은 대부분 소수민족 출신이고 한족의 경우는 거의 없다. 소수민족인 원주민 여성들은 점령지 주민으로 ‘전지후근복무대’로 동원되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서 성적 노예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었다.

즉 이들도 다른 성노예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성노예 생활의 경험으로 인한 직접적인 많은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들 피해 여성의 성노예 경험은 직접적인 충격에 의한 육체적 외상 못지 않은 정신적 외상이라는 이중적 상처를 이른바 ‘트라우마’라고 한다. 이같은 트라우마는 경험 당시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거의 평생 기억 속에 살아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피해가 가중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¹¹⁹⁾ 즉 일본군은 피해 여성이 강제적 성관계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 육체적 고문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고, 그들 여성을 관리하는 위안소 주인이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일본군이 자행한 일상적인 폭력과 구타 등은 그들의 육체와 정신에 깊은 상흔을 남겨 놓았다. 또한 임질이나 매독 등의 성병에 걸리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나 이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불임 상태를 초래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성노예 후유증으로 인해 이들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예를 들면 그곳에 살다 별세한 조선인 피해자 박래순씨도 그후 두 번 혼인하였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그것이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하였다고 한다(부록의 부화적씨 증언). 황옥봉씨도 이같은 성적 학대의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 증상과 특히 불임 등으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그 때 나는 온 몸이 아프고 병이 나서 집에서 약을 먹고 바르고 치료하여 6개월 정도 지나서야 회복할 수 있었다. 51년에 이름을 고쳐 옥봉이라 하고 중매인의 소개로 시집을 갔다. 2년이 지나도 임신을 못했고, 시집에서 내 과거를 알게 되어 괘시를 받으며 참으로 억울한 나날을 보냈다. 아이를 낳기 위해 남편이 온갖 약을 지어 오고 노력을 했으나 잘 안 되자 부부 관계도 악화되었다. 양자와 양녀를 데려와 키웠지만 모두 가슴 아픈 일들이다.

내게 자주 오던 소대장은 40세 정도의 키가 크고 힘이 강건한 사람으로 난폭하기 그지없었다. 그 후

118) 왕씨와 신촌의 조향영씨, 나대의 진위씨 증언 참고

119) Introduction : The Wound and the Voice,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The Jone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and London, 1966, 3쪽

일제 시대 영화라도 보면 잠이 안 오고 어찌다 잠이 들면 꿈에 그 소대장이 나와 괴로웠다. 당한 생각이 계속되어 나를 괴롭혔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그래도 남편도 이해를 해주었고, 처음에 뭐라고 하던 수근대던 이웃도 차츰 이해를 해주게 되었다.

조선인 피해자 고박래순씨의 증언은 더 생생하다.

생리 중에도 손님을 접대해야 했고, 행동이 느리면 우리를 가차없이 마구 구타하였다. 끊임없는 성교 때문에 여성들은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몹시 수척하여 적지 않은 수가 병상에 몸져누워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병세가 조금만 나아지면 일본인들은 또 다시 여성들에게 군인들을 접대하도록 강박하였다. 위안소에서는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하고, 주사를 놓고 약을 먹였다. 어떤 여성은 성병에 걸려 하체가 썩어 악취가 났다. 이 때 그녀의 침대에 빨간 번호판을 걸어놓아야만 일본군인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떤 여성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중신장애인이 되기도 하였다.¹²⁰⁾

이같은 구타와 강간, 그로 인한 질병으로 여성들은 죽음까지 당하였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여성 중에는 자살한 사례도 없지 않았다.¹²¹⁾ 뿐만 아니라 이런 피해는 피해 여성 자신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일쑤였다. 또 다른 기록된 증언이 그 같은 사례를 잘 보여준다.

내가 나대시 일본군위안소에서 일하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뒤로 들고, 눈으로 본 ‘위안부’들이 처욕을 참고 비참하게 유린당한 잔인한 상황은 음식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누워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게 하였고, 마음 역시 무척이나 괴롭게 하였다.

1943년 나는 방법을 모색하여 위안소를 도망 나와 유랑하며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녔다. 그 후 나는 자주 악몽을 꾸곤 하였는데 ‘위안부’들이 학대와 유린에 시달리고,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참경에 두려워서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였다. 일본군은 내가 도망친 것에 대단히 분노하여 내 대신 나의 부친 오아로(吳亞老)가 체포되어 끌려 가 우자정(芋子頂)에서 생매장당하였다.¹²²⁾

결국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것은 대를 이어 가족도 해야 할 일이 된 것이다. 묘족 피해자 등옥민씨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일본에게 그렇게 시달림을 당한 것을 보상받고 가난과 질병, 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다. 한 때는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다 안 보이기까지 했다.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는 것이 남은 소원이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안 되면 내 딸이 이어서라도 그 일을 해낼 것이다.

또한 이들이 탈출을 시도할 때마다 실패하고는 당한 고문 후유증도 크다. 그 때 당한 고문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 진금옥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20) 박래순 구술, 장응용 정리, “일본군에게 속고 강박 당하여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던 경험” 해남문사 자료 11집, □철제하적 성홍혈우□(鐵蹄下的腥凶血雨) 하-일군침략폭행실록, 1995, 551-559쪽

121) 오연생 구술, 임양재, 양춘전, 부화적 정리, “초관비가 흥안혈루(楚館悲歌 紅顏血淚)”, □철제하적 성홍혈우□(鐵蹄下的腥凶血雨)-일군침략폭행실록 속(續)

122) 상동

나는 예뻐서 바로 뽑혀가 폭행(강간)을 당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도망쳤다. 그러나 곧 잡혀와 전기 고문을 당했다. 몽둥이로 매도 맞아 허리와 등에 상처가 났고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 있다. 그래도 나는 또 도망쳤다. 3번째 잡혀서는 팔을 뒤로 묶인 채 앞으로 넘어 밀쳐져 얼굴에 상처가 크게 났고 얼굴 오른쪽을 칼로 베임을 당하기도 했다. 군인들은 ‘네 얼굴이 예뻐 그런 것이니 그걸 닦하라’고 비아냥거리며, 그에 대해 벌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그쪽 얼굴이 움푹 패인 것이 역력하다). 나는 4번째 또 도망쳤고 다시 잡혔다. 이 때는 뾰족한 대나무로 왼쪽 다리를 찢어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다.

한편 소수민족은 한족들과 달리 대부분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전혀 은폐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사적으로는 여전히 순결을 잃은 여성으로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도 전혀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었다. 그저 그 마을에서 그대로 따가운 시선에 노출되었고 그것을 견뎌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 역시 그들에게는 또다른 트라우마였다. 더욱이 이들은 해방 후에 일본을 위해 일한 여성으로 지목되어 또 다른 고초를 겪어야 했다. 진아편씨는 그와 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¹²³⁾

일본이 투항한 후에도 한참 산에 가서 숨어 살았다. 사람들이 우리를 일본군 특무로 의심하고 오해하였다. 그것 때문에도 또 많은 고초를 겪었다. 53년에 처음 결혼했고, 60년대에 재혼하였다. 남편은 나의 과거에 대해 알고 혼인하였다. 9번이나 임신했으나, 64년에 딸 하나만 낳을 수 있었다. 94년 남편이 사망하고 지금은 혼자 산다.

이처럼 이들 소수민족 여성들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원주민 점령지 소수민족 여성의 고통과 아픔은 그 어느 경우와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이다.

심지어는 문화혁명 때까지도 이들은 또다시 비판받는 고초를 경험하였다. 그래도 박래순씨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수난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부화적씨 증언) 이제야 이들은 현재 도쿄 지방재판소에 일본국가를 상대로 전시 여성인권 범죄와 자신들이 당한 트라우마에 대한 세계 최초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3. 해남도와 조선인 강제동원.연행

해남도는 1939년 2월에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일본에 의해 군정이 실시된다. 식민지 조선보다는 좀 더 늦은 시기에 일본군의 점령을 받게 된 곳이지만 이곳 또한 식민지 조선에 못지 않은 일본군의 피해가 남아있는 지역이다.

해남도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으며, 그 흔적들 가운데는 조선인 징용자들을 비롯한 조선인 군‘위안부’와 관련한 여러 유적지가 있다. 다음에서 살펴볼 전독광산, 황류 비행장 조선촌등은 그러한 흔적들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당시 조선에서 끌려온 여성들과 더불어 ‘해남도’ 라는 곳까지 끌려온 강제징용자들의 문제 또한 우리의 연구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부분이며, 오히려 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강제동원.연행의 문제는 함께 고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

123) 張亮勇, 「日軍“戰地后勤服務隊”中的黎族婦女」, □鐵蹄下的腥風血雨□ 下, 海南出版社, 1996, 547-549쪽 참조, 이들은 문화혁명 때 비판당했다고 한다.

에서 해남도에서 행해진 강제징용에 의한 노동의 착취·학살의 문제를 답사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1) 강제동원의 배경

(1) 조선에서의 강제동원의 배경

1930년대 전반기의 경제공황, 특히 식민지 조선에서의 농업공황은 억압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던 조선 농민생활을 더욱 파탄시켜갔다.

한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 개시에 의한 조선의 ‘대륙전진병참기지화’ 정책하에서 군사공업설비의 개시와 함께 조선민중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대책이 적극적으로 세워졌다.

일본제국주의는 1930년대 초에는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싼 값의 조선인 노동자의 확보에 힘썼고 특히 북부 조선 공업지대에는 남부 조선노동자의 이동, 노동력의 해외이동 금지 등의 대책을 취했다. 그리고 중국침략전쟁의 본격화에 수반하여 노동력의 국가적 통제 및 노동자에 대한 사상동원으로서의 ‘황민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¹²⁴⁾

1938년 ‘국가총동원법’ 공포 이후, 국민직업능력신고령(1939.1)을 비롯한 많은 노동관계 칙령이 잇따라 발동되고, 이들은 동시에 조선에 적용·실시되었다. 1939년 7월 ‘국민징용령’이 공포되었지만, 조선에서는 민족적 저항을 우려하여 형태를 바꾸어 ‘모집’ 형식의 ‘노무동원계획’이 실시되어 조선내, 일본, 기타 지역에 강제로 연행되어 갔다. 1940년에는 ‘조선직업소개령’이 공포되고 6개의 관영 직업소개서가 설치되어 보다 대대적인 노동력 동원이 강행되었다. 그리고 ‘종업자이동방지령’, ‘국민노무수첩법’ 등도 적용하여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구속이 강화되었다. 1941년 6월 조선노무협회가 만들어지고, 또 같은 해 12월에는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이 시행되어 노동력 동원은 보다 강력하게 진행되었다.

태평양전쟁 개시에 의하여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된 일본제국주의는 1942년 3월, 보다 대규모의 ‘국민동원계획’을 세우고 강제력이 더욱 강화된 ‘관알선(官斡旋)’의 방식으로 다수의 조선인을 ‘근로보국대’ 라는 이름으로 사냥하였다.¹²⁵⁾

이후고 1943년 3월에는 군부의 요청에 의하여 조선인 수형자(受刑者)를 ‘남방과견보국대’로 결성하여 남방으로 연행하고 강제노동에 종사시켰다.¹²⁶⁾

(2) 해남도에서의 강제동원의 배경

일본은 1860년대부터 1870년대에 걸쳐 북방 아이누모시리와 남방 류큐(琉球)왕국을 식민지로 삼았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북해도(北海道)’로 불려지기 이전부터 아이누모시리에 침입한 화인(和人,일본인. 아이누는 샤모라고 불렀다)은 아이누족 남자들을 고향에서 쫓아내고 강제적으로 ‘장소(어장)’에서 일을 하도록 했다. 일본인에 의한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역사는 아이누모시리에서 아이누족에 대한 강제연행·강제노동에서 시작되었다.¹²⁷⁾

124) 朴慶植,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청아, 1973, 357쪽.

125) 朴慶植, 앞의 책, 1973, 357쪽.

126) 朴慶植, 앞의 책, 1973, 361쪽.

127) 金靜美, 「일본점령하 중국 해남도(海南島)에서의 강제노동」, 『근현대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218쪽.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중국침략을 전면적으로 개시한 후 1938년 2월 26일 조선 총독부는 ‘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공포했다. (4월3일시행) 나아가 일본정부는 1939년 7월8일 ‘국민징용령’을 공포하고 1939년 7월28일자로 ‘조선인 노무자 내지이주에 관한 방침’과 ‘조선인 노무자 모집요강’(내무성.후생성 차관명의의 依命通牒)을 발표함으로써 조선에서 일본으로 ‘모집’ 방식에 의한 조선인 강제연행을 시작하였다. 이후 아시아.태평양 개전 이후 1942년 2월 일본정부는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했다.(관알선개시)¹²⁸⁾

1942년 11월17일에 일본정부는 ‘화인(華人) 노무자 내지이주에 관한 건’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1943년부터 일본으로 중국인 강제연행을 시작했다. 1943년 3월2일에는 조선에 대해 개악한 병역법을 공포하고 징병제를 실시하고 1944년 4월부터 조선에서는 징병검사가 시작되었다. 1944년 9월, 일본정부는 ‘반도인 노무자의 이입에 관한 건’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징용’에 의한 강제연행을 시작했다.¹²⁹⁾

2) 조선촌과 조선보국대

삼아(三亞)시 북방교외인 남정에는 ‘조선촌(朝鮮村)’이라는 이름의 여족(黎族)마을이 있다. 이곳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여족들이 마을을 이루며 사는 곳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이다. ‘조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그곳에 끌려온 ‘조선인’은 그 마을과 깊은 연관이 있다.

마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끌려온 ‘조선인’들이 많았던 곳이다. 마을 이름은 일제가 점령했을 당시에 붙여졌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당시 그곳에는 일본에 의해 끌려온 많은 조선인들이 있었다. 그 조선인들은 그곳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죽기도 하고 일본군에 의해 학살되기도 하였다.

일본이 패전 후 이 마을에선 종종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마을이 어수선해졌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러한 어수선한 일들이 아마 그곳에서 억울하게 죽은 조선인 원혼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고, 이후 그곳 사람들은 끌려온 ‘조선인’(조선보국대로 추정되어짐)들의 원혼을 달래주려는 의미에서 마을의 이름을 ‘조선촌’이라 지었다고 한다.

해남도에서 발행된 지역사인 정협(政協)삼아시아위원회편 『삼아문사』 제4집(1992년12월), 해남성정협문사자료위원회편, 『해남문사자료』 제6집(1993년 1월), 해남성정협문사자료위원회편, 『철제하적성풍혈우-일군침경폭행실록』 하(1995년 8월)에 의하면 거기서 살해된 조선인은 1000명 이상이라고 한다.¹³⁰⁾

그곳 조선촌에는 학살지, 발굴된 유골 안치실, 기념관(문이 걸려 들어가 보지는 못함), 우물터(현 南丁 소학교 운동장) 케적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조선촌에 남아있는 이러한 역사현장들은 사실상 현재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¹³¹⁾

128) 金靜美, 앞의 책, 1999. 219쪽-220쪽.

129) 金靜美, 앞의 책, 1999. 221쪽.

130) 김정미, 「紀州鑛山으로의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사실 추구의 과정에서」, 『구술자료로 복원하는 강제연행의 역사』 심포지엄 자료집,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위원회, 2001년12월, 42쪽.

131) 현재 이곳은 거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듯 했다. 기념관은 문이 잠겨 있었고, 발굴된 유골 안치실조차 허술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유골 안치실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의 흔적들도 제대로 철저히 발굴을 행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처리되어버려서 이후의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냥 덮어버려지는 현상을 초래했

남정 조선촌은 일정중 한번 더 답사할 기회를 가졌는데, 이후의 답사에서는 당시 조선촌에 끌려왔던 조선보국대에 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¹³²⁾

남정에 살고 있는 주아시(周亞時)¹³³⁾는 조선촌에서는 조선인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었고, 그 당시 조선인을 많이 보았었다고도 증언했다. 그들은 통(등에지는 통)을 들고 일하고 있었고, 그 통에 돌을 넣고 산위로 운반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한다. 너무 피곤해서 일을 못하는 조선인을 마구 때리고 있는 것을 목격한 일과 그들(朝鮮人)이 주로 청색옷을 입었다는 점, 그리고 어렸을 적 조선인이 나무에 매달려 일본인에게 맞아서 죽는 것을 목격한 것들에 대해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또 그가 증언한 이야기 중 당시 많은 사람들을 태워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는 진술은 조선촌에 살고 있는 다른 여족 마을 사람들 이야기와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개시 이후, 1943년 봄부터 조선의 각 형무소에서 많은 수감자가 ‘남방과견보국대’¹³⁴⁾의 대원으로 해남도에 연행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남방과견보국대원’의 선정기준은 ‘잔여형기가 1년 6개월 이상 3년 미만인 자’, ‘연령이 20세이상 40세미만인 자’, ‘선동성 과격성, 광포한 성격을 갖지 않은 자’, ‘신체건강하고 토목공사 작업에 적합한 자’, ‘사상범이나 그에 준하는 죄질을 갖지 않은 자’ 등이었다고 한다.¹³⁵⁾

‘남방과견보국대’라는 이름은 처음에 확정되지 않고 ‘남방과견대’라고 불린 듯 하다. 1943년 8월31일자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이 조선의 각 형무소장에게 ‘남방과견보국대’라는 이름으로 통일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군의 요구에 의한 국가적 긴급작업으로 과견대”는 ‘무슨무슨 보국대’라고 불려진다고 되어 있다. ‘남방과견보국대’는 일본해군의 요구에 따라 조직되었던 존재였다.¹³⁶⁾

‘남방과견보국대’가 몇회에 걸쳐, 언제까지 과견되었는지도 공표되지 않았지만 『치형(治刑)』 1943년 10월호 권말에 “제7차 남방과견보국대가 출발했다. 여기에서 최초의 예정인원이 나온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 후 1944년 2월15일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행과장인 고바야시 나가쿠라(小林長藏)는 ‘제8차 남방과견보국대’를 가까운 시일에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¹³⁷⁾

남방과견보국대 즉 조선보국대는 적어도 몇 회 이상에 걸쳐 과견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진다. 이렇게 과견된 조선인들은 어떠한 생활을 했으며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해남도에서의 답사와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들의 생활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촌’의 학살지 현장과 일부 수습된 유골들은 당시 그들의 상황을 일부나마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들이다.

일제시기 일본에 의해 강제로 해남도라는 먼 타국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하고 이유없이 그곳에서 숨져갔을 조선인들의 넓은 우리가 아닌 그곳 사람들에 의해 달래지고 있는 현실을

다고 한다. 이후 다른지역에서의 발견될 수 있는 유골의 발굴 조사는 좀 더 신중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132) 南丁小學校의 선생님(周日昌) 방문. 그 선생님의 아버님(周亞時)으로부터 당시 조선촌(朝鮮村)에 끌려왔던 조선보국대에 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133) 南丁小學校의 선생님(周日昌) 방문. 그 선생님의 아버님(周亞時)으로부터 조선촌(朝鮮村)과 홍화에 대한 구술을 들었다. 周亞時는 어렸을적부터 남정에 살았었고 자신도 또한 일본에 의해 끌려가 삼아 비행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분이다.

134) 조선보국대

135) 藤間忠顯, 「回顧 展望」, 『治刑』, 1943년 12월 호, 7-8쪽, 재인용.

136) 김정미, 앞의 책, 1999, 234쪽. 재인용.

137) 김정미, 앞의 책, 1999, 236쪽 재인용.

무심히 바라만 볼 문제는 아니다.

‘조선보국대’로 끌려간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은 해방 후 어떻게 되었는지, 생존한 사람은 없는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시 조선보국대로 끌려간 것은 아니나 일본군에 의해 해남도로 강제징용된 장달웅(82세)¹³⁸⁾은 경성상업 3학년때인 1940년 18살의 어린 나이에 강제징용에 끌려가 해남도 석록(石祿)광산에서 5년간의 세월동안 죽을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그는 “하이난 섬은 당시 일본군의 전진기지로 이곳에서도 한국 출신 ‘위안부’들이 성 노리개로 비참한 삶을 살았다”¹³⁹⁾고 증언하고 있다. 또 그는 ‘위안부’에 관련한 증언뿐만 아니라, 패망후 일본인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징용자 학살에 관해서도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다. 일본이 패망한 직후 하이난 섬 애현지역에 고립된 일본군 부대가 조선인 징용자 1300명을 칼로 난자해 학살한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 그는 지난 98년 4차례에 걸쳐 학살현장을 방문, 일부 유골을 발굴했다. 이같은 이야기는 KBS 8.15 광복절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중국 해남도에 묻힌 조선의 혼”에 자세히 소개된 바 있다.¹⁴⁰⁾

일본이 당시 몇차례에 걸쳐 ‘남방과건보국대(조선보국대)’를 파견하였다면, 그 중 다수가 사망하였다 할지라도 일부는 아직 생존해 있을 수 있다. 생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생존자를 찾으려는 노력은 자료발굴만큼이나 중요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군‘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의 문제가 모두 일제의 강제동원정책의 한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며, 일본제국주의의 전쟁 수행의 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 문제들을 바라볼 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¹⁴¹⁾

3) 석록광산과 진독광산

(1) 석록광산

우리는 10월 18일 석록 철강석 광산과 만인갱(万人坑)에 학살된 참사 현장을 답사하였다. 근처에는 「일구장비 사난광공기념비(日寇蔣匪 死難礦工記念碑)」가 1965년 10월에 세워져 있고 이곳은 만인갱(萬人坑)에서 나온 유골 모시고 사적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그곳에서 차로 5분 거리에는 위안소 일대 터(일본식 기와, 버팀목 등)와 목욕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록위안소는 일본군과 노동자 일본인 관리자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며, ‘위안부’는 300여명 정도 있었다고 한다. 골목골목마다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확인한 곳은 두군데 정도이다. 위치가 확인된 한 곳은 기와와 벽이 일제가 점령했던 그 시기 그대로의 것으로 당시에 있었던 건물의 일부가 남아있는 형태이다.

석록광산에는 위안소와 이 광산에 강제노동을 시키기 위해 징용된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있었다. 석록위안소의 ‘위안부’들과 더불어 이들 노동자들의 운명 또한 일본의 전쟁수행

138) 태평양전쟁 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의회 미주회장.

139) 중앙일보, 2001년 11월29일.

140) KBS월요다큐멘터리, 『해남도(海南島)에 묻힌 조선인의 혼』, 1998.8.31.

141) 물론 군‘위안부’ 문제가 가진 특수성을 인정해야한다. 강제징용의 문제와는 달리 해방직후 군‘위안부’ 문제는 그 문제를 드러내는 것만도 약 5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남성중심적인 민족주의 시각을 여성문제의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은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의 희생물이 되었던 것이다.

일본군이 해남도를 점령한 이듬해인 1940년 4월에 일본질소는 일본해군에 원조를 받아 해남도 서부 석록광산 조사를 시작하고 1941년 1월에 석록광산에 가장 가까운 일본군 주둔지인 북여(北黎)에 일본질소해남사업소 현지사무소를 설치했다. 석록광산의 철광석 약탈을 위해 일본질소는 ① 석록광산의 광석채굴시설 ② 석록광산에서 팔소항(출하항) 까지의 철도 ③ 팔소항의 항만시설 ④ 발전용 댐과 발전소 건설을 하고자 했다.¹⁴²⁾

해남도의 일본질소관계공사를 담당한 것은 니시마쓰 구미(西松組)였다. 일본군·일본질소. 니시마쓰 구미는 폭력을 사용하면서 일을 시켰다.¹⁴³⁾

일본 질소는 1926년 이후 조선에서 대규모 수력발전소나 비료공장, 유지공장, 화학공장, 화약제조공장, 대두조미료 공장 등을 경영하고 조선의 자원과 노동력을 약탈해왔다.¹⁴⁴⁾

석록광산은 탄광노동자 8000여명이 노역하였던 곳으로 조선보국대는 2500-3000명으로 추정되어진다. 거의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조선보국대원 중 1000명은 조선촌에 있었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분산되어 있었다고 한다. 석록에는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

석록의 철광석을 일본에 운반하고자 하는 일본군과 일본질소. 니시마쓰 구미에 생명을 빼앗긴 사람의 이름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고 그 숫자도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일본군과 일본질소는 수십만톤의 철광석을 위해 수만명을 이용하고 때로는 죽여갔던 것이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유해는 만인갱(萬人坑)이라는 곳에 버려진 것이다.

일본은 조선인은 물론 현지의 중국인들이나 여족과 같은 소수민족들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그들을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을 했던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행적들은 아직까지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죄나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에서 살펴볼 전독광산의 경우도 석록광산과 마찬가지로 일본기업과 일본에 의해 희생된 많은 이들이 발견된다.

(2) 전독광산

10월23일 우리는 전독(田獨)광산을 답사했다. 아직도 그곳은 광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채굴중인 상당히 규모가 큰 광산¹⁴⁵⁾이었다. 이곳의 광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광산의 모습이 아니었다. 보통 광산이라고 하면 땅을 깊게 파고서 지하로 들어가 채굴하는 모습을 생각하는 데 비해 이곳은 산에서 직접 채굴을 하는 형태였다. 현재의 광산의 모습 뿐만아니라 이제껏 남아있는 일제시대 건물을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되었다.

전독광산 근처에는 '전독만인갱사난광공기념비(田獨萬人坑死難廣工紀念碑)'라 새겨진 추모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이곳 추모비 탑에는 다른 탑에서는 보이지 않은 '조선'이라

142) 김정미, 앞의책, 1999, 227쪽.

143) 김정미, 앞의 책, 1999, 228쪽.재인용.

144) 『해남석록(石礫)철산개발지』, 239쪽.

145) 1939년 2월 점령 직후부터 石原(이시하라)산업은 해남도(海南島)의 자원조사를 개시하고 남부(현재 삼아시 교외)의 전독(田獨)광산을 독점하여 “수십명의 사원과 수십명의 이르는 자위단을 조직”하고, 그해 8월에 기공하여 이듬해 7월부터 철광석을 일본의 八幡(야하타)철광소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일본의 '남방' 침략과 동시에 성장한 기업인 石原산업은 1934년 7월에 일본 三重(미에)현 入鹿(이루카)村에 紀州(기슈)광산(동광산)을 개설하고 1939년부터 1천명이 넘는 조선인을 강제노동시켰다.(김정미, 앞의 책, 1999, 224-225쪽).

는 글자가 비석에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2년 전에는 ‘조선’이라는 글자가 없었던 것이었다는 일본인 공동조사자들의 이야기로 보아 아마 이 추모비는 최근에 세워진 듯 하다. 우리가 답사한 다른 여러곳에서도 우리는 기념비를 보곤했었다. 그러나 이곳에 세워진 기념비의 비문에서 “조선”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는 것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것이었고 많은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우리가 전독광산과 관련된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을 이해하는 데 두가지 점을 확실히 알려준다.

“조선”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첫째, 아마도 이곳엔 많은 조선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 둘째 기념비의 성격이 추모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조선인들이 이곳에서 죽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사실들과는 달리 우리는 아직 해남도의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지 못하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이들의 생활은 어떠한지, 그들은 얼마나 죽어갔는지 혹은 귀환했는지 등등 말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규명작업은 해남도의 조선인 군‘위안부’ 문제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시켜야 할 과제라고 사료된다.

4) 만인갱

만인갱(萬人坑)은 일본지배하의 광산에서 혹사당해 죽은 사람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묘지이고 대학살현장이고 대처형장이다. 해남도에는 전독광산, 석록광산과 팔소항(八所港) 등에 만인갱이 있다.

1958년에 전독만인갱에는 「일구시기수박해사망공우기념비(日寇時期受迫害死亡工友紀念碑)」가 세워졌다. 석록광산의 철광석을 일본에 운반해내기 위해서 일본군과 일본질소, 니시마쓰 구미는 산중의 광산으로부터 해안까지 약 50킬로의 철도와 적출항(積出港, 八所港)을 급조했다. 이 공사에서도 많은 인명이 수탈되었다. 팔소항의 만인갱(萬人坑)에는 1964년에 「일군침경팔소사난노공기념비(日軍侵瓊八所死難勞工紀念碑)」가 세워져있다.(‘瓊’은 해남도를 의미한다). 수많은 사람들을 수탈했던 석록광산에서는 1965년에 「석록철광사난광공기념비(石碌鐵鑛死難鑛工紀念碑)」가 세워졌다.¹⁴⁶⁾

‘만인갱’이라는 의미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해남도 곳곳에는 ‘만인갱’ 혹은 ‘천인갱’이라 불리는 많은 학살지가 남아있다. 비석과 같이 그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는 것부터 터만 남아 있는 곳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이러한 곳들을 통해 좀 더 분명하게 일본군의 범죄, 학살행위들은 드러난다. 현재까지 만인갱 근처의 주민들을 통해서나 그 곳의 터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터를 답사하고 조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인갱’을 있게 한 일본군의 전쟁범죄와 그 사실을 확실히 밝혀내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5) 황류비행장

일본군은 해남도의 각지에 비행장을 만들었다. 비행장 건설을 위해서 일본군은 그 지역

146) 紀州鑛山の眞實を明らかにする會, 「해남도(海南島)1998年夏」, 『ハマ-ネ』 35号, 1998.10.1.

주민들로부터 많은 토지를 수탈하고, 주민과 홍콩(香港).광주(廣州) 등으로부터 연행한 사람들을 동원했다.¹⁴⁷⁾

이러한 비행장 중의 한 곳인 황류(黃流) 소촌(小村)을 10월23일 답사했다. 이곳에는 일본인이 만든 비행장 흔적과 더불어 일본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수탑도 현재까지 남아있다. 이 수탑의 규모는 대략 직경7m, 높이 20m.정도이며, 일본측 공동조사자들에 의하면 이 제껏 발견되었던 수탑 중에서 가장 큰 수탑이라고 한다.

수탑을 답사한 후 이전에 위안소 자리였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위안소 건물은 여러 논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2층 반 건물이었다. 층계는 내부에 있었으며 상당히 큰 건물이었던 것으로 보였다. 이 위안소 건물 가까운 곳에 일본 점령시 비행장이었던 곳이 있으며. 그곳엔 아직도 활주로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비행장이었던 곳으로 보아 이 곳의 강제노동은 당연히 일본군과 연결되었을 것임에 분명하다. 일본군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위안소가 존재한다.

황류비행장에서는 비행장 건설을 위해 동원된 노동자들과 일본군의 성노예가 된 ‘위안부’들이 함께 존재했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광산들과 더불어 살펴볼 때 일본군의 강제연행에 있어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특히 이러한 강제연행이 일본군의 학살로(만인갱 혹은 천인갱)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 전쟁범죄의 심각성을 알려준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강제연행의 한 부분으로서 뿐만 아니라 단순한 노동착취를 넘어선 성착취에까지 이른 전쟁범죄의 극치를 보여주는 문제이기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소결

강제연행에 관한 연구는 이들이 해방 후 한국사회에 급격히 들어와 해방 후 정국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현지잔류 해외동포들도 민족사적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사회 변동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현재의 미흡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¹⁴⁸⁾

이러한 중요성과 더불어 강제연행에 의한 조선인 강제징용자 문제가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이 일본의 전쟁수행과정 중에 어떠한 식으로 동원이 되었으며 그 동원과정 혹은 강제노동 중에 발생한 구타.착취.살인 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확인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 속에서 그것들이 일본전쟁수행의 한 정책으로서 또한 전쟁범죄의 한 측면으로서 가지는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있다.

둘째, 이러한 시각의 견지와 더불어 이 문제가 지니는 현재적 의미에 대한 고민을 새로 시작하는 데 있다. 해방이 된지 이미 반세기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일제식민지 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은 ‘일제잔재의 청산’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우리 역사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우경화 문제가 다시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고 결국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까지 발생하는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

147) 紀州鑛山の眞實を明らかにする會, キムチョンミ, 齊藤 日出治, 佐藤 正人, 「해남도(海南島) 2002年 春」, 『ハ・マ・ネ』 50号, 2002.7.1. 35쪽.

148) 최원규, 「전시수탈경제.민족말살정책.강제연행」, 『한국역사입문』 3, 풀빛, 1996, 382 쪽.

었다. 단순히 이 문제가 과거의 문제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새삼 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과거의 문제이자 현재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는 미래의 문제이기까지 한 것이다.

[표 1] 149)

조선인 징용노동자 강제연행 상황

연도	구분	「국민동원계획」에 의한 계획수	연행 수				계
			석탄광산	금속광산	토건	공장기타	
1939	일본내지	85,000	32,081	5,597	12,141	-	49,819
	사할린	-	2,578	190	533	-	3,301
	계	85,000	34,659	5,787	12,674	-	53,120
1940	일본내지	88,800	36,865	9,081	7,955	2,078	55,979
	사할린	8,500	1,311	-	1,294	-	2,695
	남양	-	-	-	-	814	814
	계	97,300	38,176	9,081	9,249	2,892	59,398
1941	일본내지	81,000	39,019	9,416	10,314	5,117	63,866
	사할린	1,200	800	-	651	-	1,451
	남양	17,800	-	-	-	1,781	1,781
	계	100,000	39,819	9,416	10,965	6,898	67,098
1942	일본내지	120,000	74,098	7,632	16,959	13,124	111,823
	사할린	6,500	3,985	-	1,960	-	5,945
	남양	3,500	-	-	-	2,083	2,083
	계 비고 :	130,000	78,083 (77,993)	7,632	18,929	15,207 (15,167)	119,851 (119,821)
1943	일본내지	120,000	66,535	13,763	30,639	13,353	124,290
	사할린	3,300	1,835	-	976	-	2,811
	남양	1,700	-	-	-	1,253	1,253
	계	125,000 (155,000)	68,370 (68,317)	13,763	31,615	14,606 (14,601)	128,354 (128,296)
1944		290,000	82,859	21,442	34,376	157,795	286,432
1945		50,000	797	229	836	8,760	10,622
	계	907,300	342,620	67,350	108,644	206,073	724,787
총전시 현재수			121,574	22,430	34,584	86,794	365,382

1. 1944년 계획수는 연도 중간에 40만, 1943년도도 중간에 20만으로 변경되었다.
2. 1945년 계획은 제1.4분기 계획으로서 설정된 것이다.
3. 출처는 조선총독부 <제85회 제국의회 설명자료> (1944), (조선사료연구회) 《조선근대사료 연구집성》과 대장성 관리국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조선편) 9책 (1947) 이다.
4. 코헨 《전시 전후의 일본경제》(하권) p.55에도 동원계획수가 나타나 있으며,

149) 최원규, 『日帝末期 파시즘과 한국사회』, 청아출판사, 1988, 60쪽에서 재인용.

〈요시다 정부에의 공개장〉 《민주조선》 1950. 5나 《재일 조선인 도항사》에
도 후생성 노동국 발표의 숫자가 있으나, 이 표의 숫자와 약간 다르다.

5. 이 표의 연행수는 징용자와 관 알선을 합제한 것이며, 여기에 현원 징용을
더하면 더욱 많아지는 셈이다.

[표 2] 150)

군요원 송출 노무원수 조사

년도	일본내	조선	만주	중국	남방	계
1939	-		145			단위 : 명 145
1940	65		656	15 [25]		736 [746]
1941	5,396 (4,895)	1,085	384	13	9,249	16,027 (4,895)
1942	4,171 비(3,871)	[1,813] 1,723 [(90)]	293	50	16,159 (135)	[22,486] 22,396 (4,006)
1943	4,691 (2,341)	1,976 (648)	390	16	5,242	12,315 (2,989)
1944	24,071 (21,071)	121,575 (9,555)	1,617	294	5,885	45,442 (30,626)
1945	31,603 (30,606)	15,532 (11,220)	467	347		47,949 (41,826)
계	69,997 (62,784)	33,861 (21,423)	3,852	735	326,535 (135)	145,010 (84,342)

1. () 는 징용으로써 내서(內書)이다.
2. 대장성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조선편 9책에서 인용.
3. [] 는 제85회 제국의회 설명자료에 의한다.

[표 3] 151)

조선인 노동자 '국민징용' 실시상황

년 도	조 선 내	일 본 내 지	남 방 (南方)	계
1941	-	4,895	-	4,895
1942	90	3,871	135	4,096
1943	648	2,341	-	2,989
1944	19,655 (153,850)	201,189	-	220,845 (153,850)
1945	23,286 (106,295)	9,786	-	33,072 (106,295)
계	43,679 (260,145)	222,082	135	265,896 (260,145)

비고 : ()는 현원(現員) 징용숫자로써 외국서적이다.

150) 최원규, 앞의 책, 1988, 66쪽에서 재인용.

151) 최원규, 앞의 책, 1988, 58쪽에서 재인용.

참고문헌

- 朴慶植,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 청아, 1973.
- 최원규, 『日帝末期 파시즘과 한국사회』, 청아출판사, 1988.
- 김정미, 「紀州鑛山으로의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사실 추구의 과정에서」, 『구술자료로 복원하는 강제연행의 역사』 심포지엄 자료집,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위원회, 2001년12월.
- 藤間忠顯, 「回顧 展望」, 『治刑』, 1943년 12월 호
- KBS월요다큐멘터리, 『해남도(海南島)에 묻힌 조선인의 혼』, 1998.8.31.
- 紀州鑛山の眞實を明らかにする會, 「해남도(海南島) 1998年夏-전독(田獨)만인갱(万人坑).석록(石礫)만인갱(万人坑).조선촌(朝鮮村)」, 『ハマト-ネ』 35 , 1998.10.1.
- 紀州鑛山の眞實を明らかにする會, 「해남도(海南島) 2000年春-조선촌(朝鮮村).后石村.大坡村.羊角嶺水晶鑛山」, 『ハマト-ネ』 42 , 2000.7.
- 紀州鑛山の眞實を明らかにする會, 「해남도(海南島) 2001年1月-해남도(海南島)駐屯日本海軍第16警備隊に 虐殺された朝鮮人の遺骨が'發掘'された」, 『ハマト-ネ』 45 , 2001.4.
- 紀州鑛山の眞實を明らかにする會, キムフヨミ, 齊藤 日出治, 佐藤 正人, 「해남도(海南島) 2002年 春」, 『ハマト-ネ』 50 , 2002.7.1.
- 최원규, 「전시수탈경제.민족말살정책.강제연행」, 『한국역사입문』 3, 풀빛, 1996,
- 주덕란, 「전쟁과 성산업-타이완척식주식회사의 공문서를 중심으로 한 고찰」,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 1□, 정근식의 편, 삼인출판사, 2001
- 김옥주, 「쫓고 또 쫓음서 살았어」,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엮음, 한울, 1999
- 하영이, 「10년 '위안부' 생활에 빼앗긴 일생」,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엮음, 한울, 1999
- 金靜美, 「일본점령하 중국 해남도에서의 강제노동-강제연행.강제노동 역사의 총체적 파악을 위해」, 강덕상.정진성 외 공저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蘇智良, □慰安婦研究□, 上海書店出版社, 1999朱德蘭編輯, □臺灣慰安婦調査と研究資料集□, 1999년 7월
- 羊杰臣, 「崖縣侵瓊日軍“慰安所”調査」, □鐵蹄下的腥風血雨□ 下, 海南出版社, 1996

- 朴來順 口述, 張宓勇 整理, 「我被騙逼當日軍“慰安婦”的 經歷」, □鐵蹄下的腥風血雨□ 下, 海南出版社, 1996
- 張宓勇, 「日軍“戰地后勤服務隊”中的黎族婦女」, □鐵蹄下的腥風血雨□ 下, 海南出版社, 1996
- 牛泊, 「北黎日軍“慰安所”情況調查錄」, □鐵蹄下的腥風血雨□ 下, 海南出版社, 1996
- 何十里, 「三白“慰安婦”慘死泰半-石碌鐵鑛“慰安所”調查實錄」, □鐵蹄下的腥風血雨□ 下, 海南出版社, 1996
- 吳連生 口述, 林良材, 梁春田, 符和積 整理, 「楚館悲歌 紅顏血淚-日軍那大慰安所 親睹記」, □鐵蹄下的腥風血雨□ 續, 海南出版社, 1996
- 海南旅游地圖冊□, 中國地圖出版社, 2001
- 小池聖一, 史料解題 外交史料館所藏 □海軍省等移管南方軍政關係史料□ 解題
- 西野瑠美子, 「我が見た海南島海軍病院の慰安婦たち」, □週刊 金曜日□, 1997. 5. 23,
- 駒込 武, 「臺灣植民地支配と臺灣人 ‘慰安婦」, □慰安婦戰時性暴力の實態1 -日本, 臺灣, 朝鮮□, 綠風出版社, 2000. 11.30
- 大藏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海南道編□, 1947
- 金靜美, 「國民國家日本の他地域・他國における暴力-海南島の場合」, 香港필선생퇴직기념 논문집, 2002
- 崎久保雅和, 「日本軍に 占領された 海南島からの 問いかけ」, 立命評論編輯部, □立評 타임 스□ 제 53호, 2002. 6. 21
- 海南島 元慰安婦 調査, 撮影 報告, 1997. 6 (符祝慧, 싱가포르인 증언)
- 樋原留次(三亞 空 西森隊長) 「海軍經歷과 海南島 勤務」, □三亞 航空 基地□, 三亞 空戰友會 事務所, 1980
- 海南警備府引渡 錄□ 21, 방위청 도서관장 중국민국 34년 10월 16일(1945년)
- 藤間忠顯, 「臺灣 及 海南島 視察記(2)」, □治刑□ 24권 8호, 1944. 12
- 니시노 루미코(西野瑠美子) 「내가 본 해남도 海軍病院의 慰安婦들」, □주간 금요일□, 1997. 5. 23,

III. 일본팀 공동 보고

*

이부분은 엠에스워드 파일로 올린 부분이 차례로 5개 들어 갑니다.

부록 1. 증언

1) 국내 사전 조사와 증언

(1) 2002. 8. 8 부산의 이옥금 할머니를 지난 8월 8일 방문하였다. 얼마를 별리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부터 비가 억수로 계속 내렸다.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은 3년밖에 안됐다고 깨끗하고 시설도 좋아 보였다. 마침 원장님께 전화도 미리 하고 사정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쉽게 만났고, 말씀도 들을 수 있었다. 할머니를 뵈니 생면부지가 아닌 몇 번 뵈던 분이라 어색함이 없이 몹시 반가웠다. 할머니도 사람이 그리우셨던지 아주 많이 반겨주셨다. 해남도에 관해서는 별다른 새로운 사실을 들을 수 없었지만 할머니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은 많이 다른 것들을 알았다. 그곳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외출 빼고는 다 좋다고 하시더니 다녀온 지 보름도 못 되어서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없을까 하는 할머니의 바람이셨다. 그동안 자의로든 타의에 의해서든 무척이나 많이 옮겨다니셨다는 할머니, 이제 정말 정착을 하실 수 있어야 할텐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정말 고민이 된다. 정대협에 바로 부탁을 했다. 하루라도 빨리 할머니께서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이옥금할머니(1914년 4월 25일)는 14, 5세에 혼인한 적이 있으나 17세에 일본의 친척 오빠 집으로 갔다. 22세에 부산으로 귀국하여 거제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 1939년 봄(24세 경) 동원 당시에 거제에서 부산으로 나와 대만에서 1년 정도, 40년 가을 무렵 가이난도로 옮겨 혹사당하고, 43, 4년경에는 사이공까지 갔다. 처음 일본인이 관리하는 위안소에서 조선인 관리인 강씨를 따라 위안소를 옮겨 다니며 성노예적 생활을 하였다.

종전 후 일본인 포로수용소에서 6개월간 지내다 46년 초(32세) 일본 니이지마로 이송, 이바라끼촌에서 일본 정부 배급으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집주인의 도움으로 니이지마에서 배를 타고 47년 초(33세) 부산으로 귀국, 고향 상주로 갔으나 반기는 사람은 없었다. 92년부터 거제에서 혼자 생활보호대상자로 공장 등에서 일하고 힘들게 생활하다 신고하였다.(93년 11월)

98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김옥주할머니와 같이 자신이 있었던 해남도 옛 위안소도 방문한 적이 있으나, 그곳이 어딘지 말로 설명하실 수는 없으셨다. 아마도 해구시의 에비스 위안소로 생각된다(증언 3집 99쪽)

(정부 등록신청서 내용에는 몇가지 잘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 정대협 증언 조사가 확실한 도움을 줄 것이다.)

(2) 장달웅 선생님

조희혜란연구원

장달웅 할아버지가 지난 11월 18일 정신대연구소를 방문하였다. 할아버지는 일제시기 강제징용당했던 분으로 이후 한국전, 월남전에도 참전했으며,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일생을 통해 꼭 해결하고 싶은 한가지 문제로 부쩍 고심하며 우리나라와 중국의 해남도를 오가고 있다. 해남도 '조선촌'이라는 마을에는 지금도 일제가 집단학살한 1300여구의 우리나라 사람 유골이 묻혀 있는데 이분들을 반드시 조국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이분들이 틀림없는 한국인 징용, 징병자와 군'위안부'피해자라고 믿고 계신다.

다음은 할아버지와 의 면담 가운데에서 위안소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할아버지는 위안소에 직접 가 본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시 군속이셨던 할아버지의 체험담으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나는 1941년(1920년생, 만 19세) 일제에 의해 중국 해남도 석록(海南島 石綠)으로 끌려가 해방 전까지 일본질소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광산에서 노동과 경비, 물자수송 등을 하다가, 1946년 우리나라에 돌아왔다.

내가 있던 광산에도 군인이 있었으며, 우리나라 여성들이 있는 위안소가 있었다. 내가 경비보던 망루에서도 그 위안소가 보였다. 위안소는 일자 집에 가운데 통로가 있고 그 양쪽으로 방들이 죽 들어서 있었다. 그곳은 삼사십대의 일본여자가 관리하였다. '위안부'들은 한 열 명 정도였고, 여자들은 몸빼 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 여자들 이름은 번호로 불렸다.

여자들이 샷쿠를 '간스메(통조림)' 깡통에 모았다가 수북이 쌓이면 그것을 빨아가지고 다시 쓰는 것도 봤다. 그리고 너무 힘이 들어서 도망가려다가 붙잡힌 '색시'도 본 적이 있다.

나는 위안소에 술 한 잔 먹고 친구들이 가자고 해 가본 적이 있다. 딱 한 번 갔다. 나는 군속이어서 군표로 5원을 관리하는 일본여자에게 줬다. 방은 문도 없이 포장만 걸쳐있고, 나무 침대에 다다미 한 쪽 깔린 정도로 좁디좁았다. 샷쿠는 아가씨가 주었다. 관리인 일본여자는 시간이 되자 빨리 나오라고 성화였다.

물자수송하면서 보면, 다니는 길목마다 위안소가 있었다. 길이 하천가로 나있는데 그 하천을 따라 위안소가 있었다. 특무대가 있고 일본군인들이 있고 군의관이 있고 군속들이 있으니까 가는곳마다 '위안부'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당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또 내가 아파 입원해 있을 때에는 한국아가씨들이 병원으로 검진하러 왔다. 아가씨들은 한 달에 한번 검진을 받는 것 같았다.

해방이 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석록 쪽에서만 거의 육칠백 명 정도 모여, 일 년 동안 함께 살았다. 거기에도 아가씨들이 30여명이 있었고, 거기에서 만난 한국인 남녀가 결혼한 경우도 보았다. 1946년 우리는 같이 귀국했다.(연구소 소식지 5호, 1998. 12 게재)

할아버지는 중국 해남성 政跡文史자료위원회에서 나온 책 口鐵蹄下的腥風血雨口, 상하 두권과 해남성 답사 비디오 테이프 등 관계 자료들을 주시고,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할머니들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알려주셨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선생님(태평양전쟁 강제 연행 한국생존자협 미주지부 회장)은 계속 연구소로 연락을 주셔

서 자료와 현지 연락처 등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

최근 받은 편지 자료에는 세키로쿠 철광산의 위안소를 다시 언급, 군인, 군속, 민간회사원 등 가리지 않고 여성들이 접대, 여우같이 생긴 일본 여자 관리인이 '짧은 시간'은 5원, 긴밤은 군표로 20원 이상 받았다. 사쿠 공급이 잘 안돼 강통에 모았다가 강물에 빨아 다시 썼다. 여성의 방은 다다미 1장의 공간을 썼다, 박래순은 인물이 뛰어나 고급 요정에서 일본군 장교나 회사 간부 등 특수층 인사들만이 출입하는 곳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 해군육전대 사령관 미소구찌(溝口) 대좌 이름, 부관, 저격 장소와 날짜(1946년), 조선인 회장 김정식 선생의 그 후 행적을 알고 싶다.

종전 1년 후 조선인 500여명 식량이 없어 하루 세끼 고구마, 사령관 면담 회의, 생계유지, 안전 귀국 및 무장 해제 등 논의 중 권총으로 저격, 사령관을 사살한 것이다.

(3) 강화도 민족 수련원 효천 왕사(박씨)

2002. 10. 4(금) 집에서 8시가 안돼 출발, 9시 잠실에서 유해정 연구원을 만나 롯데 상가 편의점에서 간단한 소모품을 사고, 기름도 넣고는 바로 강화로 출발하였다. 처음 가는 길이라도 표지판을 열심히 보며 큰 실수 없이 마니산 입구 공영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이 11시 40분이 지나고 있었다. 전화를 드리니 마침 외출 중이셨는데, 곧 돌아오신다고 하여 점심을 먹으며 기다리기로 하였다. 12시 30분경 다시 전화를 드리니 그곳 식당에 와 계셨다. 식사 주문 후 기다리시는 동안 인사를 드렸더니 강화도 고인돌 축제에 가셨다가 연락을 받고 바로 되돌아 오셨다는 말씀이셨다. 아뿔싸, 오늘 출발 전에 다시 전화를 드리지 않고 늘 수련원에 계시는 것으로 그냥 왔던 것이 죄송스럽기 짝이 없었다. 생각과 달리 박선생님은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셨던 것이다. 아무튼 식사를 마치신 후 선생님의 차를 따라 수련원에 도착한 시각은 거의 두시가 다 되는 때였다. 산 중턱에 우뚝 선 석탑과 단군상, 그 앞에 버티고 있는 두 마리의 호랑이도 눈길을 끌었지만 3층 건물이 시골 산속과는 어울리지 않게 웅장하였다. 당연히 넓은 홀에 들어가자 선생님과 면담 조사는 몇가지 주의 사항으로 시작되었다.

확실한 것은 선생님은 열렬한 민족운동가이시며 심령과학자로 전문인의 길을 걷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그분의 해남도 경험을 말씀해주신 것에 충실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나는 1925년경 전남 구례군 지리산 밑에서 나고 자라 일제 말 해군으로 징병, 진해에서 훈련을 받은 후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사세포(?) 남방군 파견대로 배속되었다. 그 때 같이 간 군인이 현역 100여명이었다. 대만 고웅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는 바시 해협에서 미군의 폭격을 받아 배가 침몰, 학도병을 포함, 수많은 군인이 죽었는데, 시신을 꺼안고 15시간 만에 구조되었다. 내가 해군 1기였다. 이후 해군 2, 3기와 조선보국대가 해남도에 계속해 왔다. 내가 있던 해남도 삼야의 해군육전대 제 16경비대에는 해군사령관, 노미 미노루(能美實)가 대령인지, 준장인지 있었다. 나는 정확히 사쿠라대공고사포 부대에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미군 비행기를 향해 고사포를 쏘아댔다. 1년 정도 있었는지?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항복했다. 그때부터 귀국하기까지 1년 정도 더 있었다.

당시 해군은 거의 주말마다 위안소를 의무적으로 갔다. 한꺼번에 명령에 따라 가선 줄을 길게 서 차례로 들어갔다. 위안소는 1곳으로 크고 좋았다. 장교만을 상대하는 일본인 여성과 사병을 상대하는 조선인, 대만인, 중국인 여성들이 거의 100여명 있었다. 조선인 여성이 가

장 많았다. 부대에서 나온 표를 관리인에게 주고 들어갔다. 관리인에는 일본인 여성도 있었다. 군속이라 할 수 있다. 해남도에 있는 동안 계속 갔으니, 수없이 갔다. 그러나 조선인 여자가 가없어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다는 듯 냉랭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도 종전 후 귀국할 때까지 나는 그들을 보호하려고 애썼다.

당시의 경험담을 더 이야기한다면 대만에서는 하얀 설탕을 본 것이 오래도록 머리에 남아 있고, 마라리아에 걸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는 해남도 해군장교병원이었다. 이틀만에 깨어난 나를 정성껏 간호해준 일본인 간호사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천사였다. 하리파니 마세라는 그 여성은 배가 폭격을 당해 침몰할 때 무명으로 배를 싸고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일을 도와준 일로 나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했고, 그 때 은혜를 내게 갚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끔은 그곳 카페에서 오지산(五指山) 항일 독립군지대 조선인대원들과 만난 일도 잊을 수 없다. 그들은 권총을 소지하였고 중국인 유격대 등과 협조하며 항일 투쟁을 하였다. 귀국 전 생활은 민간인은 한인자치회(동향회, 자치대)를 조직해서 집단 생활을 하고, 해군 출신 등 군인들은 조선자영대(자영단)를 조직하여 상호 협조하였다. 거기에는 군 출신 50여명, 군‘위안부’ 여성도 50여명 정도 있었다. 민간인 자치회장에는 문호와 부회장 구씨가 있었는데, 문호씨는 귀국 후 부산으로, 구씨는 북한으로 간 걸로 알고 있다. 당시 우리는 원주민의 위협을 받고 있어 일본인과 구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옷에 국기를 상징하는 붉은 색과 푸른색의 태극 모양을 그려 넣고 다녔다. 또는 미군, 중국군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한 예도 꽤 있었다. 일본의 패전 전후 1300여명의 조선인 대학살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조선인들이었다. 이후 나는 인술자의 한명으로 노미미노루와 식량 문제, 귀환 문제 등의 협상도 하였다. 귀국한 때가 46년 가을인지? 호열자가 심한 때라 배에서 바로 내릴 수가 없었다. 벼가 파랗 때 왔는데, 거의 누렇게 되어서야 내릴 수 있었다. 일본군들이 먼저 귀국한 후 마지막으로 우리가 왔다. 적어도 두세 차례 귀국선이 사람들을 태워 갔던 것이다. 아무튼 그런 생사의 위기를 넘기고 자치회, 자영대 모두가 귀국선을 타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낸 것에 나는 지금도 커다란 공지를 갖고 감사하고 있다.

‘위안부’ 여성 중에는 그곳에서 결혼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문제는 모두 일본과 한국의 민족 문제이고, 국제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나는 일본으로부터 사과나 보상을 받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한국 정부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피해 여성에 대해서도 진실은 규명해야겠지만 그들이 사회적으로 특권층과 같이 행세하고, 또 사회가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역사는 진실로 규명할 일이고, 현실은 그보다 더 급하게, 물질적으로 꼭 해결해야 할 소외계층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은가.

(4) 서울 장충동 최씨

2002. 10. 8(화) 오후 2시-5시

1920년생, 함경남도 흥남

현주소 :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93-155

전화 : 02-2279-4813

최선생님은 김정미 선생의 논문에 해남도 간 일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말씀해 주신 분으로 나와 있었다. 그 내용을 숙지하면서 당시 상황을 좀더 상세히 질문할 수 있었다. 다만 44년 종전 전에 귀국하신 탓에 종전 당시의 상황을 모르신다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아무튼 친절

하게, 그리고 아시는 것에 대해 거침없이 자세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본다.

나는 아버지는 별로 하시는 일 없이 가난한 집의 장남이었다. 위로 누님은 결혼했고 남녀 동생이 한명씩 더 있었다. 신문팔이를 해가며 일본에서 중학교까지 공부를 하였으나 취직해 돈벌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흥남질소비료공장에서 일하였다.

그러다 니시마쓰구미(西松組)회사에서 대만에 가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기로 결심하였다. 대만 다카오(高雄)에서 타이페이로 가 열흘 정도 있었는데, 다시 해남도로 가라는 명령이 내려 왔다. 기룡으로 나와 해남도 팔소에 온 때가 22세, 1942년 봄이었다. 그 때 같이 간 사람이 김승태, 석광옥 두명이었다. 그때 수마트라도 후보지로 나왔다. 가라면 가야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군에서 발급하는 군속 증명서를 가지고 회사에서 일하는 신분이다. 결국 해남도 니시마쓰구미에서 일하며 월급을 조선에서보다는 거의 10배 받았다. 당시 흥남질소비료주식회사 월급은 25원에서 30원 정도였는데, 해남도의 월급은 270원이었다. 월급은 팔소의 은행을 통해 고향으로 송금하였다.

나는 요즘 피엑스같은 배급소 일의 책임을 맡아 일본인 3명, 홍콩인 5명과 함께 사무실 안에서 비교적 편히 일한 셈이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다. 창고에서 담배, 쌀 등을 배급해주고 약간의 일용 필수품을 파는 정도였다. 나같이 돈벌러 팔소에 와 있던 조선인이 노무자를 포함하여 5, 6,000명으로 엄청 많았다.

나는 원래 육상 선수로 고향에서 서울 대회에 뽑혀가기도 하였다. 해남도에서도 일년에 1, 2번 육상경기대회가 있으면 항상 1등을 하였고, 마닐라로 경기를 하러갈 계획도 있었는데, 일본 배가 자주 격침되면서 못 가고 말았다.

팔소에는 위안소가 3곳 있었다. 친구들이 이런 폭격 상황에서 총각은 면하게 해줘야 한다고 권해서 끌려 간 적이 있다. 처음에 가선 옷을 벗은 여자를 보고는 깜짝 놀라 도망쳐 나왔다. 그리곤 두 번째 가서부터는 그런 일은 없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친구들과 어울려 갔다. 그래도 대부분이 거기 가는 것을 떳떳하게 여기지는 않았고 수줍어하거나 감추고 싶어하였다. 특히 당시 나는 가장 나이 어린 축에 들었다. 아무튼 처음 사귄 여자가 오래 정이 갔다. 그 사람이 나중에는 석록(石礫)위안소로 옮겨갔다고 하여 그를 만나러 70Km 떨어진 그곳 위안소까지 갔다. 아마 6개월 이상 그렇게 좋아하다 내가 먼저 귀국하면서 헤어졌다. 위안소는 군인, 군속 모두가 여자들 방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 들어갔다. 표를 입구에서 사가지고 방에 들어가 여자에게 주었고, 여자들은 그 표를 모았다가 이튿날 돈으로 환산해 받았다.

위안소에는 일본인, 조선인 여성은 같이 있었고, 홍콩여성 대만 여성 위안소는 따로 있었다. 거기에는 철망을 치고 일본군인이 보초를 서며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거의 강제로 끌려온 여성들로 도망갈 것을 염려해서였을 것이다. 표를 파는 여성 중에는 일본인, 조선인 홍콩인 여성도 있었다. 표 값은 홍콩 여자는 1원 50전이고, 일본, 조선인 여성은 5원이었다. 물론 긴 밤은 밤 11시부터 아침까지인데 더 비쌌다.

방은 허름하고 40여 개가 늘어서 있었다. 여자들의 나이는 20세에서 24, 5세로 거의 30세 미만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들은 거의 전라도 출신이었고, 고향을 떠난지도 4, 5년이 넘은 여성들이었다. 중국, 만주 등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있던 그들 중에는 아버지에 의해 팔려 온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오기 전에 술집 등 경험이 있었던 여성들은 별로 보지 못했다. 내가 알던 여자도 500원에 팔려 왔다고 했다. 나보다 2세 아래였던 그는 그때 온지 3년 정도 되었다고 하니 아마 5년은 된 것이다. 나는 그를 위해 고향으로 편지도 써주고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와 주었다.

팔소 육군병원은 엄청 큰 병원으로 시설도 좋았다.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50여명 있었다. 그 중에 부원장 기타지마 겐지로 박사는 훌륭한 조선인 의사였고 그 외에 경성여의전을 졸업한 조선인 여의사도 있었다. 한국인 간호사는 2명 있었다. 그런데 일본인 간호사들이 일본인 남자들이 전쟁에서 수없이 죽어 가니까 거기 와 있는 조선인 남성들과 무척이나 혼인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실제로 혼인한 경우는 못 보았다. 오히려 조선인 ‘위안부’ 여성을 돈을 많이 번 조선인 남자가 몸값을 지불하고 빼내 3년이나 동거해 사는 경우는 있었다. 내 친구가 그랬는데, 그는 한국에서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국 후에는 그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 그렇게 만나 살던 어떤 사람은 귀국 후에도 4남매를 낳고 잘 산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물론 동료 중에 임질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도 있는데, 병원에 가면 약을 주었다. 팔소 병원은 포경 수술 등도 무료로 해주었고, ‘위안부’ 여성들이 정기 검진도 그곳에 와서 받았다. 나는 공습 때 도망쳤다고 일본 헌병에게 몹시 얻어맞고 병원에 15일 입원 치료하였다. 그 때 사귀던 일본 간호사 후쿠지마는 단팔족을 내게 갖다주는 등 아주 잘했고 마침내 결혼 언약도 할 정도였지만 나는 그의 전송을 받으며 돌아 왔다.

해남도에서 돈벌이가 잘 된다는 걸 안 6촌 형들이 나의 초청장을 받고 해남도로 왔다. 그 때 해남도는 일손이 모자라 초청장만 보내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귀국 길에 모두 바다에서 돌아가셨다.

해남도에 간지 3년이 되는 44년에 악질 일본인과 말썽이 생겨 귀국하려고 했다. 팔소에서 유럽, 대만의 다카오로 돌아와 일본 나가사키(長崎)행 배를 탔다. 멀리 나가사키를 바라보며 배에 탄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는 순간 배가 격침되었다. 참으로 순식간의 일이었다. 당시 일본 배는 1, 2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십척이 큰 선단을 이뤄 한꺼번에 다녔다. 즉 군인, 군속 등이 탄 배를 해군 함대가 호위를 하고 항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때도 33척(?)의 배에 나눠 탄 사람은 모두 38,500명이었는데, 미군 잠수함 어뢰에 맞아 침몰하면서 살아 남은 사람은 겨우 246명이었다. 10시간 정도 나무 조각에 의지하고 사투를 벌이다 일본 순양함에 구출된 시간은 밤 12시 4분전이었다. 헌병들은 우리를 눈을 싸매 못보게 한 후 나가사키 수상경찰서에 연행해 갔다. 어느 여관 같은 곳에 10일 정도 수용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어떤 경우에도 일본 배의 침몰 사실을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한 후 차비 200원을 받아 다시 시모노세키를 거쳐 부산으로 입항할 수 있었다. 헌병대가 발급해준 증명서와 돈은 있었어도 계속 굶으며 서울역에서 목단강행 급행열차를 탔다. 그 기차로 고향 흥남을 가면 되는 것이었다. 기차 안에서 마침 헌병학교를 갓 졸업한 헌병 장교(준위 급)를 만나 도시락도 얻어 먹고 고향에 미리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어 가족의 마중을 받았다. 그러나 발설하지 말라는 격침 사실을 가족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나는 다시 쫓기는 몸이 되었고 이번에는 북중국 산둥성 장점의 일본강관회사로 갔다. 그곳 회계과에서 7개월 정도 일하다, 해방이 되었다.

해방 후 삶은 여기서 생략한다. 최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해남도에 조선인이 무척 많이 가 있었다는 것, 다른 곳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그곳의 군과 기업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확실한 공조체제를 이루었다는 점, 그래서 위안소도 군전용과 기업 위안소, 또는 일반 유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 군속이 함께 이용했고 다만 홍콩, 대만 등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 등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당시 그곳의 남자들은 누구든 남는 시간에 화투 노름과 위안소 출입 외에는 갈 곳이나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2) 해남도의 피해자와 관련자 증언

이름	나이	지역	비고
주학권	75세 내외	조선촌(남정촌)	조선보국대 목격.
진아랑	90세 안됨	홍화	‘위안부’, 조선보국대 목격
나아명	98세	전 독진(羅蓬村委會 草蓬村)	일하는 조선인 남녀 수없이 목격.
조향응	82세	능수현 신촌진 신건로	위안소 목격. 일제 군정 때 치안유지회 부회장함.
부화적		해남성 정협	故박래순 피해자에 대한 글 씀.
강미란		해남방송라디오기자	위안소 터 찾는데 동행 (조선족)
왕벽중		임고현 정협	중국 ‘위안부’ 조사자
박씨	1925년생	강화도 민족수련원	일제말 해군 1기로 해남도에서 복무.
최씨	1920년생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93-155	해남도의 서송조회사에서 일했음. 위안소 이용

이름	나이	지역	비고
진위(陳偉)	1926년생, 한족	신영	위안소 근처에 살았음
임길소(林吉蘇)	1925년생, 여족	신영	특무대통역병으로 근무
임량재(林良材)	1923년생	담주	‘위안부’에 대해 들은바 있음. 정협직원과 함께 ‘위안부’에 대해 조사한 바 있음.
장응용	60세 정도	보정	故박래순씨의 증언을 받으신 분.
임완향	64세	보정	공로국 직원으로 故박래순씨와 친구관계.
막동호	84세	능수	능수현 성진 해방항로 13의 주인(취려원위안소)
왕아교	78세	북두	취려원 위안소 잡역부로 일한 바 있음.
주아시	90세 정도	조선촌 남정	조선보국대 목격
여가량(余家亮)		해구	해남일보 소속 南國都市報기자
악흠(岳欽)	25세	해구	상 동
양결신	85세	삼아	지방법원판사로 퇴직. 정협 안 사택에 거주
황옥봉	78세, 1925년생	보정현 가무의 남무농장 3구 십파대	10여세에 잡혀감. 일본군 ‘위안부’ 생활함. 여족
진금옥	78세	남무농장 북뇌하촌	전지후근복무대로 끌려가 폭행당함. 여족
등옥민	78세	보정현 향수진 십재촌	쾌락원위안소, 묘족 피해자
진아편	75세, 1928년생	능수현 분호진 조관촌	등교위안소, 여족피해자

1) 황옥봉씨 : 일본군은 남녀 주민들을 잡아다 환한 광장에 몰아 놓았다. 조금이라도 도망갈 기미를 보이면 소같이 꿰어 엎드리게 하였는데, 배 아래쪽과 등 위쪽에 각각 쇠칼 창살을 놓아 움짱달짝할 수 없게 고문을 하였다. 그렇게 며칠씩이고 벌을 받아야 했다. 나는 10여세에 잡혀와 강간을 당했다.(눈물을 씻으셨다. 그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 장면은 생생하게 떠올랐고 정말 소름이 끼친다고 진저리치셨다). 집이 가까이 있어 몇 번이나 도망을 쳤지만 번번이 벌을 받았고, 나중에는 중국인 유지회(일본군부 등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선발, 소개하는 기관) 라이징(賴進興)씨가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하였다. 나 때문에 온 식구가 잡혀갈까 두려워 다시 따라간 후 도망치지 못했다. 일본 부대에서 50m 떨어진 곳에 4명의 동족 여성들이 갇혀 낮밤 없이 시달렸다. 우리는 등교위안소로 끌려가 고생하고 오기도 하였다. 등교에서도 일본군인들은 계속적으로 쉴 새 없이 4일간 강간, 폭행하여 완전히 성기구로 이용되었다. 그 때 군인을 얼마나 상대했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곤 다시 보정으로 돌아와 갇혀 지냈다. 여러 명의 군인이 여전히 왔는데, 그 중에는 일본군 소대장 1명이 내게 자주와 시달렸다. 온몸이 붓고 피부가 누렇게 되고, 아래에서 냄새가 나는 성병에 걸리면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보내 한 10일간 쉬게 했다. 그리고 좀 나아지면 다시 끌고 가 성기구 노릇을 해야 했다. 한달에 1, 2회 끌로 외국에서 예쁜 여자들이 와서 3일 정도 있곤 하였다. 그들은 긴 치마를 입고 화장도 한 예쁜 여성들이었는데, 그 때 우리는 조금 쉴 수 있었다. 20km 정도 떨어진 등교에서 부대 차로 10여명의 여성들이 실려 오곤 했다. 아마도 여자가 모자랄 때면 그들을 데려와 보충한 것 같다. 일본 옷 입은 여자도 있었고 그냥 긴치마를 입은 여자가 2, 3명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군표를 받았고 먹는 것도 부대가 다 마련해 주었다. 그들은 집 밖을 나오지 않았고 나도 그곳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른다.

우리는 집에서 쌀과 채소 등을 갖다 주면 우리가 직접 밥을 해먹었고, 소금만 일본군인이 조금씩 줬다. 그 때 소금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다. 집 앞에 충을 가진 보초가 있었고, 가까이 있는 부대 망루에는 늘 보초가 지켜 도망을 칠 수 없었다.

생리 때도 대충 씻고 그 짓을 계속 하도록 놓아주지 않았다. 몸이 아파도 약은 집에서나 갖다 줘야 먹을 수 있었다. 생리 때 무슨 약인지 모르지만 약을 줘서 먹었다. 그것 때문인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 다른 1명의 여성은 다리를 찢리면서도 약을 안 먹었다. 그는 그 후 아이를 하나 낳았다. 그 약은 하루 3번 5, 6알씩 복용했다. 그 약을 먹으면 목이 따끔하고 메스꺼워 토할 것 같았다. 3, 4일간 정도 먹었는데, 색깔은 여러 가지였다. 성병 예방인지, 임신 예방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3, 4년을 부대 옆(위안소)에서 지냈다. 일본군이 투항하기 2개월 전에 소대장이 충에 맞아 죽자 약간의 소란이 일어났다. 그 때 산으로 도망쳐 있다 일본이 투항 후 귀가할 수 있었다. 그 때 나는 온 몸이 아프고 병이 나서 집에서 약을 먹고 바르고 치료하여 6개월 정도 지나서야 회복할 수 있었다.

51년에 이름을 고쳐 옥봉이라 하고 중매인의 소개로 시집을 갔다. 2년이 지나도 임신을 못했고, 시집에서 내 과거를 알게 되어 팔시를 받으며 참으로 억울한 나날을 보냈다. 아이를 낳기 위해 남편이 온갖 약을 지어 오고 노력을 했으나 잘 안 되자 부부 관계도 악화되었다. 양자와 양녀를 데려와 키웠지만 모두 가슴 아픈 일들이다.

그 때 자주 오던 소대장은 40세 정도의 키가 크고 힘이 강건한 사람으로 난폭하기 그지없었다. 그 후 일제 시대 영화라도 보면 잠이 안 오고 어쩌다 잠이 들면 꿈에 그 소대장이 나와 괴로웠다. 당한 생각이 계속되어 나를 괴롭혔던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그래도 남편도 이해를 해주었고, 처음에 뭐라고 하던 수근거리던 이웃도 차츰 이해를 해주게 되었다.

이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그 억울함을 보상받기 위한 재판을 하고 있다. 늙어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바랄게 무엇인가. 그저 살아 있는 동안 좀더 편안히 지내다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재판에서 이기고 싶다. 비싼 병원비라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중국 정부도 우리의 재판을 적극 지지하고 도와 주기를 바란다.

2) 진금옥씨 : 처음 끌려갈 때 한 마을에서 몇 명씩 배당을 받아 한집에서 1명씩 뽑혀 갔다. 남자들은 다리를 놓거나 길을 닦는 일을 주로 했고, 여자들은 담배 잎의 벌레 잡는 일을 했다.

나는 예뻐서 바로 뽑혀가 폭행(강간)을 당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도망쳤다. 그러나 곧 잡혀와 전기 고문을 당했다. 몽둥이로 매도 맞아 허리와 등에 상처가 났고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 있다. 그래도 나는 또 도망쳤다. 3번째 잡혀서는 팔을 뒤로 묶인 채 앞으로 넘어 밀쳐져 얼굴에 상처가 크게 났고 얼굴 오른쪽을 칼로 베임을 당하기도 했다. 군인들은 ‘네 얼굴이 예뻐 그런 것이니 그걸 닦아라’고 비아냥거리며, 그에 대해 벌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그쪽 얼굴이 움푹 패인 것이 역력하다). 나는 4번째 또 도망쳤고 다시 잡혔다. 이 때는 뽕죽한 대나무로 왼쪽 다리를 찢어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다. 그 때가 아마 1944년 하반기 무렵이었다. (이 때부터 할머니는 울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셨다. 어쩌면 도망에 성공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그 눈물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았다. 그만큼 그 생활이 싫었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었음은 설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어린 소녀가 그런 고문을 감수하면서도 탈출을 기도했다니...하는 생각에 더 안쓰럽고 할머니의 용기에 숙연해졌다).

마지막에 일본군은 더 이상 도망치면 이제 네 부모를 잡아다 전기 고문을 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유는 부모가 시켜서 네가 그렇게 도망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 후에는 나는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서 병이 나 몸이 붓고 아래에서 냄새가 났다. 촌의 보장에게 알려 그가 보증을 하고 집에 데려다 병을 치료한 후 되돌아가야 했다. 소개업자 라이징씨가 우리의 상태를 보장에게 알리면 보장이 일본군에 건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그때 같이 있던 3명 여성은 등교로 갔는데 나는 병 때문에 빠졌다.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구도,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었고, 더욱이 자신들이 먼저 말할 일이 아니었다. 나도 항일 유격대가 소대장을 사살한 후 산으로 도망쳐 있다가 전쟁이 끝난 후 귀가 하였다.

우리는 명의상으로는 담배 잎의 벌레 잡는 일을 위해 동네 여성들을 모았다고 했으나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기구로 이용되었고, 지금 살아남은 여성은 3명뿐이다. 식사는 우리가 채소도 가꾸며 직접 해먹었고, 일본군은 소금을 엄격히 관리하여 우리에게 1, 2숟갈의 소금을 손에 쥐서 받아먹었다. 우리는 가끔은 일도 했지만 힘들게 일한 적은 별로 없었다. 다른 더 많은 여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도로를 보수하는 등의 일에 혹사당하였다.

현재 건강 상태는 허리와 가슴이 아프다. 오래 못 살 줄 안다. 그래도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고 병도 치료하여 더 오래 살고 싶다.

3) 등옥민씨 : 내가 그곳에 가보니 이미 여성 2명이 있었다. 내가 나이가 제일 어렸다. 나도 동리에서 할당제에 의해 뽑혀 갔고, 그렇게 끌려간 여성들은 쌀의 돌이나 벌레 고르는 일, 키질 등을 했다. 나는 3일째 되는 날 폭행을 당했다. 부모님과 자매 2명이 모두 끌려가 도로

확장과 나무 치기 등의 일을 했다. 폭행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는데, 일본군인이 뒤쫓아와서 아버지를 때리고 나를 또 잡아갔다. 아직도 생각이 난다. 처음 나를 폭행한 그 군인 얼굴이. 그는 키가 크고 얼굴이 긴 호리호리한 남자였다. 또 나를 어찌나 심하게 폭행했는지, 그곳에는 여족 여성 여러 명과 묘족 여성 3명이 있었다. 샷쿠라는 건 알지 못한다. 3년 반인가 그렇게 지내다 뒤늦게 떼올룡산으로 도망쳤다. 계속 낙동에 숨어살아 일본이 투항한 지도 몰랐다가 1달 후 삼아로 나왔다. 묘족은 집시처럼 떠돌며 살아 이웃이 다른 사람의 생활에 대해 잘 모른다. 그 후 집체화 농장에서 여족이 묘족에게 땅을 붙여 줘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 그 후 3번 결혼을 했다. 39세 때 마지막 남편에게서 낳은 딸이 지금 같이 사는 딸(채씨)이다. 자식은 모두 4명을 낳았다. 묘족은 대개 처가혼을 하여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었다. 남자들도 과부에 대해 현재만 좋으면 좋다는 식으로 그리 과거를 문제삼지 않는다. 10세 이상의 연하 남자와 현재 산다.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일본에게 그렇게 시달림을 당한 것을 보상 받고 가난과 질병, 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다. 한 때는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다 안 보이기까지 했다.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는 것이 남은 소원이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안 되면 내 딸이 이어서라도 그 일을 해낼 것이다.

4) 진아편씨 : 그 해 겨울 12월인가, 일본 군인이 많은 등교로 군인 차로 끌려갔다. 집에서 치마를 만들기 위한 천을 짜고 있었는데, 일본군인이 와 강간하였다. 그 이틀 후 다시 와서 차로 나를 끌고 갔다. 우리 마을에서 6명이 잡혀갔는데, 나만 등교로 갔고, 다른 여자들은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모른다. 그들은 나보다 한 두 살 위였다. 부모들이 끌려가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그 때 아주 어리고 예뻐다. 그곳은 2층 기와, 벽돌집이었다. 2층에는 나만 있었고, 아래층에는 누가, 몇 명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일본군인이 하루 5명 정도 씩 왔다. 거기에서 2개월 정도 있다가 집과 너무 멀다고 마을 단장에게 이야기하여 조관진 위안소로 옮겨왔다. 집과 가까운 그곳에서 3년간 있었다. 그 사이 6번이나 도망치다 잡혔다. 갇혀 있어 꼼짝 못했다. 3명이 있었는데, 못 생긴 2명은 좀 자유로웠는데, 예쁜 나는 집에 한번도 못 갔다. 조관의 집은 초막같이 널판자를 한 줄로 깐 그런 곳이다. 일본군인이 관리하였고, 떡는 것도 주었다. 자유가 없어 다른 여자들과 이야기도 해본 적이 없다. 샷쿠는 모른다. 정기 검진도 없었는데, 아랫배가 아파 진찰을 받은 적은 있다. 2-3주 동안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다. 위안소에 이름이나 간판 같은 것은 없었다.

일본이 투항한 후에도 한참 산에 가서 숨어 살았다. 사람들이 우리를 일본군 특무로 의심하고 오해하였다. 그것 때문에도 많은 고초를 겪었다. 53년에 처음 결혼했고, 60년대에 재혼하였다. 남편은 나의 과거에 대해 알고 혼인하였다. 9번이나 임신했으나, 64년에 딸 하나만 낳을 수 있었다. 94년 남편이 사망하고 지금은 혼자 산다.

5) 14일, 조선촌의 주학권 : 75세 내외의 원주민(나이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는 듯함) 12세 때 양몰이 나가다가 조선보국대를 보았다. 일본인이 철수한 후 이곳에 와서 죽 살았다. 이곳에 1000명이 있었다 - 현재까지 발굴된 사람은 약 130명 정도 - 이곳을 천인갱(千人坑)이라고 정부에서 이름 붙였다.

보국대원들은 야채를 자체적으로 재배하여 먹었다. 터널 공사, 큰 건물 공사, 공로건설 등에서 일하였다. 나는 전쟁 마지막 무렵 흙을 파서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현재 이들이 건설한 길은 없어졌으나 터널 등은 아직도 남아 있고, 당시 일본인들은 이곳을

물품보관소로 사용하였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조선보국대원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여 일본인들의 물품이동 등 보관을 위한 건설 및 도로 만들었다.

공로건설에 이곳의 조선보국대원이 동원되어 등짐을 지는 모습을 보았고, 푸른색 옷을 입었다. 일본군은 16경비대 관할지역의 군대로 조선보국대 밑에 막사를 짓고 지냈다.

일본군은 총을 들고 이들의 노동현장을 지키며, 일을 못하거나 힘들어하면 때리고 하였다. 여자들은 없었다. 조선보국대 취사장은 현 밭굴 터 밑에 있었고, 이곳에서 밥을 해 먹었다. 태워 죽이다 휘발유가 없어 매장하기 시작했다. 조선촌의 거주자는 현재 50여호, 400인이나 과거에는 아주 적었다.

6) 14일, 홍화의 진아랑 : 나의 첫째 동생은 사냥을 하였고, 둘째 동생은 항일유격대원이었다, 가족은 산으로 도망가 있었다. 일본군이 공산당에 대해 매일 마을에 와 자꾸 묻는 것이 무서웠고, 대답하기 곤란해 피신했다. 이들에게 붙잡힐까봐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다. 그 때 어린 딸이 있었다. 일본군은 처녀만 보면 닥치는 대로 잡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3집이 있던 동리에서 한 처녀가 잡혀갔다. 그는 이미 사망하였다. 일본인들이 오면 얼굴에 진흙을 바르는 등 처녀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 했다.

그리고 옷동네의 처녀도 잡혀가 1년 있다 돌아 왔다. 그가 나중에 내 숙모가 되었다. 그 숙모는 딸 하나를 낳고는 바로 돌아가셨다. 푸른 옷을 입은 조선족 남자들이 길 닦는 일을 하는 건 보았다. 사람들이 모두 조선족이라고 이야기했다. 옷은 남색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7) 14일 나아명

조선 여자도 노동하며 흙을 나른 것을 보았다. 조선인들이 제일 많았고 많이 일했다. 중국인들은 일을 시키는 일을 했다. 일이 끝나면 조선인을 큰 집에 밀어 넣고 먹을 것은 얼마 안 주었다. 南丁村은 일본군의 숙소가 있던 곳으로, 거기에 한국인들은 없었다.

대만인이나 한족이 관리 감독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이셨다. 여성 중에는 남정의 일본군 부대에서 밥하고 빨래도 했다. 일본군의 강간 이야기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인도인도 10여명 있었는데, 조선인이 가장 많았고 그들은 집단 생활을 하였다. 나씨는 여기서 나무를 베어 시장에 팔러 흥사로 왔다갔다 했다. 그러다 일본군에 잡혀가(동원돼) 1년 넘게 把坡嶺山의 석장에서 일했다. 그 때 1집에 1명씩 징집되어 1일 30전의 품삯을 받으며 석장 일을 해야 했다. 그래서 기르던 오리, 양 등 가축도 모두 도망갔다. 그 일은 원주민(토인)만 했다.

8) 15일 陵水縣 新村鎮 新建路, 趙向盈

당시의 인구는 한족이 제일 많았고, 여족, 그 다음 묘족이 가장 적었다. 주로 농사지으며 장사는 잘 모른다. 고기 잡아 사는 사람도 있었다.

신촌위안소에 일본‘위안부’는 없었고, 삼아 위안소에는 일본‘위안부’도 있었다. 최근까지 베트남 출신의 ‘위안부’가 살았으나 혼자 살다 죽었다. 조선인 ‘위안부’가 가장 팔시를 당하였고, 일본‘위안부’가 조선‘위안부’보다 가격이 더 비쌌다. 특공대(18세-21세) 100여명도 이곳 위안소를 이용하였다.

나는 당시 공인 등을 모집하는 일을 하며 군대와 친했다. 당시 나는 22-24세 정도였다. 광동에서 일본 여성과 조선족 여성들이 이곳 위안소로 많이 왔다. 광동여자, 대만여자들이 있었다. - 10여명 정도가 보통이나 어떤 때는 4-5명이 있던 적도 있었다. 능수 쪽 위안소에

한국여자 많았다. 당시 ‘위안부’들은 모두 삼아(三亞)에서 데려왔다. 10명 중 4, 5명이 조선 여성이었다. 능수 쪽에 위안소가 많았다. 군인은 공병(工兵)으로 200명 있었다.

신촌위안소에는 삼아에서 데려온 여성들이었다. 군인은 3, 40명 정도였고, 도로 건설, 정비 등의 일을 하는 공병이 200명이었다. 이곳 신촌 위안소는 이들을 위한 곳으로 나무로 지은 단층집이었다. 일본인 남자 관리인이 30세 정도에 결혼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리는 일본군에서 했다. 보통 2원 하는 군표를 사서 사병, 장교 모두 들어갔다. 일본 여자들은 더 비쌌다. 신촌에 있던 ‘위안부’들은 해방 후 삼아로 데리고 가 약간의 돈을 준 후 각자 알아서 집으로 가라고 했다. 일본 대장이 삼아에 집합시켜 돌려보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위안소는 중국인은 입장 불가였다. 그러나 나는 위안소에 자주 가서 술을 대접받기도 하였다. 일본군 경무과장이 나를 초대하곤 하였다. 위안소에 자주간 이유는 그곳에 술 마시러 자주 갔다. 위안소 여성들에게 밥을 해주는 중국여자가 있었다.

중전 한달 전에 나는 영주로 전속 명령을 받아 가 그곳 치안유지회 회장을 하였다. 그곳에는 일본인들이 조사차 가라고 해서 갔다. 중전 후에 집으로 돌아와 있다가 잡혔다. 당시 영주는 비행장 건설 때문에 사람이 많았다. 나는 해구로 쌀을 수송해 가는 일도 하면서 일본이 패전하는 기미를 알아채기도 하였다. 영주에 와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대장에게 물으니 일본이 졌다고 했다. 얼른 집으로 돌아와 있다가 국민당에 잡혔다.

그 때 일본군에 도움을 주었던 그 유지회 사람들은 전후에 대부분 죽임을 당했는데, 2명만 살아남았다. 내가 그 한 명인데, 공산당원을 구해준 덕이었다. 즉 공산당원인 어느 향의 향장이 붙잡혔는데, 그가 같은 중국인으로써 그럴 수 있느냐며 저항해 오자 그를 놔준 결과, 나중에 그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다.

98년부터 나를 만나러 오는 연구자들에게 50년만에 처음으로 일본말로 이야기하였다.

나는 해방 후 국민당에 잡혔는데, 김원식 등과 같은 감옥에서 2년간 있었다. 김원식 등은 사형판결을 받은 소장을 받았는데, 上訴를 해 놓고 도망에 성공하였다.

그 때 만난 조선인 김씨와 2명이 있었다. 해구에서 조선인 동향회장을 지낸 김원식(金元植)이 그 분이다. 그리고 서용섭(徐龍燮)과 김용성(金龍成)이었다.(이 분은 세 사람의 이름을 한자로 써주셨다). 김용성이 1949년 5월 공산당에 가입했다며 나를 찾아와 만났다. 그는 工作 51년 조선으로 귀향 조치되었다. 그들 중 한명은 음악을 하는 마술사(서커스 예인)였다. 이들은 나와 같이 해구에 잡혀간 사람들이다. 당시 귀국 과정을 타협하던 중 이케다(池田)대좌(과장)를 쏘아 국민당에 체포돼 사형 판결을 받고 있었다.(김정식이라는 사람이 미소구치해군특무부 부장(大佐)을 살해했다는 장달웅 선생의 증언과 같은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다).

나는 감옥에서 나와 海口에서 친구가 차린 술집에서 김원식 등과 만나게 되었다. 공산당 친구들의 권유로 해구에 취업을 할까 하고 갔다. 그곳에서 동향회 사무실을 간판을 보고 알았다. 조선족, 대만족 동향회가 있었다. 거기에는 8명 정도가 일하고 있었다. 당시 35세 정도의 김원식이 이케다 대좌를 사살했다는 이야기를 감옥에서 들었던 것이다. 1000명이 수감된 감옥에서 이들 조선인 3명은 탈옥을 연구하였다. 1949년 5월5일 명절의 혼란을 틈타 마침내 탈옥에 성공하였다. 그 때 나도 국민당에 체포되어 판결을 받고 서로 도와 상소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이다. 그들이 탈출한 후 1주일 쯤 지나 나도 3년만에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다. 그것은 공산당으로 정권이 바뀌고 내가 일제 때 공산당을 보호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49년 해구의 어느 술집에서 이들 2명을 아주 우연히 만난 적이 있다. 우리는 2년간 같은 감옥에서 친구로 지냈던 것이다.

신촌 바다 근처 이 위안소에는 26세 이하의 30대 여성들이 주로 있었다. 그 바다 건너편 작은 섬에 특공대 기지가 있어 20세 전후의 젊은 대원 100여명이 그곳에 있었다. 대장은 辻이고 과장은 高橋였다.(?) 능수만 특공대 기지는 배를 감추기 위해 바다 안에 동굴을 13개나 팠다. 그 중 1개가 최근 발굴되었다. 터널 13개가 있는데, 이것도 조선보국대가 건설한 것이다. 신촌에는 조선보국대는 없었다. 삼재진(三才鎭)에는 조선보국대가 있었다. 위안소도 있었다. 대만 보국대도 있었다. 이곳에 여러 민족이 당시에 살았지만 조선족이 최하의 생활을 했다. 보국대가 그랬다. 대만인 통역이 있었는데 그도 조씨였다. 나는 당시 결혼한 상태였다.

9) 해남성 정협, 부화적씨의 박래순 피해자 등 증언 :

부화적씨는 정협 문사위 일을 하던 중 우연히 보정시에 갔다가 박래순씨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여족 역사 자료 수집은 했으나 조선족은 할 수 없었다. 93년말, 77세의 할머니를 만나 증언을 들었다. 박씨가 있었던 위안소는 현재 맹인 등 장애인 사회복지기관으로 바뀌었다.

육군, 군관, 사병, 해군 등이 여러 군대가 주둔한 해구는 해구 공항 및 군사기지가 있었던 곳으로 위안소가 6군대였다. 일본 해군사령부 앞(현재 해군병원)에 위안소가 설치되었고, 장교들 전용도 있었다.

박씨가 있었던 삼아시 홍사 구가원에는 여러번 가보았다. 당시의 위안소 방이 얼마 전까지도 있었지만 현재는 맹인들을 위한 시설물이 되었고, 2000년 원래 있던 집도 허물고 새집을 지었다.

언젠가 어떤 한국인이 와서 박래순씨에게 한국에 가고 싶은지를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박씨는 그 때 한국을 갈 생각이 별로 없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잘 해줬기 때문이다.

박씨는 공로국 공로도반에서 도로 보수 일 등을 하며 59년부터 60세 퇴직할 때까지 일했다. 퇴직금은 원 노임의 80%를 주는 것인데, 박씨에게는 100% 지급하였다. 성정협이나 시정협 등에서 선물과 먹을 것을 사드리는 등 잘 돌봐 드렸다. 또 회사 부녀회 등에서 조직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등 피해자 중에 생활이 가장 나았다. 7년간 함께 살던 남편이 55년에 죽고 혼자 살다가 공로국의 남자를 알게 되어 동거하였다. 그 사람 소개로 공로국에 취직하였다. 그러나 그도 일찍 사망하여 혼자 살았다. 박씨가 결혼 후 아이가 없었던 것이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상처였다고 술회하였다. 당시 1천원짜리 관을 준비해 장례를 치렀다. 당시 한달 월급이 10元이었다. 장응용씨와 같이 조사하였다.

해남도는 광산 등 자원이 풍부하여 군사기지로 적합하고, 화남, 화북지역에 비행기 폭격을 하는 발진기지로도 이용되었다. 일본이 항복하기 이전에 낙동현(洛東縣)에 있던 일본군대에 한국인 1명이 있었는데, 그가 일본 대장을 총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왜 사살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불명하다. 조선인에 대한 대우가 안 좋아 반발하여 죽였다고 들었다. 항일전쟁과 관련해서는 낙동현 정협문사자료위원회가 1995년에 편찬한 자료집에 있다.

일본은 패전 이후 한인들을 비롯한 외국인 강제연행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방임해 두었으며, 중국에서는 국공내전이 일어나 또한 이들 외국인 문제에 관심을 둘 수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당에서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기술자,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귀국시키지 않고 한 곳에 모아주었다. 방임되어진 외국인들은 개별적인 행동으로 당시 난국을 해결해야 했다.

연구는 전문화가 잘 안 되고 자료는 상해사범대 소지량 교수에게 많이 가 있다.

피해여성들은 문화혁명 때도 박해를 받았다. 그 때 박씨도 불러갔으나 이야기를 하고 풀려

났다. 여족 여성들도 말하기 싫은 피해 사실을 억지로 말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이중으로 박해를 받은 것이다.

능수에서도 어느 할아버지가 화를 내고 부인을 때린 일을 비롯하여 문제가 발생했다. 남편들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일도 했다. 남자가 조사를 가기도 했지만 여성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은 후 주로 피해자를 만나 조사하였다.

그가 들은 박씨의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朴來順) 삼아 홍사 오자엔(歐家園)위안소의 50여명 중 절반이 조선 여성이었고, 동방, 팔소 위안소에도 조선족은 많았다. 나는 중국 무순의 200명이나 있던 큰 위안소에서 일본군 해군 사령부가 있던 해구를 거쳐 다시 삼아 홍사까지 왔다. 25세 때 속아서 중국 무순을 거쳐 1년 후에 이곳에 끌려왔다.

북한에서 결혼은 하지 않았고, 젊은 연인이 있었는데, 그가 전쟁(華北戰爭)에 끌려가자 그를 찾으려는 마음에서 중국에 왔다. 부대에서 빨래 밥짓기 등을 하기 위해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중국에 가 '위안부'가 되고 말았다.

후에 결혼한 남편은 부대에서 차운전을 했기에 내가 '위안부'였던 것을 알았다.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이들을 버리자 이들은 서로 의지하기 위해 결혼하여 살았다.

나는 30세 때 북한인과 7년간 살아 아이를 낳을 수 있었으나 아이는 없었다.

1991년 경 어떤 한국인이 왔었다. 그러나 그가 한국인이라고 말하지 않아 한국인인 줄 모르다가 그가 건네주는 담배갑을 보고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10) 해남 망송 강미란 기자

1945년 종전 후 국민당 정권이 일본군 행정업무를 인수하였다. 1950년 8월 공산당 정권이 성립하였다. 그들은 49년 10월 초부터 장강 이남에서 서남쪽으로 진출, 마침내 해남도를 해방하여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냈다. 그해 4, 5월경부터 이미 국민당은 대만으로 도망가고 있었다. 사실 해남도에는 광동성의 황포군관학교 출신 국민당의 세력이 컸고, 송미령의 여자 특무대 등 교육받은 여군도 꽤 많았다. 그러나 공산당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그리고 해남도는 84년부터 해외에서 자동차를 무관세로 들여와 본토로 보내는 중개지였다. 즉 너무나 낙후된 해남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자동차를 중개하는 데서 얻도록 하였다. 그리고 88년 광동성으로부터 독립특구가 되면서 해남성이 되어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해남도에는 해구에만 5개 대학이 있고, 항일유격대로 유명한 오지산에 1개 대학이 더 있다. 해남도의 최대 도시인 해구에는 6, 70만명, 삼아에는 3, 40만명이 산다.

11) 16일, 臨高縣 정협 王碧中

나의 고모도 '위안부'였다. 임고에서 31km 떨어진 시골 남보향(南寶鄉)에 사는 고모(林愛蘭)는 나대에서 '위안부'를 하였고 결혼은 했으나 아이를 낳지 못했다. 미인이었다. 지금 80세인 고모는 2, 3년전에 이상하게 여기는 주변인들에게 스스로 발설하였다. 고모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 남편이 일찍 사망. 이 증언은 2000년 정정협에서 나온 책에 실렸다.

'위안부' 여성 중에는 싱가포르인도 있었는데, 이미 사망한지 오래다. 그 외에도 현재 나대에 살고 있는 한족 여성이 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가 만나 이야기를 듣기는 어려울 것이다.

임고의 사령관은 하야시다 다카시(林田鷹次)로 아주 악명 높았고 신영의 노인들은 그 이름

을 거의 다 안다. 조선인 피해 여성은 신문에서 본 것밖에 모른다.

일본이 이곳을 점령한 이후 가래(可來)에서 남보까지 공로를 수리했는데, 이때 고생을 많이 하였다. 이때 남보에서 일본군에 끌려와 '위안부' 되었다. '위안부'가 된 후 일본해군과견대가 있는 가래에 있었다. 가래의 위안소는 허방광(許邦光)의 집을 빼앗아 만들었고, 사령부는 가래중학교에 있었다. 사령부와 허씨의 집은 1킬로도 안되었다.

토치카 등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가래비행장을 만들 때 노동자들을 많이 데리고 옴. 고모가 '위안부'였다는 것은 스스로가 말을 해서 알 수 있었다.

황동진 황동촌(皇桐鎭 皇桐村)에도 한족(漢族)'위안부' 한 명이 있었는데, 80세 전후로 건강 한 편이었다. 사위와 함께 살았는데, 물어보기만 하면 울어서 조사를 못했다. 그러나 내가 가서 달래자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왜 아이가 없느냐고 묻자 본인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현재는 조사 방문을 하고 있지 않다. '위안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성정협에서 조사하라고 명령을 해서 2000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한 사람은 2명이 더 있다. 가래에서 살다 나대에 간 사람을 수소문하여 찾았으나 자신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경해(琼海)사람이었다. 싱가포르 여성도 있었으나, 몸이 안 좋아서 해방 전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12) 신영의 陳偉(1926년 생, 한족)

동네 여자들도 잡혀가 있던 이곳 위안소에는 보통 여자들이 2, 30명 있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 해구까지 데려가 풀어줬다. 홍민남가 010호가 위안소였는데, 60세 정도의 일본인 남자와 부인이 같이 있었다. 빨래나 밥을 해주는 중국인이 있었다. 위안소에서 돌아온 동네 여성들은 먼곳으로 시집 갔다. 이는 이미 팔려간 것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올 필요도 없었던 경우이다. 중국인 주인도 있었는데, 이는 중국인을 동원하여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군표는 없었고, 가까이 있던 부대병원으로 여자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러 갔다. 홍민남가 005호, 007호가 다 위안소였다. 현재 집주인은 해구에 가고 없었다. '위안부' 여성 중에는 남편과 싸우고 남편이 부인을 팔아서 온 경우도 있었다. 나는 위안소 안에 들어가 떡도 얻어 먹고 논 적이 있다. 내 친척 중에도 피해 여성이 있다. 여자들 나이는 10여세에서 20대로 어렸다.

이 부근에서 태어나 살았다. 이곳의 여자들도 '위안부'가 된 여자가 많았다. 이들은 다 사망하였다. 이곳 부근에 시장이 있어 사람들이 붐볐다. 이곳 위안소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다. 위안소의 주인은 일본인으로 60세 좌우였고, 부인을 두고 있었으나, 군인은 아니었다. '위안부' 중 한국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해구에 끌려간 사람들 중 이곳 출신이 있었는데, 돌아와서는 먼 곳으로 가서 시집가 살았다. 이곳 위안소는 일본인만 이용했다. 20-30명의 '위안부'가 있었다. 위안소는 3곳에 있었다. 그들은 대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인들이었다. 일본인들은 대체로 일주일에 1회 정도 왔다. 일본인 주인이 '위안부'들을 지켰는데 중국인들이 일본인을 도와 지키기도 함. 중국인들이 이 집에 고용되어 집안일을 도와주며 지켰다.

병원은 부대 안에 있었다. 1주일에 1회 부대 병원에 가 검사 받았다. '위안부'들도 시장을 보거나 하며 다녔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물어보지 못했다. 이곳의 여자들은 남편과 싸우다 남편이 이곳에 팔아버린 경우가 많다. 대체로 얼굴이 예쁜 편이었다. 외부에서 온 여자들은 어떻게 왔는지 사정을 모르겠다.

학생 때 위안소에 들어가 놀기도 했다. 이곳에서 떡을 만들면 얻어먹으러 그곳에 들어간 적

있다. 동네 사람들은 ‘위안부’에 대해서 별로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해구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 돌아온 이도 있으나 대체로 집으로 안 돌아오고 다른 곳으로 가서 정착하였다. 내 친척 중에도 그런 여자가 있었다.

본토 출신 ‘위안부’들하고는 말을 하기도 했다. 전쟁 후 해구로 일본군이 데리고 가 각자 집으로 가라고 풀어주었다. 그중 집으로 돌아온 자는 적고 대개 외지로 가 결혼하였다.

13) 17일 林吉蘇(1925년생)

나는 특무대 통역병으로 근무한 문관(文官)이고 여족(黎族)이다. 나대에는 큰 부대가 있었고 거기에는 조선여성과 대만 여성 등 ‘위안부’가 꽤 있었다. 그들이 걸어서 병원 가는 걸 보았다. 군대를 따라 여성이 오기도 했다.

조선보국대는 임고 등에는 없었다. 조선‘위안부’는 신영위안소에는 없었다. 해구와 나대(마이도쿠본부 근처) 등에 큰 위안소가 있었는데, 이곳에도 있었다.

이곳 신영에는 본부가 있었기에 위안소가 컸다. ‘위안부’ 숫자가 많았다.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른다. 대만인, 일본인이 있었고, 본토인이 제일 많았다. 신영위안소는 시내에 있었다. 신영 파견소는 지금의 중학교 자리(과거에는 묘지만 있었던 곳이었다). 여기에 군대병영이 건설되었다. 신영에 있던 군대 병력은 100여명이었다. ‘위안부’는 몇 명밖에 없었다.

나는 가끔씩 이곳에 갔는데, 간 이유는 일요일날 ‘위안부’를 데리고 부대로 데리고 가서 검사받으라고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듣고 위안소에 가서 데리고 왔다. 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했기에 ‘위안부’를 데리고 갔다. 군에서 전화가 오면 그녀들을 데리고 검사를 받으러 갔다. 검사는 토요일에 받고 영입은 일요일에 주로 하였다. 군인들 외출 시기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일요일에 한다. ‘위안부’들은 평일에는 위안소에서 쉬었다. 휘발유를 아껴야 해서 ‘위안부’들을 견게 하여 병원에 데리고 갔다.

사령부 내에 있는 포대가 몇 개나 됐는지는 모른다. 군대 내 행동은 제한을 받았다. 군대에 들어가면 자신의 임무만 했을 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다. 내가 근무하던 특무부 부대의 사무실은 위안소 부근에 있으며 현재 집이 남아 있고, 주소도 있으나 말하지 않겠다. 민간인 집을 쫓아내고 사용했다. 홍민가(紅民街)에 있었다.

특무부에는 일본인 민간인도 살았다. 이곳에는 미쓰이(三井)회사가 있었다. : 토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부대에 제공하였다. 소금, 생활필수품 등이다. 水かき회사도 소나 돼지 등을 사서 군대에 보내는 일을 하였다. 일하는 사람은 현지인이었다. 여기서 일했던 본토인들은 거의 공산당에 의해 총살당해 죽었다. 국민당 통치시기에는 이런 일은 없었다.

위안소 경영자는 일본인으로 위안소 오야지라 불렸다. 나이가 꽤 먹은 노인이었다. 위안소 장소는 1곳이었다. 위안소는 일반인의 집을 돈도 주지 않고 빼앗아 만들었다.

나는 나이가 어려 죄가 적었기에 공산당에 체포되어 사형을 면했으나 30년간 옥살이를 하였다. 1980년부터 중국공산당의 화해정책이 실시되어 석방되었다. 감옥은 임고현 현청사에 있다. 30년 이상 감옥에 있던 자가 1000명 이상이었다. 이들은 주로 농업 노동에 종사했는데, 도구는 없고 거의 맨손으로 작업하였다. 매일 같은 생활을 했고, 같은 일을 했다.

나는 당시 일들을 정협이나 상급기관에서 허락이 없이는 말할 수 없다. 나는 일본이 졌을 때 삼아로 가지 않고 베트남에 2년간 도망을 쳤다 돌아와 공산당에 잡혔다.

어릴 때는 일본학생 200여명과 공부하였다. 일본학교에서 일본어를 했기에 특무대에서 통역으로 일하게 된 것이다. 나대에 큰 위안소가 있다고 일본인에게 들었다. 일본군이 많이 사는 곳에는 위안소가 반드시 있었는데, 파견대 정도 규모에는 있었으나, 분견대 정도에는 없었

다. 임고는 분견대였고, 신영은 파견대 규모였다.

해구에는 자주 갔으나 위안소에는 학생이어서 못 가보았다. 특무대에 있을 때도 못 가보았다. 그 때 내 나이가 17세 정도였다. 민간 병원은 시설과 기술이 부족하여 군병원을 이용하였는데, 군의관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병원에 직접 데리고 가지는 않고 전화로만 병원에 가라고 통역해 주었을 뿐이다. 일본인이 경영하는 전보국에서 전화로 알렸다.

신영파견소 해군 특무부 조직은 소장(일본인 : 문관 2인) 대만인(2인 : 일본군대에서 식량 배달) 본토인(1인 : 통역)이고, 치안유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대체로 치안유지회를 이용하여 유지하였다. 일본인들을 도둑놈들이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일을 막거나 처리하는 일이었다. 주 목적은 일본상인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있었다.

해군 특무부 본부는 컸다. 가끔씩 가서 연락을 받아왔다. 나대의 특무부대도 컸다. 지금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없어졌을 것이다.

일본 패전 후 베트남으로 도망가기 전에 '위안부'들은 거의 사망했다. '위안부'들은 패전 후 누구도 돌봐주지를 않아 야채를 판매하거나 노역에 종사하며 살았으나 건강이 악화돼 거의 일찍 사망하였다.

내가 베트남에 갈 때는 민간인의 배를 이용해서 4-5명이 함께 갔다. 패전 후 먼저 신영에서 삼아에 갔다가 다시 신영으로 돌아와서 베트남으로 갔다. 공산당은 일본인이 밥을 먹여주어도 체포하여 처형하거나 강제노역시켰다. 국민당이 해남에 들어온 시기는 1945년 10월이었기에 일본인들은 패전 후에도 2개월 가량 이곳에 있으면서 천천히 철수할 수 있었다. 나도 이 시기를 통해 베트남에 갈 수 있었다. 패전 후 많은 곳에서 조선인을 볼 수 있었다.

일본인 상점은 이곳에 없었고 대만인이 경영하는 가게는 있었다. 당시에는 물자가 없어서 거의 배급에 의존했다. 회사에는 대만인과 일본인이 많았다. 검사는 1주일에 1회 실시하고 병에 걸린 여부는 다른 사람이 모르고 의사와 '위안부' 자신만이 알 수 있었다. '위안부'의 음식물은 일본인 오야지가 제공하였고, 생활은 군과 관계가 있었다. 위안소에는 군표를 가지고 갔고, 돈은 없었다. 내 월급은 당시 45원이었다. 군표로 대신 받았다. '위안부' 중 맞거나 도망가는 경우는 없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은 적은 있으나 확실히 모른다.

신영 위안소에는 본토인만 있었다. 그러나 이곳보다 큰 곳에는 한국인, 홍콩인, 대만인, 일본인 '위안부'도 있었다. 본토인이 '위안부'가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일본군이 조선인, 대만인 등이 있었다고 말해서 알기는 하나 말만 들었지 확인은 못했다.

전망대가 보초대 위에 있어 기관총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안소에는 상점도 있었다. 민간에게 물수한 것이다. 마이도쿠에는 1000여명의 일본군이 있었다. 신영위안소에는 보통 4-5명이 있었다. 그러나 작전시나 군사훈련시에는 군인이 많아져 8-10명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위안부'를 본적은 있다. 보통 본토 복장을 하고 있었다. 기모노 입은 여자도 있었다. 타이완 여인은 다른 옷을 입었다. 패전 후 삼아에 갔을 때 본 조선인 '위안부'는 치마(裙子)를 입고 있었다. 팔을 걸어 봐야 누군지 알 수 있었는데, 나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당시 국민당 정부는 대만인, 한국인 기술자들을 귀국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숫자는 많았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나 100인 이상은 확실하였다.

14) 18일 儋州, 林良材

1939년 때 나는 17세의 학생이었다. 노동을 위해 일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중국인 친일파에게 체포됨. 후에 국민당 군에 들어가 1950년까지 항일하였다. 중국공산당이 들어온 후 공산

당에 들어가 국민당 군에 대항하였다.

이곳의 위안소 문제는 작년에 죽은 이곳에서 일한 사람에게 들어 조금 안다. 시정부초대소(市政府招待所) 들어오는 정문과 안 쪽의 식당 건물이 위안소였다. 사령부는 초대소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현대의 나대부대가 있는 자리가 일본군부대 자리이다.

이곳의 '위안부'는 처음에는 10인이었으나 20인, 30인으로 증가하였다. '위안부'에는 대만 여자, 임고, 정안, 담주 여자가 많았다. 조선여자는 못 보았다. 일본군대와 싸우느라 여유가 없었다. 패전 후 국민당정부는 '위안부'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았다. 각자 알아서 해산하는 식으로 흩어졌다.

일본군의 삼광정책으로 중국 본토에서는 산이 없어 많이 죽었으나 해남에서는 산이 많아 산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다. 부인도 일본군에게 잡혀갈까 봐 산에서 5년간을 살았다. 산에서 밥을 해먹다가 연기가 나는 바람에 일본 비행기의 폭격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남경에 88세의 조선 '위안부' 있었다. 조선인, 중국인, 대만인을 구별할 수 없어서 조선 '위안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다.

위안소에 대해서는 들어서 안다. 부대의 규모는 100여명 정도였다. 현지인들이 밥을 얻어 먹기 위해 부대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유격대 내에 조선인은 없었다. 대만인과 인도인은 일본군에서 도망쳐 국민당 유격대 쪽으로 도망 온 사람은 있었다. 이들은 국민당 사령부에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조선인은 없었다. 일본인 패전한 후 이들 대만인 인도인은 돌려보냈다. 나대에는 인도인 50여명이 있었다. 국민당 부대에 온 인도인은 18명 정도. 일본 패전 후에 일본군에 끌려온 외국인들은 본토 농민들에게 공격당할까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구에 집결시킨 후 국민당 군대가 보호해주었다. 이들 중 조선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특히 여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나대 지역은 북경중연역사소(北京中研歷史所)에서 나와 정협직원인 강건(康健)과 함께 '위안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다.

15) 19일 보정, 장응용씨의 박씨에 대한 증언

대만인 왕세충(王世忠)은 공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박씨와는 회사에서 알고 지냈다. 왕씨는 다리 놓는 기술자이며, 정협위원이었다. 그는 박씨가 불쌍하고 용감한 여성이라고 하며, 말 못하는 사연이 있다고 귀뜸해주었다. 연인을 찾아 중국을 왔으나, 삼아에 와서야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장씨는 생전의 박씨를 가장 여러번 만나고 마치 양아들같이 돌봐주신 분이다. 여러 번 만나 진심을 안 후에야 입을 여신 할머니는 해남말, 중국말, 조선 말을 다 잘하셨다. 박씨는 고향에서 학교를 조금 다니셨는지, 글을 읽으셨다. 당시에 보정현 정협 문사실에서 2명이 할머니 조사를 맡았는데, 장선생은 정협 사무실과 가까이 있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갈 수 있었다. "아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다. 50년간을 한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인 교민으로 사셨다. 남조선이라고 적힌 외국인 서류증을 소지하고 계신 것이다. 왜 중국 국적을 갖지 않으셨는가의 질문에 한마디로 "나는 한국인이다. 한국에서 26년 살고, 이곳에서 53년을 살았지만 내 조국은 한국이다"라고 하셨다. 또 다른 한국 여성들에 대해 물어 보면, "다른 사람 말은 안 하겠다. 말하기 싫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전쟁 탓인 줄은 알지만 말하기는 싫다고도 하셨다.

93년 병이 드신 후 여족 처녀가 양딸처럼 돌봐드리기도 하였다. 그는 공로국 여직원이었다. 결혼 후에는 이곳을 떠났다. 본인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하신 것은 죽어가는 마당에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지 않겠냐고 마지막 유언처럼 자세히 말씀해주셨던 것이다. 형제 9명의 이름도 다 써주셨다. 그곳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길 닦는 소를 키

워 먹이기도 하고, 직접 길 닦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그곳에서 산 집도 있었고, 산소도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돌아가실 때 자신의 소지품을 모두 정리하여 쇠로 된 박스에 차곡차곡 넣고 묘 앞에 놓아달라고 하셨다. 회사에서 마련한 관에는 용봉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복(福)과 수(壽) 글자가 새겨진 것이었다. 또 할머니는 한복을 그려주면서 수의처럼 마련해 주기를 소원하셨다. 일본 옷은 예쁘지만 옛날에 많이 입어 절대로 안 입겠다고 하셨다. 한복을 그려주신 그대로 만들어 드렸더니 시름을 놓고 좋아하셨다. 그만큼 그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셨다.

조국에 돌아가고 싶으면 돌려보낸다고 했는데, 귀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연인도 못하고, 돌아가 자신에 대해 가족에게 말하기 거북하다고 그래서 안 가셨다고 답했다. 중국 문혁 때는 자신은 물론 교민 보호에 앞장서 투쟁하시기도 하였다. 이제라도 방법이 있으면 형제가 있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그들이 보고싶고 그림다. 나를 위해 한국인이라는 비석을 세워달라. 고향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해주고, 묘를 한번이라도 찾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마지막 유언이었다.

16) 19일 보정, 임완향씨(64세) 외 공로국 직원

나는 1962년부터 95년 박래순씨가 돌아가실 때까지 가까이 지낸 친구이다. 나는 한족으로 고향은 광둥 산토(汕頭)이다. 남편과 함께 이곳으로 와서 아이들도 낳고 잘 산다. 박씨는 평소 한국 이야기를 많이 했다. 자신이 어떻게 중국에 왔고, 해방 전 여기까지 와서 일하는지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는 오지산에도, 통자우(藤橋)에도 있다가 보정에 와서 공로국에서 일하였다.

성격은 명랑하고 쾌활하였다. 그리고 침대에 다른 사람이 앉는 걸 싫어할 정도로 깨끗하였다. 바닥 청소를 깨끗이 잘 했다. 공로국 앞에 있는 이 가게에 나와 이야기나 했지, 시간 여유가 있어도 외출 같은 건 안 하셨다. 다른 일을 별로 안 하셨다.

아파서 병원에 2년 정도 있었는데, 회사에서 4명을 교대로 파견하여 간호해드렸다. 그 회사에 외국인 여성은 이 분뿐이었다. 자식이나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잘 해드렸다. 우리 사이는 모녀 관계처럼 사이가 좋았다. 무슨 말이나 다 하는 사이였다. 다른 피해자는 본 적이 없다. 나같은 친구가 1명 더 있는데, 지금 중국 본토에 놀러가 없다.

고향에 대해서는 18세에 일본놈에게 끌려 왔다는 이야기만 하셨다. 그리고 해남에는 1942년에 오셨단다. 삼아에 그의 연인이 있다고 듣고 왔는데, 못 만났다. (호적 대로 1916년생이면 1934년경 중국에 갔다는 이야기이고, 비문에 12년생이면 1930년에 간 게 된다. 아무래도 비문의 12년생은 좀 이른 것 같다. 1922년생이면 40년에 중국에 간 것이 맞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사생활에 간섭 않고, 명랑하여 대인관계가 좋았다는 점이다.

이 때 다른 직원들도 그는 절대 막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신뢰할 때만 말하였다고 거들었다. 그래서 싸움 같은 건 한 적이 없다. 깨끗하고 위생적이라 옷도 항상 깨끗했다. 회사의 젊은들이 19, 20세로 할머니 간호하기를 힘들어했다. 나중에는 1일 20원 노임을 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는 등 돌봐드렸다.

자식이 없어 관을 만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다. 펜찮은 나무 재료 구즈무로 만들어 드렸더니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관을 방에 두고 계셨다. 89년에 관을 만들어 6년간 두고 사시다 가셨다. 나중에 비문도 똑똑하게 써라, 묘를 다듬어 달라 등의 이야기도 당부하셨다. 그래서 비문을 내 남편(80세)이 또박또박 쓰셨다. 촛불이 다 타 들어가듯이 그렇게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95년 7월 10일이었다.

평소에 고혈압으로 어지러워 하셨고, 노환이었다. 식사도 잘하고 감기도 안 걸릴 만큼 건강하셨는데... 박씨의 남편이 죽은 후 친하게 지낸 남자 친구가 있었다. 완녕(万寧) 사람인데 보정 공로국도 그 사람이 소개해준 것이다.

20일, 아침 장응용씨

전지후근복무대라는 말은 원주민 여족, 묘족 일본군성노예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것은 전지후방근무봉사대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전장의 후방에서 근무하는 대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 군인을 성적으로 위안, 봉사하는 여성, 여성 입장에서는 완전히 성적 노예들을 의미한다. 다른 지역과 다른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는 용어로 현지처와도 같이 군대와 함께 다니는 여성을 가리키기도 한다. 때문에 이들은 해방 후에도 공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친일 여성으로 지목되어 또다른 고초를 겪어야 했고 사적으로는 여전히 순결을 잃은 여성으로 그 사실조차 감추거나 숨길 수 없는 그 지역에서 그대로 따가운 시선에 노출되었고 견뎌나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원주민 점령지 소수민족 여성의 고통과 아픔은 그 어느 경우와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컸다.

보정현의 위안소 쾌락원 터는 현재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중앙은 큰 공사를 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꽤 높은 언덕의 구릉 지대로 그곳에 동굴을 파 놓고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 언덕 위에 위안소는 있었다. 70년대까지도 그 집의 나무와 기와가 일본식이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없다.

쾌락원은 가운데 큰 홀이 있어 80cm 정도 높이의 무대도 있었다. 그곳을 빙 둘러 방이 칸 칸이 5개 있었다. 방문은 1개인데, 들어가면 방이 다시 둘로 나뉘어 있어 결국 10개 방이었다. 그 무대에서는 일본군인과 일본 옷을 입은 여성들이 춤도 추고 하는 위락장으로 쓰였다. 그 위쪽 대중항로(大衆巷路)의 동굴에는 탄약창고와 약품을 저장하고 군영이 있었고, 오른쪽에 길게 부대 숙소도 있었다. 그곳은 해방 후 소학교로 이용되기도 하였는데, 53년 현 위치로 옮겨 갔다. 그 후 허물고 새로 아파트 등이 들어섰다. 현재 이곳은 보정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쾌락원에는 본토 여성은 없었고, 외부에서 온 여성들이 있었다.

그곳 바로 옆에 일본군이 통제하는 지방 유지회가 있었다. 그들은 중국인 노무자를 모집하는 일 등 거의 지방 정부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 언덕 남쪽 보릉로(保陵路) 사무실 건물은 지금 그대로였다. 오른쪽에는 단기 일어학교가 있었다. 거기서 단기간에 일본어를 가르쳐 필요한 인력을 동원해 썼다. 그런 유지회 총회는 현 단위로 있었고, 각 지방에 분회가 있었는데, 보정에만 10개 정도나 됐다. 그 때 일본인이 심은 나무, 수간로수가 지금 우람찬 고목 같이 크게 서 있었다. 그 나무 열매는 콩(酸豆, 洋桃) 같아 먹기도 하였다. 근처에 또 바로 주차장, 차수리장 등도 있었다. 나는 어려서 동굴 근처 언덕 위 쾌락원 등에 가서 놀았다. 동굴은 길이 30m, 넓이 10 평방미터, 높이 2, 3 m였고 위에는 공기통이 있었고 앞에 철문이 굳게 놓여 있었다.

17) 21일 능수, 막동호(莫同浩)씨

벽에 걸린 사진의 주인공 막동석(莫同漸)씨는 내 동생으로 1914년에 태어나 1943년 일본군과 싸우다 장렬하게 죽은 항일 영웅이다. 그가 항일 격전을 하고 있을 때 이 집은 일본군의 위안소로 점수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본군이 이곳에 들어오자 가족은 모두 시골로 피신하여 집은 비어 있었다. 삼아에서 일본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피난하였다. 일본에게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 때 결혼한 지 1년만이었다.

이집은 그 후에 국민당 의용군이 사용하기도 하고, 공산당 혁명 때도 접수되어 60년대에는 법원으로도 사용되었다. 왼편의 단층 집도 공산당의 양식 창고로 쓰였고, 토지개혁 때는 지주로 시골로 쫓겨난 후 간부들이 살기도 하였다. 80년대에 가족은 다른 곳에 집을 새로 짓고 살다 90년대에야 이 집으로 돌아와 살 수 있었다.

18) 북두, 왕아교씨(위안소 잡역부)

나는 얼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물 길르러온 일본 남자가 유지회에서 물일, 밥짓는 일을 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내게 취직 자리를 구해주었다. 이곳 위안소에서 여자들에게 밥을 해줬다. 본토는 여자는 아니었고, 6, 7명이 있었다. 그곳이 생길 때부터 2년 정도 일했다. 주인 또는 관리인이 2명으로 남, 여 각 1명이 번갈아 관리하였다. 둘 다 일본인이었다. 나같은 본토인은 1명 더 있었다. 우리는 청소도 하고 목욕물도 데우고, 야채 등을 사오기도 했다. 하루 50전의 품삯을 10일씩 계산해서 받았다. 군표였다. 군인들은 거의 매일 왔다. 군부대가 가까워서 걸어서 왔다. 낮에는 사병이 왔고, 밤에는 군관이 왔다. 하루에 여자들은 몇 명이고 상대하였다. 위안소 앞에 또 간단한 집이 있어 술과 음식을 팔았다. 위안소에 들어가려면 군표를 사서 2층으로 올라갔다. 완닝(萬寧)에 여자들을 따라 같이 가 밥해주고 또 같이 왔다. 그곳과 여자들을 교환했던 것 같다. 아마도 군인들이 새로운 여성을 상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위안소는 일본인 상인도 못 들어가고, 군인만 출입하였다. 여자들을 때리지는 않았는데, 나는 술 마신 군인에게 맞은 적이 있다. 지키는 사람은 따로 없었고 주인이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 여자들의 외출은 자유로운 편이었다. 여자들이 병원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 의사가 온 적은 없다. 군인들은 가게에서 파는 샷쿠를 사왔다. 샷쿠는 5전이었고, 그걸 안사면 주인이 못 들어가게 했다. 나는 아침 5시에 출근하여 저녁 5시에 퇴근하였다. 집이 그곳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물 길러 오면 여자들과 일본말이나 중국말로 아는 척도 했다. 여자들 나이는 대개 18-30세 정도였다. 여성은 일본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일본말을 썼다. 여러 가지 색 옷을 예쁘게 입었다. 마당에서 제기차기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이들이 조선인 여성인 것 같다. 안 하는 여성도 있었는데, 말은 한가지로 같았다. 그러나 옷은 달랐다. 이들도 긴 치마를 입었다. 여자들이 불쌍했다. 나는 41년인지, 42년경에 그 일을 그만 뒀다. 가끔 주인에게 밥주걱 등으로 따귀를 얻어맞는 등 힘들었다. 그 후 삼아 전독 광산에 가서 일하다 다시 유럽으로 가서 미쓰이(三井) 비료 공장 창고에서 1년 이상 운반공으로 일했다. 거기에서는 검은 색 노동복도 받았고, 노임도 받긴 했는데, 얼마였는지 모른다.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차로 데려다 주었다. 전독 광산에서는 1, 2달 만에 도망쳐 나왔다. 여족에게 노임도 안주고 광석 캐는 일을 시켰다. 겨우 밥 두 덩어리만 주고 일을 못하면 일본인들이 때려죽이고, 시체를 파묻었다. 시체를 태웠다는 이야기도 들긴 했는데 모른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학살하고 고통을 준 일본에 큰 원한을 품고 있다.

19) 23일 조선촌 남정, 주아시씨

조선인들이 큰 나무통에 돌을 넣은 것을 등에 지고 일본놈 밑에서 일하는 걸 많이 봤다. 그들은 도로 공사를 위해 산 위로 돌을 운반하는 것이었다. 너무 피곤해서 일을 못하는 조선인을 마구 때리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 나도 일본사람 밑에서 일본군에게 징용되어 일했다. 나는 근처 삼아비행장에서도 일했는데, 거기에서도 조선인이 따로 일하는 걸 보았다. 조선인은 주로 청색 옷을 입고 일하였다. 온천가는 길 닦는 일을 했는데, 조선인과 함께 하지는 않았다. 여족 마을에서 한집에서 한명씩 동원돼 일했다. 내가 어렸을 때 남정소학교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큰 나무에 사람이 매달려 매맞고 또 죽는 것도 보았다. 1945년경인 것 같다. 그곳은 홍화였다. 조선족을 태워 죽였다는 이야기도 들었으나 직접 보지는 못했다. 이야기도 푸른 옷을 입은 것 때문에 홍화와 남정에서 조선인인 것을 안다. 그들이 바다 건너 온 조선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외지에서 온 여성을 본 적은 없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아시냐는 질문에 자기도 그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하였다. 周亞時씨는 홍화-남정-삼아비행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이다).

조선사람들과 함께 일한 적은 없지만 그들을 본적은 있다(반복 증언). 어떤 조선사람인지, 어떻게 끌려왔는지는 몰라도 무척 고단해 보였다. 조선인 이야기는 일본인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에게 들었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태워 죽였다는 얘기도 들었다. 여족은 매는 맞았어도 죽임을 당한 사람은 없었다.

부록 2. 번역자료

1) 해남문사(海南文史) 자료 11집, 鐵蹄下的腥凶血雨(鐵蹄下的腥凶血雨) 하-일군침략 폭행실록, 1995, 551-559쪽 (번역 : 장우순 연구원)

이 사진은 박래순 할머니의 사진이다. 그는 한국인으로 1941년 2월 일본군에게 속아 일본군전지후방근무대에 참가하여 1942년 초 일본군을 따라 해남도에 도착하였다. 이 사진은 1942년 2월 24일 해구(海口)시에서 찍은 것으로 당시 그녀의 나이는 26살이었다.

이 사진은 해남도에 온지 50년이 지난 박래순 할머니의 사진이다. 이때 그녀는 해남보정현(海南保亭縣) 도로공단의 퇴직노동자였다. 사진은 1993년 8월 보정현 도로공단 직원기숙사에서 찍은 것으로 당시 그녀의 나이는 77살이었다.

-일본군에게 속고 강박 당하여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던 경험

박래순 구술, 장응용(張應勇) 정리

1994년 국경절 전날밤(중국의 국경절은 10월 1일: 역자주) 필자는 다시 박래순 할머니를 찾아뵙기 위해 보정현 병원으로 갔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는데 보정현 도로공단의 경영진이 파견한 젊은 여직원 한 명만이 이 외롭고 쓸쓸한 노인을 돌보고 있었다. 노인의 등은 벌써 굽어있었지만 그래도 수척하신 얼굴에서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자태를 은근히 엿볼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할머니 좀 좋아하셨습니까? 하루빨리 완쾌 하셔서 퇴원하시길 바랍니다. 이 번에는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라고 입을 떼었다. 노인은 손짓으로 나에게 병상 옆에 와서 앉으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끝내 눈물을 머금은 채 입을 열기 시작하였다.

나는 올해 이미 78살로 몸도 이미 안 좋아 오래 살 것 같지 않다. 당신들이 나에게 옛일을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옛일- 나는 원래 그 일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가슴 아픈 그 일을 다시 언급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당신이 여러 차례 나를 취재하러 왔고 이제 살날도 얼마 남지 않아 그런 일들이 신문에 발표된다 하여도 별로 거리낄 것이 없을 것 같아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다.

나는 한국 경상남도 함안군 이양(理讓)면 내곡(內谷)리 사람이다. 나의 부친은 박명만(朴

命萬), 모친은 송취인(宋崔引)으로 순박한 농민이었다. 부모님은 우리형제 아홉 명을 키우셨는데 큰오빠는 박은식(朴恩植), 둘째 오빠는 을식(乙植), 큰언니는 임순(任順), 둘째 언니는 을순(乙順)으로 이들 역시 모두 농민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금까지 생존해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다섯째로 아래에 또 남동생 수부(壽富)와 기영(基英)이 있었고, 여동생 기순(基順)과 차순(次順)도 있었다. 그들도 이제는 50이 넘었을 것이다.

소화 15년(1940) 일본군대는 이미 중국에 대해 대규모 침략전쟁을 개시하였다. 그 해 하반기 일본사람들은 우리 고향에서 더욱 자주 징병을 하였다. 나의 당시 연인은 최씨였는데 그 역시 중국으로 징병되었지만 그가 중국의 어느 곳의 어느 부대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듬해 2월 일본사람들은 우리 고향에서 젊은 부녀자를 모집하였는데 이른바 ‘전지후방근무봉사대’를 조직한다는 명분이었다. 모집책은 이씨라는 조선사람으로, 그는 이일이 대동아성전을 지원하기 위한 일이며 부녀자들은 그곳에서 단지 밥하고 빨래하며 부상병을 돌보는 일만 하면 되는데 매달 먹고, 쓰는 것 이외에 따로 월급도 있어, 그것을 집에 보내면 생활비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저기에 선전하고 다녔다.

우리고향에서 적지 않은 부녀자들이 ‘전지후방근무봉사대’ 모집에 응하였는데 이들의 나이는 16에서 30여 살까지였다. 나는 당시 25살로 언니 둘은 이미 시집을 간 상황이었고 집안에는 식구가 많아 생활이 곤란하였다. 봉사대에 참가하면 돈을 벌어서 집에 보태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나는 물론 봉사대로 가기를 희망하였다. 또 나의 연인이 중국의 싸움터에 가 있었으므로 중국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던 당시로서는 중국에 가면 혹시 그를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에 더 더욱 가고 싶었다. 우리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이씨라는 사람이 여러 번 선동을 하고 감언이설로 설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다.

‘전지후방근무봉사대’가 중국에 갔을 때 같이 차를 탔던 사람은 30여 명으로 이중 4명이 우리 박씨 문중의 자매였다. 얼마나 오랫동안 버스, 기차를 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마침내 어느 날 중국 무순(撫順)의 일본병영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우리를 병영에서 살게 하지 않고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의 담이 있는 건물 안마당에서 살게 하였다. 마당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이곳에 200여명의 많은 젊은 여자들이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틀 후 부대를 편성하였는데 내가 있는 부대에는 약 50명이 있었으며 이 안에는 일본사람, 북한사람, 남한 사람 등이 있었다.

부대를 편성한 이튿날에 관리인 최씨는 우리에게 동일한 빛깔과 모양의 옷을 주며 목욕한 후에 입으라고 하면서 곧 신체검사를 한다고 하였다. 관리인 최씨는 우리를 큰 홀로 데려가서 줄을 서게 하였다. 얼마 후에 흰 가운을 입은 30여살 정도 된 일본중년여인이 들어왔는데 그녀의 뒤로 체격이 건장한 대, 여섯 명의 남자들이 따라 들어왔다. “어떻게 여자들을 신체검사 하는데 남자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가?”라고 하며 여성들 사이에서 의논이 분분하였고 의혹과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때 최씨가 큰소리로 꾸짖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무서워서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곧 이어 일본여인이 우리를 둘러보며 엄숙히 말하기를 “이번 신체 검사는 대동아성전을 위하고 황군을 위한 일로 너희들의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모두들 옷을 다 벗고 움직이지 말고,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어떻게 남자 앞에서 옷을 벗을 수 있어!’ 우리들은 모두 부끄러워서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묵묵히 서 있었지만 몹시들 긴장하고 있었다. 일본여인은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화를 냈다. 그는 곧 이어 앞줄에 서 있는 여성을 가리키면서 줄에서 나와 앞에서 먼저 옷을 벗으라고 으박질렀다. 하지만 그 여성은 여전히 서 있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 여성은 17, 18살 밖에 되지 않아 보였다. 끝내 일본여인은 옆에 서 있는 체격이 건장한

남자들에게 손짓을 하였고, 두 명의 남자가 굽주린 늑대처럼 달려들어 그 여성을 짓누르고 옷을 다 벗긴 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방바닥에서 윤간을 하였다. 그 여성은 고통스럽게 발 버둥치고 울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오히려 강간을 당하면서 몹시 얻어맞아 얼굴마저도 부어 올랐다. 그녀는 마침내 방바닥에 쓰러져서 꼼짝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우리들은 모두 넋을 잃고 멍해졌고 곧 이어 모두들 무서워서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여성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듯 모두에게 옷을 벗고 일본여인이 검사를 받으라고 악마같이 명령하였다. 그 일본여인은 여성 모두를 이리저리 자세히 검사하고, 위, 아래를 만지고 꼬집었다. 어떤 여성들은 참을 수 없어 울기 시작하였는데, 일본여인은 독살스럽게 그들의 뺨을 때렸다. 그래서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분을 꼭 잡고 그녀에게 우롱을 당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원래 여성들이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곧 바로 밥하고 빨래하는 따위의 일들을 하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뜻밖에 그 날 저녁에 많은 일본군인들이 마당 밖에서 몰려왔고, 관리인 최씨는 입구에서 입장권을 팔기에 바빴다. 입장권은 한 장에 2엔이었고, 입장권을 산 일본군인들은 마당에 들어와 입장권의 번호에 따라 우리를 보잘것없는 침대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 일시에 울음소리, 욕하는 소리, 때리며 싸우는 소리 그리고 일본군이 옷을 찢는 소리, 음란한 웃음소리가 아수라장을 이루었다. 몇 명의 여성들은 끝내 굴복하지 않고 온힘을 다해 반항하였지만 일본군에게 구타당하여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버렸다. 이 날은 1941년 3월 16일로 내가 한 평생 잊을 수 없는 굴욕의 날이었다.

나는 이렇게 정조를 잃은 날부터 일본군의 “위안부”가 되었다. 날마다 일본군인들을 접대하여야 했는데 적을 때 3, 4명이었고, 많을 때는 1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최씨는 우리에게 하루 일당 10엔 씩 만을 줄 뿐이었고, 일본군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성욕을 발산하는 도구로만 보았다.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삶은 누구라도 견딜 수 없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어디로 도망가야 할 지도 알 수 없었고, 일본인들이 매우 엄중하게 감시하였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한때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였지만 집안식구들을 생각하고, 또 중국에 와서 아직 만나지 못한 연인을 생각하며 자살을 포기하였고, 분을 꼭 참으며 살아왔다.

소화 17년(1942) 1월말 내가 26살이었을 때 나는 무순(撫順)시 ‘전지후방근무봉사대’에서 뽑혀 일본군함을 타고 그곳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였다. 동행한 사람들은 조선, 대만, 필리핀에서 온 여성들 28명이었고, 이중에 나와 함께 고향에서 온 사람은 단지 20살의 박씨 여동생 한 명뿐이었다. 우리는 일본사람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몰랐고, 다만 갈 길이 멀다는 것만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그 곳에 가서 혹시 연인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군함에서도 일본군은 우리를 쉬게 하지 않고 밤낮 없이 군함에 있는 수병들을 접대하게 하였다. 이 해 2월 23일 우리는 해남도 해구시에 도착하여 해구시 중산로(中山路) 해구종루(海口鐘樓) 오른쪽 건물(구체적인 번지수, 점포명을 기억할 수는 없고, 그곳이 일본군 사령부 근처였다는 사실만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에 머물렀다. 이튿날, 나는 일본사람이 경영하는 사진관에 가서 사진(앞에 먼저 소개한 사진: 편자주) 한 장을 찍었다. 그 사진을 내가 지금까지 보존해 왔다.

나는 해구시에서 일년 가까이 살았다. 나와 같이 위안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대만여성들과 필리핀여성들도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일본군사령부(현 해군병원주소지: 편자주) 근처에 있는 주둔지 위안소에서 군인들은 접대하였다. 밤에 군인(손님)을 접대하고 낮에도 군인을 접대해야만 했다. 밤에 온 군인이 더 많았고 그들은 모두 일본군인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곳에 올 수 없었다. 이밖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씩 비교적 먼 곳에 있는 일본 군영에 가서 ‘위안’하여야 했는데 한 번에 10명 혹은 10 여명의 여성으로 조직되었다. 번번이 병영에 가 있는 2, 3일에는 더욱 자주 접대해야 했는데 때로는 한 시간도 안되어 군인 한 명씩을 접대해야 하였다. 생리 중에도 손님을 접대해야 했고, 행동이 느리면 우리를 가차없이 마구 구타하였다. 끊임없는 성교 때문에 여성들은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몹시 수척하여 적지 않은 수가 병상에 몸져누워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병세가 조금만 나아지면 일본인들은 또 다시 여성들에게 군인들을 접대하도록 강박하였다. 위안소에서는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하고, 주사를 놓고 약을 먹였다. 어떤 여성은 성병에 걸려 하체가 썩어 악취가 났다. 이 때 그녀의 침대에 빨간 번호판을 걸어놓아야만 일본군인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떤 여성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중신장애인이 되기도 하였다.

소화 18년(1943) 1월, 일본군은 군용차로 나를 해남도 남쪽 끝의 삼아시(三亞市)로 보내 홍사허(紅沙墟) 옆에 있는 구가원(歐家園)위안소(현 시각장애인요양원조소: 편자주)에 머무르게 하였다. 이 위안소는 강제로 노역동원을 하여 지은 것이었다. 이 안에는 52명의 여성들이 있었는데 대만사람과 조선사람이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인 ‘위안부’들은 삼아 시내에 있는 위안소에 배치하였다. 우리는 눈물 젖은 밥을 먹는 굴욕적인 비인간적 생활을 하여야만 하였다. 성격이 거친 일본군인을 만났을 때 우리의 행동이 조금만 느리면 가차없이 구타를 하였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접대할 때는 하는 수 없이 그의 요구대로 반죽음이 될 정도로 힘들어도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없었다. 어쩌다 양심이 그나마 남아 있는 일본군인을 만나면 우리에게 몰래 10엔 혹은 좀더 많은 돈을 주기도 하였다. 내가 삼아에 온 지 두 달에 안되었을 때 학질을 앓게 되었는데 때로는 출고 때로는 더워서 무척이나 견디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전히 군인을 접대하여야만 했다. 다행히 위안소의 관리인인 천정군(泉井君)은 나에게 비교적 잘해주는 편이어서 내 침대에 빨간 번호판을 걸어주어 휴식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몰래 나를 보호해줘서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체검사를 받은 후에 내가 걸린 병이 성병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어 그는 다른 데로 전근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 후에 최씨 성을 가진 북한 사람이 관리인으로 파견되었는데 그에게서 내 연인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 관리인 최씨는 중국에 온 후에 내 연인과 같은 부대에 있었으며 같이 화북(華北) 지역에서 중국부대와 싸웠다. 내 연인은 중국에 온 지 3개월이 안되어 전사하였다고 한다. 나는 연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을 계속 울며 지냈다. 그 후 한차례 큰 병에 걸려 누웠는데 일본군은 아직 다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접대를 강요하였다. 이런 잔인한 고통을 받고도 죽지 않았으니 내 명도 매우 질긴 셈이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하자 일본군은 무리를 이루어 해남도에서 철수하였다. 나는 몸이 허약하였기 때문에 일본군이 나를 내버렸고, 몇몇 조선병사와 대만병사 역시 방치되었다. 혼란 속에 나는 석건순(石建順)이라는 북한젊은이를 알게 되었다. 운명은 우리를 동반자로 맺어주었다. 1948년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해서 삼아시 교외에서 살게 되었다. 매일 우리는 풀을 베어 팔아 생활을 연명하였다. 비록 수입이 적고 생활은 보잘 것 없었지만 진정 사람답게 자유로이 살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 일본군위안소에서 있을 때와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나는 생활이었다. 나와 석건순은 7년을 같이 살았다. 비록 자식은 생기지 않았지만(아마도 내가 위안소에 있을 때 몸이 망가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생활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

1955년 재난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나와 서로 굳게 의지하며 살아 온 석건순이 나 혼자

만 버려둔 채 병으로 숨을 거두었다. 다행스럽게 지방인민정부에서 나처럼 불운한 여성을 특별히 배려해주고 보살펴주었기 때문에 1959년에 나를 보정현 도로공단으로 파견하여 도로 보수공이 되게 하였다. 나는 보정현 현정부 소재지로부터 6km 떨어진 선로보수반 기숙사에서 살았다. 15년 동안 나는 도로보수, 소를 키우는 일 등을 하였다. 중국정부는 이 외국여자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 정부는 나에게 외국인거주증을 발급하여 주었고, 도로공단의 간부들도 항상 나를 보살펴주어서 사소한 일까지 신경을 써주었으며 내가 퇴직한 후에도 재직할 때 임금의 100%를 지급하였으며 현정부소재지에 있는 직원기숙사에 들어가게 해주었다. 그 때는 기숙사가 부족하여 많은 직원, 심지어는 간부들조차도 살집이 없었는데 나를 우선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게 하였다. 또 병이 날 때마다 간부들은 더욱 세심하게 나를 보살펴주고 여직원을 파견하여 나를 돌보도록 하였다. 문화대혁명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홍위병은 내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당신이 일찍이 나한테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25년을 살았지만 중국에서는 53년을 살았다. 중국정부와 인민들이 나와 같이 이런 모욕을 당한 여자를 경시하지 않고 친자매처럼 나를 대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 게다가 나는 나이가 많고 병이 깊어서 공단간부들이 1000원이 넘는 귀중한 관까지 준비해 놓은 상황이다. 나 역시 중국사람들의 습관에 따라 수의 몇 벌을 마련하였다. 나는 이제 뒷일의 걱정이 없으므로 죽어도 상관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이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삼백 “위안부” 태반(泰半)에서 비참하게 죽다

-석록(石礫)철광 ‘위안소’ 조사 실록

何十里

55년전의 오늘, 일본 침략자의 말발굽이 해남도의 땅을 밟았다. 이 때부터 해남도의 인민들은 심한 고난에 빠졌다. 필자의 고향인 해남성 창강현(昌江縣)에서 일본군은 곳곳에서 불을 지르고 사람을 학살하였으며 여자를 강간하여 그 죄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필자가 현지(縣誌) 역사자료를 수집할 때 석록철광 ‘위안부’의 당안을 기록한 자료하나가 주의를 끌었다. 필자는 ‘위안부’에 대한 동정과 일본침략자들에 대한 분노를 품고 역사의 흔적을 추적하여 해남성당안관, 창강현 당안고나 및 해남 철광 당안관 등에 있는 연관 자료를 조사하고 고증하였다. 나는 또한 일본 괴뢰시기에 요행히 살아남은 광부를 취재하여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석록철광에서 운영한 위안소의 전모와 ‘위안부’의 비참한 처지를 기록하였다.

1939년 2월 일본군은 해남도에 도착한 후 “전쟁으로 전쟁을 키우고”, “현지조달”을 이룩하여 중국을 정복하여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일질해남흥업(日窒海南興業)주식회사로 하여금 석록철광을 채굴하도록 하여 석록의 광산자원을 수탈하였다. 그들은 연달아서 상하이(上海), 홍콩(香港), 마카오(澳門), 산두(汕頭), 시아먼(廈門) 등 피점령도시와 해남도 각지에 사기와 강박 등의 수단으로 강제로 4만 여명의 노동자를 잡아와서 대규모로 약탈적인 개발을 시작하였다.

1942년 봄 일본침략군은 일본병사들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석록철광에서

‘위안소’ 하나를 설치하였다. 일군은 ‘합기공사(合記公司)’라는 이름으로 홍콩, 광주 등지에서 대량적으로 젊은 여공들을 모집하였다. 통틀어서 300여 명의 젊은 부녀자들이 석록광산으로 속아서 오게 되었다. 그들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은 불과 17살에 불과하였고, 가장 많은 사람도 30살이 되지 않았다. 이 젊은 부녀자들 대부분은 대학생과 중학생(중국에서 중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의 고등학교 과정을 의미함-역자주)이었다. 광산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강제로 ‘위안소’에 들어가 생지옥과 같은 비참한 생활을 시작하여야 했다.

‘위안소’는 석록광산의 기슭에 있었고, 일본 토치카 동쪽으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현재 석록 하남(河南)파출소와 현공쇄무역공사(縣供鎖貿易公司)의 소재지의 ‘위안소’의 건물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에 현식품공장과 현전분공장의 직원 기숙사로 사용되었고, 80년대 초에 철거하였다. 건축면적은 약 300여 평방미터이고 벽돌과 나무구조에 기와지붕이었으며, 건축모양은 ㄱ형이었다. 건물의 남서쪽에는 구석에 남쪽을 향해 대문 하나가 있었고, 동쪽, 북쪽을 향해 작은 문이 하나씩 있었다. 실내 한가운데에는 넓이 약 1.5미터의 통로가 나 있었고, 통로 양쪽에는 칸막이로 작은 방 20여 개씩을 만들어 놓았는데 창문은 나무로 만든 일본식 창문이었으며 바닥은 시멘트로 만들었다. ‘위안부’가 도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안소’ 사방에 경계망을 설치하여 일본군이 하루종일 순찰하였으며 경비가 매우 삼엄하였다. 도망하다가 잡힌 ‘위안부’들은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옷을 다 벗긴 후 나체로 나무에 매달아 심하게 구타하고,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하기도 하였다. ‘위안부’ 한 사람에게 하루에 단지 3양(兩.양사-한근, 즉 500그램의 1/10, 50그램이 1兩)이 조금 넘는 쌀밥을 제공하였고, 심지어 때로는 고구마 몇 개만을 주기도 하였다. 평상시 한 사람이 하루에 적어도 8명의 손님을 접대하여야 했고, 일본병사들이 쉬는 날에는 많은 경우 손님을 24명까지 받기도 하였다. ‘위안부’는 매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줄을 지어 의무실로 가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다. ‘위안소’의 대문은 일본군들이 지키고, 표객(접대 받기 위해 오는 손님-역자주)들은 특별히 제작된 나무판으로 출입하였다. ‘위안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일본 관병, 총관리인, 심장들이어서 ‘위안부’들이 손님을 접대할 때 약간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심하게 맞곤 하였다.

늦겨울의 어느 날 오전 두명의 ‘위안부’가 계속하여 학대를 받고 기진맥진한 후에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옷을 다 벗긴 후 나무에 매달아서 심하게 구타하여 때려죽였다. 황옥하(黃玉霞)라고 불리는 한 ‘위안부’는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캄캄한 밤을 틈타 이 ‘위안소’ 안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였다. 또 다른 한 명 나방저(娜芳姐)라고 불리는 ‘위안부’는 10여명의 여성과 함께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집에 돌아가 남편과 아이를 볼 면목이 없어서 타향에서 벼랑에서 뛰어내려 숨을 거두었다.

길을 잃어 잡혀 온 한쌍의 미혼 대학생은 남성의 경우 강제로 보교(寶橋.지금의 叉河鎮)에 끌려가 철로를 만드는 노역에 종사하게 되었고, 여성의 경우 강제로 위안소에 보내져 손님을 접대하게 되었다. 이 여성은 죽어도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군에 의해 나무에 매달려서 심하게 얻어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반죽음이 되었다. 그녀는 일본군이 비인도적인 학대를 견디지 못해 얼마 안되어서 ‘위안소’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아청(阿靑)이라고 불리는 한 처자는 불과 17살이었다. ‘위안소’로 잡혀온 그 날 비참하게 몇 명의 일본군에게 윤간을 당해 숨이 다 넘어갈 정도로 학대를 받았고, 그 상황이 너무 비참하여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4년이 되지 않는 기간동안 석록철광 ‘위안소’에 있던 300여 명의 젊은 부녀자들 중에 심하

게 맞아서, 강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해 죽은 사람과 병으로 죽은 사람 및 굶어 죽은 사람이 무려 200여 명에 달하였다. 1945년 일본군이 투항할 때까지 요행히도 살아남은 ‘위안부’는 단지 10여 명 뿐이었다.

석록철강위안소는 일본군이 해남도를 침략할 때 설립한 비교적 규모가 큰 위안소 가운데 하나였고, 일본침략자가 해남에서 부녀자들을 학대하였던 확실한 증거이다.

(편집-吳陸榮, 昌江縣정치협상위원회 원고제공)

내가 알고있는 황류(黃流)비행장의 ‘위안소’

종강(鍾强)

나는 황류 서방촌(黃流 西防村) 사람이다. 현재 73세로 항일전쟁 시기 국민당 152사의 정보참모(영관급)를 역임하였다.

1945년 겨울 나는 담현봉(儻縣奉)에서 황류비행장으로 전근하여 투항일본군과의 접수 수족을 담당하였고, 후에는 비행장에 남아 임시사령부 서기와 비행장 서기 등을 역임하였다. 때문에 일본군 황류비행장에 설치된 ‘위안소’의 사정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었다.

황류비행장의 일본군 위안소는 ‘군중낙원(軍中樂園)’이라고 불리었지만 사실은 군 소속 기생집이었다. 위안소는 황류비행장의 동문 밖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숙사가 두 칸으로 두 개의 ‘낙원’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제 1낙원은 5명의 ‘위안부’가 있었고, 제 2낙원은 16명의 ‘위안부’가 있었는데 제 1낙원은 공군 군관들에게만 향락을 제공하였고, 제 2낙원은 공군사병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었다.

“위안부”의 대부분은 광주(光州)에서 잡혀온 여인들로 내가 황류비행장에 도착하여 일본군의 향복을 접수하고 있을 당시에는 단지 4 명만이 남아있었다. 우리는 그녀들 모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 중 한 명 이름이 오혜용(吳惠蓉.광주사람)인 여인은 4인 중 가장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일본군이 당황하고 혼란에 빠졌을 때(폐전이 임박하였을 때-역주) 이미 대만국적의 일본공군 자동차 운전병과 결혼을 하였다. 어느 하루 그녀는 나와 ‘군중낙원’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이야기 내내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다음은 그녀의 진술내용이다.

- 나는 16살에 일본군에게 잡혀 왔다. 나와 같이 잡혀 온 여인들은 약 100 명 가량 되었다. 황류에 도착한 후 40여 명이 남게 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황류과견대(즉, 황류사령부)에 남게 되었다. 우리는 그 중(황류사령부에 남은 사람들)에서 선발되어 황류비행장에 보내졌는데, 다시 선발된 우리 다섯 명은 군관을 위한 ‘낙원’의 ‘위안부’가 되었고, 나머지는 사병 ‘낙원’의 ‘위안부’가 되었다.

일본군은 마음껏 번갈아 가며 우리를 희롱하며 쾌락을 취하였다. 때로는 월경 때문에 때로는 병 때문에 그들의 짐승같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는데 이럴 때면 구타를 당해야 했다. 어떤 때는 중상에 이를 정도로 당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일본군이 술을 마셨을 때는 모

육과 학대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더욱 더 견디기 어려웠다.

‘낙원’에는 보초가 있어서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인신의 자유를 상실한 채 영오(囹圄)의 몸이 되었다. 우리는 밤낮으로 부모, 형제를 생각하였고, 눈물로 배개를 적시기 일쑤였다.

황류일본파견대 위안소의 여성들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고, 마찬가지로 비참하였다. 오혜용은 해남 해방 전날 남편을 따라 대만으로 갔다.

(편집-范運晰 樂東縣정치협상위원회 원고제공)

애현(崖縣)의 해남도 침략 일본군의 ‘위안소’ 조사

양결신(羊杰臣)

1939년 2월 14일 일본 침략군은 애현(崖縣, 현재의 삼아시)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여기 저기 불태우고 사람을 죽였으며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강간하는 등 여러 가지 죄행을 저질렀는데 그 최악은 하늘에 닿을 만큼 엄청났다. 애성(崖城)에서 끌려가서 교량, 도로를 건설했던 노역자들에 의하면 고교양(古橋梁)과 금계(金鷄) 저수지 지역의 도로를 건설할 때 여족의 여자노역자들은 매일 십 수명씩 강제로 산 속에 끌려가서 강간당하였다고 한다. 그들 중에 어떤 여자는 강제로 옷을 벗겨 강간을 당한 후 일본군이 다시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 인화해서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1941년 후 애현을 점령한 일본군은 장교와 병사들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각지에서 많은 여성들을 잡아오거나 파견하여서 ‘위안소’를 만들었다. 일본군이 ‘위안소’에서 여성을 모욕하고 학대하는 방법은 매우 잔인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당시 일본군이 애현에 설치한 ‘위안소’는 11개가 있었고, 잡아 온 ‘위안부’는 모두 300여 명이 있었다고 한다. 이 ‘위안부’들의 대부분은 조선, 대만, 일본에서 잡아온 잡아 온 여성들이었으며 해남도의 각 현에서 잡혀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지금 현존 피해자들 중에는 임고현에서 잡혀왔던 ×××(지금은 남편과 같이 유아염장(榆亞鹽場)에서 살고 있다)이 있고, 낙동현 황류시에서 잡혀 온 ×××(지금은 남편과 함께 樂東縣 羊欄村에서 살고 있다)이 있다. 이러한 위안소들이 일본군의 침략군을 따라 애현의 각 거점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아성에는 두 군데가 있었다.

(1)

존도일촌(尊道一村)에서는 진씨 집에 장교전용 위안소를 설치하여 ‘화남장(華南庄)’이라고 불렀는데, 이 곳에는 ‘위안부’가 30명 정도 있었다.

황류에 있는 일본군은 임보흥(林葆興)의 집에다 위안소를 설치하여 ‘남은광(南恩光)’이라고 하였으며 이 안에는 장교전용의 위안소 ‘도장(桃庄)’과 사병전용의 위안소 ‘매장(梅庄)’이 있었다. 황류비행장을 건설할 때는 ‘영대(營隊-군용으로 생각됨)’와 ‘서송(西松-노무자용)’ 두 개의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포촌(鋪村)비행장 13기지에서는 공병위안소를 설치하였는데 30명의 ‘위안부’가 있었다.

구소(九所)에 있는 일본군은 분견대 주둔지 옆에 ‘위안소’를 하나 설치하였는데(이름은 알

수 없다) 30명 정도의 ‘위안부’가 있었다.

삼아항에서는 장교전용의 ‘위안소’를 하나 설치하였는데 그 위치는 일본부대 뒤에 새로 만든 부각옥(浮脚屋.현재의 三亞市 문화회관 뒤) 안에 있었으며 ‘위안부’는 30명 정도였고 이름은 알 수 없다.

용근촌(榕根村) 근처(지금의 교통호텔 뒤)에는 공병위안소 하나를 설치하고 ‘중도(中島) 위안소’라 하였으며 ‘위안부’는 20여 명이 있었다.

유림(榆林)에는 장교용 ‘위안소’ 하나를 설치하였으며 위치는 현 유림초등학교 안에 있었고(이름은 모른다) ‘위안부’는 30명 정도가 있었다.

홍사 구가원(紅沙 歐家園)에는 병사 ‘위안소’ 하나를 설치하였으며(지금의 三亞市 시각장애인 수용소 안) 그 안에는 ‘위안부’ 52명이 있었으며 그 중 대만여성과 조선여성이 각각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등교(藤橋)에 있는 일본군은 공씨(龔氏) 일가가 등교시내에 가지고 있던 집에 ‘위안소’를 하나 설치하였는데 그 안에 ‘위안부’ 20명 정도 있었다.

해남도를 침략한 일본군은 애현 한 곳에서만 열 몇 개의 위안소를 설립하였고, 몇 백 명의 양가집 규수들을 강박하여 ‘위안부’로 충당하였다. 그들의 인간성을 짓밟은 파시즘적 죄행은 인류문명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

‘악마 소굴’ 안의 피와 눈물

-내가 일본군에게 잡혀 ‘위안부’로 전락하였던 경험

황유량(黃有良) 구술, 호월령(胡月玲) 정리

나는 1927년에 태어났고, 본적은 능수현 료차동 가마촌(陵水縣 廖次峒 架馬村)이다. 우리 집에는 식구가 세 명 있었는데 모친이 두 눈을 실명하여 부친 혼자 일을 해서 온 집의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무척 힘들었다.

1941년 일본 침략군은 료차동을 점령함으로써 무릉도원 같던 편안한 생활은 이제 끝이 나게 되었다. 등교에 주둔한 일본군은 료차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중국공산당 경애(瓊崖) 유격대를 철저히 토벌하기 위해 특별히 등교(藤橋)로부터 심진(審田)을 경유하여 료차령(廖次岭) 아래까지 도달하는 도로를 만들었고, 이를 육전대로(陸田大路)라고 불렀다. 도로가 만들어진 후 일본군의 마수가 여촌(黎村)으로 뻗어왔다. 일본은 가마촌으로부터 약 40km 떨어져 있는 곳에 군영을 만들었고, 그 안에 병사 30여 명을 주둔시켰다.

가마촌에 주둔한 일본군은 첫날부터 이 일대 마을에서 ‘삼광정책’을 강행하였다. 그들은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였으며, 여자를 강간하고, 재물을 빼앗는 등 온갖 못된 짓을 자행하였다. 여족촌민(黎族村民)인 호창귀(胡昌貴), 호관복(胡關福) 등 300여 명을 죽였으며, 호관고(胡關固) 등 25명의 부녀자들을 강간하였고, 노월촌(老越村), 유전촌(陸田村), 가마촌과 모파촌(母爸村) 등의 마을을 불태워 없앴다.

젊은 처녀들은 일본군에게 잡혀가서 빨래와 밥을 하고 목욕물 길어오는 등 낮부터 밤까지 일을 하였다. 용모가 빼어난 여성들은 모두 강간을 당하였고 만약 반항을 하면 바로 학살당하였다. 일부 부녀자들은 강제로 “위안부”가 되었는데 나는 바로 그 수많은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다.

1941년에 내 나이는 겨우 15살이었다. 음력 10월 5일 아침 나는 벼 바구니를 메고 마을 밖에 있는 수전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거기 서”라는 외침을 들었다. 놀라서 돌아보니 멀지 않은 곳에 한 일본병사가 서 있었다. 놀란 나는 황급히 벼 바구니를 버리고 몸을 돌려 산 쪽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일본군 10여 명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나를 쫓아왔다. 나는 도망가다가 기진맥진하여 끝내 그들에게 잡히고 말았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한 일본병사가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였지만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 때 구렛나루가 난 한 명의 일본군이 음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총을 동료들에게 주고 미친 듯이 나를 안으면서 얼굴에 키스를 퍼부었다. 또 다른 한 명의 일본군은 내 뒤에서 굶주린 이리같이 마음대로 만지고 꼬집다가 내 옷을 벗기고 그의 성기를 꺼내어 짐승처럼 나의 둔부에 찢어 넣었다. 다른 일본군들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매우 기뻐하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나는 모욕을 참으면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 못내 한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내 유방을 만지고 있는 손을 잡고 모질게 물어뜯었다. 손을 물린 일본군은 손을 놓고 무서운 기세로 총검을 쳐들어 내 머리를 내리치려 하였다. 이 때 장교 같은 일본군 한 명이 “멈춰, 꺼지지 못해”라고 외쳤고, 그 일본군은 어쩔 수 없이 화를 내며 옆으로 물러났다. 나는 이미 겁을 먹어 멍해져 있었다. 그 장교는 내 알몸을 보고 웃으면서 서투른 해남사투리로 “아가씨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있으면 너를 감히 건드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다시 일본병사들에게 무어라고 한 다음에 손을 휘저으니 병사들은 모두 물러가 버렸다. 병사들이 다 떠난 후에 그는 내게 다가와서 나를 안고 키스를 하였다. 나는 온힘을 다해 그로부터 벗어나 도망하였는데 그는 다행히 쫓아오지 않았다. 나는 다시 아무 일도 없겠거니 생각하고 옷을 다 입고 눈에 가서 벼를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뜻밖에 그 장교도 나를 따라 우리 집 앞에까지 와 있었다. 그는 나를 가로막고 야만스럽게 나를 침실로 안고 들어가서 침대위로 던진 후에 내 몸 위에 올라타 미친 듯이 내 얼굴에 키스를 하고 실하고 튼실한 손으로 몸을 더듬고 만지다가 난폭하게 옷을 찢어버리고는 나의 정절을 가져갔다.

그 후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병사들을 데리고 훌쩍 떠나버렸다. 오후 4시 나는 일어났던 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다. 어머니는 슬피하며 몹시 울었다. 그날 나는 일본군이 또 와서 폭행을 할까봐 이웃집으로 피신을 하였다. 그날 밤 나는 생각할수록 나의 처지가 슬퍼서 밤새도록 울었다. 그런데 별명이 ‘구장(九壯)’이라는 이 일본장교는 한 번 고기 맛을 들여 중독이 된 야수처럼 다음날 다시 병사 몇 명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쳐들어 왔다. 그는 침실에 들어 가 나를 찾지 못하자 우리 부모에게 사각우(四脚牛.사람을 동물처럼 네 발로 기어가게 하는 것)를 강요하였다. 우리 부모는 손과 발을 땅바닥에 대고 기어다녔고, 일본군들은 마음대로 그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우리 부모님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의식을 잃어 방바닥에 쓰러졌다. 남의 집에 숨어있던 나는 부모님이 심하게 얻어맞고 의식을 잃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일본 병사들은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사납게 달려들어 나를 잡았다. 별명이 ‘구장’인 그 장교가 내 앞에 다가와서 “너 어디 갔었니? 너 네가 무섭니?”라고 말을 하였고, 나는 심하게 욕을 퍼부으려고 하였지만 그는 내가 말할 여유를 주지 않고 방으로 끌고 가서 나를 훌쩍 벗기고 마음껏 희롱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

‘구장’은 그 후 버릇이 되어서 밤마다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부모님은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이 일본군이 나를 모욕하는 것을 참아야 했는데 조금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구타를

당해야 했다. 매일 밤이 오면 나의 고생은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1942년 4월의 어느 날 ‘구장’은 몇 명의 일본군과 함께 군용차를 몰고 와서 나를 잡아 군용차에 태우고 등교로 데려가서 경비가 엄한 군영에 가두고 ‘위안부’가 되도록 하였다. 나와 같이 잡혀온 부녀자들은 넓은 방에 가두었는데 우리보다 일찍 잡혀온 부녀자들은 다른 방에 가두었다. 방안에는 침대, 이불, 돛자리, 모기장 등이 있었으며 방 입구를 지키는 병사가 있어서 우리를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낮에는 비전투원이 우리에게 잡무를 배당하였다. 예를 들면 바닥 쓸기, 빨래하기 등이 우리에게 안배되는 일들이었다. 한편 밤이 되면 우리를 강박하여 일본군들과 잠을 자도록 하였다. 때로는 몇 명의 일본군에게 윤간을 당해야 했고, 그들이 흥분하고 만족을 할 때까지 강제로 여러 가지 체위를 취하기도 하였다. 일본군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단지 성욕을 발산하는 도구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린하였다.

어느 날 밤 나는 3명의 일본군에게 윤간을 당하였다. 처음 한 명의 일본군은 내 옷을 벗기고 침대 위에 눕도록 하고는 그가 유방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도록 강박하였는데 그는 혀를 내밀어 유두를 핥으며 성욕을 발산하였다. 두 번째 일본군은 나를 서서 강간당하도록 강박하였는데 그는 손으로 내 유방을 마구 잡고 꼬집으면서 성욕을 발산하였다. 세 번째 일본군은 나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강박한 후 내 몸을 마구 찌르며 성욕을 발산하였다. 연속적인 강간으로 음도에 심한 손상이 왔고 자궁에 염증이 생겨서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으며 병상에 누워 일어날 수 없었다.

그 곳에 있는 한 명의 여성은 역시 처녀로 이름은 진유홍(陳有紅)이었다. 몇 명의 일본군이 그를 윤간하려고 하였을 때 그녀는 죽어도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심하게 맞고 폭행을 당했다. 결국 그녀는 자궁이 파열되었고, 피를 많이 흘려서 숨이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결국 이틀 후 상처가 너무 심해져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또 한 명의 처녀는 그녀가 잡혀 온 첫날밤에 몇 명의 일본군에게 윤간을 당하였다. 그녀는 사람답지 못한 고통을 견딜 길이 없어서 혀를 물고 자살하였다.

나와 고통을 함께 하는 친구들은 이 악마의 소굴에서 밤마다 짐승처럼 성적 고통을 당해야 했다. 심지어 어쩔 때는 하루종일 윤간을 당해야 했다. 나는 여러 번 도망을 생각하였고 그곳의 친구들과 방법을 생각하였는데 일본군의 감시가 너무 삼엄하고 게다가 외부의 환경에 대해 너무 생소하였기 때문에 도망 갈 수가 없었다. 한 명의 한족(漢族) 처녀는 대변을 보다가 기회를 봐서 도망을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다시 잡혀와서 일본군에게 죽도록 맞고 감금을 당하였다. 그 후 우리는 도망갈 생각을 포기하고 천명에 따르기로 하였다.

1944년 6월 중순의 어느 날 우리 마을의 황문창(黃文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본군영으로 나를 찾아 왔다. 동향사람을 만난 나는 기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였다. 옆에 일본군이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일본군이 자리를 비운 틈에 황문창(黃文昌)이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너의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 가셨어, 빨리 집에 가봐” 이 불행한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목놓아 통곡을 하였다. 나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일본군장교를 찾아가서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묘지로 보낼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처음에 일본장교는 동의하지 않았다. 나와 황문창이 여러 차례 애걸을 하여도 소용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무릎을 꿇고 그에게 애걸복걸하여 마침내 그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저녁에 황문창이 나를 데리고 지름길로 걸어서 새벽 1시가 되어야 비로소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나는 집에 들어선 후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신 것을 보고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일본군의 마수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황문창과 아버지가 꾸며낸 계획이었던 것이다. 일본군을 피하고 나를 다시 지옥같은 환경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날 밤 황문창과 아버지는 호미와 삼태기를 가지고 몰래 마을 끝에 있는 황량하고 외진 언덕에 가짜로 나의 묘지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 다음 우리 온 집안은 그날 밤 안에 서둘러서 타향으로 도망을 쳤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가 도망간지 얼마 되지 않아 ‘구장’은 일본군을 데리고 가마촌으로 나를 잡으러 왔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퍼서 자살했다는 말을 듣고, 또 그 가짜묘지에 가서 눈으로 확인한 후에 나의 죽음을 진짜로 믿고 병사를 데리고 등교로 돌아갔다고 한다.

1945년 일본군은 무조건 투항을 하였다. 하지만 나는 강제로 ‘위안부’로 전락하였던 그 비참한 기억이 가슴에 깊게 새겨져 있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편집-龍建武, 陵水縣정치협상위원회 원고제공)

북여(北黎) 일본군 ‘위안소’의 상황조사록

우박(牛泊)

창감현 북여시(昌感縣 北黎市. 지금의 東方縣 新街鎮 北黎墟)는 일본군의 해남도 서쪽의 중요한 주둔지역이었으며 일본군 혼성여단 횡사특(混旅成團 橫四特)사령부의 소재지였다. 사령부를 둘러싸는 일련의 서비스 체제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도전(島田)공사, 삼예(三銳)공사, 삼정양행(三井洋行), 서송조(西松組) 및 남양(南洋)공사 등이 있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군은 또 ‘위안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위안소’는 바로 기생원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북여의 일본군 ‘위안소’는 모두 3개가 있었다. ‘위안소’는 상, 중, 하의 세 등급으로 나뉘었으며 모두 횡사특사령부를 중심으로 그 주위 마을이나 지역에서 설치되었다.

상등급 ‘위안소’는 북여시에 있는 두 칸 짜리 일층건물에 있었다. 이 건물은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는 광대한 저택이었고, 실내장식이 호화로웠고 환경이 쾌적하였다. 이 곳에는 ‘위안부’가 7-8명이 있었으며 모두 일본국적의 여자들이었다. 이 일본여자들은 젊고 예뻐하며 엄격한 훈련을 받아 전문적으로 일본군 장교들만 접대하였으며 장교 이외의 사람들은 절대 손을 댈 수 없었다, 그들은 일본 전통복장(기모노)을 입었으며 짙은 화장을 하였고, 일년 내내 맛있는 음식을 제공받았으며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병이 났을 때 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또 그들은 매일 오후 2시부터 저녁 6-7시까지 손님 접대를 하였다. ‘위안부’들은 일요일 혹은 쉬는 날이면 더욱 바빠졌다. 일본 장교들은 때를 지어 오곤 하였는데 보통 한 무리가 십 수명 정도 되었다. 한 무리가 끝나면 다른 한 무리가 들어갔다. 장교들은 규정에 따라 특별한 상황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 주일에 한 차례만 위안소에 갈 수 있었다. 이 ‘위안부’들(일본인 ‘위안부’들)은 비록 대우가 좋고, 순서대로 한 명씩만 접대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 역시 일본군이 성욕을 발산하는 전문적인 도구로서 모욕감, 두려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항상 ‘대동아성전(大東亞聖戰)을 위한 복무’라는 선교를 들어야만 하였다. 이런 선교는 일본국적인 특무-포주가 맡아 가르침이 매우 엄격하였으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 일본군장교들은 여기서 아무런 의미 없이 향락을 즐기고 난 뒤에 나가서 또 다시 ‘대동아성전’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중등급 ‘위안소’는 일본군 제 7영대 주둔지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두 채의 흰색 일층건물에 있었다. 그 안에는 ‘위안부’ 열 몇 명 정도가 있었는데 주로 대만, 조선 등지에서 왔으며 전문적으로 일본병사들은 접대하였고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이 곳의 ‘위안부’들의 풍채와 외관은 일본 국적인 ‘위안부’들 보다 약간 떨어졌으며 대우 역시 그에 상응하여 낮았다. 이들의 복무상황은 위와 비슷하므로 자세한 언급을 피하도록 하겠다.

하등급 ‘위안소’는 북여시 서쪽 일대의 나무숲 안에 만든 몇 채의 간이 일층건물에 있었다. 이 안에는 ‘위안부’가 20여 명쯤 있었고, 모두 속아서 잡혀 온 중국 내지의 여성들이었다. 일본군은 특무를 파견하여 회사직원으로 변장시켜서 상하이(上海), 광주(廣州), 홍콩 등지에 가서 사람을 모집하고 선동하게 하였는데 이들은 “해남도에 매우 많은 큰 병원을 설립하여 많은 처녀들을 모집하여 그 곳에 보내 기술을 배워서 간호사가 되게 하려고 한다. 월급이 많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므로 집으로 많은 돈을 부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곳이 중국여성들을 향해 선전하였으며, 뿐 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착비로 반 년치의 월급을 지불하였다.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던 양가의 규수들은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모두 ‘위안소’로 끌려갔고, 햇빛을 볼 수 없는 인간 ‘마굴(악마의 소굴)’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하등급 ‘위안소’는 일본군 사령부에 속한 각 회사직원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모두 돈을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었고, 돈만 있으면 신분, 계층을 상관하지 않았다. 심지어 심부름꾼이나 노역자(징용으로 끌려 온)도 들어갈 수 있었다. 이 곳의 ‘위안부’는 인신의 자유를 완전히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음식도 매우 형편없었고, 대우도 매우 좋지 않았다. 그들은 강제로 하루 24시간 손님을 접대해야 했고, 가장 많을 때는 하루에 ‘위안부’ 1인당 20여명의 손님을 접대하기도 하였다. 기생어미(포주)는 대만, 혹은 조선에서 선발되어 온 무지막지한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손이 매섭고(매질을 잘하고) 마음이 악랄하여 항상 병에 걸린 ‘위안부’를 강박하여 손님을 접대하게 하였고 규정된 접대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밥도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어떤 ‘위안부’는 학대를 받고 죽었고, 어떤 ‘위안부’는 모욕감을 참을 수 없어 도망하였다가 다시 잡혀 모진 고문으로 폐인이 되기도 하였고, 혹은 죽은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위안부’는 이런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 악마의 소굴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여 목을 메거나 음독하여 자살을 하였다. 이렇게 비명에 죽어간 사람들을 일본군은 그저 거적대기로 싸서 땅굴을 파고 묻어 버렸을 뿐이었다. 이렇게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생각을 품고 해남도에 직장을 구하러 왔던 이들은 가련하게도 타향의 고향이 되어 버렸다.

지금도 북여시의 광야에는 십 여 개의 주인의 이름 모를 무덤들이 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여 자행한 범죄행위를 고발하고 있다. 북여의 일본군 위안소는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 없어져 버렸다. 현지의 인민들은 그 폐허 위에 북여초등학교를 세워 일본군에 의해 약탈당한 이 땅에서 다시 문명의 꽃을 만발하게 하였다.

(편집-吳陸榮, 東方縣정치협상위원회 원고제공)

일본군 ‘전지후근복무대(戰地後勤服務隊)’ 중의 여족 여성들

1940년 3월 중순 일본군은 보정현(保亭縣) 소재지를 침략하였으며 이어서 십령, 가무, 신정, 남림 등의 지구를 잇달아 침범하였다. 일본군은 1943년 초까지 보정 전 지역을 점령하여 잇따라 10개의 거점과 초소를 세웠다. 일본군은 ‘대동아성전’이라고 선동하면서 일본군병영과 거점에서 ‘전지후근복무대’를 만들어서 일본군 장교와 사병들에게 ‘복무’를 제공하게 하였다.

일본군의 말에 의하면 ‘전지후근복무대’의 임무는 일본군 장교와 사병들에게 빨래를 해주고 부상병을 돌보며 병영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이 것은 물론 세상을 속이려는 대외 선전에 불과하였고 사실상 ‘전지후근복무대’는 양가집 여성들을 강박하여 일본군 장교와 사병들에게 성욕을 발산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그들(일본군) 멋대로 유린할 수 있게 하는 곳이었다.

‘전지후근복무대’의 인원은 대부분 현지에서 강제로 징발되었다. 일본군을 도로를 건설하는 노역자와 전독(田獨)철광산으로 끌려온 노역자 중에서 젊고 예쁜 여자를 골라 ‘전지후근복무대’에 편입시켰다. ‘복무대’에 편입된 여성이 ‘복무대’가 사실상 일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었다. ‘전지후근복무대’에서 도망을 하면 잡혀와서 틀림없이 사형을 당하였으며, 정해진 시간에 ‘예방환’을 먹지 않거나 부주의로 임신을 하는 사람도 잔인하게 배를 갈라 죽였다.

다음은 보정현 괴뢰군 거점에서 취사원으로 일하였던 노인 임백공천(林帕公天)의 회상이다.

나는 괴뢰군 거점에서 취사원으로 일할 때 항상 일본군에게 불려가서 ‘쾌락방(快樂房)’의 청소를 하곤 하였다. 일본군 현 소재지의 거점에 모두 3칸의 ‘쾌락방’이 있었다. 칸마다 벋집으로 엮은 한자(혹은 척) 높이의 침대 두 개씩이 있었고 그 위에는 비닐이 깔려있었으며 침대 사이에는 합성섬유로 칸막이를 만들어 칸을 막았다. 일본군이 ‘쾌락방’에서 여성을 강간하기 전에 나는 한 통의 온수를 가져와서 복무대 여성들의 하반신을 깨끗이 씻어주었고, 일본군이 강간을 한 뒤에는 여성들의 하반신에 깔려있던 비닐을 치우고 씻고 말린 다음에 떼어 두었다. 나는 또한 일본군이 쓴 콘돔과 버린 휴지를 치우는 일도 하였다. 처음에는 이런 천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쾌락방’의 일본군 관리에게 허리띠로 심하게 얻어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될 뿐이었고, 그들의 감시가 심하여 도망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쾌락방’에서 청소를 하는 동안 나는 여족 여성인 오양찰(烏昂扎), 미동개(味冬蓋), 오래춘(伍來春) 등의 ‘전지후근복무대’ 여성들이 강제로 일본군을 접대하는 것을 보았다. 처지가 가장 비참하였던 사람은 양(楊)×방(榜)이었다. 일본군이 마을에 들어가서 소탕전을 벌일 때 그를 잡아서 운간한 후 거점으로 데려와서 ‘복무대’에 편입시켰다. 그녀는 몸이 몹시 허약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본군에게 강간을 당해야 했다. ‘복무대’의 여성들은 단지 하루에 일원 내지 이원의 보수만을 받고 있었다.

매달 중순 일본군을 또한 삼아 군부에서 트럭으로 대, 여섯 명의 ‘위안부’를 싣고 보정의 각 거점에 데려가서 ‘순회복무’를 하도록 하였다. ‘위안부’가 현 소재지의 거점에 도착하게 되면 역시 ‘쾌락방’의 방 청소는 내가 맡아 하였다. 진개학(陳開學), 담화량(潭和良) 등 내막을 아는 노인들의 회상에 의하면 가무, 변아, 남림 등 일본군 거점에 모두 ‘전지후근복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곳에 있던 ‘위안부’들의 운명 역시 현 소재지의 ‘전지후근복

무대'의 '위안부'들과 마찬가지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1944년 상반기 남립 거점이 일본군은 겨우 17살이 된 여족 소녀 이아서(李亞茜)를 잡아와 '복무대'에 편입시켰다. 그는 젊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일본군 장교와 사병들은 모두 그를 지목하여 복무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가 당한 유린과 학대가 가장 심한 편이었다. 이아서는 몇 번인가 도망을 기도하였는데 모두 실패하였다. 잡혀올 때마다 일본군이 가한 학대는 더 더욱 심해졌다. 그녀의 성격은 고집이 세어서 일본군이 나누어준 '예방환'을 몰래 버리고 복용을 거절하여 목숨을 잃을 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해 하반기 일본군은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일본침략자는 그들의 '씨'를 절대 중국에 남기지 못하게 하였다. 이아서는 '일본인의 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군에게 포박당하여 경훈(慶訓) 마을에 끌려가서 배를 잘려 죽임을 당하였다. 일본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갈라진 배속에서 태아를 꺼냈다. 그 태아는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한점의 살덩어리였고, 그 살덩어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일본군은 그것을 쥐고 잔인한 웃음을 지으며 내던져 버렸다.

'전지후근복무대'에 편입된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일본군의 마수를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1945년 8월 말 일본군이 투항한 후에야 비로소 해방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조사에 의하면 전에 복무대에 있던 10여 명의 여족 여성들 중에 왕향이 경애(瓊崖) 총대로 도망간 후에 해남도의 해방전쟁에 참가한 이외에는 모두 시집을 갖지만 대다수는 자식을 낳지 못해 배우자가 죽은 후 친척들이 돌보아 주거나 외롭고 적막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여성들의 만년 생활은 역시 순조로울 수 없었다. 문화대혁명 때 이들 여성들 대부분은 '일본인을 위해 일한 앞잡이, 특무'라는 고깔이 씌워져 비판을 당하였고, 때로는 끌려가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대중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살아 남은 사람들 역시 만년의 생활이 무척 힘들고 어렵다. 그들은 대부분 홀로 남아서 고독하고 쓸쓸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편집-龍建武, 保亭縣 정치협상위원회 원고제공)

치욕을 참은 피눈물 맺힌 경험

-강박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로 전락한 여성 4인의 고발

여위림(黎蔚林) 정리

1, 낙동현(樂東縣)××진(鎭)××촌(村) 오(吳)××의 고발

1941년 7월의 어느 날(나는 그 당시 19살 밖에 안되었다) 일본군이 갑자기 우리 마을을 포위하였다. 촌민들은 도망가지 않았고 또한 도망갈 수도 없었다. 이는 일본군이 마을을 물샷없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군은 마을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차례대로 수색을 하였다. 일본군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나는 일본군이 악마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무척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먼저 천으로 내 눈을 가리고 끌고 갔다. 나는 바로 이렇게 잡혀가서 '위안부'가 되었

다. ‘위안부’가 된 나는 반항할 힘이 없어졌고, 일본군은 오고싶을 때 마음대로 왔고 때로는 세 명이 한 여자를 윤간하기도 하였다. 아! 일본군에게 온갖 유린을 당하였던 기억은 참으로 비참하였다.

2, ××진××촌 고(高)××(72세)의 고발

1942년 2월의 어느 날 낙(樂.지역이름-역자주)을 침략한 일본군이 우리 마을에 과병되어 마을을 포위하였다. 그들은 모든 집 앞에 일본병사 3명씩을 배치시켜 누구라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집집마다 차례로 수색을 하여 사람을 잡아들였다. 마을에 있던 46명의 젊은 남자들은 모두 잡혀가서 노역자가 되었다. 잡힌 부녀자와 처녀들은 나이에 따라 몇 개조로 나뉘어졌으며, 일본군은 짐승 같은 욕구를 누르지 못하고 당장 몇 명을 그 자리에서 강간하였다. 한 아저씨는 자기의 아내와 딸이 강간당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몸을 던져 일본군에게 저항하였는데 일본군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 나이가 많은 몇 명의 노인들 역시 일본군의 포악하고 잔인한 행위에 대해 몹시 분노하였다가 일본군에게 총살을 당하였다. 뿐 만 아니라 일본군은 마을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으며, 젊은 처녀들은 일본군에게 잡혀갔다.

나는 그 때 20살이었는데 다른 처녀와 함께 한 대의 큰 트럭에 타고 수용소로 압송되었다. 그 후에 나는 다른 일부의 여성들과 하나의 컴컴한 동굴로 끌려갔는데 나와 같이 모두 15명의 처녀가 있었다, 그 중에는 나와 같은 마을에 살았던 단(丹)씨 처녀와 나씨 처녀가 있었다. 일본군은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우리는 그 곳에서 항상 강간과 모욕을 당해야 했다. 한 번 나는 온 얼굴에 수염이 있는 7명의 일본군 병사들에 의해 차례로 야만적인 윤간을 당하였는데 온몸이 찌를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나는 고통스럽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몸이 손상을 입어 앓아 눕게 되었다. 몇 번을 토했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였고 그저 이를 악문 채 소리를 지르지 않고,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억지로 참아야 했다. 그 것은 만약 발견이 될 경우 그들한테 죽임을 당하거나 더 심한 학대를 받게되기 때문이었다. 일본군은 짐승 같은 욕구가 발작을 하면 매우 야만적이었고, 우리가 약간이라도 반항을 하면 당장 우리를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짓이겼다. 지속된 강간, 모욕과 학대 때문에 어떤 여성들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미쳐버리기도 하였다. 나는 5개월 동안 참고 견딘 끝에 우연한 기회를 틈타서 악마굴에서 도망 나올 수 있었다.

3, ××진××촌 연(燕)씨 할머니의 고발

나는 연이라고 하며 그 때 나이는 21살로 농촌의 처녀였다.

1943년 1월 28일 나는 이웃 마을에서 친척을 방문하고 돌아와 신연(新聯) 도로를 지나고 있을 때 경(瓊.해남도-역자주)을 침략한 일본군병사에게 잡혔다. 그들은 나를 황류진(黃流鎭) 병영으로 데려갔는데 병영 안에는 모두 다섯 명의 젊은 처녀가 있었다. 그들 역시 인근 마을에서 잡혀온 사람들이었다. 일본군은 우리 여섯 명을 두 조로 나누었다. 한 조는 황류비행장의 위안소로 데려갔고, 내가 속한 다른 한 조는 ××위안소로 데려갔다. 위안소 안에 있는 많은 여성들은 다른 지역에서 잡혀 온 사람들이었으며, 일본군의 지속된 강간과 모욕, 학대로 이미 무감각해져 있었다. 우리 6명은 이 위안소로 압송된 후에 온돌도 없는 방바닥에서 자도록 배치되었다. 덮는 이불도 한 사람 당 담요 한 장뿐이었다. 밤에 한 무리의 악마

같은 일본군 병사들이 뛰어들어와 우리를 바닥에 눕혀놓고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 어떤 처녀는 연이어 네 명한테 강간을 당해 정신을 잃었다. 나는 온힘을 다해 허리띠를 꼭 잡고 반항하였지만 한 병사가 군도를 들어 내 손가락을 잘라 버리려고 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 병사가 이 틈을 이용하여 내 바지를 벗겨서 나를 난폭하게 강간하였다. 나는 힘을 다하여 반항을 하였는데 다른 병사가 무엇인가로 내 다리를 찢었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었다. 다음날 나는 다른 여성들에 의해 구조되어 깨어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알몸으로 바닥에서 한 밤 동안 누워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몹시 슬프게 목놓아 울었다.

그 후부터 나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짐승보다 못한 일본군에게 학대와 유린을 당하였다. 어떤 경우 나는 한꺼번에 대여섯 명의 일본군한테 윤간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그럴 때면 음도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아팠고 다음 날까지도 머리가 멍했다. 일본군이 우리 중국 여성들을 강간하였던 폭행을 나는 언제까지라도 잊지 않을 것이다.

4, ××진××촌 여족(黎族) 주(周)할머니의 고발

1943년 12월 어느 날 밤, 대략 8,9시 경에 멍! 멍! 멍! 하며 계속되는 개 짖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적막을 깼다. 이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 호통치는 소리, 비명소리가 함께 뒤섞였다. 일본 침략군은 마을에 들어와 사람을 잡기 시작하였다. 나는 매우 두려워서 곧바로 작은 방으로 달려들어가서 숨었다. 갑자기 우리 집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한 무리의 악마같은 일본병사들과 괴뢰군들은 뛰어들어와서 다짜고짜로 나를 작은방에서 끌어내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온 힘을 다해서 버티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나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말등에 끌려 올라가 군영으로 압송되었다. 우리 부모님은 목숨을 걸고 달려와서 막으려고 하였지만 일본군들이 총개머리판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 군영은 일본군의 총본부였는데 일본군과 ‘흑의대(黑衣隊)’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들은 항상 밤에 인근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처녀들은 강탈하여 그들이 짐승 같은 성욕을 발산하는데에 제공하였다. 주군위안소에 갇혀있는 15명의 ‘위안부’들은 모두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강탈해온 부녀자들이었다. 그들의 나이는 19살에서 25살 사이로 그 중에는 여족(黎族)여성이 12명이고, 한족부녀자가 3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잔인하게 모욕을 당하였다. 나는 그 때 19살이었고 용모가 꽤 예쁜 편이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강간과 모욕을 당해야 했다. 나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죽고 싶었다. 가는 강간을 당할 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이 고통스러웠고 부모님 역시 집에서 울고 소리지르며 내가 당한 모욕과 불행을 슬퍼하실 거라고 생각하였다.

5개월 후에 나는 다른 일본군 거점의 ‘위안소’로 옮기게 되었다. 나는 이 곳에서도 역시 5개월 간을 갇혀 지내야 했는데 이 일본군 위안소가 더욱 무서웠다. 이 곳에는 매우 나이 어린 소녀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나는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그들은 항상 일곱, 여덟 명의 일본군에게 강간을 당하였으며 그녀들의 대부분은 나이가 13, 14살에 불과한 소녀들이었다. 이 거점의 감시는 매우 삼엄하여 누구라도 도망갈 수 없었다. 이 곳은 악마의 소굴이었다. 일본병사들은 항상 술을 먹고 취한 채 악마 같이 한 명 한 명의 여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런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짐승들의 수성이 발작할 때면 정말로 무서웠다. 어느 날 밤에 위안소에 온 총을 지닌 4명의 총을 지닌 만취한 일본병사가 무엇인가 서로 중얼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나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3명의 병사가 나

에게 달려들어 제멋대로 나를 모욕하고 강간하였다.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다. 울고 싶어도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나는 5시간 동안 학대를 받으며 최선을 다해 참았다. 나는 그때 나중에 몸이 어떻게 학대를 받더라도 살아 나가서 우리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5개월 후 어느 날 정오 내가 이 악마의 소굴 거점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늘이 도운 일이었다. 그 날은 날씨가 어두침침하였다. 대략 12시쯤에 일본군은 우리 20여명의 여성을 데리고 가서 계곡에서 목욕을 하게 하였다. 그들은 우리에게 강제로 옷을 다 벗으라고 명령하였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옷을 다 벗고 물 속에 들어갔지만 나는 옷을 벗지 않고 물속에 들어갔다. 대략 30분 정도를 목욕하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일본군 병사들은 모두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서 여성들을 물 속에서 기슭 쪽으로 올라가게 쫓았다. 나는 일본병사들이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물 속의 은밀한 곳으로 잠수하여 숨었다. 일본병사들은 여성들은 압송하여 돌아갔고 나는 몰래 산 속으로 도망쳐서 산과 고개를 넘었는데, 한꺼번에 몇 개의 작은 산을 달려 넘었다. 심장은 쿵쿵거리며 뛰었지만 머리 속에서는 일본군의 잔인한 기억을 지울 수 없었다. 날이 조금 어두워지자 나는 집으로 달려들어갔다. 집안 식구들은 나의 흐트러진 머리털과 때 낀 얼굴을 보고 외계에서 온 인간을 본 것처럼 모두 놀라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나를 둘러보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하였다. 나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대성통곡하였다. 나는 일본군 주둔지에서 당한 잔인한 학대를 육친에게 울면서 이야기하였고, 집안 친척들은 내가 구사일생한 사람이므로 용기를 내어 잘 살아야 한다고 극력 나를 위안하였다. 내가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일본군의 야수 같은 만행은 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지워지지 않고 있다.

편자의 말-작자는 진술자의 뜻에 따라 본인의 성명과 살고 있는 마을의 이름을 비밀로 하였다.

(편집-范運晰 樂東縣정치협상위원회 원고제공)

2) □철제하적 성홍혈우□(鐵蹄下的腥凶血雨)-일군침략폭행실록 속(續)

초관비가 홍안혈루(楚館悲歌 紅顏血淚)

-일본군 나대(那大)위안소 친견기-

오연생(吳連生) 구술

임양재(林良材), 양춘전(梁春田), 부화적(부와積) 정리

해남도 담현(儋縣) 나대시(那大市, 지금의 儋州市 那大鎮)가 일본군에 점령된 후 전화를 피하기 위해 나와 부친은 삼아시에서 나대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나대시로 옮긴 후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생계를 위해 나대시 일본군위안소에서 잡부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의

나이는 21살이었다. 위안소의 ‘파라개(巴那個)’ 한국발음-바나거, 일본어를 중국어로 표기한 것으로 속칭 “귀공(龜公)”이었으며, 위안소 관리자를 일컫는 말이었다. 이후는 바나거로 표기가 나를 파견하여 청결과 위생잡무를 보게 하였기 때문에 나는 일본군위안소 내부의 불결한 내막을 알 수 있었다. ‘위안부’들은 말로 표현 못 할 비인간적인 처지에 처하였고, 일본군 관병은 제멋대로 ‘위안부’들을 유린하는 짐승 같은 행위를 자행하였다. 지금도 나의 기억은 생생하며 아마도 평생 지워지기 어려울 것 같다.

(1)

1940년 가을 해남도를 침략한 일본군은 나대시의 일본군 ‘군부’(민간인이 부르던 명칭은 주둔지휘기관영지.駐軍指揮機關營地, 당시 무학.舞鶴 제1 특별격전대 사령부)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군부가 만들어질 때 일본군당국은 관병들이 성욕을 제멋대로 발산하여 전투력이 떨어지는 우환을 없애기 위하여 나대시 일본군위안소의 설치를 준비하였다. 우선 조가원(趙家院 업주, 趙亞靈)을 강점하고 3채 12칸의 민가를 이용하여 조가원위안소(지금의 나대진 대용상장지 那大鎮 大勇商場址)를 설치하였다.

1942년 2월 이른 봄꽃이 피어나던 때 첫 번째로 21명의 ‘위안부’가 잡혀서 조가원위안소로 보내져 왔다. ‘위안부’들은 어리고 아름다웠다. 나이는 16-18세로 대부분 이웃한 임고현 신영지구(臨高縣 新盈地區)사람이었으며, 본도(해남도-역자주) 동부의 문창현(文昌縣)사람도 있었고, 대만인 역시 소수가 있었다.

담현지구와 임고현에 주둔하였던 제 5구(현재 담주시의 和慶, 蘭洋, 南豐 등의 鄉, 鎭)의 일본군은 그 소식을 듣고 미칠 듯이 기뻐 날뛰면서 해보고 싶어 안달이었다. 위안소가 개소하던 날 일찍부터 줄을 선 일본군은 밤을 새워서 문밖에서 기다렸다. 말이 밝기 시작하자 위안소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일본군측은 7량의 큰 트럭을 이용하여 일본군을 위안소로 실어 날랐는데 사람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일본군은 희희낙락하며 어깨가 서로 맞닿을 만큼 긴 줄을 서고 있었다.

일본군에게는 매 1인당 무료로 1개의 번호표와 ‘돌격 1번’이라 쓰여진 1개의 위생봉투가 나누어졌다. 위생봉투 속에는 콘돔과 청결분(소독가루-역자주)이 들어 있었다.

바나거의 지휘에 따라 일본군은 손에 번호표를 쥐고 차례대로 위안소에 들어갔다. 이 사람이 나오면 저 사람이 들어가고, 한 무리가 떠나면 다른 한 무리가 연달아 도착하여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다. 원래 일본군 1인당 위안시간은 30분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기다리고 있는 일본군이 너무 많아서 소리를 지르며 조금해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위안시간은 15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시간을 다그쳐서 속도를 가속하기 위함이었다.

위안소에 들어서는 일본군은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스스로 콘돔을 끼웠고 일을 마치고 나올 때는 스스로 벗겨서 위생봉투와 함께 대문 옆 구석에 놓여 있는 수통 속에 버리도록 하였다. 일본군측이 파견하여 성위생 감독을 진행하는 일본군 ‘치일관(值日官)’이 한쪽에서 한 사람 한사람 검사하여 만약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콘돔과 청결분을 사용하지 않은 일본군이 발견되면 직접 물어보고 공문서에 기록하여 부대의 간부에게 보고하였고, 벌칙으로 1개월 동안 ‘돌격 1번’을 정지시켰다. 그 목적은 일본군이 성병에 감염되어 부대의 전투인원이 감소되는 것을 엄격하게 방지하자는 데 있었다.

위안소가 문을 연 후 10일 동안 내가 메고 나가 버린 콘돔과 위생봉투만 큰 통으로 4개 켤이었다. 평상시 일본군이 사용한 콘돔과 위생봉투 역시 적지 않아서 큰 통으로 2개 정도

였다. 콘돔은 끈적끈적하고 비린내나는 정액과 뒤섞여 통에 가득 차 넘치려고 하였다. 이는 사람의 비위를 상하게 하였으며 구토를 불러일으켰다. 처음의 일정기간 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구토를 참기 어려워 담즙의 쓴물 마저 뱃속에서 뒤집어져 넘어왔다. 죽히 일주일은 음식과 물을 넘길 수 없었다. 그러나 후에는 하루 하루 반복적으로 듣고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이런 생활 역시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 버렸다.

위안소가 문을 연 첫 10일 동안 조가원위안소를 찾은 일본군은 3천 여명이었으며 ‘위안부’들은 매일 한 사람 당 최소 20명의 일본군을 받아야 했다. 오랜 시간 계속해서 손님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위안부’들은 기진맥진하였고,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매일 3, 4 명이 체력이 달려서 졸도하였고, 음부에서 대량 출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위안소가 문을 열던 그 날 아교(阿嬌)라 불리던 16세 된 대만여성은 연이어서 들어오는 일본군에 의해 학대를 당하여 자궁이 파열되어 피를 엄청나게 흘리고 그 자리에서 혼절하였다. 그녀를 혼절시킨 일본군은 문을 열고 나오면서 ‘치일관’에게 말하였고, 우리는 들어가서 그녀를 들고 나왔다. 응급조치를 취하여 주사를 놓고 지혈하여 소생하고 난 후 불과 30분이 지난 후 ‘바나거(관리자)’는 또 다시 비인간적으로 그녀에게 접객을 강박하였다. 후에 정상적으로 손님을 맞던 평상시에도 우리는 매일 1, 2 명의 ‘위안부’를 들어내어 응급구조를 하였는데 이 역시 매우 일상적이고 늘 있는 일이었다.

조가원위안소는 위안소에서 접객하는 이외에도 일본군측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일본군의 거점에 가서 ‘위문’하고 황군을 위로하였다. ‘위문’기간동안 ‘바나거’는 ‘위안부’들을 몇 개의 노선으로 나누었는데 각 노선은 2인 내지 3인으로 구성되어 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본군의 각 거점으로 보내어 졌다. ‘위문’의 노선은 일반적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오게되어 있었는데 때로는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위문’을 하는 경우 각 거점의 일본군 수에 따라 하루 내지 만나질, 혹은 하룻밤 정도의 시간이 결정되었다.

‘위문’을 위해 파견된 ‘위안부’는 위안소에서 당하던 학대에 비해 더욱 심하게 학대를 당하였다. 그녀들은 밤낮으로 계속하여 손님을 맞았는데 하루에 길면 12시간 이상, 한 사람 당 하루에 많으면 50인의 손님을 받아야 했다.

위안소에는 휴일이 없었다. 또한 주야의 구분도 없었다. 일본군이 오는 때에 맞춰 ‘위안부’는 그때마다 접객을 하여야 했으며, 밖에 나가 ‘위문’을 하는 것도 예외 없이 차례대로 돌아가며 하여야만 했다. 일본군이 너무 많아 ‘돌격접객’을 해야 하는 날과 거점 ‘위문’기간에는 ‘위안부’는 일률적으로 휴식이 없었다. ‘위안부’들의 성병은 이러한 이유(고된 혹사와 피로-역자주)로 발생하였다.

일본군이 보기에 ‘위안부’들은 성욕을 발산하는 도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제멋대로 욕구를 채우고 마음대로 학대를 가하였다. ‘위안부’가 만약 반항을 할 경우 매우 심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영(英)이라 불리던 신영출신의 한 여성은 일본군에 의해 너무 오랜 시간 유린을 당해 이미 몹시 견디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한 일본군이 매우 견디기 어려운 강요를 하며 그녀에게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접객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았다. ‘바나거’는 그 보고를 들은 후 매우 화를 내며 사람을 시켜 그녀의 머리를 끌고 오게 하여 벽돌기둥 위에 묶어놓고 지저분한 천으로 입을 틀어막은 후 매우 고춧가루를 이용하여 그녀의 음부를 세계 문지르게 하였다. 그녀는 죽고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소리도 지를 수 없었으며 그 비참함이란 더 이상 심할 수가 없어서 차마 눈을 뜨고 지켜볼 수가 지경이었다.

(2)

조가원 위안소에는 몇 명의 ‘위안부’가 있었을까?

때로는 많고 때로는 적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전반적으로 말한다면 그 수는 부단히 증가하여 개장하던 시기에는 21인이었던 것이 곧 39인으로 증가하였고 후에는 45인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인원의 변화는 일정하지 않아 매우 불안정하였다.

어떤 경우는 온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온지 3-5일 후 모습을 감추기도 하였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위안소가 일본군 관별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낡은 것을 싫어하는 심리에 영합하여 오래된 ‘위안부’를 타처에 보내어 오래된 ‘위안부’를 바꾸고 새로운 ‘위안부’를 보충하였던 것과 일본군측이 성병에 걸려 치료가 어렵거나 신체가 허약하거나 이상 버틸 힘이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진 여성들을 비밀리에 처치하고, 시체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기 때문이었다. 한편 매일 매일 계속된 일본군의 빈번한 성적 착취와 피땀을 짜내는 듯한 성적 학대로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어 적지 않은 사람이 비명에 죽어갔다. 또 ‘위안부’들은 때때로 실종되었으며 끊임없이 보충되었는데 인원변화가 불안정한 이유는 상당정도가 이 때문이었다.

온지 일주일도 채 안된 임고 출신의 한 여성 막 왔을 때였다. 그녀는 ‘보지(報知.빠오츠-임고 방언, 표준어로는 阿四-아쓰)라 불리었으며 동그란 얼굴에 불과 17세에 불과하였다. 그 날(그녀가 도착한 날) 한꺼번에 두 대의 트럭을 타고 일본군들이 들이닥쳤다. ‘바나거’는 분명 그녀가 월경 중이어서 신체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있었지만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고 강박하여 접객을 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성병에 감염되어 소변을 볼 수가 없었으며 칼로 자르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다. 의사가 그녀에게 주사를 놓아주었지만 병세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날 그녀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음부가 빨갱게 부어 올랐고 짙은 혈액이 흘러내렸으며 통증이 극심하여 마지도 입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녀는 하반신을 벗은 채 방바닥에서 몸을 뒤척이며 굴러다녔고, 이틀동안을 밤낮으로 가슴을 치고 피눈물을 흘리며 신음하였다. 때문에 위안소의 사람들은 간담이 썩어져서 떨지 않을 수 없었고,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비탄에 잠겼다. ‘바나거’는 조금도 연민의 마음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녀가 다른 사람의 정서에 영향을 줄까봐 귀찮아서 3일째 되는 날 천륜을 어기고 차로 그녀를 끌고 나가 몰래 생매장을 해버렸다. ‘보지’라는 여성은 ‘바나거’가 나를 시켜 차에 싣게 하였는데 ‘보지’처럼 한밤에 그렇게 차로 실려나가 생매장 당한 것이 단지 그 것(보지의 경우)만은 아니었다. 위안소가 생기고 나서 한 달 안에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만도 두 명이 더 있었다.

조가원위안소의 ‘위안부’는 주로는 일본군이 본도(해남도-역자주)의 각지에서 강제로 잡혀왔다. 그들은 언어발음상 분별되었는데 임고현 신영지구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밖에 각 현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들은 대다수가 17-8세 된 미혼여성으로 15-6세 된 티 없는 소녀도 일부 있었고, 21-2세 된 큰 처녀도 소수가 있었다. ‘위안부’인원은 계속 변동되었기 때문에 그녀들의 이름을 대부분 정확하게는 기억할 수 없었다.

조가원 위안소의 ‘바나거’는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중년의 일본여성으로 일본 기모노를 입고 있었으며 젊었을 때의 풍모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밖의 사람을 대할 때는 예절이 바르고 흠잡을 곳이 없었지만, 위안소 안에서는 목소리가 사납기 그지없고 마음이 악랄하며 손이 매서웠다.(매질을 자주 하였다-역자주) 평상시 ‘바나거’는 ‘위안부’들에게

기모노를 입고 접객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일본고국의 정서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돌격접객'을 하는 날이면 위안소는 하루에 수백명의 일본군을 접객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일을 줄여 진도를 가속하기 위해 그녀는 '위안부'들에게 하루종일 나체로 있도록 하였고 '위안부'들은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마루바닥에 눕거나 '위안의자'위에서 일본군들이 끊임없이 성욕을 배설하도록 하여야 했다.

위안소의 설비는 매우 초라하였다. 방안에 개인침대는 없었고 바닥으로부터 약 40cm 정도 높이의 나무로 만든 커다란 공동침상이 있을 뿐이었다. 공동침상은 별도의 방으로 막혀서 독립되어있지 않았고, 역시 고정된 칸막이조차 없었다. 겨우 하나의 줄 위에 천이나 담요를 걸어 눈가림만 하는 정도였다. '돌격접객일'에 위안소는 사람은 많고 장소는 좁아서 행동하기가 복잡하였다. '바나거'는 천, 담요로 천 칸막이조차 못쓰게 하였는데 그 것은 움직이는데 장애가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대청과 노천의 안쪽에는 한 줄 한 줄의 '위안의자'를 설치하였는데 변태적인 일본군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었다. '위안의자'의 설계는 매우 특별하여 '위안부'가 의자에 똑바로 누우면 둔부는 높고 머리는 낮은 자세가 되고, 손과 발의 활동의 자유를 잃게되어 일본군은 마음대로 자세를 바꾸며 선 채로 섹스를 할 수 있었다.

'위안부'의 식사는 간단하고 초라하였다. 하루에 세끼였는데 모두 큰술으로 함께 밥과 반찬을 먹었다. 밥은 매우 거칠어서 항상 30%의 보리가 섞여있었으며, 반찬도 부족하였고, 기름도 부족하였다. '위안부'들의 각선미 유지를 위하여 '바나거'는 그녀들에게 채식만을 주었고, 고기는 구경하기도 어려웠다. 위안소는 '위안부'의 수에 따라 분반제(分飯制)를 실시하였다. '돌격접객일'에는 늘상 음식을 전혀 입도 대지 않아 돼지 먹이로 버려지기 일쑤였다. '바나거'는 끊임없이 접객을 해야 하는 '위안부'들에게 쉬면서 마시고 먹을 시간을 마련해주지 않았으며, 피로를 견딜 수 없었던 '위안부'들 역시 입맛이 전혀 없어서 근본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위안소의 관리는 매우 엄격하였다. 성병전염을 막아 일본군의 성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안부'들은 매주 한 차례 씩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다. 만약 성병에 감염된 자가 발견되면 즉시 접객격리 처분을 받았는데, 가벼운 환자는 일본군 위생소에서 주사를 맞아 치료한 후 병이 나으면 다른 곳에 보내져 계속 사용되었고, 3-5일을 치료하여도 낫지 않는 중환자는 몰래 죽인 후 시체를 처리하였다. 위안소에는 또 규정이 있었는데 '위안부'가 개인적으로 일병과 위안소에서 밤을 보내거나 일본군과 함께 외출하여 잠을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 위안소내의 공작인원(근로자)가 눈길을 주고받아도 안 되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면 매우 엄격한 징벌을 가하였다. 조가원 위안소는 나대시의 일본군 병영 범위내에 있었으므로 '위안부'는 사사로이 외출할 수 없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멋대로 행동하였다거나 도망을 기도하였다는 죄명으로 처벌하였다.

(3)

내가 위안소에서 일하던 일정기간 동안 조가원위안소 개장시의 21명의 '위안부'가 45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담현(儋縣)지구 주둔 일본군이 성적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웠다. 따라서 일본군들이 서로 다투는 상황이 때때로 발생하였다. 두 번째 해(1943년) 초 일본군당국은 나대시의 일본군위안소를 확대하였는데, 나대시의 민간인가옥인 이가대원(李家大院)의 3채 20칸을 강점하여 이가원위안소(현재 儋州

市委 제 2 초대소 자리)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가원위안소의 ‘바나거’이 이름은 ‘아츨’(대만 방언, 표준발음은 吳生-우썩)으로 술을 좋아하고 성격이 악랄한 40이 조금 넘는 대만여성이었다. 이렇게 하여 나대시의 일본군위안소는 2개가 증설되어 ‘위안부’의 수 역시 15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대다수가 16-18세의 임고현 신영 출신 여성이었지만 담현 당지의 여성도 약간 있었다. 주(周)××(비밀을 위해 이름을 숨겼음)은 원래 중국공산당 경(瓊.해남도-역자주) 총본부 제 4지대, 제 1대대의 취사원으로 마을에 내려가 양식을 찾아 운반하다가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는데 1943년 6월 위안소에 투입되었다. 그녀는 일본군이 투항한 이후에야 겨우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이가원위안소의 상황과 그 곳에서 만난 ‘위안부’들은 조가원위안소와 대동소이하였다.

한편 담현 관할지역인 백마정(白馬井), 신주(新州), 신영(新英), 중화(中和), 광촌(光村) 등의 허진(墟鎭-조그만 마을 뒤에 붙이는 행정 단위-역자주)에도 잇따라 일본군위안소가 설치되어 담현 북부지구 주둔 일본군에게 새롭게 성육을 발산할 장소가 가까운 곳에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나대시 일본군위안소의 긴장상태는 비로소 다소간 완화될 수 있었다.

내가 나대시 일본군위안소에서 일하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뒤로 들고, 눈으로 본 ‘위안부’들이 치욕을 참고 비참하게 유린당한 잔인한 상황은 음식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누워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게 하였고, 마음 역시 무척이나 괴롭게 하였다.

1943년 나는 방법을 모색하여 위안소를 도망 나와 유랑하며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녔다. 그 후 나는 자주 악몽을 꾸곤 하였는데 ‘위안부’들이 학대와 유린에 시달리고,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참경에 두려워서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였다.

일본군은 내가 도망친 것에 대단히 분노하여 부친에게 내 대신 지를 물었다. 그리하여 나의 부친 오아로(吳亞老)는 체포되어 끌려 가 우자정(芋子頂)에서 생매장 당하였다.

(편집-吳陸榮, 儋州市政治協商委員會 원고제공)

일본군이 백마정에서 행한 살인의 방식과 위안소

오학상(吳學祥)

(1)

1939년 4월 일본군 1개 분대 60 여 명이 병조장(兵曹長.소위)의 지휘 아래 백마정에 침입하였다. 분대는 맨 처음에는 복파묘(伏波廟)에 설치되었으며, 마두(碼頭.西坊屋)의 한 거리가 부대의 범위로 점령되었다. 1941년 이후에는 유리한 위치를 점거하기 위해 새로운 병영을 마로지(馬撈地.지금의 南司子弟學校 뒷면의 바닷가 근처)에 설치하고 대부분의 병력을 마로지로 옮겨가서 백마정을 점거하는 전략요새로 만들었다. 그들의 장비로는 자동차, 경기관총, 소총, 창미탄(槍尾彈.유탄발사기-역자주) 등이 있었다.

부대 아래에는 선무반, 수로부 등을 설치하였다. 선무반은 6인이 민사를 전담하여 일하였는데 유지회(維持會)에 임무를 하달하여 ‘항일협회의분자’를 경찰대에 보내 처리하였고, 수로부

는 3인이 기상을 전담하여 일하였다.

하나의 특별히 설치된 경찰대가 있어서 서쪽 골목의 집에서 5인이 주숙하였는데 정치범을 잡고, 심문하는 일과, 소위 ‘항일협외분자’를 추적 체포하는 일을 전담하였다.

백마정 주둔 일본군의 살인방식을 살펴보면

첫째는 총살이었고,

둘째는 머리를 부수어 죽이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칼로 찢러 죽이는 것이었다.

심문할 때 행하는 고문은 다음의 몇 가지가 주요한 방식이었다.

첫째, 전화선을 이용하여 전기고문을 하고 혼절하면 다시 냉수로 깨운다.

둘째, 옷을 모두 벗겨 발을 매단 채 몽둥이나 채찍으로 때린다.

셋째, 사람을 묶은 후 불붙은 석탄 위에 눕혀놓는다.

넷째, 불붙은 성냥으로 사람의 눈을 지진다.

다섯째, 사람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 넣는다.

여섯째, 사람의 옷을 찢어낸 후 선인장 위에 얹드리게 한다.

(이상의 자료는 王達景, 吳德귀 등의 구술을 정리한 것이다)

(2)

일본군은 1942년 정식으로 백마정의 위안소를 설립하였는데, 백마정 동방두(東方頭, 현재의 東方居住民委員會) 허유통(許維統)가에 있었다. 당시 허유통의 한 집사람들이 일본군의 침략으로 난을 피해 모두 다른 곳으로 갔고, 그 집의 건물과 방이 비교적 컸기 때문에 일본군은 그곳에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위안소에는 8-10명의 ‘위안부’가 있었는데 대부분 신영항(新盈港) 출신이었다.

정상적인 위안시간은 토요일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어떤 때는 일본군이 마을에 내려가 강탈을 하고 돌아왔을 때도 위안을 하여야 하였고, 차량을 이용하여 일리(一里, 현재의 勝利居住民委員會)나 현 남사자제학교의 총본부에서 병사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 거리가 약 1km 정도였다.

(편집-吳陸榮, 儋州市정치협상위원회 원고제공)

금강(金江), 석부(石浮) ‘위안소’ 견문록

주영택(朱永澤) 구술 뇌정화(雷丁華) 정리

1939년 겨울 해남도를 침략한 일본군 제 15경비사령부에서 두 개의 경찰중대를 파견하여 등매현(澄邁縣)을 침략하였다. 각 중대는 약 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 중대는 금강진(金江鎮)에 주둔하였는데 중대장은 중각(中覺)이라는 사람으로 금강 이북의 각 거점이 분견대를 통솔하였으며, 다른 한 중대는 석부향(石浮鄉)에 주둔하여 금강 이남의 각 거점이 분

건대를 통솔하였다.

일본군은 가는 곳마다 삼광정책(三光政策)을 실행하는 외에 부녀자를 강간하고 아름다운 처녀를 발견하면 즉시 군부에서 잡아들여 ‘위안부’로 충당하여 그들(일본군)에게 향락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일본군 중대마다 ‘위안소’ 1개씩이 설치되었다.

금강에 주둔한 중대의 ‘위안소’는 금강낙선당(金江樂善堂) 옆에 있는 진국종(陳國宗)의 집에 설치되었고, 그 안에 ‘위안부’는 30여 명이 있었다. 진국종 일가는 다른 사람의 집으로 쫓아내고, 그 집의 몇 백 평방미터의 공간에 모두 ‘위안부’들을 살게 하였다. 그 집의 사방팔방은 철조망으로 둘러싸고 또한 전담자를 파견하여 관리하게 하였기 때문에 갇힌 ‘위안부’는 도망 나올 수 없었고, 외부사람 역시 들어갈 수 없었다.

석부에 주둔한 중대의 ‘위안소’는 석부령(石浮嶺)의 군부 안에 설치되었고, 그 안에 ‘위안부’ 20여명이 있었다. 그 곳 역시 철조망으로 둘러싸이고 전담자가 파견되어 관리되었다.

‘위안부’들은 모두 잡혀온 사람들이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기로 하겠다. 산구향(山口郷)의 엽(葉)씨의 아내인 흑고(黑姑)라 불리는 여성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아이를 고향에 남겨두고 ‘위안소’로 잡혀왔다가 일본이 투항한 후에야 비로소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문유향(文儒郷) 가병촌(加炳村)의 한 농민의 아내가 석부 ‘위안소’에 잡혀가서 하루종일 일본군 병사들에게 윤간을 당한 후에 매독이 걸렸는데 관리인은 그제서야 집으로 풀어주었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간 후에 매독을 남편에게 전염시켜 부부가 서로 끌어안고 통곡을 하였으며, 소와 돼지를 팔아 재산을 탕진하여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비로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위안소’의 ‘위안부’들은 항상 비인도적인 압박을 당하였다. 때로는 십 수명에게 윤간을 당하였으나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뜻을 내비치면 매우 심하게 구타당하였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연루되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순종하며 모욕을 참아야 했다.

몇 명의 아름다운 부녀자들은 일본군의 고위 관리, 중간관리의 마음에 들어 다른 정원에 살게 되었고, 몇 명의 장교를 위해 전문적으로 향락을 제공하였고 다른 병사들이 손댈 수 없게 하였다. 몇 명의 유난히 아름다운 여성들은 군부로 선발되어 가서 전문적으로 지휘관에게 향락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풍영허(豊盈墟)의 탑포저(塔布姐)라고 하는 젊은 여성은 중각(금강진의 중대장)에게 향락을 제공하는 완구였다.

위안소 안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 것은 일본국적이 병사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이 규정을 어기는 사람은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되어 있었다. 한 번은 한 명의 대만국적인 병사는 몰래 위안소에 들어와 향락을 즐기다가 발각되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맞았고, 대문 밖으로 던져진 후에 한참만에야 깨어날 수 있었다.

우리집은 바로 금강 ‘위안소’의 옆에 있었는데, 어릴 때 나는 호기심이 강해서 항상 몰래 위안소 안의 일본군의 추한 모습을 훑쳐보곤 하였다.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이 될 때마다 일본병사들이 떼를 지어 통조림과 고기와 술을 가지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위안소’ 들어가서 ‘위안부’의 손을 잡고 진탕 먹고 마시고 일본노래를 부르며 몹시 떠들어 댄 후에 비로소 방에 들어가 향락을 하였다. ‘위안부’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보통 몇 명 심지어는 십 수명씩 일본병사들을 접대해야 하였다. 위안부들은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일본병사들은 1박2일 동안 정신 없이 놀다가 월요일에 전부 귀대하고 나면 폭행을 당한 부녀자들은 지친 듯이 침대 위에 누워서 쉬었고 정원이 비로소 조용해졌다. 나와 근처에 사는 몇 명의 남자아이들은 맞을 각오를 하고 몰래 철조망을 뚫고 정원으로 들어가서 통조림을 몇 개 주워다가 거리에 내다 팔아서 동전으로 바꾼 후 사탕 몇 개를 사먹기도 하

였다.

일본군은 ‘위안부’들이 현지사람들에게 면목이 없을까봐 현지인 ‘위안부’들은 대부분 타지역으로 이동시켜 복무시켰고, 등매에서 병역에 복무한 ‘위안부’ 대부분은 타지역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낯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밖의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밖의 사람들은 그들의 본적과 이름을 알 수 없었다.

1945년 일본군이 투항한 후에 비로소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압박을 받던 중국의 부녀자들은 해방이 되어 집으로 풀려나서 집안식구들과 만날 수 있었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들(‘위안부’)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극소수가 살아있겠지만 지금은 그들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

(편집-范運晰 澄邁縣政治協商委員會 원고제공)

3) 蘇智良, 慰安婦研究, 上海書店出版社, 1999

제 3장 ‘위안부’제도의 전개(一)

8. 해남도 곳곳에 있었던 일본군 위안소

해남의 일본군 부대는 위안소를 ‘위안려(慰安麗)’라 불렀다. ‘위안려’마다 10명 내지 20명의 ‘위안부’와 십 수명의 심부름꾼이 있었다. ‘위안려’에서는 일본국적의 ‘노’ ‘위안부’와 기생어미(포주-역자주)들이 방을 꾸미는 법, 손님을 접대하는 법 등을 지도하였다. 1941년 11월의 일군 공문서를 가지고 통계를 내 보면 해구에 일본군위안소가 2개 있었고, ‘위안부’는 8명이었으며, 삼아에는 비록 위안소는 없지만 ‘위안부’는 3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삼아에는 위안소가 11개 있었고 ‘위안부’는 270명이 넘게 있었다. 뿐 만 아니라 해남의 위안소는 해구와 삼아 두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본군이 해남 각지를 점령함에 따라 위안소 역시 각지에서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1939년 4월 일본군은 해남을 침략한 후 세 번째 달에 최초의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1941년 후에는 이미 위안소가 여러 곳에 널리 분포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주둔한 모든 현, 도시, 읍, 향촌에 거의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일본군은 애현(현재의 三亞市와 樂東縣의 일부 지역)에서 위안소 15개를 설치하였고, 해구 시내에 6개를 설치하였으며, 경산현瓊山縣에도 5개를 설치하였다. 또 문창현에 5개를, 담현에 7개, 임고현에 3개, 감은현에 적어도 10개, 창강현에 3개를 각 각 설치하였으며 이밖에도 경동瓊東, 낙회樂會, 만영萬寧, 정안定安, 등매, 능수, 보정 등에도 위안소를 설치하여 함께 60여 개의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위안소 설치의 결코 인민의 뜻이 아니었고, 일본군의 “빨리 성적인 위안제도를 설립하라”라는 지시에 의해 계획되고 설치된 것이다. 예를 들면 1940년 가을 일군은 경서(瓊西)에서 무학진수부(舞鶴鎮守府) 제 1육군 특별 육전대 사령부를 만들면서 동시에 조씨집(趙家院)에서 나대(那大)위안소를 만들었다. 나대시의 첫 위안소가 문을 연 후에 일본군은 날마다 군용 트럭으로 소속지역의 일본군장교와 병사들을 싣고 위안소와 군영간을 오갔다. 일본군은 또한 당직관리를 파견하여 위안소의 일상사무를 관리하게 하였다. 일본군은 정기적으로 ‘위안부’에게 성병검사를 실시하였고, 콘돔과 청결분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지 않는 일본군 병사들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한달 간 ‘위안’ 자격을 박탈하였다. 나대시에는 위안소가

1개만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였고 각 부대간에는 또한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일본군은 이씨집(李家大院)에 위안소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또한 멀리 떨어진 촌락, 진에서 주둔하는 일본군에게는 주둔군위안소를 설치하여 주었다.

일본군은 장류(長流)를 점령한 후 곧 바로 열루시(烈樓市)의 신가(新街)에 위안소 1개를 설립하여 장교들에게 향락을 제공하였다. ‘위안부’는 대개 임고현에서 왔다. 일본군은 또한 신이촌(新李村)의 학우공사(學優公祠)에서 ‘위안부’집산지를 설치하여 새로 강탈해온 중국여성들을 그 곳으로 싣고 가서 다시 다른 위안소로 보냈다. 일본 대만 혼성여단이 상륙한 후 우선적으로 착수한 것이 대 여섯 개의 위안소를 만드는 일이었다. ‘위안부’는 주로 해남도 출신, 복주(福州)와 남녕(南寧) 등지의 중국여자 및 조선여자였다.

일본군은 도시, 진(鎭), 허(墟) 등 중요한 군사 주둔지에서 위안소를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멀고 사람이 적은 시골에 위치한 일본군 군영과 거점에도 중군‘위안부’를 배치하여서 소수 일본군 장교와 사병들의 ‘성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 것 역시 일본이 군기제도 중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구성부분이었다.

1940년 후에 일본군은 해남도의 대다수 도시, 향진(鄉鎭)을 점령하였고, 또한 중요한 도로, 중요한 마을에 군사주둔지와 군사거점을 설립하여 1941년까지 해남도 전 지역에서 모두 360여 개의 거점을 설립하였다. 그 후에 항일 군민들에 대응하고 소탕하기 위해 거점은 더욱 많아졌으며 해남도를 침략한 일본군 역시 더욱 많아졌다. 사망에 촘촘히 배치된 영지, 거점에 거의 모두 ‘위안부’를 배치하여 ‘전지후방근복무(戰地後方勤服務)’라고 명명하였다.

‘위안부’수는 일본군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능수현 본호향(浬號鄉)의 삼십림(三十笠), 료차동, 군영향(群英鄉)의 무여촌(撫黎村) 거점, 보정현의 십령(什玲), 가무, 번아(番雅), 남림(南林) 거점, 경중현(瓊中縣)의 비갈령(碑碣嶺), 등고령(登高嶺) 거점, 낙회현(樂會縣)의 양강시(陽江市) 거점 등의 경우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후 해남도 일본군이 급격히 줄어들어 따라 ‘육군위안소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한 병사는 나중에 회상해서 말하기를 “나는 위생병의 탁자 위에 놓여있는 ‘위안부’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종이에서 ‘위안부’들의 이름 위쪽에 모두 ‘장교용’, ‘병사용’, ‘군대부속인원용’이라는 표시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 보았더니 ‘아 그것, 장교에게 일본‘위안부’를 제공하고, 사병에게 조선‘위안부’를 제공하고, 부속 인원에게는 대만‘위안부’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위안부’중에 장교를 위안해주는 ‘위안부’들은 해남장이라는 화려한 건축물 안에서 살고 있었지만 병사들을 위안해주는 ‘위안부’들은 나무판을 이용하여 임시로 지은 초라한 건물에서 살았고, 칸막이 또한 천을 이용하였다.”

해남지역의 ‘위안부’들 중에는 현지에서 모집한 사람들이 있었고, 타 지역 심지어 외국에서 모집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조선인이었다. 예를 들어 구씨집(歐家院)에 있는 25명의 ‘위안부’중에 조선여성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팔소시(八所市)의 중급 위안소에는 주로 조선여성과 일본여성이 있었고, 삼아시 유림의 장교위안소에는 거의 일본여자들만이 있었다. 하지만 애현 홍사시 구씨집위안소에는 26명의 대만여성들이 있었다. 물론 가장 많고 보편적인 ‘위안부’는 중국 내지 동포 여성들이었다. 일본군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중국여자들을 약탈하여 ‘위안부’로 충당하였다. 그때 해남 여족은 풍속에 따라 결혼하기 전의 여성은 같은 방,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고 총각들은 항상 밤에 찾아와 연애를 하였다. 일본군은 마음대로 성욕을 발산하고 부녀자들을 희롱하기 위하여 총각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금지하였다. 현지의 부녀자들은 잠혀 갈까봐 할 수 없이 남장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널리 퍼진 민요가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 해주고 있다.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

명히 죽은 물고기인데 새우로 변신해야 하고, 분명히 여자인데 남자로 변신해야 한다.”

해남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수는 상당히 많았다. ‘위안부’ 수가 적은 위안소라야 ‘위안부’가 10명 정도 있었고, 대부분의 위안소에는 30여 명의 ‘위안부’가 있었으며, 규모가 큰 위안소에는 ‘위안부’가 100여 명 이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황류비행장 군인낙원위안소에는 ‘위안부’가 21명이었고, 홍사시의 구가원위안소에는 52명의 ‘위안부’가 있었으며, 애현에서 운영한 14개 위안소에는 합쳐서 400여 명의 ‘위안부’들이 있었다. ‘위안부’가 한창 흥성할 때에 나대시에 ‘위안부’ 150명(趙家院위안소에 45명이 있었고, 李家大院에 105명이 있었다)이 있었고, 감은현 팔소시에 ‘위안부’ 200여 명이 있었으며, 창강현에 있는 3개의 위안소에 모두 400여명의 ‘위안부’가 있었다. 일본군이 점령한 16개의 현과 1개의 건제시(建制市) 중에 단지 위에 언급한 4개 현에만 1300여 명의 ‘위안부’가 있었다.

일본군이 해남도를 점령하는 동안 ‘위안부’로 충당시킨 여성들의 숫자는 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비명에 갔으며 다행히 살아남아 지금까지 살고있는 사람은 불과 수 십 명밖에 되지 않는다. 모진 세상의 풍파를 겪고 갖은 고생을 다한 이 여성들은 신체와 정신의 이중의 상처를 안은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4) 근대사자료편집부편, □근대사자료□ 103호, 북경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02, 3.

해남 경북(海南 遼北) ‘위안부’ 조사

호해영(胡海英)

설명 : 2000년 12월19일부터 28일 밤까지 필자와 후계방은 중국 ‘위안부’ 문제연구중심 조사인원으로서 해남성 정협 영도자의 배동하에 도시와 농촌에서 집집을 방문하며 60년 전 일제로부터 능욕과 유린과 참혹한 재앙의 근원이었던 ‘위안부’ 생존자를 찾아 나섰다. 우리들은 먼저 경북지구에 있는 안정현, 해구시, 경산시, 문창시, 등려현, 임고현, 둔창현, 경해시 등 8개의 시와 현을 돌아다니며 몇 명의 한족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를 찾았다. 본문은 당시 방문하여 채록한 기록을 정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며, 발표시에는 방문자의 실제 이름을 감추었다.

1. 임○○

1924년 나는 임고현 남보향에서 태어났다. 1941년 내 나이 17살 때, 일본놈들이 우리 집이 있는 남보향 송매촌으로 나를 찾아왔다. 당시 이문면이라고 부르는 국민당 중대장이 일본인을 돕는 앞잡이었다. 그의 수하에는 한 무리의 줄개들이 있어 일본인에게 전적으로 매달려 살았다. 이들 친일파 무리들은 촌으로 들어가 사람을 보기만 하면 잡아서, 촌민에게 촌안에 있는 누가 공산당원인지를 알아내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붙잡은 남자는 당장에서 총으로 쏘 죽었고, 잡은 여자들은 데리고 갔다. 나도 이렇게 그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었다. 당시 친일파들은 남보향에서 모두 7명의 여자를 붙잡아 갔는데, 그 중에서 2명은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한 명은 진회팔이라는 사람이고, 남보향 고도촌 사람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진

회삼이라 하는 사람이고, 구체적으로 그녀가 어느 촌에 살았는지는 현재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다만 당시 우리들의 연령차가 비슷하다는 것만은 기억하고 있다.

친일 앞잡이들은 우리 7명의 여자들을 붙잡아서 가래진의 임무경집으로 데리고 갔다. 임씨라는 자는 마찬가지로 일본의 앞잡이었다.

일본병사들은 가래비행장에 거점을 두고 사는 자들이었다. 당시 임무경의 집은 바로 일본 앞잡이들이 세운 임시위안소였다. 그들이 일본의 명령을 받들어 건립한 것이고, 또한 황군에 공경한다는 구실로 만든 것이었다. 우리 불행한 여인들은 매일 적어도 3, 4차례씩 윤간을 당해야 했다. 많을 때는 심지어 10여 차례나 당할 때도 있었다. 이곳에 와서 우리들을 유린하는 일본병들은 일을 벌일 때마다 콘돔을 사용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하면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듯했다. 그 때문인지 전문군의관들이 우리들의 몸을 검사하러 오지 않았다. 이들 일본놈들은 성욕이 일어나면 마치 야수와도 같았다. 그럴 때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위생같은 것에는 상관하지 않았다. 어떤 때 어떤 여인이 생리를 해도 그들은 상관없이 그들을 윤간했다. 백사현 남풍진에서 붙들려 온 어떤 한 여인은 일본군들의 윤간에 의해 인사불성이 되었던 적이 있던 일이 기억난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으로 알고 그녀를 끌고 가 폐기해 버렸는데, 그녀는 아마도 죽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아주 끔찍하기 짝이 없었다.

평상시 일본인들은 우리들을 몇 군데에 가두어 두었다. 그리고 우리를 강간하고 싶을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 씩 벽으로 쌓인 아주 작은 방안에 끌어들여 넣었다. 조그마한 방은 나무 판자로 막은 곳이었다. 바닥도 목판이 깔려 있었고, 목판 위에는 풀을 깔아놓았고, 일본인들은 우리를 그 풀 위에서 자게 하였다. 먹는 것은 더욱 처참하였다. 일본인들이 우리들에게 먹이라고 주는 것은 죽 비슷한 미탕(米湯)이었다. 반찬은 근본적으로 없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일본인과 일본 앞잡이들이 만든 마귀굴 같은 데서 아주 어렵게 반년을 넘게 지내야 했다. 이 생활은 실제로 참아내기 어려웠다. 그래서 언제나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었다. 어느날 저녁 서로 알고 있던 남보향의 우리 세 명은 일본병과 일본 앞잡이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깊은 밤 조용한 틈을 이용하여 지붕의 기와를 타고 그곳을 떠났는데, 지붕 위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도망을 쳐야 했다.

도망을 나온 후 우리 세명은 각각 자신들이 편한대로 동서로 갈라졌고, 나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막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의 몸은 일본놈들에게 유린당해 너무 쇠약해 있었다. 그래서 하체에서는 항상 흑색의 피덩어리가 한 덩어리씩 흘러 나왔다. 다행히 나의 아버지께서 어느 정도 의술에 대해 알고 계셔서 약초를 복용하자 차차 나의 병은 완쾌되었다. 병이 완쾌된 후에 나는 감히 집에서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었다. 일본놈들이 다시 나를 잡아갈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곳으로 가 유격대에 참가하게 되었다.

후에 나는 유격대 안에서 이송덕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결혼했다. 나는 이제부터는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시부모에게 알려 그들이 나의 과거를 알았고, 내가 아주 망나니질을 하는 여인으로 알고부터는, 앞으로든 과거와 같은 그런 짓을 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몰래 나를 남보향 순양촌의 한 촌민에게 팔아버렸으나 나는 끝까지 그들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담현에 있는 국영 서류농장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농장에서 생활해 가기 위해 나는 돈을 버는데 무슨 일이든 하며 살아야 했다. 나는 점차 농장에 있던 주아신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후에 나는 그에게 시집을 갔다. 나는 일본놈들에게 몸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다. 주아신과 결혼할 때 그는 4명의 아이를 데리고 왔다. 나는 어머니가 될 수 없었기에 일심으로 그의 자녀들을

보살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들이 성장한 후 나에게 대해서 그다지 좋게 대해주질 않았다는 사실이다. 1985년 나는 혼자서 그 농장으로부터 남보향으로 이사를 왔다. 돌아올 때 농장의 영도자가 나에게 400원을 주었다. 나는 이 돈을 이용해서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을 지었다.

어릴 때 나는 항일 유격대에 참가했었고, 만년에는 아들 딸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매달 60원의 연금을 주었고, 농장에서 매월 70원을 주었다. 나는 이 돈에 의지하여 살았고, 또 평상시에는 닭, 돼지, 개 등을 길러 팔아 약간의 돈을 보탬 수가 있어 근근히 하루 하루를 연명해 왔다.

나는 아이가 없지만 아이들을 아주 좋아하였다. 그래서 아이 갖기를 늘 생각해왔다. 결국 10여년전 나는 병원에 가서 버려진 여자 아이 셋을 데리고 와서 길렀다. 그중 하나는 중병에 걸렸으나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해 병사하고 말았다. 다른 한 아이는 우리의 생활이 아주 곤란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기르도록 하여 줘버렸다.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여자 아이는 이름이 임보향이고 급년에 12살이다. 현재 소학교 6학년이다. 그녀가 학교에 막 다닐 때는 학교에서 그해 학비를 면제해 주었는데, 후에는 학비를 내야했다. 나는 130원에 의지해서 생활해야 하고 거기에 닭, 돼지, 개 등을 팔아 번 돈으로 그 애를 학교 보내고 우리 두 사람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놈들은 나만을 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까지도 해를 끼쳤다. 그해 내가 도망쳐 나온 후 얼마되지 않아 이문면이 사람을 데리고 나를 잡으러 왔다. 그들은 내가 일본사람의 여자였던 것은 반드시 간첩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믿들어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내가 도망간 후에 그들은 나를 붙잡지 못하자 나의 어머니를 붙잡아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의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밖으로 의사 노릇을 하러 떠나는 바람에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 후에 아버지가 의사 일을 하는 도중 일본인에게 잡혔던 적이 있었지만, 혼란할 때 결국 석방되어 돌아올 수 있었다.

현재 나의 건강은 아주 안 좋다. 항상 머리가 멍하고 아프다. 아마도 내가 도망쳐 나올 때 일본인들에게 발각되어, 한편으로는 추적을 당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총을 쏘았는데 그 중 총탄 한 발이 나의 머리를 스쳐지나갔었지. 그 때문에 현재까지도 머리가 아픈 것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2, 채○○

나는 1927년 생이다. 나의 집은 경해시 용강진 빈탄촌이고, 현재는 경해시 가적진에 살고 있다. 일본인이 쳐들어오기 전에 나의 아버지는 남양으로 가서 돈벌이를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어머니는 집에서 우리 4남매를 데리고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나는 장녀였고, 아래에 두 여동생과 한 남동생이 있었다.

1929년 일본인이 해남에 쳐들어온 지 2년째 되는 해에 우리들이 사는 빈탄촌까지 왔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우리 4아이를 데리고 용강진 부근의 한 산 속에 가서 숨어 지냈다. 당시 산 속에 있던 작은 초가집은 우리 친척인 척탐건의 집이었다. 우리 식구 5명은 이 초가집의 작은 방에서 살았다. 그 해 2월부터 4월까지 계속해서 그 집에서 살았다. 이처럼 도피생활을 하던 중 평상시의 피로가 누적된 데다가 생활까지 아주 어려워 어머니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다. 이를 벗어날 방법이 없던 우리 식구들은 몰래 고향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병은 하루하루 점점 더 중해갔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때 우리 집

은 너무나 가난했고 돈이 없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고, 또한 보양을 해 드릴 돈도 없어 어머니는 병이 나신 지 10여일 후 결국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우리 4명은 용강진 중동촌에 사는 이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다.

일본인들이 촌에 들어온 후 얼마 되지 않아 당지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먹여살려야 한다면서 한집에서 한 사람씩을 데려 간다는 것이었다. 이모는 내가 적들의 손에 들어갈까 봐 걱정하여 나를 얼른 내가 어릴 때 이미 결혼하기로 정했던 용강진 풍양촌의 아주머니 집에 보내, 남편 되는 정유풍과 결혼을 시켰으니 그 때 내 나이 열 서너살이었다. 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생활을 잘 꾸려나갈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아주머니 집안에서는 나를 싫어하게 되었고 항상 나를 욕하고 꾸짖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이모집으로 돌아왔다. 남편 일가는 이로부터 다시는 나를 찾으려 오지 않았다.

후에 일본인들이 풍양촌에 와서 촌민의 양민증을 검사했다. 나는 이모집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머니 집안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양민증을 돌아와서 검사받으라고 인편에 말로 전해왔다. 나는 할 수 없이 양민증을 들고 일본군 석벽진 가덕양 포대가 있는 곳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악독한 일본놈들은 내가 너무 늦게 왔다는 구실로 나를 붙잡아 포대 안에 가두어버렸다. 기억에 당시 포대 안에는 모두 10여명이 함께 있었다.

우리들 중 한 여자가 있었는데, 소문에 그녀는 일본인이 그녀가 밭에서 일할 때 기회를 보아 붙잡았다고 했다. 이유는 그녀가 국민당과 내통한다는 의심이 들어서라고 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일본인은 그녀를 끌고 촌민들이 잘 안 오는 동굴로 끌고가 살해했다. 당시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해한 다음 일본인들은 흙으로 시체를 암매장했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인들이 우리를 강박하며 살고 있을 때 보았던 일들이다.

포대에 갇혀 있을 때 일본인은 대낮에는 우리들에게 일을 시켰고, 밤에는 모든 여성을 윗층으로 올라오게 하여 청소를 시켰는데, 사실은 우리들을 범하기 위한 구실이었다. 나는 제일 처음 일본 장교에게 강간당했다. 그는 주변에 있는 대만 통역을 통해 악랄한 이리처럼 나에게 말했다. "살래 죽을래? 만일 살고 싶으면 나에게 복종하라"고 했다. "만일 살고 싶지 않으면 당장에 나를 죽이겠다"고 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듣자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다. 이로부터 나는 끊이지 않고 일본병에게 유린을 당했다. 10여일 후에 비로소 당지의 보장(保長)에게 보호받으며 돌아왔다.

보호되어 돌아온 후 나는 이로부터 하루도 평안하게 지내지를 못했다. 일본인들은 내가 예쁘다며 항상 노동자라는 명의로 나를 붙들어 자기들 거처로 데리고 가 유린했다. 매번 나처럼 불행한 사람들은 당지의 5, 6명 여자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는 한 달 중 여러 차례 붙들려 갔다. 어떤 때 일본군은 일본 앞잡이에게 명을 내려 우리 집에 와서 대낮에도 하루 중 일 나를 유린했다. 이처럼 두려운 하루하루가 일년을 넘게 계속되었다.

후에 나는 그런 능욕을 참을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아주머니 집으로 도망을 갔다. 그러나 원래 나를 싫어했던 아주머니 집안 사람들은 내가 일본인에게 더럽혀졌다는 것을 안 후 더욱 나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었다. 그저 산 속으로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도망 나와 피해 사는 촌민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다. 한 선량한 아주머니가 나를 거두어 주었다.

일본놈들이 투항한 후에야 나는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다. 19세가 되던 해에 나는 석벽진의 장몽재에게 재가했다. 당시 장몽재는 국민당 단장의 잠무를 보고 있었다. 결혼 전에 그는 나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비록 전통적인 관념상의 속박하에서 그가 그리 원하는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의 집이 너무 가난하여 며느리를 얻을 수 없었고, 또 산 속에 피난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는 우리의 결혼에 응했던 것이다.

장몽재에게 결혼해 온 후 우리들의 생활은 그런대로 평안했다. 그러나 일본놈들에게 유린당한 후 나의 건강이 너무 안 좋아 전신이 아플 뿐만 아니라 생리 또한 매우 불순하여 현재 까지 나의 배와 허리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이러한 부인병 때문에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다.

해방 후에 나와 장부는 진(鎭)에서 작은 음식점을 열었다. 50년대 국가에서 회사를 만들어 함께 영업할 때까지 경영하다가 국가에서 만든 회사에 합쳐버렸다. 나의 남편은 회사 사원이 되었고 생활상의 문제는 기본상 해결되었다. 후에 내가 44살이 되던 해에 우리는 한 여자 아이를 양녀로 두었다. 이름이 장애추였다. 우리 부부 두 사람이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며 여자애를 크도록 길렀다.

몇 년전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현재 여자 아이도 시집을 가 일가를 이루어 조그만 상점을 하고 있다. 그런대로 살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녀와 사위는 나를 데리고 이곳에 왔다. 현재 그들은 나의 친 아이들처럼 나에게 아주 효성이 지극하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나에게 대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내가 받는 가장 큰 압박이다.

3. 채○○

1924년 나는 증령현 중흥진에서 태어났다. 1940년 일본인들이 우리 촌에 왔는데, 그 때 나의 나이 17세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들은 동네에 들어오자마자 여자만 보면 마치 미친 들 개처럼 큰 소리로 웃어댔다. 그런 후에는 아가씨들을 납치해서 은밀한 곳으로 데리고 가 그 짓을 시작했다. 어떤 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도 그 짓을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움을 몰랐다. 나 또한 그들의 그러한 망측한 짓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일본인들은 나를 붙잡아 동네 어구에 있는 언덕으로 끌고 가서 나를 강간했다. 더구나 3, 4명의 일본병이 윤간까지 했다. 인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들 일본병들은 근본적으로 처녀가 처음 당할 때의 아픔 같은 것은 신경조차 안 썼다. 그들의 행동은 그야말로 야수같았다. 사실 야수조차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윤간한 후에 일본인들은 나를 압박하여 나로 하여금 그들이 동네에서 빼앗은 쌀 등 기타 양식을 중흥진 복래촌에 있는 그들의 거점까지 운반토록 했다. 이 거점은 현재의 복래 소학교가 그 자리이다.

거점에 도착한 후 일본인들은 나를 가두어버렸다. 일본인들이 잡아서 가둔 사람들은 여러 사람 있었다. 대낮에 일본놈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거점을 둘러싸고 있는 2미터 깊이의 둥근형의 전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 속에 넣어 감시하였다. 저녁이 되면 우리들 여자들은 그들 성욕의 대상이 되었다. 매일 저녁 적어도 3, 4명의 일본병이 나를 폭행했다. 이러한 날이 반달 이상 지났다. 우리 집안사람들은 매우 초조하였다. 매일 나를 찾아서 지방 보장에게 가 나를 구해달라고 했다. 마침내 보장이 집 식구들의 청을 받아들여 나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다.

일단의 시간이 지난 후 일본인은 자신들의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양민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매 촌민들은 반드시 스스로 일본군의 거점에 가서 자기의 양민증을 가지고 와야 했다. 당시 나는 예뻐고 또한 풍만했기 때문에 양민증을 가지러 갔을 때 일본인들이 나를 놔주지 않는 것은 당연했다. 이 때 나는 또 7, 8일간을 붙잡혀 있어야 했다. 당시 내가 경험해야 했던 비참 정도는 처음보다 못지 않았다. 낮에는 힘들게 일

을 해야 했고 밤에는 야만스런 윤간을 당해야 했다. 이 때 나는 일본놈들의 학대에 의해 큰 병을 얻어 곧 죽을 정도가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비로소 보장의 청에 응하여 나를 집으로 데리고 가도록 허락했다.

후에 나는 휴양을 하였기에 조금 지나 회복할 수 있었다. 이 때 중흥진 인동촌의 유격대가 홍관영의 영도하에 용감하게 일본놈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격대들에게는 식량이 부족했다. 촌의 영도자가 나에게 양식을 운반하는 일을 책임지는 임무를 주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내가 쌀을 운반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교기령 주변의 길을 걸어오다가 일본군에게 잡히고 말았다. 그리고 이때 또 일본군에게 능욕을 당해야 했고, 붙들려 가기까지 했다. 보장은 일본인들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며 나를 풀어달라며 황군께서 은혜를 베풀어 나를 돌려보내 달라고 청했다. 왜냐하면 집에는 아직 어린 아이가 있는데 젖을 먹일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도 나는 3, 4일간 유린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풀려나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나는 전후해서 모두 일본인들에게 3차례나 붙들리게 되었다. 붙잡혀서 가둬진 날은 모두 한 달이 넘었다. 그들의 거점에 갇혀 있는 날들 동안, 대낮에는 일본인들이 우리 여자들을 압박하여 일을 시켰다. 예를 들면 전투하기 위한 호를 파게 했고, 그 호 안을 청소케 했으며, 그곳에 풀을 입히게 했다. 오후 3, 4시가 되면 여성 전부를 거점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의 윤간을 당해야 했다. 당시 의복과 약간의 말을 통해 판단하건대 우리들 끌려온 여자들은 모두가 해남인들 같았다. 일본인들은 우리를 작은 방안에 하나씩 가두어 놓고 일이 끝나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들의 몸을 씻게 하고 세탁을 하게 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일본인들은 우리를 굴 속으로 들여보내 잠을 재웠다. 먹는 것은 모두가 곰팡이 쓴 밥이나 반찬이었고 악취 나는 통조림 등이었다.

평상시에 일본인들은 우리를 심하게 때렸다. 조금이라도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으면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곤 하였다. 당시 내가 반항을 하자 일본인들은 이리처럼 나의 얼굴과 배를 두들겨 뒀다. 그리고 발로 나의 옆구리를 차기도 했다. 나의 허리는 일본놈들의 구둣발에 부상을 당해 지금까지 제대로 펴지를 못한다. 어릴 때도 길을 걸어갈 때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걸어야 했다. 그때 나의 백부 딸 채금화도 나와 똑같이 이런 일을 당했다. 어느 때인가 일본인이 계속해서 그녀를 윤간하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녀가 죽었을 때의 나이는 22, 3세였다. 우리들은 그러면서도 돈 한 푼 받지를 못했다. 연명하는 것조차 보장받을 수가 없는데 무슨 돈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일본인들이 투항한 후에 나는 현재의 남편 이명도에게(2000년 78세)에게 시집을 왔다. 그리고 아이를 셋을 낳았다. 나 이 늙은이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지, 저주스런 일이라면 자식들에게 면목이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현재까지 나는 감히 나의 이전의 일을 집안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다. 오늘 자네들이 와서 나에게 물어오니 비로소 집안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러나 그들은 나를 욕하지 않고 내가 과거의 일체의 일을 대담하게 말하는 것을 지지해 주었지.

나는 현재 정말로 일본놈들이 한스럽다. 만약 내가 그들을 다시 한번 본다면 나는 칼로 그들의 몸을 도려내어 소금에다 절이고 싶은 심정이네.

부록 3. 기타 해남일보 기사

1) 광고문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찾습니다.

정신대연구소에서는 해남도에 거주하고 계신 조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찾습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1994년부터 중국 전역을 조사하여 20여 명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찾아내었으며, 지금도 일본군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첫째, 피해자들의 증언이야말로 전쟁 당시 일제의 잔악한 침략상을 밝히는 가장 주요한 자료가 되고, 둘째,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확인되어야만 정당한 피해 보상과 사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진상을 파악하는 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 대책과 지원을 마련할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반듯이 비밀을 보장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나 피해자를 알고 계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되도록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도의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신흥매(해남도 삼아시), 휴대전화 : 13807512795

정신대연구소(서울) : 전화, 02-672-3304, 팩스, 02-672-3305, 신영숙 : 011-9067-0351

2) 남국도시보(南國都市報) 기사

(원문 기사와 번역 첨부)

本報 海口 2002년 10월 15일 (번역)

오늘 오전 7명의 한국과 일본의 전쟁피해자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본지에 방문하였다. 그들은 현재 해남에 거주하는 한국 “위안부” 중 다행히 생존해 있는 사람을 찾고자 하고 있다. 7명의 학자는 한국민간조직 정신대 연구소의 4명의 연구자와 일찍이 해남도에 먼저 와서 '위안부'문제를 조사하던 교수 한 명과 두명의 일본인 학자이다. 지난해 말부터 본보는 계속해서 해남도 '위안부'와 관련된 상황 보도를 진행했다. 이 보도를 보고 학자들이 본지를 찾아와 '위안부'들의 연락처를 찾기를 희망했다. 정신대 연구소의 신영숙(申榮淑)씨는 통역을 통해 기자에게 말하기를 이 연구소는 1994년에 시작되어 지금 중국 각지에 다행히 생존해 있는 한국인 '위안부'를 찾는 작업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으면 본지로 연락을 바란다. 15일 오후에 본보 기자가 있는 곳에서 韓日 학자들은 海口老城區를 찾아가 해남도 위안소유적지를 방문했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정보가 있으면 도와 달라고 하였다. 학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시민들에게 열성적으로 문의를 했다. 그리고 열심히 도와주는 시민들에게 학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중국어로 반복해서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3) 해남경비부 부대병력 배치도 (1944년 6월 전시일지
첨부 지도)

4부. 후속 작업 보고 및 제언

I. 후속 작업 내용

1. 중국동북부

1) 중국 동북부 광고 등에 의한 신고에 대한 추가 조사 건

다른 중국 지역도 그러하지만 특히 조선족이 많은 중국동북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신문광고를 내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외국인의 광고에 대한 경계가 있고 이 문제는 특히 민족과 관련되는 것이어서 중국 현지인의 광고처럼 하였다. 내용도 대폭 수정하여 현지에 무리가 없도록 처리되었다.

중국 동북부 신문 [연변일보]와 [흑룡강신문] 광고의 경우는 생존자에 대한 정보는 없었고 사망한 분들과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분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현지 연구자를 통해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현재 월간지 [연변여성] 10월호에 광고를 실었다. 조정하여 한면 광고를 신기로 하였으나 책임을 저 주기로 한 분이 한국에 나와 있을 동안 이미 처음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전면광고를 하지 못하고 하단 광고로 나가게 되었다.

* 중국 신문잡지 광고

일간지 [연변일보] 2002. 8. 5 일자 2면

2002. 8. 12 일자 2면 하단 박스광고

[흑룡강신문] 2002. 8. 22 일자 4면

2002. 8. 23 일자 4면

월 간 [연변여성] 2002. 10월호 13면

사진 연변일보(2002. 8. 12 일자 2면 하단)에 실린 광고

[연변여성]은 연변지역 이외 중국 동북부 나아가 외국에까지 나가는 꽤 영향력 있는 잡지라고 한다. 하지만 월간 [연변여성] 10월호 광고에 대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잡지는 계속 돌려 읽는다고 하니 앞으로 신고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

11월 18일-21일까지 본 연구소 고혜정연구원이 이 지역 생존할머니를 찾아 뵙고 서울여자대학교의 지원금을 전달하였으며 아래의 제보 내용과 앞으로의 연결망 강화를 위해 연변대학 민족연구원 박금혜 교수를 만났다. 앞으로 좀 더 넓게 좀 더 자세한 조사와 정보 수집을 기대해 본다.(3) 참고

제보내용: 아래 제보 내용의 일차적 검토는 하였으나 정확한 생존자 정보가 없어 일단 세밀

한 조사는 현지연구자에게 의뢰해 둔 상황이다.

- ① 영구의 최양순할머니-작년 본 연구소에서 조사하였으나 다시 조사해 주기를 할머니의 친척동생으로부터 요청받았다. 하지만 아직 재조사 못하였다.
- ② 연길의 현성록씨 제보
예전에 이웃할머니와 함께 길을 가다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확인작업을 통해 그 이웃할머니 집까지 확인은 되었으나 피해자로 추정되는 할머니는 사망하였다는 이야기이다.
- ③ 흑룡강 신문에서의 하얼빈 부근 사망자에 대한 제보
흑룡강신문 기사를 보고 제보. 구체적 내용은 아직 미확인하였다.
- ④ 양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중복 여부 확인작업요: 이수단할머니?
- ⑤ 한국 대전 거주 김복동할머니 동생(사망)
중국에 있는 아들이 김복동할머니에 대한 이런저런 요청이 있어 허현주교수가 연구소에 제보하여 확인하였으나 이미 본인은 사망한 후였다. 의도가 불명하여 직접 접촉하지는 않고 엄관빈선생 등 다른 분을 통해 확인하였다.
- ⑥ 심양 홍순옥할머니(90세)한국에 나와 있는 이웃 사람 김화숙씨에 의해 신고전화
관련 당사자에 대한 연락처를 아직 제공하지 않았다. 때문에 아직 기초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신고자의 제보에 의하면 할머니에게 자식이 있으나 고향을 찾겠다는 이야기 이외 다른 과거는 일체 비밀로 하고 있어 군'위안부' 피해자가 아닌가 추측하게 되었다고 한다.

2) 연결망 형성

생존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던 작년까지의 성과는 중국 동북부 지역만이 아니라 북경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항상적인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생존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내로 즉각 전달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생존자에 대한 정보를 장기간 제보해 줄 인적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연변대와 대련대, 그리고 유학생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 [연변일보] [흑룡강신문] [연변여성] 등 언론기관에도 협조 관계를 요청하였다. 연구소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경우 연변대학 민족연구원, 연변역사연구소, 연변 박물관 등 연구자들과 그리고 연변 婦聯 연락하여 간담회 형식의 만남을 주선하고 이를 기사화하는 작업도 요청해 둔 상황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본 연구소 연구원 한명이 이 지역에서 1년간 있을 예정이므로 이를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조사도 좀더 심화할 예정이다.

3)중국 동북지역 피해자 생활지원 및 신고정보확인 작업

조사자: 고태정 (동행 엄관빈선생)

기간: 2002년 11월 18일-21일

목적: 이광자, 박서운, 김순옥, 이수단 할머니 방문, 생활지원금 전달 및 연변대학 교수 면담 지역: 길림성, 훈춘, 춘화/ 흑룡강성 동녕, 도하

*할머니 상태

-이광자할머니(길림성 훈춘)

원래 흑룡강성 동녕현 고안촌에 살고계셨으나, 현재는 병으로 혼툰 아들 집에 와계신다. 동맥경화와 가벼운 풍; 얼마전까지는 헛소리를 하시고, 오른쪽 다리도 많이 부어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붓기가 거의 빠진 상태다. 피가 잘 통하지 않아 다리가 차갑다. 병원에 입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지금은 집에서 약을 쓰고 있다. 침대에서 거의 종일 누워계신다. 일어나 걷지 못하시는 형편.

며느리가 식당에 나가 일을 하고, 아들은 집에서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

-박서운할머니(길림성 춘화);

지난 해 여름보다 얼굴은 많이 좋아지셨다. 우리가 드리는 지원금 덕택에 약을 쓰고 주사도 잡아 좋아지셨다고 고마워하신다.

-김순옥할머니(흑룡강성 동녕);

한 해 사이 좀 늙으셨지만, 아직도 기력은 괜찮으시다.

-이수단할머니(흑룡강성 동녕현 도하리);

지금까지는 고생만 해왔지만, 늙으막에 호강이라는 말씀을 하신다. 여전히 지원금 받으시는 걸 사양하시고, 고마워하신다. 돈은 잘 저축을 해놓고, 가끔 과자나 먹을 것을 사다 먹는다고 하신다. 원래 업살이 없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아무데도 아픈데 없고 건강하다고 긍정적인 말씀만 하신다. 우리말을 못해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까우시다.

* 연변대 민족연구소 박금해교수 면담

-광고가 나가고 몇 건의 제보가 있었으나 모두 사망한 분에 관한 제보였다.

-추후 신고가 있을 때 조사를 해주고, 혼춘의 이광자할머니 등을 만나뵙기로 약속을 했다.

앞으로의 추가 조사 작업과 자료 교환등을 약속하고, 일단 조사비 명목으로 약간의 비용을 남겼다.

-연구소에서도 '위안부'문제에 관한 연변 지역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자료 등을 보내주기로 했다.

*피해자 생활비 지원에 대한 과제

-지원금 전달 방식; 두달에 한 번 정도 신뢰할 수 있는 현지인을 통해 전해드리는 방법을 고려하는 게 어떨지---

-한몫에 많은 돈이 전달되니, 박서운, 이광자할머니 등은 효과적으로 그 돈을 쓰시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2. 雲南省

2001년 조사한 운남성은 중국인 유학생 朱煒씨가 8월 保山을 방문하여 작년에 같이 조사에 참가한 진조량선생을 만났다. 이후 생존자 발견상황을 확인하였으나 아직 소식이 없다고 하였다. 운남성 위안소 상황에 대해 쓴 자신의 글을 모아 책을 출판한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생존자 찾는 작업과 연구에 도움을 요청해 두었다. 이외 현지 유학생과 운남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홍보사업을 할 예정이다.

3. 무한 인근 지역

* 무한 지역도 서울여자치과의사회 지원금을, 귀향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통해 7월 상순 하상숙, 백넙데기, 김의경할머니께 전달하였다. 중국인을 통해 할머니 생활비를 전달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며날 당시 발을 다친 상태였는데도 기꺼이 부탁을 받아 그 넓은 무한과

그 인근의 할머니 세분을 찾았다. 하상숙할머니의 건강한 삶의 태도와 다른 할머니의 중국인과 진배없는 생활을 보았고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느끼게 되었다고 뿌듯해 하였다.

* 올해 7월 말 본 연구소가 하상숙(군자)할머니 친척을 찾아 연락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관련단체에선 친척들의 중국방문과 할머니의 고국방문 건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금은 내년 3월로 친척방문이 미뤄진 상황이다. 북한국적의 하상숙할머니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관련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4. 북경지역

유혜정 연구원이 북경을 들린 것을 기화로 배삼엽할머니께 지원금을 전달하였다. 배삼엽 할머니를 통해 찾아갈 수 있는 이귀녀 할머니는 찾아 뵙지 못하였다. 그리고 할머니는 추가 제보의 가능성 흘렸지만 기어이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전에 한국인과의 접촉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상처를 입었던 까닭인지 후유증의 일종인지 모르지만 사람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국적회복문제 등에 있어서 어려움도 이러한 태도를 강화하는 것 같다.

5. 상해지역

서울여자치과의사회 지원금을 귀향하는 중국인 유학생 朱煒씨를 통해 박우덕, 현명숙할머니께 전달하였다. 상해 사범대학교 소지량교수와의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외지로 출타 중이어서 만나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소지량교수와의 연락은 여러 선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상해 복단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태영교수와의 연락관계를 가지고 생존자 및 위안소, '위안부' 상황 등에 대한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행히 올해는 큰 지출없이 작년에 방문하였던 중국의 생존자 중 산동성 주왕의 박대임할머니를 제외하곤 모두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게 되었다.

II. 이후 과제

1. 생존자에 대한 대응

<표 중국 거주 생존자 명단>

거주지	이름	나이	국적	언어
흑룡강성 동녕	김순옥	81	중국	한국어
"	이광자	75	중국	한국어
"	이수단	81	중국	중국/한국어 다 서툰
길림성 춘화	박서운	85	중국	한국어
흑룡강성 묵릉	박옥선	79	중국	한국어
베이징	배삼엽	78	중국	중국/한국어 다 가능
"	이귀녀	77	중국	중국/한국어 다 가능
호북성 무한	하군자	75	북한국적	중국/한국어 서툰
"	김의경	85	북한국적	중국어
호북성 세코	백넙테기	81	무국적	중국어
상해	현명숙	86	중국	한국어
"	박우덕	84	중국	한국어
산동성 주왕	박대임	91	중국	중국/한국어 서툰

현 해외 생존자에게 아주 가슴아픈 일 중의 하나는 호적에서 아예 자신의 이름이 지워져 있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호적 회복은 재판이 요구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한다. 호적이 정정되지 않으면 고국방문을 할 수 있는 친척들에 의한 초청도 불가능하다.

생존자의 기억이 선명하여 호적을 찾을 수 있을 경우에는 친척 찾기가 그 다음의 사업이다. 친척 찾기가 성공하면 친척의 초청에 의해 고국방문이 성사될 수 있다. 하지만 친척이 초청할 의사가 없으면 관련단체의 노력이나 관련기관의 배려가 필요하다

북한 국적의 하상숙(군자)할머니는 아직 한국방문을 하지 못하였다. 북한 국적의 대구 출신 조은옥 할머니는 국적회복을 시도하다가 결국 돌아가셨다. 하상숙 할머니도 단순방문 이상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60년 이상의 세월을 중국에서 지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북한 국적에서의 남한국적으로 회복이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중국국적에서 한국국적으로의 변경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현재 배삼엽할머니 몇분의 할머니가 시도하고 있지만 몇 년간 진척이 없다.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지역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우선적으로, 현재는 서울여차치과의사회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비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전달방식에 어려움이 있다. 즉 전달자의 여행경비가 생존자에 대한 지원비만큼 되는 문제, 단번에 많은 돈이 지원될 경우 할머니 친족이나 이웃에 의해 잘못되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선 유학생을 동원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

2. 앞으로의 조사 및 정보 수집방향

1) 지역적으로 확대의 필요성

이번 해남도 조사는 좀더 일찍 하지 못한 점과 한번밖에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빼고는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는 아시아권 전역에서 반듯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버어마지역에 대해선 모리카와씨(森川万智子)(문옥주할머니 관련 저서[口文玉珠 - ビルマ戦線楯師團「慰安婦」だった私口, 梨の木舎, 1996]의 저자)의 도움이 중요하다. 버어마에서 1년 이상의 거주를 통한 조사에 대해서도 그 내용과 결과를 받을 수 있다면 현지의 생존자 조사의 가능성과 조사정보를 공유해 낼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초청강연이나 간담회, 원고 청탁 등을 통해 버어마 사정에 대한 일차적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괌도 조사의 필요성이 일단 우선적으로 있는 지역이다. 과거 현재 모두 미국령이다. 일본 점령기에 한국인 피해자의 생존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되는 지역이며 미국 지역이므로 현재 피해자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 지역이다.

2) 일본인 전군인의 증언채록의 필요성

일본 본토 각지에 있는 전 일본군인증언 채록이 필요하다. 사실규명에 있어 피해자 증언, 가해자 및 주민 등 제3자의 증언, 문헌자료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갖춰질 수만 있으면 최상급의 증거가 될 수 있다.

3) 한국인 생존자들의 증언채록의 필요성

한국의 전일본군인 혹은 군속 군부 등 생존자에 대한 증언채록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증언이다. 군‘위안부’에 대해서도, 자신이 일제 강점기 강제연행 피해자라는 이중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급히 이들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여 진상규명과 이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증언해 준다는 면에서 보면 이들은 일본인에 비해 직위 계급 나이 등에서 결정권에 더 먼 상태였지만 가까이 있고 이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측면이 많으므로 적절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다고 본다.

4) 기초적 문헌조사 필요성

현지조사라 하더라도 당시 동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던 일본군, 일제 침략상에 대한 자료가 한국에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 등지의 기초적 자료 조사를 비중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5) 지속적인 후속작업의 필요성

작년과 올해 조사작업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관련지역에는 생존자 조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생존자가 차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생존자가 나올 경우는 물론이고 작년 생존자 조사시 부정하였던 할머니를 재차 조사해 주기를 요청해 오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3. 홍보 비디오 제작의 필요성

항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사진전도 가능하지만 영상매체가 위력을 발휘하는 시기이므로 가능하다면 비디오 제작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대한 제작의도와 이용방법 안내문 작성 등 통하여 연구자는 연구자료로, 학생들에게는 교육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본군 성노예 진상규명에 대한 관심과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고양을 꾀할 필요가 있다.